

고구려발해학회 제18회 국제학술대회

# 고구려 중기 국제관계



- 주최 : (사)고구려발해학회
-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 일시 : 2012년 8월 24일(금)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제1강의실

## 인사의 글

고구려발해학회는 고구려와 발해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북방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회로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매년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의 일환으로 고구려 중기의 국제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역사적 진실의 문제가 중요한 시기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 일본은 영토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정치적 힘의 논리가 동아시아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토주권과 역사주권의 문제가 분별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학회가 객관적 진실의 중요성을 깨닫는 조그만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8차로 이어지는 올해의 국제학술대회는 고구려 광개토왕이 서거하신지 16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장수왕이 즉위한지 16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학술대회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몇 차례의 큰 학술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광개토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을 반성하고 우리 학회는 당시의 시대상을 국제관계라는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살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고구려사는 다른 분야보다도 학문외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학자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준비하였지만 학회 사정상 몇 분만을 모시게 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회가 더욱 분발하여 명실상부한 국제학술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실 분들께서 모두 중요한 점을 짚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물심양면으로 학회를 도와주신 이강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학회 임원, 회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성사되도록 후원해 주신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12년 8월 24일

고구려발해학회 회장     한   규   철   올림

## 차 례

◆ 개회 및 등록(9:30~10:00)

개회인사 : 한규철 고구려발해학회 회장

◆ 오전발표

사회 : 김희찬(경희대학교)

1. 4~5세기 고구려의 남방진출과 대신라 관계(10:00~10:50)

발표 : 장창은(국민대학교) / 토론 : 김병곤(동국대학교)

2. 4-5세기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10:50~11:40)

발표 : 정재윤(공주대학교) / 토론 : 박찬규(단국대학교)

3. 570년대의 고구려의 對倭외교와 고구려·백제 관계(11:40~12:30)

-신출 '褻遺業墓誌'의 검토를 중심으로-

발표 : 井上直樹(교토府立大) / 토론 : 이성제(동북아연구재단)

◆ 점심시간 12:30~13:30

◆ 오후발표

사회 : 박승범(단국대학교)

4. 3~5세기 동북아 여러 민족 . 정권의 관계 연구(13:30~14:20)

-고구려 중기의 역사를 중심으로-

발표 : 孫泓(중국) / 토론 : 공석구(한밭대학교)

5. 413년 고구려의 對東晉使 파견과 그 배경(14:20~15:10)

발표 : 김진한(한국학중앙연구원) / 토론 : 강선(숙명여대)

◆ 휴식 15:10~15:20

6. 고구려 중기 對遼東관계와 요동지역 벽화분 전통의 단절에 관한 試論  
(15:20~16:10)

발표 : 조우연(인하대학교) / 토론 : 전호태(울산대학교)

7. 5~6세기 고구려와 중국고분의 건축과 장식의 기능과 관계(16:10~17:00)

발표 : 박아림(숙명여대) / 토론 : 김진순(문화재청)

◆ 종합토론(17:00~18:00)

좌장 : 정운용(고려대학교)

## 4~5世紀 高句麗의 南方進出과 對新羅 關係

張彰恩(국민대학교)

I. 머리말	IV. 5세기 중·후반 고구려의 남진양상과 대신라 공방전의 전개
II. 4세기 후반 廣開土王의 南征과 대신라 우호관계의 구축	V. 맺음말
III. 5세기 전반~중반 고구려의 國原 진출과 대신라 우호관계의 이완	

### I. 머리말

고구려사에서 4~5세기는 최전성기로 일컬어지는 廣開土王(391~412)·長壽王(413~491)·文咨明王代(491~519)에 해당한다. 고구려가 이 시기 비약적인 영역확장을 추구하고 실현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당시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복잡다기한 양상이었다. 곧 북중국은 고구려와 우호적이었던 前秦이 394년에 멸망한 후 後燕(384~409)-北燕(409~436)-北魏(386~534)가 차례로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갈등과 우호를 반복하였다. 고구려는 북위를 견제하기 위해 南朝의 宋(420~479)-齊(479~502)-梁(502~557)은 물론이고 漠北의 柔然과도 교류하였다.<sup>1)</sup> 이 시기 고구려의 남쪽에 백제와 신라가 위치해 있었는데, 백제와는 369년 이후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따라서 고구려 중기 영역확장의 지향점은 국제관계의 역학구도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기왕에 이에 대해 ‘西進論’ 또는 ‘南進論’이라는 관점에서 정리된 바 있다.<sup>2)</sup> 이것은 「廣開土王陵碑」의 정복지역이라는 지 427년 단행된 평양천도의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지에 따른 결과이기도 했다.

광개토왕의 영역적 지향과 평양천도의 배경이 남방진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지라도, 광개토왕-문자명왕대 대외관계의 중요 변수가 백제·신라와의 관계임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4~5세기 국제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고구려 남방 진출사는 정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4~5세기 고구려 남방정책은 숙적 백제와의 맞대결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었다. 고구려 입장에서 신라는 그것을 위한 종속적 변수에 불과했다. 그런데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국력은 열세였지만 두 나라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신라는 이를 극대화하면서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 백제를 견제하는가 하면, 백제와 함께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기도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통치체제의 정비와 독자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고기에 이르러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신라사의 입장에서 4~5세기 고구려와의 관계는 단순한 대외관계의 차원이 아닌 신라 국가의 발전과 밀접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이 시기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살핀 연구는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sup>3)</sup> 그 결과 4세기 말 신라가 고구려에 종속되어 가는 과정, 광개토왕의 南征과 실성왕~

1) 고구려와 남북조의 교섭상황은 金鍾完, 『中國南北朝史研究』, 一潮閣, 1995, 81~82쪽 ‘南北朝時代 中外交渉表’ 참조.

2) 盧重國, 「高句麗對外關係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東方學志』 49,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1985, 306~309쪽.

3) 고구려·신라 관계를 전론으로 살핀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눌지왕대 신라 내정에 간섭하는 모습, 장수왕의 남진과 이에 대응하는 羅濟同盟의 양상, 5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와 신라가 대립하는 모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제고될 수 있었다. 특히 「中原高句麗碑」(이하 중원비)의 검토와 고구려계 유물·유적의 지속적인 발굴성고가 축적되면서 고구려의 남진범위와 실상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구성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쟁점과 연구상 미진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몇 가지 쟁점만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개토왕의 남진범위’이다. 특히 永樂 6년(396) 공취한 58城의 위치에 대해 예성강 이남~한강 이북으로 보는 견해와, 남한강 상류까지를 포함하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둘째, ‘고구려의 國原 진출시기’이다. 400년 신라 구원전 전후 충주에 진출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475년 백제 漢城 공략 이후로 보는 견해로 대별된다. 이것은 「중원비」의 내용 및 건립연대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셋째, ‘신라의 고구려세력 축출시기’이다. 『삼국사기』에 따라 5세기 중반 두 나라의 관계가 대립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지만, 완전한 축출시기는 『日本書紀』 雄略天皇 8년(464) 2월조의 신라 왕경 주둔 고구려군의 몰살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연구자 간 견해 차이가 크다. 넷째, 『삼국사기』 지리지 소재 ‘高句麗故地’의 신빙성 문제이다. ‘고구려고지’를 통일신라시대 ‘一統三韓’ 의식의 산물로 보아 역사성을 부정하기도 하고, 반대로 고구려지배의 산물로 보기도 한다. ‘고구려고지’를 신빙하는 경우에도 영역지배인지 아닌지, 지배의 범위와 시기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고구려의 남진범위와 대신라 영역향방을 가늠해주는 지침이 될 것이다.

기왕의 연구는 관계사적 측면에서 꾸준한 연구의 진전을 이루었지만 고구려의 대신라 영역

- 
- 李道學, 「高句麗의 洛東江流域進出과 新羅-伽倻 經營」, 『國學研究』 2, 國學研究所, 1988a :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광개토왕릉비문을 통한 고구려사-』, 서경, 2006.
- 李道學, 「永樂 6年 廣開土王의 南征과 國原城」, 『孫寶基博士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知識產業社, 1988b : 위의 책, 2006.
- 金貞培, 「고구려와 신라의 영역문제」, 『韓國史研究』 61-62, 韓國史硏究會, 1988 :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신서원, 2000.
- 鄭雲龍, 「5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 『史叢』 35, 高大史學會, 1989.
- 徐榮一, 「5~6世紀 高句麗 東南境 考察」, 『史學志』 24, 檀國大學校 史學會, 1991.
- 鄭雲龍, 「5~6世紀 新羅 高句麗 關係의 推移-遺蹟 遺物의 解釋과 關聯하여-」, 『新羅의 對外關係史 研究』(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5), 新羅文化宣揚會, 1994.
- 盧泰敦,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고구려관계 기사 검토」, 『慶州史學』 16, 慶州史學會, 1997.
- 우선정, 「麻立干時期 新羅의 對高句麗 關係」, 『慶北史學』 23, 慶北史學會, 2000.
- 林起煥, 「中原高句麗碑를 통해 본 高句麗와 新羅의 關係」, 『中原高句麗碑 研究』(高句麗研究 10), 學研文化社, 2000.
- 徐榮一, 「廣開土太王代 高句麗와 新羅의 關係」, 『廣開土太王과 高句麗 南進政策』(高句麗硏究會 編), 學研文化社, 2002.
- 李明植, 「5세기 新羅의 對高句麗關係」, 『大丘史學』 69, 大丘史學會, 2002.
- 張彰恩, 「신라 訥祗王代 고구려세력의 축출과 그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33, 한국고대사학회, 2004a : 『신라 상고기 정치변동과 고구려 관계』, 신서원, 2008.
- 張彰恩, 「新羅 慈悲~炤知王代 築城-交戰地域의 검토와 그 의미-소백산맥 일대 신라고구려의 영역향방과 관련하여-」, 『新羅史學報』 2, 新羅史學會, 2004b : 위의 책.
- 朱甫墩, 「5세기 高句麗-新羅와 倭의 關係」, 『왜5왕 문제와 한일관계』(한일관계사연구논집 2), 景仁文化社, 2005.
- 張彰恩, 「3~5世紀 高句麗-新羅 關係의 戰爭史의 推移」, 『高句麗研究』 24, 高句麗硏究會, 2006.
- 朱甫墩, 「5~6세기 중엽 高句麗와 新羅의 關係-신라의 漢江流域 진출과 관련하여-」, 『北方史論叢』 11, 高句麗硏究會, 2006.
- 張彰恩, 「新羅 智證王의 執權과 對高句麗 防衛體系의 확립」, 『韓國古代史研究』 45, 2007 : 위의 책.
- 朴京哲, 「麗羅戰爭史의 再檢討」, 『韓國史學報』 26, 高麗史學會, 2007.

향방 및 남방진출 경로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면이 있다.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 간 벌어졌던 468년의 悉直城 전투와 481년 狐鳴城과 泥河에서의 각축전 등에 대해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여기에는 각종 지명의 정확한 위치비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구려 중기 신라와의 관계양상 및 고구려의 남방진출 경로를 추적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4세기 말~5세기 초반 광개토왕의 남정과 그로 인해 고구려 우위로 구축된 신라와의 우호관계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특히 광개토왕의 남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장수왕대 전반기인 5세기 전반~중반 대신라 관계의 추이 속에서 고구려의 國原 진출시기를 추적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분분한 「중원비」의 내용 및 건립연대에 대한 입장과 충주지역의 고고학 자료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이 제시될 것이다. IV장에서는 신라가 고구려세력을 소백산맥 이북으로 축출한 이후, 장수왕이 보복전으로서 남진하는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여기서는 각종 지명에 대한 위치비정을 통하여 고구려의 남진경로 및 신라의 방어체제를 입체적으로 부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자명왕대의 남진양상과 신라의 방어체제 완비에 따라 그것이 교착되는 모습을 살피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하여 고구려 중기 남방진출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의 제고에 디딤돌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 II. 4세기 후반 廣開土王의 南征과 대신라 우호관계의 구축

### 1. 고구려·신라의 제후와 그 배경

삼국은 그들 사이에 완충역할을 했던 樂浪郡과 帶方郡이 4세기 초반 한반도에서 축출되면서 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 고구려와 백제는 그것이 대립적 분위기로 출발했고, 반면에 고구려와 신라는 우호적인 관계로 추구되었다.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를 자국에 끌어들이므로써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 애썼다. 신라에 먼저 우호적 손길을 내민 것은 백제였다. 곧 백제 近肖古王(346~375)은 고구려와의 전쟁을 목전에 둔 366년과 368년 두 차례에 걸쳐 신라에 사신을 파견해[<표 1>의 연번 1~2, 이하 연번만 표기].<sup>4)</sup> 화친을 도모하였다. 이후 고구려와 백제는 369년과 371년에 예성강 유역에서 두 차례의 交戰을 벌였는데, 고구려의 패배로 귀착되었다. 급기야 고구려 故國原王은 371년 平壤城에서 근초고왕 父子의 침입을 맞아 싸우다가 전사하였다[3~5]. 말하자면 신라와의 제후로 인해 배후의 안정을 담보한 백제가 고구려와의 첫 교전에서 기선을 제압한 셈이었다.

<표 1> 4~5세기 三國의 상호관계와 영역향방 좌표[축성·전쟁·순행]

연번	연대				행위주체	내용	경과	전거	비고
	서기년	각국 왕 재위년							
		고구려	백제	신라					
1	366	故國原王 36	近肖古王 21	奈勿王 11	백→신	사신 파견	3월 禮訪함	백본 신본	
2	368	38	23	13	백→신	사신 파견	봄 좋은 말 2필을 줌	백본 신본	
3	369	39	24	14	고→백	전쟁	9월 고국원왕 2만군 雉壤 친정, 태자 근구수에게 패배	고본 백본	麗濟 첫 교전

4) 이하 본문 서술시 <표 1>의 내용에 근거하며, 이에 자세한 전거는 생략한다.

4	371	41	26	16	고→백	전쟁	고구려가 침입하자 백제가 溟河에 매복해 물리침	백본		
5					백→고	전쟁	겨울 근초고왕 3만군으로 平壤城 친정, 고국원왕 전사, 백제 회군	고본 백본		
6	373	小獸林王 3	28	18	백제	축성	7월 靑木嶺	백본	백제 禿山城主 3백 명과 신라 귀부	
7	375	5	30	20	고→백	전쟁	7월 고구려가 백제 북변 水谷城 함락	고본 백본		
8	376	6	近仇首王 2	21	고→백	전쟁	11월 백제 북변 침입	고본 백본		
9	377	7	3	22	백→고	전쟁	10월 근구수 3만군으로 平壤城 친정, 11월 고구려 백제 공격	고본 백본		
10	386	故國壤王 3	辰斯王 2	31	백제	축성	봄에 靑木嶺 북쪽으로 八坤城, 서쪽으로 바다까지 關防 구축	백본		
11					고→백	전쟁	8월 고구려가 백제 침략	고본 백본		
12	387	4	3	32	말→백	전쟁	9월 關彌嶺에서 말갈과 교전, 백제 패배	백본		
13	389	6	5	34	백→고	전쟁	9월 고구려 남변 부락을 약탈하고 회군	고본 백본		
14	390	7	6	35	백→고	전쟁	9월 달솔 진가모가 都坤城 함락, 2백 명 포획 후 회군	고본 백본	고본 都押城으로 나눔	
15					백제	순행	10월 왕이 狗原에서 사냥, 7일 만에 귀환			
16	391	8	7	36	말→백	전쟁	4월 말갈이 백제 북변 赤規城 함락	백본		
17					백제	순행	7~8월 각각 西海大島와 橫岳에서 사냥함	백본		
18	392	廣開土王 2	9	8	37	고→신	사신 파견	정월 신라가 實聖을 인질로 고구려에 보냄	고본 신본	고본 391년조에 기술
19						고→백	전쟁	7월 광개토왕이 4만군으로 친정, 백제 북변의 石峴城 등 10성 함락.	고본 백본	고본 391년조에 기술. 「광개토왕릉비」 永樂 6년(396)조에 기술.
20						고→백	전쟁	10월 광개토왕 친정, 20일 만에 關彌城 함락	고본 백본	
21						백제	순행	10월 진사왕 狗原에서 사냥하다가 11월 行宮에서 죽음	백본	
22	393	3	阿莘王 2	38	백→고	전쟁	8월 좌장 眞武 1만군으로 關彌城 포위, 보급 문제로 회군	고본 백본		
23	394	4	3	39	백→고	전쟁	7월 백제가 고구려 水谷城 침입, 광개토왕 5천 기병으로 맞아 승리	고본 백본		
24					고구려	축성	8월 나라 남쪽에 7성을 쌓아 백제에 대비	고본		
25	395	5	4	40	백→고	전쟁	8월 좌장 진무 출격, 溟水에서 광개토왕에 패해 8천 명 죽음	고본 백본		
26					말→신	전쟁	8월 말갈이 신라 북변 침입, 悉直原에서 신라 승리	신본		
27					백→고	전쟁	11월 아신왕 7천군으로 친정, 靑木嶺에 주둔하다 회군, 漢山城에서 군사 위로	백본		
28	396	6	5	41	고→백	전쟁	關彌城·阿旦城·彌鄒城·古牟婁城 등 58성 700촌을 깨뜨리고 백제 현성 공략. 아신왕의 항복을 받고 포로 1천 명과 세포 1천 필을 포획하여 회군	릉비	「릉비」 영락 6년조에 『삼국사기』 392~296년조가 압축 기술	
29	397	7	6	42	백제	열병	7월 漢水 남쪽에서 거행	백본	倭國에 태자 腆支를 인질로 보냄	
30	398	8	7	43	백제	축성	3월 雙規城 축성	백본		
31					백제	순행	8월 고구려 정벌 차 漢山 북쪽에 행차, 중지	백본		
32	399~400	9	8	44	백·왜→신	전쟁	백제가 고구려와의 약속을 어기고 倭와 화통. 왜군이 신라에 쳐들어오자 5만 步騎를 보내 왜병 격퇴	릉비		
33	402	12	11	實聖王 1	백제	순행	여름 왕이 橫岳에서 제사지내 가뭄 해소	백본		
34	403	13	12	2	백→신	전쟁	7월 신라 변경에 침입	백본 신본		
35	408	18	腆支王 4	7	고구려	축성	7월 나라 동쪽에 禿山 등 6성 쌓고 平양의 民戶 사민	고본		
36					고구려	순행	8월 왕이 남쪽으로 순행	고본		
37	412	長壽王 1	8	11	신→고	인질 파견	나물왕의 아들 卜好를 고구려에 인질로 파견	신본	복호 425년 귀환	
38	417	5	13	訥祗王 1	백제	축성	7월 東部北部人 15세 이상 징발 沙口城 축성	백본		

39	424	12	久爾辛王 4	8	신→고	사신 과견	2월 예방함. 장수왕이 신라 사신단 특별 위로함	고본 신본	
40	433	21	毗有王 7	17	백→신	사신 과견	7월 화친을 청하므로 신라가 따름	백본 신본	
41	434	22	8	18	백↔신	사신 과견	2월 좋은 말 2필 보냄, 가을에 또 흰 매를 보냄. 10월 에 신라도 황금과 야명주로 답례	백본 신본	'나.계동맹' 성립
42	450	38	24	34	고→신	전쟁	7월 신라 何瑟羅 城主가 悉直에서 고구려 장수 살해, 이에 고구려가 신라 침략, 눌지왕 사과로 회군	고본 신본	나.계동맹군×
43	454	42	28	38	고→신	전쟁	8월 고구려가 신라 북변에 침입	고본 신본	나.계동맹군×
44	455	43	29 蓋鹵王 1	39	백제	순행	3월 漢山에서 사냥함	백본	신라-고구려 본격적인 대립기
45					고→백	전쟁	10월 고구려가 백제를 침입하자 신라가 구원함	신본	나.계동맹군○
46	468	56	14	慈悲王 11	고→신	전쟁	봄 말갈군 1만 명과 협공하여 悉直城 함락	고본 신본	나.계동맹군×
47					신라	축성	9월 何瑟羅 사람을 동원해 泥河에 축성	신본	
48					백→고	전쟁	8월 백제가 고구려 남변에 침입	고본 백본	나.계동맹군×
49	469	57	15	12	백제	축성 [개축]	10월 雙峴城 수리. 靑木嶺에 목책 설치, 北漢山城의 군사 배치	백본	
50	470	58	16	13	신라	축성	三年山城	신본	
51	471	59	17	14	신라	축성	2월 耆老城	신본	
52	474	62	20	17	신라	축성	一牟城, 沙尸城, 廣石城, 杏達城, 仇禮城, 坐羅城 등	신본	
53	475	63	21 文周王 1	18	고→백	전쟁	9월 장수왕 3만군으로 백제 천정, 漢城 함락, 개로 왕 죽이고 8천명 사로잡아 귀환	고본 백본	나.계동맹군○ 신본 474년조에 기술
54					백제	천도	10월 熊津으로 천도	백본	
55	476	64	2	19	백제	축성 [개축]	2월 大豆山城 수리 후 漢北의 民戶 이주	백본	
56	480	68	東城王 2	紹知王 2	말→신	전쟁	3월 말갈이 신라 북변에 침입	신본	나.계동맹군×
57					신라	순행	2월 比列城에 가서 군사 위로	신본	
58	481	69	3	3	고↔신	전쟁	3월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신라 북변 침입, 狐鳴 城 등 7성 함락 후 彌陟夫에 진출. 나.계가야 구 원군 반격, 泥河까지 추격해서 1천 명 죽임	신본	나.계동맹군○
59	482	70	4	4	말→백	전쟁	9월 말갈이 漢山城 습격, 3백여 호 약탈해 돌아감	백본	나.계동맹군×
60	483	71	5	5	백제	순행	봄 漢山城에 사냥가서 백성을 위문하고 10월 만에 귀환. 4월 熊津 북쪽에서 사냥함	백본	
61					신라	순행	10월 一善界에 행차해 백성들 위문	신본	
62	484	72	6	6	고→신	전쟁	7월 고구려가 신라 북변 침입, 나.계동맹군이 毋山 城에서 물리침	신본	나.계동맹군○
63					신라	축성	2월 仇伐城	신본	
64	485	73	7	7	백→신	사신 과견	5월 예방함	백본 신본	
65					신라	축성 [개축]	정월 一善界 丁夫 3천 명을 징발 三年山城·屈 山城 개축	신본	
66	486	74	8	8	백제	축성	7월 牛頭城	백본	
67					신라	열병	8월 狼山 남쪽에서 크게 사열함	신본	
68					백제	열병	10월 궁궐 남쪽에서 크게 사열함	백본	
69	488	76	10	10	신라	순행	2월 일선군 순행해서 鰥寡孤獨 위문	신본	
70					신라	축성	7월 刀那城	신본	
71	489	77	11	11	고→신	전쟁	9월 고구려가 신라 북변에 침입, 支峴에 이름. 10 월 狐山城 함락	고본 신본	나.계동맹군×
72					신라	축성 [개축]	2월 毘羅城	신본	
73	490	78	12	12	백제	축성	7월 北部人 15세 이상 징발 沙峴城·耳山城 축 성	백본	
74					백제	순행	10월 泗比 벌판에서 사냥함	백본	
75	492	文咨明王 1	14	14	백제	순행	10월 牛鳴谷에서 사냥함	백본	
76	493	2	15	15	백→신	사신 과견	3월 동성왕이 훈인을 청하자 소지왕이 이찬 비지의 딸을 보냄	백본 신본	

77	494	3	16	16	고↔신	전쟁	7월 薩水에서 교전. 신라가 패해 大牙城으로 후퇴. 고구려가 포위했으나 동성왕이 3천군을 보내 구원	고본 백본 신본	나제동맹군 ○
78					고구려	순행	7월 남쪽으로 巡狩해 바다에 제사지내고 귀환	고본	
79	495	4	17	17	고→백	전쟁	8월 雉壤城 포위. 백제의 요청으로 소지왕 장군 덕지 보내 구원. 고구려 퇴각	고본 백본 신본	나제동맹군 ○
80					백→신	사신 파견	동성왕이 사신을 보내 치양성 전투의 지원에 사의 표시	신본	
81	496	5	18	18	가→신	사신 파견	2월 加耶에서 흰 평을 보냄	신본	
82					고→신	전쟁	7월 牛山城 공격. 장군 실죽이 출전해 泥河에서 승리	고본 신본	나제동맹군 ×
83	497	6	19	19	고→신	전쟁	8월 牛山城 함락	고본 신본	나제동맹군 ×
84	498	7	20	20	백제	축성	7월 沙井城을 쌓아 한술 비타로 지키게 함	백본	
85	500	9	22	22	신라	순행	9월 소지왕 捺已郡에 순행. 파로의 딸 벽화와 혼인. 11월 의문의 죽음	신본	
86					백제	순행	4월 牛頭城에서 사냥	백본	
87	501	10	23	智證王 2	백제	축성	7월 處境에 목책을 설치해 신라에 대비 8월 加林城 쌓고 위사좌평 백가 파견	백본	
88					백제	순행	10월 泗比 동쪽 벌판에서 사냥 11월 熊川 북쪽 벌판과 사비 서쪽 벌판에서 사냥	백본	
89	502	11	武寧王 2	3	백→고	전쟁	11월 고구려의 변경을 침입	고본 백본	나제동맹군 ×
90	503	12	3	4	말→백	전쟁	9월 말갈이 馬首柵을 불태우고 高木城에 침입. 무령왕 5천군으로 격퇴	백본	나제동맹군 ×
91					백→고	전쟁	11월 달솔 우영을 보내 水谷城 침입	고본 백본	나제동맹군 × 백본 501년조에 기술
92	504	13	4	5	신라	축성	9월 波里城 彌責城 珍德城 骨火城 등 12성	신본	505년 지중왕 悉直州 설치, 이사부 軍主 파견

【사용례】

1. 내용은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정리하되, 필요에 따라 『광개토왕릉비』를 참고했다.
2. 전거는 고구려본기→고본, 백제본기→백본, 신라본기→신본, 광개토왕릉비→릉비로 약칭했다.
3. 전거에서 밑줄 그은 부분이 原典이다. 다만 비슷한 내용으로 원전의 판단 여부가 어려울 경우 밑줄을 긋지 않았다.

그런데 373년 백제의 禿山城主가 300명을 이끌고 신라로 망명함에 따라<sup>5)</sup>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경색국면으로 급변하였다. 이때 독산성주의 망명 배경에 대해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한 문책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는 추정이 있었다.<sup>6)</sup> 또 독산성이 백제의 북방 요충지에 있었을 것으로 보고, 백제가 靑木嶺[개성 송악산]<sup>7)</sup>에 성을 쌓으면서[6] 인근에 위치한 독산성주와 주민에게 역역부담이 가중돼 민심이 이반된 것을 망명의 원인으로 생각하기도 했다.<sup>8)</sup> 당시 고구려·백제의 戰線과 갈등국면을 고려할 때 수공이 간다. 그렇다면 이때 신라가 근초고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산성주와 주민을 돌려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백제의 가야 진출에 대한 신라 측의 반발이라는 견해가 있었다.<sup>9)</sup> 실제로 이 시기는 백제가 가야는 물론이고 倭와 연합하는 형국이었고,<sup>10)</sup> 이것은 신라로 하여금 상당한 위기감을 조성시킨 듯하다. 신라로서는 이러한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었을

5)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18년.

6) 盧重國, 「4~5世紀 百濟의 政治運營」, 『韓國古代史論叢』 6,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4, 173쪽.

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 開城府 上山川에 松嶽이 곧 푸른나무(靑木)인 술을 의미한다고 했고, 백제시대의 靑木山을 송악으로 보았다. 안정복은 『東史綱目』 卷1上 壬子 馬韓에 “靑木山 輿地勝覽以松嶽爲靑木山 而近來考得今靑石洞”라고 해 청석동으로 구체화했다.

8) 徐榮一, 「漢城 百濟時代 山城과 地方統治」, 『文化史學』 24, 韓國文化史學會, 2005, 18~19쪽.

9) 鄭雲龍, 「羅濟同盟期 新羅와 百濟 關係」, 『白山學報』 46, 白山學會, 1996, 99~100쪽.

강중원, 『백제 국가권력의 확산과 지방』, 서경문화사, 2012, 66~69쪽.

10)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1981, 60~65쪽.

것이다. 고구려 입장에서도 백제와의 열세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백제의 배후를 견제해 줄 수 있는 신라와의 우호관계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와 신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눈치 챈 고구려가 주도적으로 신라에 화친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다.<sup>11)</sup> 이후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377년<sup>12)</sup>과 381년<sup>13)</sup> 함께 前秦에 사신을 파견하는 것으로 진전되었다. 당시 신라로서는 중국에 단독으로 사신을 파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때 고구려의 안내를 받아 함께 전진에 갔을 것이라는 이해가 일반적이다.<sup>14)</sup> 377년의 경우는 전진이 376년에 서방의 涼州지역과 북방의 代國[拓拔魏] 등을 멸망시키고 북중국을 통일한 것에 대한, 그리고 381년은 전년도에 일어난 符洛의 모반을 진압한 데 대한 축하사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5)</sup> 그런데 부락은 반란을 도모하면서 고구려·백제·신라에게도 파병을 요청하였다. 물론 여러나라가 모두 거절하면서 실현되지는 못했다.<sup>16)</sup> 이때 고구려와 백제에 막혀있던 신라에게 부락이 직접 사신을 파견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곧 고구려에 통보하는 수준으로 신라의 원군 파병을 요청했을 것이다. 이것은 377년 고구려와 신라가 전진에 사절단을 파견한 이후, 전진의 입장에서 신라를 고구려의 예하 국가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고구려로서는 자신의 세력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신라 사신을 대동했을 것이다.<sup>17)</sup>

4세기 후반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신라 측의 이해와는 별개로 고구려에 의해 주도권이 행사된 듯한 인상을 준다. 392년에 신라 奈勿王(356~402)이 고구려 사신의 요청을 받고 實聖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는데[18], 그 이유를 ‘고구려가 强盛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 한 점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실제로 고구려는 백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열세를 승세적 국면으로 전환시켜 갔다. 곧 375년에 백제로부터 水谷城[황해 신계]<sup>18)</sup>을 공취함으로써 [7] 예성강 상류 유역의 주도권을 빼앗았고, 이후 지속적인 공세를 가했다[8·11]. 특히 부용세력인 靺鞨<sup>19)</sup>까지 동원해 關彌嶺과 赤峴城에서 백제군에 승리를 거두었다[12·16]. 나물왕은 이러한 고구려의 국력을 체감했을 것이다.<sup>20)</sup> 고구려로서도 대대적인 백제 南征을[19·20] 앞둔 상황에서 신라를 자국의 세력권 하에 종속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그 수단으로써 볼모를 요구했다고 생각된다.<sup>21)</sup> 사실 고구려는 고국원왕 12년(342)에 前燕에 대패했을 때 王母와 王妃를 인질로 빼앗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sup>22)</sup> 인질외교의 효용성을

11) 우선정은 373년 당시 신라가 고구려와의 외교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제의 요구를 거절했을 것으로 이해하였다(禹宣汀, 『新羅 麻立干時代の 成立과 전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38쪽). 4세기대 월성로고분군에서 출토된 고구려계 綠釉小壺·札甲 등 고고학적 정황에 따르면,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4세기 중반 이전부터 계기적으로 파악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도 일리가 있다.

12) 『資治通鑑』 卷104, 晉紀26, 烈宗孝武皇帝上之中 太元 元年(377).

13)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26년 ; 『太平御覽』(北宋本) 卷781, 四夷部 東夷新羅.

14) 末松保和, 『新羅史의 諸問題』, 1954 : 『新羅의 政治와 社會』 上(末松保和 朝鮮史著作集 1), 吉川弘文館, 1995, 118쪽.

李丙燾, 『韓國史』(古代篇), 震檀學會, 乙酉文化社, 1959, 401~402쪽.

15) 余昊奎,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對前燕關係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6, 한국역사연구회, 2000, 66~67쪽.

16) 『資治通鑑』 卷104, 晉紀26, 烈宗孝武皇帝上之中 太元 5년(380).

17) 여호규, 앞의 논문, 2000, 68쪽.

1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新溪縣 古蹟. “俠溪廢縣 在縣南三十里 本高句麗水谷城縣 一云買且忽.”

19) 李康來, 「三國史記에 보이는 靺鞨의 軍事活動」, 『領土問題研究』 2,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5, 60~61쪽.

20) 신라 내부적으로는 나물왕이 母系가 昔氏인 실성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인질외교를 활용하였다(金哲垓, 「新羅 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 『歷史學報』 1:2, 1952 :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1990, 127쪽).

21) 장창은, 『신라 상고기 정치변동과 고구려 관계』, 신서원, 2008, 87쪽.

22)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12년·13년. 전연에 볼모로 간 王母는 동왕 25년(355)에 인질과 조공을 바친 후 돌아왔다. 여호규는 이때 전연과 고구려 간 조공·책봉관계가 수립된 것으로 보았다(여호규, 「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sup>23)</sup> 요컨대 4세기 후반 고구려와 신라의 우호관계는 백제를 사이에 둔 두 나라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부합한 결과였다. 다만 백제를 측면에서 견제하고,<sup>24)</sup> ‘고구려↔백제’ 대결구도의 전략적 부담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sup>25)</sup> 고구려의 이해가 더 관철되었고, 그에 따라 신라가 고구려에 종속될 소지가 큰 것이었다.

그렇다면 377년·382년의 신라 사신과 392년 인질로 갔던 실성 일행은 어떤 경로를 거쳐 고구려 國內城까지 나아갔을까?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서지역과 중부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교통로이다.<sup>26)</sup> 그런데 고구려가 375년 수곡성 탈환 이후 예성강 상류 유역을 차지해 竹嶺路로 남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더라도, 북한강 상류지역까지 차지했다고 볼 적극적인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고고학적 정황은 화천·춘천·홍천 등지에서 4세기대의 백제 유적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sup>27)</sup> 뿐만 아니라 靺鞨[濊]이 비록 고구려에 부용되었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군사활동을 감행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신라 사신이 고구려로 나아가는 경로로서 당시 죽령로는 안전상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4세말 신라-고구려 간 교통로로 일찍이 東海岸路가 상정되었다.<sup>28)</sup> 이후 눌지왕대(417~458) 卜好가 고구려로부터 탈출한 경로가 ‘北海之路’라는 점과 高城을 경유한 것이 참고되어 4세기 말 고구려와 신라 간 교섭의 루트로 동해안로가 주목받았다.<sup>29)</sup> 『大東輿地圖』를 참고하면, 신라 경주에서 고구려 국내성까지 이르는 경로는 대체로 경주-영일-홍해-영덕-울진-삼척-강릉-양양-간성-고성-안변-덕원-영흥-정평-함흥에 이르렀고, 서북쪽으로 황초령을 넘어 장진-아득령-강계-국내성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 2. 광개토왕의 남정과 죽령로의 장악

이와 같이 적어도 390년대 초반까지는 고구려가 죽령로를 개통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던 중 永樂 6년(396) 광개토왕의 南征이 죽령로 진출을 시사해 주는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곧 광개토왕은 몸소 군대를 이끌고 한강을 건너가 백제 阿莘王(392~405)에게 항복을 받아냈는데, 이때 58城 700村을 획득하였다.<sup>30)</sup> 58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한강 이북 및 임진강 유역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sup>31)</sup> 남한강 상류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설득력을

句麗와 慕容燕의 朝貢·冊封關係 연구,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2006, 15~17쪽).

23) 임기환은 5호16국시기에 피정복국가를 통제하기 위해 유력자나 그 자제를 수도로 이주시켜 質子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고구려도 전연에게 이런 방식을 배웠을 것이라 했다(임기환, 「4세기 동아시아 정세 변동과 고구려의 대외전략」, 『광개토대왕비와 한일관계』[한일관계사연구논집 1], 景仁文化社, 2005, 45쪽).

24) 盧泰敦,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고구려관계 기사 검토」, 『慶州史學』 16, 1997, 76쪽.

25) 朴京哲, 「麗羅戰爭史의 再檢討」, 『韓國史學報』 26, 2007, 53쪽.

26) 이른바 죽령로이다. 평양에서 연결되는 경로는 서흥-신계-평강-김화-화천-춘천-홍천-횡성-원주-제천-단양-죽령-영주-안동-의성-영천-경주이다(서영일, 앞의 논문, 2002, 51쪽).

27) 沈載淵, 「한성백제기 북한강 중상류지역의 양상에 대하여」, 『湖西考古學』 14, 湖西考古學會, 2006.

朴省炫,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 현실』 82, 2011, 62쪽.

28) 末松保和, 앞의 책, 1954 : 1995, 137쪽.

29) 서영일, 앞의 논문, 2002, 51쪽.

금경숙, 「교통로를 통해서 본 강원도의 고구려」, 『강원도와 고구려』(금경숙·임기환·공석구 편저), 집문당, 2006, 50쪽.

강봉룡, 「5세기 이전 신라의 동해안방면 진출과 ‘東海岸路」」, 『韓國古代史研究』 63, 2011, 131쪽.

박성현, 앞의 논문, 2011, 60~62쪽.

30) 「광개토왕릉비」의 원문 및 번역은 盧泰敦, 「廣開土王陵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제1권),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참조.

31) 津田左右吉, 「好太王征服地域考」, 『朝鮮歷史地理』 上, 1913 : 亞世亞文化社, 1986, 69~72쪽.

李丙燾, 「廣開土王의 雄略」, 『韓國古代史研究』(修訂版), 博英社, 1976, 381~382쪽.

연고 있다.<sup>32)</sup> 필자 역시 58성의 소재지는 한강 하류는 물론이거니와 북한강과 남한강 상류 유역을 포괄하는 범위였다고 생각한다. 58성 중 古牟婁城이 「중원비」에도 나오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믿는다.<sup>33)</sup> 따라서 고구려는 396년에 광개토왕의 남정을 계기로 죽령로를 개통한 것으로 이해된다. 영락 10년(400) 5만의 구원군을 신라로 파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점이 더욱 드러난다. 「릉비」에 따르면, 399년 백제가 약속을 어기고倭와 화통하자 광개토왕이 평양으로 내려갔다. 이때 신라 나물왕이 사신을 보내어 왜인이 신라에 쳐들어와 다급하다면서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광개토왕이 다음해 步騎 5만을 신라로 파병해 왜군을 섬멸했다고 되어 있다. 말하자면 399년 신라왕이 급박한 자국의 사정을 신속히 알릴 수 있었던 것은 396년에 죽령로가 개통되었기 때문일 것이다.<sup>34)</sup> 동해안로를 통해 우회하는 것보다 중부 내륙의 죽령로를 경유하는 것이 평양으로 가는 최단경로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시 경자년(400) 고구려군의 남정길도 죽령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sup>35)</sup> 다만 「릉비」의 守墓人 煙戶 중 안변의 碑利城이 남아 있고, 기존 동해안로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동해안로도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에서 평양으로부터의 주력군의 남하길은 죽령로를, 지원부대나 보급품의 수송은 동해안로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추정<sup>36)</sup>은 경정할 만하다.<sup>37)</sup>

이와 같이 고구려는 영락 6년과 10년의 남정으로 중부내륙과 영서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죽령로를 얻었다. 이로써 고구려는 예성강~한강 하류 유역에서 공방전을 벌였던 백제를 남한강 상류에서 서남진하여 측면에서 압박할 수 있는 교두보를 장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라로 진출하는 교통로를 다변화할 수 있었다. 곧 광개토왕대 대규모의 신라 구원전은 향후 신라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다만 광개토왕대 58성의 공취와 신라 구원전의 결과가 그대로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는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릉비」의 기록대로라면 광개토왕은 영락 6년 58성을 공취하고 백제왕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1988, 236~237쪽.

李仁哲, 「廣開土好太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의 南方經營」,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고구려연구 2), 1996 :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백산, 2000, 132~143쪽.

津田左右吉은 阿朮城을 좌주 적성으로 위치비정했고, 이병도는 서울 광진구의 아차산성을 아단성으로 보았다.

32) 이도학, 앞의 논문, 1988b : 앞의 책, 2006, 370~378쪽.

서영일, 앞의 논문, 1991, 15쪽.

임기환, 「고구려·신라의 한강 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02, 3~5쪽.

임기환, 「廣開土王碑에 보이는 百濟관련 記事의 檢討-永樂 6년조 기사 역사지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漢城百濟 史料 研究』,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재단연구원, 2005, 142~149쪽.

이도학은 아단성을 단양군 영춘면에 소재한 것으로 보았다. 임기환은 58성과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고지’에서 고구려 남하루트로 예상되는 지역의 군현수를 비교함으로써 그 숫자가 비슷함에 주목하였다.

33) 고모루성의 위치는 죽령로의 도상인 원주·춘천 등지가 유력하다(邊太燮, 『史學志』 13[中原高句麗碑 特輯號], 1979, 133쪽 ; 徐榮一, 「中原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城과 關防體系」, 『中原高句麗碑研究』[고구려연구 10], 학연문화사, 2000, 505~507쪽).

34) 이도학, 앞의 논문, 1988a : 앞의 책, 2006, 405쪽.

35) 梁起錫, 「高句麗의 忠州地域 進出과 經營」, 『中原文化論叢』 6, 忠北大 中原文化研究所, 2002, 65쪽.

금경숙, 앞의 논문, 2006, 59~60쪽.

임기환, 「고대의 강원도와 삼국의 역관계-문헌자료의 검토를 중심으로-」 『강원도와 고구려』, 집문당, 2006, 33쪽.

박성현, 앞의 논문, 2011, 62~64쪽.

36) 서영일, 앞의 논문, 2002, 51~52쪽.

37) 영서지역의 교통로로 남하하다 중간에 태백산맥을 넘어 삼척으로 간 다음 동해안을 따라 남진했다는 견해도 있다(金昌錫, 「新羅의 于山國 복속과 異斯夫」, 『歷史教育』 111, 2009, 107쪽). 이인철은 광개토왕의 남한강 유역 진출을 불신하는 입장에서 동해안을 경유한 것으로 보았다(이인철, 앞의 논문, 1996 : 앞의 책, 2000, 144쪽).

의 동생과 대신 10명을 데리고 돌아갔다. 그런데 아신왕이 다음해 왜국과 우호를 맺고 태자 전지를 파견했다거나 漢水 남쪽에서 閱兵했다는 기록[29]이 남아 있다. 이는 광개토왕이 영락 6년의 58성 공취에도 불구하고 영역적 지배력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후 조치를 소홀히 한 듯한 인상을 준다. 아신왕이 398년 雙峴城[경기도 장풍군]38)을 축조하고, 고구려 정벌차 漢山 북쪽까지 이르렀다는 점[30:31]도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물론 영락 6년 공취했던 임진강~한강 사이의 성이 모두 다시 백제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광개토왕은 아마도 임진강~한강 유역 사이를 영역지배하기보다는 중요 교통로 위주의 군사적 거점 지배[선·점지배]를39) 추구한 것 같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령로의 확보가 아닐까 한다. 북한강 유역과 남한강 유역도 마찬가지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高句麗故地’ 중 삭주와 명주에서 고구려계 지명 어미인 城(忽)이 드문 점도 이 지역에서 고구려의 영역지배가 광역의 면지배로 관철되지 못했음을 시사해 준다.40) 또한 죽령로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남한강 유역에서 백제 동변을 압박하는 모습이 남아 있지 않다. 고고학적으로 죽령로의 도상을 제외한 지역에서 고구려 유물·유적의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된다.41) 결국 광개토왕대 고구려의 북한강과 남한강 상류에 대한 지배는 죽령로 중심의 제한적 거점지배로 생각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광개토왕의 남정이 비문대로 그 전과가 다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역지배로 이어질 수 없었던 까닭은 後燕과의 관계에 기인한 바가 컸던 것 같다. 곧 후연은 400년 2월 광개토왕의 남정을 틈타 新城과 南蘇城을 함락시키고 700여 리의 땅을 차지하였다.42) 광개토왕이 400년 신라 구원전에서 급히 회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후연의 침입으로 후방의 본토가 교란되었기 때문이었다.43) 광개토왕은 이때부터 후연이 멸망하는 407년까지 요동지역을 두

38) 쌍현성의 위치는 장풍군 북쪽 망해산의 雙嶺으로 보거나(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194~195쪽), 장풍군 강상면 구화리의 임강산성 내지 白峙 부근으로 추정하는 견해(서영일, 「한성 백제의 교통로 상실과 웅진천도」, 『郷土서울』 72, 2008, 58쪽)가 있다. 개로왕 15년(469)에 쌍현성의 수리기사와 청목령의 목책설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49], 쌍현성은 청목령 인근 마식령산맥의 교통로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39) 필자는 기왕에 영역범위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張彰恩, 『三國史記』 地理志 ‘高句麗故地’의 이해방향, 『한국학논총』 33,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0a, 228~230쪽). 개념 설정은 다음의 논문에서 도움을 받았다. 김영심, 「웅진·사비시기 百濟의 領域」,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편), 서경, 2003. 山本孝文, 「考古資料로 본 南漢江 上流地域의 三國 領域變遷」, 『韓國上古史學報』 40, 2003 : 『三國時代 律令의 考古學的 研究』, 서경, 2006, 422~439쪽.

〈표 2〉 영역범위의 개념

단계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개념	영역(영토)[직접지배]		세력권[간접지배]	영향권[지배 X]
지배 형태	면지배 (지방관을 통한 행정지배)	선·점지배 (교통로를 통한 군사적 거점지배)	‘타국’에 군사단 주둔 또는 공납 수취를 통한 지배	1~2단계로 인해 발생·과생된 문화적 범위
특징	독점적·배타적 공간. 타국세력 접근 방어		타국의 영역에서 정치경제·군사적 의무관계 형성	정치·경제·군사적인 의무관계 형성 X

40) 장창은, 앞의 논문, 2010a, 234~235쪽.

41) 상대적으로 죽령로의 요충지에서는 5~6세기대 고구려 유물·유적이 꾸준히 발굴되고 있다. 이는 고구려의 국원 및 소백산맥 서쪽 진출과 연관해 III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42)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9년. 광개토왕본기의 기록은 1년씩 추가해서 재위년을 설정하는 것이 옳다(이도학, 「廣開土王代の 南方政策과 韓半島 諸國 및 倭의 動向」, 『고구려 광개토왕과 동아시아』[한국고대사학회 제25회 합동토론회논문집], 2012, 121~122쪽).

43) 이도학, 앞의 논문, 1988a, : 앞의 책, 2006, 406~407쪽. 때문에 그는 고구려의 가야원정을 실패로 규정하였다.

고 그들과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하였다.<sup>44)</sup> 이 때문에 5세기 초반 광개토왕은 적극적인 남진정책을 펼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주력군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400년 이후 고구려 군사가 신라 영토 안에 주둔했을 것이라는 이해가 통설이다. 그것은 「중원비」의 ‘新羅土內幢主’와 『日本書紀』(雄略天皇 8년조)에 신라 왕경에 주둔한 고구려 군사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삼국사기』 박제상 열전에도 고구려군이 신라의 국경에 주둔해 왜의 巡邏人을 주살한 기록이 남아 있다.<sup>45)</sup> 다만 고구려 군사의 주둔시점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경자년 고구려의 대규모 구원군 파견은 군사단을 주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제공했을 법하다. 그런데 실성왕 즉위 후의 행보를 보면, 고구려 군사단이 과연 신라 왕경 안에 주둔해 그 기능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생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고찰하고자 한다.

### III. 5세기 전반~중반 고구려의 國原 진출과 대신라 우호관계의 이완

#### 1. 고구려의 신라 내정간섭과 訥祗王의 자구책

광개토왕 남정 시 실성은 고구려에 볼모로 잡혀 있었다. 실성은 나물왕 46년(401) 7월에 신라로 돌아왔고, 다음해 2월 나물왕이 죽은 후 왕위를 이어받았다.<sup>46)</sup>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나물왕의 아들이 어려서 國人이 실성을 옹립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나물왕의 맏아들 놀지가 그 당시 왕위를 잇지 못할 정도로 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sup>47)</sup> 실성왕이 10여 년 간 고구려에 체류해 있었으므로, 그의 귀국과 즉위 배후에는 고구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sup>48)</sup> 고구려 입장에서는 신라 국내의 정치적 기반이 미약한 실성을 즉위시킴으로써 신라 내정에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 같다.<sup>49)</sup> 그런 점에서 영락 10년 신라 구원전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러 고구려에 몸소 조공 간 신라 寐錦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다.<sup>50)</sup> 매금에 대해서는 음운학적 유사성을 근거로 麻立干의 異寫로 본 이후<sup>51)</sup> 고구려에 직접 간 매금을 奈勿王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sup>52)</sup> 그러나 「릉비」의 다음 구절이 영락 14년(404)이므로 실성도 대상이 된다면, 문장의 구조상 앞의 매금과 뒤의

44) 고구려와 후연의 관계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池培善, 『中世東北亞史研究-慕容王國史-』, 一潮閣, 1986, 279~281쪽, 307~310쪽, 332~334쪽, 353~355쪽.

공석구, 「高句麗와 慕容'燕'의 갈등 그리고 교류」, 『강좌 한국고대사』 4,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68~82쪽.

45) 『三國史記』 卷45, 列傳5, 朴堤上.

46)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46년~47년. 實聖尼師今 즉위년.

47) 李弘植, 「新羅의 勃興期」, 『國史上의 諸問題』 3, 1959 :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1971, 445~446쪽.

48) 이흥직, 위의 논문, 1959 : 위의 책, 1971, 445~446쪽.

노태돈, 앞의 논문, 1997, 76쪽.

朱甫暉, 「朴堤上과 5세기 초 新羅의 政治動向」, 『慶北史學』 21, 1998, 837~840쪽.

서영일, 앞의 논문, 2002, 46쪽.

49) 우선경, 앞의 논문, 2011, 146쪽.

50) 「廣開土王陵碑」 “十年庚子…昔新羅寐錦未有身來[論事] □[國置上廣]開土境好太王□□□寐[錦]□□[僕]勾□□□朝貢.”

51) 李丙燾, 「中原高句麗碑에 대하여」, 『史學志』 13(中原高句麗碑 特輯號), 1979, 25쪽.

52) 武田幸男,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121~122쪽.

노태돈, 앞의 논문, 1997, 76쪽.

이도학, 앞의 논문, 2012, 132쪽의 각주 59.

매금을 대비시켰다는 점에서 실성왕이 즉위 후 고구려의 후원에 대한 보답으로 고구려에 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어 지지를 받고 있다.<sup>53)</sup> 아울러 나물왕 45년(400) 10월에 왕이 타고 있던 內廐馬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다는 기록을<sup>54)</sup> 나물왕이 고구려 및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정치적으로 실세하는 모습에 대한 전조로 파악한 견해도<sup>55)</sup> 의미가 있다.

實聖王(402~417)은 이렇듯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 나물왕을 제거하고 즉위하였다. 실성왕은 즉위 후 곧바로 倭와 우호를 통하고, 나물왕의 아들 末斯欣을 불모로 파견하였다.<sup>56)</sup> 아마도 잠재적 적대세력으로서 나물왕 직계 후손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우선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 왕대부터 지속적으로 쳐들어온 왜국에 대한 새로운 외교전술이기도 했을 것이다.<sup>57)</sup> 그런데 실성왕이 왜국과 통호한 것은 「릉비」에 나오는 고구려의 對倭認識을 참고할 때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 곧 「릉비」에는 왜가 고구려의 屬民[백제·신라]과 화통하거나 위협하는 세력으로서 토벌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왕에 실성의 對倭外交를 고구려가 왜를 회유하기 위해 주도한 것으로 보거나,<sup>58)</sup> 고구려의 사전 승인 내지 묵인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sup>59)</sup> 그러나 고구려의 대왜인식이 2년 만에 바뀌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고구려 입장에서 굳이 신라를 매개로 왜국과 화친할 만한 계기도 찾아지지 않는다. 필자는 실성왕의 대왜외교를 독자적인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로 실성왕대 고구려 군사단이 신라 왕경에 주둔해 있지 않았거나, 적어도 감시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sup>60)</sup> 하지만 당장은 아니라도 실성왕의 대왜 화친책은 고구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고구려로서는 실성왕이 자국과 이해가 배치되는 왜국은 물론 백제와 화친하려는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sup>61)</sup> 실성왕은 또한 재위 14년(415) 7월에 穴城의 들에서 크게 사열하였고, 金城 남문에서 활쏘기를 구경하였다.<sup>62)</sup> 실성왕의 열병이 비록 나물왕 직계와 그 지지세력을 의식한 대내적 무력시위로 추구된 것일지라도, 고구려로 하여금 독자적인 군사행보 추구로 왜곡되게 비추어졌을 법하다.<sup>63)</sup> 결국 고구려는 친고구려정권으로서 실성왕에 대한 신뢰를 점차 거두어갔을 것이다. 문제는 실성왕이 고구려의 이러한 내부 분위기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그것은 실성왕의 실각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성왕은 곧 나물왕의 아들 놀지를 제거하려다 도

53) 주보돈, 앞의 논문, 1998, 837~838쪽.

장창은, 앞의 논문, 2004a : 앞의 책, 2008, 92~94쪽.

유우창, 「고구려 남정 이후 가락국과 신라 관계의 변화」, 『韓國古代史研究』 59, 2010, 152쪽.

우선정, 앞의 논문, 2011, 145쪽.

김병곤은 매금의 유래를 고구려가 신라를 신속시킨 후 ‘麻立干’을 音借하여 한자로 표기한 他稱으로 이해했다(김병곤, 「新羅 王號 ‘麻錦’의 由來와 性格」, 『史學研究』 84, 2006, 18~26쪽).

54)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45년.

55) 梁正錫, 「新羅 麻立干期 王의 통치형태-訥祗麻立干代를 중심으로-」, 『新羅文化』 15,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1998, 114쪽.

56)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實聖尼師今 원년.

57) 熊谷公南, 「5世紀 倭·百濟關係와 羅濟同盟」, 『百濟研究』 44,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06, 176~177쪽.

58) 高寬敏, 「永樂10年 高句麗 廣開土王의 新羅救援戰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7, 1989, 168쪽.

59) 주보돈, 앞의 논문, 1998, 841~842쪽.

60) 이도학도 이 때문에 실성왕대 고구려의 신라 내정에 대한 통제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였다(이도학, 앞의 논문, 2012, 133쪽).

61) 장창은, 앞의 논문, 2004a : 앞의 책, 2008, 100~102쪽.

62)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實聖尼師今 14년.

63) 장창은, 앞의 논문, 2004a : 앞의 책, 2008, 102~103쪽. 실성왕의 열병이 고구려를 자극하였을 가능성은 우선정도 지적하였다(우선정, 앞의 논문, 2000, 110쪽).

리어 고구려세력의 지원을 받은 눌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sup>64)</sup> 그리고 보면 실성왕과 눌지왕의 즉위과정에 고구려세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였다. 고구려가 신라 내부의 정치세력이 나물왕 직계와 방계 실성 간에 갈등하는 국면을 적절히 이용한 셈이다.

訥祗王(417~458)은 실성왕과의 정치적 다툼과정에서 고구려의 지지를 받아 즉위했지만, 실성왕과 달리 고구려에 불모로 간 적이 없었다. 이 점은 눌지왕의 성장과정과 국내 지지기반이 실성왕에 비해서 고구려세력에 덜 얽매일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 長壽王(413~491)은 눌지왕 정권의 탄생에 개입한 만큼, 신라 내정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때 장수왕은 고구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립화를 모색한 실성왕의 경우를 거울로 삼아 신라 왕경에 군사단을 파견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sup>65)</sup>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공물 형태의 요구사항이 증대되어 갔을 것이다. 실제로 『魏書』 열전에 따르면, 正始(504~507)년간에 고구려 사신이 북위조정에 갔을 때, 부여와 涉羅로부터 공급받았던 황금과 珂[瑪瑙]를 부여는 勿吉에게, 涉羅는 백제에게 병탄되어 더 이상 조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전해진다.<sup>66)</sup> 여기서 ‘涉羅’가 일반적으로 신라로 이해되고 있다.<sup>67)</sup> 그렇다면 이 기록은 4세기대 고구려가 신라로부터 마노를 공납으로 공급받고 다시 북위에 조공한 사실을 알려준다. 기록상 황금은 부여로부터 충당했다지만, 4~5세기대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되는 신라 황금문화를 고려하면 황금도 신라가 고구려에 바친 공물 중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sup>68)</sup> 결국 눌지왕은 즉위 후 고구려로부터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갔을 것이다. 자연 눌지왕은 고구려세력의 간섭을 배제하려 했을 것이다.

눌지왕이 고구려세력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실성왕 11년(412) 고구려에 불모로 간 동생 卜好[寶海]를 귀환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런데 복호의 귀환시기와 과정에 대해 『삼국사기』<sup>69)</sup>와 『삼국유사』<sup>70)</sup>가 다르게 기술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곧 『삼국사기』는 복호의 귀환이 눌지왕 2년(418)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삼국유사』는 눌지왕 9년(425)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귀환과정도 『삼국사기』가 박제상의 언변으로써 장수왕의 허락을 받아 순탄했다면, 『삼국유사』는 사전계획 하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北海之路’를 경유해 극적으로 탈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대조적이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삼국사기』의 기록을 신빙하는 경향이 강하다.<sup>71)</sup> 하지만 고구려세력의 지원을 받아 즉위한 눌지왕이 정권의 안정이

64)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즉위년 및 『三國遺事』 卷1, 紀異2, 第十八實聖王 참조.

65) 눌지왕의 즉위과정에 개입한 고구려 군사가 사료상 눌지를 세우고 돌아갔다지만 일부 잔존했을 가능성도 있다.

66) 『魏書』 卷100, 列傳88, 高句麗.

67) 盧泰敦,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人의 天下觀」, 『韓國史論』 19, 서울大 國史學科, 1988 :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371쪽.

井上直樹, 「高句麗의 對北魏外交と朝鮮半島情勢」,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8, 2000, 192~193쪽.

朱甫暉, 「新羅國家形成期 金氏族團의 成長背景」, 『韓國古代史研究』 26, 2002, 108쪽.

朱甫暉, 「高句麗 南進의 性格과 그 影響-廣開土王 南征의 實相과 그 意義-」, 『大丘史學』 82, 2006, 54~55쪽.

이와 달리 ‘섭라’를 耽羅[제주도]로 보는 견해도 있다.

李弘植, 「日本書紀所載 高句麗關係記事考」, 『東方學志』 1:3, 1954:1957 : 앞의 책, 1971, 138쪽.

이도학, 「漢城 陷落 以後 高句麗와 百濟의 關係-탐라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전통문화논총』 3, 한국전통문화학회, 2005 : 앞의 책, 2006, 476~478쪽.

68) 고구려에 대한 주요 공물이 황금이었음은 후보돈, 앞의 논문, 2002, 147~149쪽 참조.

69)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2년 및 卷45, 列傳5, 朴堤上傳.

70) 『三國遺事』 卷1, 紀異2, 奈勿王 金堤上.

71) 이명식, 앞의 논문, 2002, 216~217쪽.

김병곤, 「고구려의 평양천도에 대한 신라의 양단책」, 『史林』 40, 首善史學會, 2011, 119~120쪽.

채미하, 「堤上의 末斯欣 구출과정을 통해 본 신라의 對倭관계」, 『신라인과 일본고대사』(신라사학회 학술세미나

채 이루어지지 않은 즉위 초반 고구려로부터 복호를 귀환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데려간 볼모를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sup>72)</sup> 박제상의 뛰어난 언변으로 복호가 순순히 돌아왔다는 열전의 기록은 오히려 박제상의 충절이 후대에 회자되면서 분식된 듯한 인상을 준다.<sup>73)</sup> 혹자는 『삼국유사』에서도 탈출과정에서 복호가 고구려에 있을 때 항상 좌우의 신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고구려 군사가 화살촉을 뽑고 쏘았으므로 결국 고구려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sup>74)</sup> 그러나 이것은 복호 개인의 처신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지 비정상적인 탈출과정 자체를 상쇄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눌지왕은 복호를 탈출시키기 1년 전(424)에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고, 장수왕은 신라 사신단을 특별히 대접하였다[39]. 그렇다면 눌지왕은 복호를 탈출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사신을 파견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국 복호의 귀환은 눌지왕이 고구려세력을 본격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추진된 첫 사업으로서, 재위 9년(425) 치밀한 계획 하에 고구려로부터 탈출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 2. 고구려·신라 관계의 이완과 고구려의 國原 진출

눌지왕이 고구려세력을 배제하려는 분위기에서 백제와 신라의 관계도 기존의 갈등국면에서 우호적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맞았다. 곧 백제 毗有王이 433~434년에 주도적으로 신라에 화친을 제의했고 신라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40-41]. 이른바 ‘羅濟同盟’이었다. 나제동맹에 대해서는 결성시기와 유효기간, 결성 배경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먼저 나제동맹의 결성시점에 대해서는 433년이 통설이었다.<sup>75)</sup> 그런데 동맹군의 활동이 455년에서야 나타나므로 이때를 나제동맹의 개시기로 보는가 하면,<sup>76)</sup> 475년 백제 한성 공파 때 파견된 신라 구원군 1만에 주목해 실질적인 군사동맹은 이때부터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77)</sup> 동맹의 해체시기도 554년 管山城 전투 시점을 주목한 견해가 통설이라면, 이와 달리 5세기 후반 동맹군의 활동이 보이지 않고 나제관계가 변화하는데 주목해 496년<sup>78)</sup>과 5세기 초반으로<sup>79)</sup> 이해하기도 한다. 동맹의 결성 배경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남하에 대한 공동 대응, 신라의 자립화 모색이 공통적인 주장이었다. 최근에는 나제동맹기에 백제와 왜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현상을 주목하거나,<sup>80)</sup> 나제동맹에 대응하는 가야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도 발표되었다.<sup>81)</sup> 나아가 5

발표논문집), 2012, 23쪽.

72) 복호는 신라의 고구려에 대한 복속의 의미가 포함된 納質의 유형에 포함된다(梁起錫, 「三國時代 人質의 性格에 對하여」, 『史學志』 15, 1981, 45~47쪽).

73) 장창은, 앞의 논문, 2004a : 앞의 책, 2008, 117~118쪽.

74) 이명식, 앞의 논문, 2002, 217쪽.

75) 金秉柱, 「羅濟同盟에 관한 研究」, 『韓國史研究』 46, 1984, 29~31쪽.

梁起錫, 「5~6世紀 前半 新羅와 百濟의 關係」, 『新羅의 對外關係史 研究』(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5), 1994, 77~80쪽.

박경철, 앞의 논문, 2007, 56~58쪽.

76) 鄭雲龍, 「羅濟同盟期 新羅와 百濟 關係」, 『白山學報』 46, 1996, 101~104쪽.

鄭雲龍, 「『삼국사기』 交聘記事를 통해 본 羅濟同盟 時期的 재검토」, 『百濟研究』 44, 2006, 198~204쪽.

77) 유우창, 「5~6세기 ‘나제동맹’의 전개와 가야의 대응」, 『역사와 경계』 72, 부산경남사학회, 2009, 123~126쪽.

김병곤, 앞의 논문, 2011, 125~131쪽.

정재윤은 동맹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며, ‘우호관계(433년)에서 군사협력단계(454년 이후)로의 모색’으로 이해하였다(鄭載潤, 「熊津時代 百濟와 新羅의 關係에 대한 고찰」, 『湖西考古學』 4·5, 2001, 69~73쪽).

78) 朴眞淑, 「百濟 東城王代 對外政策의 變化」, 『百濟研究』 32, 2000, 89쪽.

79) 양기석, 앞의 논문, 1994, 86~89쪽.

80) 熊谷公南, 앞의 논문, 2006.

세기 전반 고구려와 왜의 우호관계 수립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해하기도 한다.<sup>82)</sup>

필자는 군사동맹으로서 나제동맹의 결성시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큰 틀에서는 통설의 범주에서 다루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434~434년에 백제와 신라가 적어도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우호를 모색한 것은 당시 삼국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에 분명하다. 고구려와 종속적인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신라의 입장에서 비록 수동적이었지만 백제와 우호를 도모한 것은 고구려와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는 메시지를 표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83)</sup> 이와 같이 고구려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신라에게 별다른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고구려가 처한 대내외적 사정 때문인 듯하다.

우선 고구려의 내부사정이 긴박하였다. 곧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천도를 단행한 것이다.<sup>84)</sup> 그런데 평양으로의 천도에는 정치적으로 지배세력 간 이해의 조정과 궁궐을 비롯한 제반시설의 마련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을 것이다.<sup>85)</sup> 그래서 기왕에 광개토왕이 평양에 9寺를 창건한 것과 평양민호를 國東 6성지역으로 사민시킨 것<sup>86)</sup>을 평양천도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해하였다.<sup>87)</sup> 특히 장수왕대 천도를 전후한 시기에는 천도의 준비와 실행, 사후 정리 등에 있어 국력이 집중되었을 것이다. 고구려의 대외사정 역시 녹록치 않았다. 곧 북중국의 강자로 떠오른 北魏와 장수왕 13년(425) 관계를 맺은 이후,<sup>88)</sup> 430년대 북위가 東進하면서 긴장국면이 조성되었다. 특히 장수왕 23년(435) 北燕王 馮弘이 고구려에 망명하면서 그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국면이 조성된 이후<sup>89)</sup> 462년까지 고구려와 북위는 국경을 마주대고 긴장과 대립상태를 지속하였다.<sup>90)</sup> 결국 장수왕은 눌지왕이 425년 복호의 탈출을 계기로 고구려세력을 배제하려는 분위기를 감지했으면서도 자국이 처한 상황 때문에 신라에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수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중원비」를 통해 보면, 고구려로의 영

81) 유우창, 앞의 논문, 2009.

82) 강중훈, 「羅濟同盟의 結成 背景과 高句麗의 對外關係」, 『大丘史學』 105, 2011.

83) 김병곤은 나제동맹이 은밀히 추진되었고, 신라는 백제의 우호를 받아들이면서도 고구려와의 기존 외교를 유지하는 양단책을 유지한 것으로 생각했다(김병곤, 앞의 논문, 2011, 118~122쪽). 그러나 신라 왕정에 주둔하고 있었던 고구려 군사단에 의해서라도 신라와 백제의 사신 교환은 본국에 전달됐을 것이다.

84)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15년.

85) 李道學, 「廣開土王陵碑의 建立 背景」, 『白山學報』 65, 2002 : 앞의 책, 2006, 189쪽.

86)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2년~18년.

87) 김병곤은 장수왕 2년(414)에 瑞祥기사가 집중됨에 주목해 이때를 천도 기획시점으로 이해하였다(김병곤, 「고구려의 평양천도 기획시점과 남진」, 『高句麗渤海研究』 39, 고구려발해학회, 2011, 82~86쪽). 평양천도의 배경은 그동안 대내적으로 장수왕의 왕권강화, 새로운 국가운영 관료군의 양성, 사회적 경제적 기반의 확산 차원에서 축적되었고, 대외적으로도 북위와의 관계, 남진정책의 관점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두었다.

徐永大,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王權 및 中央集權의 支配體制의 強化과정과 관련하여-」, 『韓國文化』 2,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1981 : 『高句麗 南進 經營史의 研究』(朴性鳳 編), 白山資料院, 1995, 338~361쪽.

김병남, 「高句麗 平壤遷都의 原因에 대하여」, 『全北史學』 19:20, 全北大學校 史學會, 1997.

田中俊明, 「高句麗の平壤遷都」, 『朝鮮學報』 190, 朝鮮學會, 2004, 35~42쪽.

文銀順, 「高句麗의 平壤遷都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28~78쪽.

임기환, 「고구려 평양 도성의 정치적 성격」, 『韓國史研究』 137, 2007, 2~10쪽.

장중진, 「5世紀 前後 國際情勢와 高句麗 平壤遷都의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61, 2011.

88)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13년.

89)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23년~24년. 『資治通鑑』 卷122, 宋紀4, 文帝 元嘉 12년(435).

90) 이 시기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盧泰敦, 「5~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秩序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44, 1984 : 앞의 책, 1999.

李成制, 「長壽王의 對北魏外交와 그 政治的 의미-北燕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對北魏關係의 전개-」, 『歷史學報』 181, 歷史學會, 2004 :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 국학자료원, 2005.

朴眞淑, 「長壽王代 高句麗의 對北魏外交와 百濟」, 『고구려의 국제관계』, 고구려연구재단, 2005.

향권에서 이탈해가는 신라를 회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듯한 생각을 갖게 한다. 「중원비」에 따르면, 高麗太王과 新羅寐錦이 國原[충북 충주시]에서 만나 형제관계임을 하늘에 맹세하는 의식을 치렀다. 이때 고구려왕이 신라매금과 신하들에게 衣服 등을 하사하였다. 또한 사후 조처로서 같은해 12월 23일에 고구려와 신라의 신하가 于伐城에 이르러 300人を 모집하는 모종의 행위를 하였다. 「중원비」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우호관계는 물론이고 ‘新羅土內幢主’가 나타나 있어 신라 영토 안에 주둔한 고구려 군사의 실체를 뒷받침해 준다.<sup>91)</sup> 그런데 비문 내용에 나타나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비록 우호적이지만 5세기 초반의 「릉비」와는 달라진 인상을 준다. 곧 「릉비」에서 신라가 고구려의 ‘屬民’으로 설정된 데 반해 「중원비」에서는 형제관계로 설정되었다. 또한 중국적 華夷觀을 빌려와 신라를 ‘東夷’로 지칭하면서도 ‘東夷寐錦土’·‘新羅土’ 등 영역적 측면에서 신라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표현이 곳곳에 보인다. 이것은 곧 「중원비」 내용이 반영하는 시점의 양국관계가 5세기 초반처럼 고구려의 일방적인 우위가 아님을 시사해 준다.<sup>92)</sup>

이렇듯 「중원비」에 나타난 고구려와 신라 관계의 정보에도 불구하고, 비문내용이 반영하는 연대와 건립시점이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분분하다.<sup>93)</sup> 「중원비」의 내용연대를 알려주는 단서는 전면 ‘十二月廿三日甲寅’의 日干支와 좌측면 ‘辛酉年’의 年干支였다. 비문 발견 초기에는 고구려가 475년 백제 한성을 공략한 이후라야 충주에 진출했다는 선입관 하에, 481년을 대표로 하는 5세기 후반설이 우세했다. 여기에는 연간지 신유년이 함께 고려되었다.<sup>94)</sup> 이후 일본인 연구자들이 일간지를 ‘12월 25일 갑인’ 또는 ‘11월 23일 갑인’으로 재판독하거나, 太子制가 광개토왕대에 존재한 데 주목해 5세기 초반설을 제기하였다.<sup>95)</sup> 그런데 2000년 고구려연구회[현 고구려발해학회]의 新釋文에서 연간지 ‘신유년’의 판독이 유보되면서, ‘12월 23일 갑인’의 일간지와 고구려·신라 관계의 정황론적 측면에서 449년을 비문의 내용연대로 보는 5세기 중반설이 지지세를 확장해 갔다.<sup>96)</sup> 한편 비문의 내용과 건립연대를 분리해서 내용연대는 5세기 중반으로, 건립연대는 5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sup>97)</sup> 필자는 「중원비」의 내용·건립연대는 판독에 전전이 없는 한 확실한 일간지인 ‘12월 23일 갑인’을 존중하고, 비의 내용이 문헌기록과 부합하는 5세기 중반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원비」의 會盟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 눌지왕 34년(450) 7월조의 ‘孤與大王 修好至歡也’는 「중원비」의 내용·건립연대를 추적하는 데 유력한 단서임에 분명하다.<sup>98)</sup> 그렇다면 전면의 5월과 12월기사는 449년의 내용으로, 좌측면은 그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449년 내지 450년의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 「중원비」의 건립도 450년에 7월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91) 「중원비」의 원문 및 해석은 徐永大, 『中原高句麗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제1권),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참조.

92) 鄭雲龍, 「5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 『史叢』 35, 1989, 6쪽.

93) 「중원비」의 내용·건립연대에 대한 연구사 검토는 다음이 참고된다.

鄭雲龍, 「中原高句麗碑 研究의 몇 가지 問題」,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6, 2005.

張彰恩, 「中原高句麗碑의 연구동향과 주요 쟁점」, 『歷史學報』 189, 2006.

鄭雲龍, 「中原高句麗碑의 建立 年代」, 『白山學報』 76, 2006.

이하 비문연대에 대한 서술은 필자의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므로 별도의 각주를 제시하지 않는다.

94)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이병도·변태섭·신형식·이호영·박진석 등이 있다. 반면에 김정배·임창순은 비문 발견 직후부터 5세기 중반설을 주장하였다.

95)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木村誠·木下禮仁·田中俊明 등이 있다.

96)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정운용·김창호·이도학·임기환·篠原啓方 등이 있다.

97)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노중국·김현숙·이인철·최장열 등이 있다.

98) 임기환과 篠原啓方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중원비」의 내용·건립연대에 대한 경향은 5세기 중반설이 우세했었다.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먼저 비문의 일간지를 ‘12월 25일 갑인’으로 판독한 후 496년(문자명왕 5:소지왕 18)에 고구려와 신라가 和議했다는 견해가 있었다.<sup>99)</sup> 그러나 고구려와 신라는 496년 7월에서 497년 8월 사이 牛山城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다[82-83]. 고구려와 신라의 우호관계를 나타내주는 비문의 내용이 문헌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설령 전쟁기에도 우호관계를 도모할 수 있다 하더라도, 496년에 신라와의 會盟의식을 주도한 고구려가 다음해 8월 그것의 과기를 의미하는 우산성을 함락시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한 일간지를 ‘12월 23일 갑인’으로 보는 관점에서, 문자명왕 16년(507)에 고구려와 신라가 和約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定界했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sup>100)</sup> 「중원비」가 문자명왕대 건립되었다는 견해는 기존에도 있었다. 하지만 문자명왕 초년~4년(495) 사이로 보거나, 비문의 건립을 문자명왕대로 보더라도 내용이 반영하는 시점은 5세기 중반으로 보였다. 사실 「중원비」가 5세기 문자명왕대 건립되었다는 견해는 애초부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곧 고구려와 신라는 6세기 초반까지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그러한 와중에 신라왕이 위협을 감수하면서 적진에 나아가 회맹의식을 치룬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문자명왕대 장수왕대의 사실을 회고하면서 비문을 건립했다는 주장도 어색하다. 문자명왕이 수십년 전의 사실을 회고하면서 굳이 ‘12월 23일’이라고 월일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sup>101)</sup> 또한 고구려사회에서 諡號法이 정착된 마당에 비문에 ‘고려태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태왕이 비가 세워질 때까지 생존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sup>102)</sup>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그런데 後者의 신설은 이러한 문제점에서 비껴나 있다. 507년을 전후한 시점에 고구려와 신라가 교전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 주장은 고구려의 국원 진출시기가 주요 논거가 되었다. 곧 이천 설봉산성과 설성산성, 그리고 충주의 장미산성에서 4~5세기의 백제 토기가 다수 출토되었으므로 한성이 함락되는 475년 이전까지 이 지역을 백제가 확보하고 있었을 것으로 전제했다. 나아가 고구려가 497년 신라로부터 빼앗은 牛山城이 충주에 있었다면서 이 시기에 고구려가 충주에 진출한 것으로 결론지었다.<sup>103)</sup> 박성현이 장미산성의 고고학적 성격에 주목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장미산성의 축조연대와 운영주체를 5세기 후반까지 백제로 특정짓기에는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우산성의 위치를 충주로 비정한 것도 근거가 부족하다. 만일 우산성의 소재처가 충주였다면 「중원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언급되었을 것이다.<sup>104)</sup> 만약에 6세기 초반 고구려와 신라가 국원에서 화약을 맺고 정계했다면<sup>105)</sup> 백제로서는 상당한 위기감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백제 측이 대응한 흔적은 남

99) 우선정, 앞의 논문, 2011, 167~169쪽.

徐志榮, 「中原高句麗碑를 통해 본 5세기말~6세기초 新羅의 對高句麗 關係」,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中原高句麗碑를 통해 본 新羅의 對高句麗關係」, 한국고대사학회 제126회 정기발표회 발표문.

100) 박성현, 「6세기 초 고구려·신라의 화약과 정계-중원고구려비와 양국 경계의 재검토」, 『역사와 현실』 76, 2010, 214~220쪽 및 앞의 논문, 2011, 74~75쪽.

101) 邊太燮, 「中原高句麗碑의 內容과 年代에 대한 검토」, 『史學志』 13, 1979, 42쪽.

102) 정운용, 앞의 논문, 1989, 4쪽.

103) 박성현, 앞의 논문, 2010, 209~214쪽 및 앞의 논문, 2011, 63~64쪽.

104) 이 때문에 牛山城을 「중원비」의 于伐城과 같은 것으로 볼 여지를 남겨두었다(박성현, 앞의 논문, 2010, 219쪽의 각주 55). 그러나 우벌성은 경북 순흥에 소재했다는 견해가 있다(손영중,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 『역사과학』 85-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30쪽). 『三國史記』 卷35, 雜志4, 地理2, 朔州條에 “炭山郡 本高句麗及伐山郡 景德王改名 今興州 領縣一 鄰豐縣 本高句麗 伊伐支縣”이라 했다. 伊伐을 于伐으로도 표기했으므로 ‘于’와 ‘伊’가 상통하고, ‘伐’계 지명이 소백산맥 동남쪽에 주로 소재함을 감안하면 타당성이 있다.

아 있지 않다. 도리어 521년 신라가 梁에 사신을 파견한 기록은<sup>106)</sup> 6세기 초반 비록 동맹군의 활동이 미미하지만 느슨하나마 신라와 백제의 우호관계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당시 백제의 양해 하에 백제 영토를 경유하지 않고 신라가 양에 사신을 가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원비」의 내용과 건립연대는 5세기 중반설이 여전히 유효하며, 따라서 비문도 장수왕이 자국의 영향권에서 이탈해 가는 신라를 회유·포섭하기 위한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sup>107)</sup>

그렇다면 고구려의 국원 진출시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에 대한 종래의 견해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된다. 먼저 고구려가 백제 한성을 함락한 475년 이후로 보는 연구이다.<sup>108)</sup> 이들은 「중원비」 연대를 5세기 후반으로 본 공통점이 있다. 또한 고구려의 국원 진출경로를 한강 하류 유역으로 생각한 듯하다.<sup>109)</sup> 그러나 광개토왕의 남정 이후 죽령로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백제 한성을 공략하기 이전이라도 국원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광개토왕의 남정과 국원 진출을 연결한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sup>110)</sup> 정황론적 측면에서 광개토왕대 죽령로를 개통했다면 국원으로 진출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때문에 필자도 기왕에 고구려의 국원 진출을 광개토왕의 남정 때로 이해했었다.<sup>111)</sup>

그런데 한성시기 경기 동남부일대 백제의 방어체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백제는 4세기 후반~5세기 초반 이천 설성산성·설봉산성 등을 축조해 고구려에 대한 방어체제를 구축했다고 한다. 또한 원주 법천리에서 중국에서 수입된 양형청자·청동초두가 출토된 데 주목해 백제가 4세기 후반에 법천리세력을 매개로 남한강 유역의水路를 장악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105) 이와 다른 관점에서 6세기 초 고구려와 신라의 우호관계를 주장하기도 한다. 곧 『魏書』 卷8, 世宗紀8, 景明3년(502)과 永平元年(508)조에 ‘斯羅’가 北魏에 조공한 데 주목한 것이다. 이때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전제에서, 지증왕 즉위 후 신라가 고구려와 관계개선을 도모했다는 것이다(양기석, 앞의 논문, 1994, 86~89쪽). 그러나 『위서』의 ‘斯羅’는 西域의 국가다(李文基, 「6세기 新羅 ‘大王’의 成立과 그 國際的 契機」,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9, 1988, 333쪽의 각주 46 : 井上直樹, 「5~6世紀の高句麗史の再檢討-韓暨墓誌をのてがかりとして-」, 早稻田大學 修士學位論文, 1999, 43~44쪽). 따라서 6세기 초 고구려·신라의 連和說은 성립하기 어렵다(朱甫暉, 「熊津都邑期 百濟와 新羅의 關係」,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2003, 217쪽).

106)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8년.

107) 李道學, 「中原高句麗碑의 建立 目的」, 『中原高句麗碑 研究』, 학연문화사, 2000 : 앞의 책, 2006, 468~469쪽.

108) 변태섭, 앞의 논문, 1979, 51쪽.

申澄植, 「中原高句麗碑에 대한 考察」, 『史學志』 13, 1979 :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1984, 407~409쪽.

이명식, 앞의 논문, 2002, 232쪽.

109) 백제 한성에서 충주로 남하하는 경로는 『대동여지도』에 따라 한성-광주-이천-여주(장호원)-충주가 유력하다.

110) 이도학, 앞의 논문, 1988a : 앞의 책, 2006, 416~420쪽 및 앞의 논문, 1988b : 앞의 책, 2006, 376쪽.

김정배, 앞의 논문, 1988 : 앞의 책, 2000, 332~333쪽.

정운용, 앞의 논문, 1989, 8쪽.

田中俊明, 「新羅中原小京의 成立」, 『中原文化國際學術會議 結果報告書』, 忠清北道·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6, 78쪽.

朴京哲, 「中原文化圈의 歷史的 展開-그 地政學的戰略的 位相 變化를 中心으로-」, 『先史와 古代』 15, 한국고대학회, 2000, 282~284쪽.

양기석, 앞의 논문, 2002, 73~78쪽.

이도학, 앞의 논문, 2003 : 앞의 책, 2006, 385~389쪽.

鄭雲龍, 「三國關係史에서 본 中原高句麗碑의 意味」, 『고구려의 국제관계』, 고구려연구재단, 2005, 118쪽.

다만 이도학은 別都로 國原城을 설치한 것으로 보았고, 양기석은 군사요충지로서 거점지배한 것으로 이해했다.

111) 張彰恩, 「4~5世紀 高句麗의 南下와 三國의 領域向方-『三國史記』 地理志 ‘高句麗故地’의 實際(I)-」, 『한국학논총』 34,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0b, 39쪽.

나아가 범천리고분군에서 5세기 후반부터 1세기 정도 공백기가 나타나는 현상을 고구려의 국원 진출과 관련지었는데,<sup>112)</sup> 이에 시사받은 바가 크다. 충주지역에 소재한 장미산성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장미산성에서는 5세기대의 백제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그 중에서도 鳥足文土器는 이천 설봉산성·설성산성·음성 망이산성·청주 신봉동고분군 등 한성 백제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징표로 알려져 있다.<sup>113)</sup> 조족문토기는 4세기 전반 경에 정형화되고 7세기 전반 경에 소멸되는데,<sup>114)</sup> 장미산성의 토기는 4세 후반~5세기 초반<sup>115)</sup> 또는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sup>116)</sup> 뿐만 아니라 중원 탐평리유적에서 발굴된 백제 한성기 주거지 중 ‘뭍’자형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류와 아궁이장식, 철덩어리 등도 4세기 중·후반에서 5세기 전반으로 편년하였다.<sup>117)</sup> 이렇듯 장미산성 내 4~5세기로 편년되는 백제계 유물의 출토양상과 탐평리유적 등의 고고학적 정황을 고려하면, 고구려가 광개토왕의 남정 때 국원을 영역 지배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아마도 백제는 4세기 말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정과 죽령로 장악의 대응 차원에서 남한강 유역을 보루로 삼아 그 서쪽 대안의 요충지에 설봉산성·설성산성·망이산성 등을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강을 경유해 한성 동남쪽으로 침입해 오는 고구려에 대한 방어체제 구축 차원이었을 것이다. 이때 장미산성이 백제 동남향 최전방 방어성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고구려의 국원 진출시기는 고고학적 정황과 「중원비」의 연대를 조합해 보면 5세기 초반~중반으로 추정이 가능하다.<sup>118)</sup> 좀 더 억측해 보자면, 장수왕이 신라왕을 곧이 國原으로 불러들여 회맹한 후 그것을 비석으로 세운 이유가 고구려의 국원 진출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곧 고구려가 국원지방을 장악한 것을 기념하고 고구려 국력을 과시함으로써 신라를 회유하고자 한 의도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그렇게 보면 「중원비」에서의 공동 募人활동도 국원 장악 후의 사후 군사조치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sup>119)</sup>

#### IV. 5세기 중·후반 고구려의 남진양상과 대신라 공방전의 전개

##### 1. 신라 왕경 주둔 고구려군의 퇴출

장수왕이 재위 37년(449) 국원 진출을 기념해서 신라왕과 회맹하고 화친을 도모했지만,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급속히 이완되어 갔다. 곧 450년 7월 고구려 변방장수가 悉直[강원 삼척시]의 들에서 사냥하다가 何瑟羅[강원 강릉시] 城主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장수왕이 이를 듣고 사신을 신라에 보내 국원지방에서의 우호를 상기시키며 눌지왕을 나무라면서 군사를 파견하였다. 이 사건은 눌지왕이 사과를 하고서야 수습되었다.<sup>120)</sup> 이 기록에

112) 徐榮一, 「漢城 百濟의 南漢江水路 開拓과 經營」, 『文化史學』 20, 2003, 31~41쪽.

113) 『忠州 薔薇山城-1차 發掘調査 報告書-』, 충주시·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132~133쪽.

114) 金鍾萬, 「鳥足文土器의 起源과 展開樣相」, 『韓國古代史研究』 52, 2008, 246쪽.

115) 서영일, 앞의 논문, 2003, 35쪽.

116) 김중만, 앞의 논문, 2008, 248쪽.

117) 『고대도시유적 中原京-유물편-』,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1, 25쪽.

118) 서영일도 범천리고분군 출토 부장품의 출토양상에 주목해 5세기 초반까지는 남한강 수로가 백제의 통계를 받았고, 5세기 중반 고구려가 국원성을 설치하면서 백제가 퇴출된 것으로 이해하였다(서영일, 앞의 논문, 2003, 40쪽).

119) 고구려가 국원을 장악했다면 장미산성에서 고구려의 흔적이 나와야 하는데 그동안 성과가 미미했다. 다만 발굴 이후 장미산성의 목책 雉城이 청원 남성골유적과 유사함이 지적되었고, 고구려계 鑿頭形 철촉 3점이 출토되어(앞의 보고서, 2006, 125~126쪽, 133~134쪽) 향후 추가 발굴조사와 함께 고구려 유물의 출토가 기대된다.

120)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34년.

서 신라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고구려 변방장수의 사냥은 두 나라의 우호를 전제로 가능한 행위이다.<sup>121)</sup> 사냥 자체를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삼척 내지 그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장수가<sup>122)</sup> 일상적 차원에서 행한 사냥이 하슬라 성주에게는 군사훈련 성격의 위협으로 비추어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사건은 5세기 중반 기존의 우호관계가 이완되어 가는 고구려·신라 관계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다만 눌지왕이 직접 나서 수습함으로써 극단적인 파국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슬라 성주의 성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신라의 강릉 진출시기와도 맞물려 있다. 최근 이에 대해 고구려 邊將과 하슬라 城主가 구체적인 직명이나 관등을 갖지 않았으므로 재지세력 간의 충돌로 본 주장이 제기되었다.<sup>123)</sup> 다만 두 나라 왕이 사태의 해결을 주도하는 것으로 볼 때 재지적 성격을 감안해도 중앙과 무관한 존재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고고학적으로도 강릉지역은 늦어도 4세기 후반부터는 신라의 통치권에 들어왔고, 5세기부터는 신라 고분군이 확산되었다.<sup>124)</sup> 초당동·빙산동고분군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초당동고분군에서 출토된 다수의 철제 무기류와 위세적 성격의 철모·철촉 등에 주목해 그 축조집단이 대고구려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시사해 주는 바 크다.<sup>125)</sup> 이는 나물왕 42년(397) 하슬라에서 가뭇이 들어 흉년이 되자 죄수를 사면하고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는 기록과<sup>126)</sup> 부합한다. 4세기 말 강릉은 신라의 통치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곧 하슬라 성주는 신라 중앙에서 파견한 군사지휘관으로 파악된다.<sup>127)</sup>

고구려와 신라의 불안했던 우호관계가 파탄나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다. 신라가 먼저 행동을 개시했는데, 바로 王京에 주둔해있던 고구려 군사 100명을 誅殺한 것이다.<sup>128)</sup> 기왕에 이 사건의 연대에 대해 464년이라는 시점을 과신하는 경향이 강했다.<sup>129)</sup> 그러다보

121) 金賢淑, 「4~6세기경 小白山脈 以東地域의 領域方向 -『三國史記』 地理志의 慶北地域 ‘高句麗郡縣’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26, 2002 : 『고구려의 영역지배 방식 연구』,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5, 235~236쪽.

122) 정운용은 고구려 변방이 중원에서 남한강 水系를 따라 영월-정선을 경유해 삼척으로 온 것으로 보았고(정운용, 앞의 논문, 1989, 9쪽), 김덕원은 경북 일대에 주둔해있던 고구려 군사로 이해하였다(金德原,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 蔚珍鳳坪碑」,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38쪽).

123) 주보돈, 「울진봉평리 신라비와 신라의 동해안 경영」, 『울진봉평리 신라비와 한국고대 금석문』, 울진군·한국고대사학회, 2011, 108~109쪽. 강릉은 친신라, 삼척은 친고구려세력의 기반으로 보았다.

124) 심현용, 「고고자료로 본 신라의 강릉지역 진출과 루트」, 『大丘史學』 94, 2009, 8~18쪽 및 「고고자료로 본 5~6세기 신라의 강릉지역 지배방식」, 『文化財』 42권 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17~23쪽.

李盛周·姜善旭, 「草堂洞遺蹟에서 본 江陵地域의 新羅化過程」, 『江陵 草堂洞 遺蹟』,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9, 476~479쪽.

박수영, 「江陵 草堂洞 三國時代 遺構와 遺物에 대한 小考-강릉지역의 신라화과정과 관련하여-」, 『江陵 草堂洞 遺蹟』, 2009, 497~503쪽, 517~521쪽.

연구자 간 세부적인 견해 차이는 이성주·강선옥, 위의 논문, 462~464쪽과 박수영, 위의 논문, 486~490쪽 참조.

125) 우병철, 「신라 철제무기로 본 동해안 고분 축조집단의 군사적 성격」, 『4~6세기 영남 동해안 지역의 문화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2009, 235~238쪽.

126)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42년.

127) 강중훈, 『신라 상고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194쪽의 각주 85.

홍승우, 「4~6세기 신라의 동해안 지역 진출과 지방 지배방식」, 『4~6세기 영남 동해안 지역의 문화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2009, 287~288쪽.

홍영호, 「삼국사기 지리지 溟州 영현 棟隄縣의 위치비정과 의미」, 『韓國史學報』 38, 2010, 27~28쪽.

다만 홍승우는 ‘신라 중앙에서 의도적으로 이주시켜 지역을 장악한 존재’로 파악했다.

128) 『日本書紀』 卷14, 雄略天皇 8년(464) 2월.

129) 신형식, 앞의 논문, 1979 : 앞의 책, 1984, 406~407쪽.

정운용, 앞의 논문, 1994, 51쪽 및 앞의 논문, 2006, 201~202쪽.

양기석, 앞의 논문, 1994, 84쪽.

주보돈, 앞의 논문, 2005, 149~150쪽.

니 454년과 455년에 벌어졌던 고구려와 신라 간의 충돌기사[43·45]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곧 455년 고구려가 백제를 침입하자 신라가 구원해 주었다. 이는 나제동맹이 맺어진 후 최초로 보이는 동맹군의 활동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신라본기에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국지전이라거나, 신라 원병의 규모가 미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464년까지 경주와 신라 외곽지역에 고구려 군사가 주둔한 것으로 이해하였다.<sup>130)</sup> 그러나 왕경 안에 고구려 군사가 주둔해있던 상황에서 신라가 백제에 구원군을 파견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것은 곧 고구려와의 우호관계를 끝내겠다는 선언과 같기 때문이다. 신라가 455년에 백제에 동맹군을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이에 대한 문책이 없었던 것은 불과 얼마 전에 벌어졌던 고구려 변장 살해사건에 장수왕이 기민하게 대응했던 점을 감안할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日本書紀』 雄略天皇 8년(464) 2월조의 내용은 455년 이전으로 수정해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sup>131)</sup> 사실 이 기록은 ‘고구려·신라의 우호 → 고구려 군사의 신라 주둔과 주살과정 → 고구려의 신라 침입 → 임나일본부의 신라 구원’의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464년 2월조에 수록되었다 해서 일련의 사건이 모두 같은달에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년 동안의 상황이 압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sup>132)</sup> 그렇다면 고구려 군사의 주살시기를 좀 더 구체화할 수는 없을까? 필자는 453년 7월 이리떼가 始林에 들어왔다는 기록<sup>133)</sup>에 주목하고자 한다. 시림은 金氏始祖인 關智가 태어난 곳으로 김씨왕실에게 있어서는 聖所였을 것이다. 따라서 김씨왕실 중심의 권력강화를 추구하는 눌지왕대에 이러한 기록은 ‘국가적 변고’에 대한 강한 암시라 할 만하다. 실제로 고구려 군사를 주살했던 계기는 고구려의 신라 병탄 야욕을 눌지왕이 사전에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곧 신라 왕경 안에 주둔했던 고구려 군사의 축출시점은 ‘453년 7월 이후 멀지 않은 때’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454년 8월 고구려가 신라 북변에 쳐들어온 것은 이에 대한 보복전으로 생각된다. 雄略天皇 8년 2월조의 마지막에 “두 나라[고구려·신라]의 원한이 여기서부터 생겨났다”라고 한 것도 이에 어울리는 대목이다. 결국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454년에 이르러 기존의 우호관계에서 대립관계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연 경북일대에 주둔했던 고구려 군사단도 소백산맥 이북으로 급속히 축출되었을 것이다.<sup>134)</sup> 장수왕은 신라가 자국의 영향권에서 이탈해가고 속적 백제와 공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北魏와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남진정책을 펼칠 수 없었던 것 같다. 454년과 455년에 신라와 백제에 쳐들어간 기사가 조출하게 남겨진 까닭도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북위와의 긴장관계가 안정된

130) 정운용, 앞의 논문, 2006, 202쪽. 그도 고구려·신라 관계에서 455년의 사건이 갖는 상징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나제동맹의 결성시점을 이때부터 본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131) 김현숙, 앞의 논문, 2002 : 앞의 책, 2005, 236~237쪽.

장창은, 앞의 논문, 2004a : 앞의 책, 2008, 133~134쪽.

박경철, 앞의 논문, 2007, 62쪽.

李富五, 「5세기 후반 신라의 소백산맥 서쪽 진출과 지배형태」, 『新羅史學報』 10, 2007, 12쪽.

132)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공저,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1), 일지사, 2002, 248쪽에서 이 기록을 4세기 말~5세기 중후반의 양국관계사가 압축된 것으로 이해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듯하다.

133)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37년.

134) 5세기 중반까지 신라 왕경과 소백산맥 이남에 고구려 군사가 주둔했지만 이 지역은 고구려 ‘세력권’으로 보아야 한다. 「중원비」에서 ‘太王國土’와 ‘新羅土內’·‘寐錦土內’를 구분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강중훈이 “현재 남한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곧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라고 한 비유는 적절하다(강중훈, 「5세기 후반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2008, 114쪽). 필자는 또한 순흥읍내리고분과 경북 일대 고구려계 불교유적은 고구려 ‘영향권’의 산물로 이해한다. 따라서 경북 일대 소재 ‘高句麗故地’는 4세기 말~5세기 중반까지 고구려가 신라 내정에 간섭한 산물로서 역사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지리지 찬자가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장창은, 앞의 논문, 2010b, 46쪽).

462년 이후 장수왕의 남방진출은 어찌 보면 예견된 것이었다.

## 2. 신라의 대고구려 방어성 구축

고구려는 먼저 468년 봄에 靺鞨軍 1만을 거느리고 신라 북쪽의 悉直城을 빼앗았다. 신라는 같은해 9월에 何瑟羅 사람을 동원하여 泥河에 성을 쌓았다[46·47]. 그런데 이 기록은 일면 의아한 점이 있다. 즉 신라가 강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고구려가 어떻게 그 이남의 삼척에 진출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왕에 실직의 위치를 원래 강릉 북쪽의 양양이었는데 나중에 후퇴한 것으로 보거나,<sup>135)</sup> 하슬라의 위치를 옮긴 일대로 비정하기도 했다.<sup>136)</sup> 최근에는 신라의 영역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실직과 하슬라의 위치가 북쪽으로 옮겨 갔다면서 실직과 하슬라를 포항시로 추정된 연구도 발표되었다.<sup>137)</sup> 그러나 강릉과 삼척임이 분명한 하슬라·삼척의 위치를 이동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기록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할까? 관건은 泥河의 위치비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니하의 위치비정은 논란이 분분하지만<sup>138)</sup> 강릉 일대설과 남한강 상류설로 대별된다. 강릉 일대설의 논거는 니하성의 축조에 何瑟羅人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거기에 『與猶堂全書』에 “泥河者我江陵之北泥川水也”라고 한 것과 『大東輿地圖』에 남아 있는 泥峴이 주목되었다. 반면 남한강 상류설의 논자들은 481년 고구려의 남진 때 신라·백제·가야의 연합군이 니하까지 추격한 기록[58]을 음미하였다. 또 496년 고구려가 牛山城을 공격했을 때 신라가 니하에서 고구려군을 물리쳤는데[82], 우산성이 540년에는 백제와 고구려의 교전지로 나오는데<sup>139)</sup> 주목하였다. 말하자면 백제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영동지방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이다. 필자는 이전에 니현에서 발원한 강릉 연곡천을 니하로 생각했었다.<sup>140)</sup> 그 이유는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는 교통로의 규명과 니하성으로 추정할 만한 고고학 성과가 미진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후 남한강 상류의 정선지역을 중심으로 5세기 후반~6세기 중반의 신라 유물이 출토되는 산성의 발굴성과가 축적되었다.<sup>141)</sup> 그리고 궁예의 東征路를 통해 강릉과 임계-정선으로 이어지는 고대 교통로의 단서를 찾아가 하면, 『삼국사기』 溟州 소속의 미상 지명이었던 棟隄縣을 정선군 임계지역으로 실증함으로써 하슬라의 관내범위도 윤곽이 드러났다.<sup>142)</sup> 이는 니하의 위치추정에 시사해주는 바 컸다. 이에 니하의 위치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기왕에 니하의 위치추정에 大嶺과 長嶺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신라 초기에 말갈이 ‘大嶺柵을 습격하고 泥河를 지났다’고 되어 있고,<sup>143)</sup> 말갈의 침입루트에 長嶺

135) 李丙燾, 『韓國史』(古代篇), 震檀學會, 乙酉文化社, 1959, 423쪽.

136) 리지린·강인숙, 『고구려사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76, 68~69쪽. 何瑟羅의 이칭인 河西良이 蔚州를 河曲(一作西)縣이라 한 것과 음운이 비슷한 데서 착안하였다.

137) 박노석, 「삼국시대 실직과 하슬라의 위치 이동」, 『전북사학』 35, 2009, 48~56쪽.

138) 泥河의 위치비정에 대한 연구사 검토는 다음이 참고된다.

장창은, 앞의 논문, 2004b : 앞의 책, 2008, 148~155쪽.

홍영호, 「三國史記 所載 泥河의 위치비정」, 『韓國史研究』 150, 2010, 45~60쪽.

139)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安原王 10년 및 卷26, 百濟本紀4, 聖王 18년.

140) 장창은, 앞의 논문, 2004b : 앞의 책, 2008, 152~154쪽.

141) 『旌善 古城里山城』, 강원문화재단연구소·정선군, 2006.

『旌善 松溪里山城 發掘調査報告書』, 강원문화재단연구소·정선군, 2006.

니하성을 송계리산성으로 처음 본 이는 서영일이었다(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52~53쪽 및 「5~6世紀 新羅의 漢江流域 進出과 經營」, 『博物館紀要』 2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57쪽).

142) 홍영호, 앞의 논문, 2010 및 2011.

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기<sup>144)</sup> 때문이다. 곧 신라 북변을 통한 말갈 침입루트의 도상에 대령과 장령이 있고, 니하가 그 인근에 있음을 시사해 준다. 물론 ‘큰고개’·‘긴고개’라는 이름은 아무 곳이나 쉽게 붙을 수 있다. 하지만 니하가 하슬라 관내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그 범위는 상당히 좁혀진다. 그렇게 보면 대령은 대관령임이 유력하다.<sup>145)</sup> 慈藏이 신라로 돌아왔을 때 태자인 보천과 효명이 河西府[강릉]에서 하룻밤 머물고 다음날 大嶺을 지나갔다고 하므로<sup>146)</sup> 신라시대부터 대관령이 대령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장령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오대산의 서쪽을 長嶺이라 했고,<sup>147)</sup> 『朝鮮地誌資料』에는 강릉시 연곡면에 있는 泥峴도 長嶺이라 했다.<sup>148)</sup> 그렇다면 대관령 서북쪽에 있었던 장령을 경유해 동남쪽의 대령을 지나 니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교통로의 흐름상 니하는 대관령의 남쪽 내지 동쪽에 있어야 한다.<sup>149)</sup> 그런데 니하가 대관령 동쪽의 강릉에 있었다면, 앞서 제기한 모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니하는 대관령 남쪽의 남한강 상류가 될 수밖에 없다.<sup>150)</sup>

이제 468년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실직성을 침입할 수 있었던 것이 이해될 수 있다. 곧 고구려는 하슬라가 신라에게 공고히 장악되고 있었으므로 하슬라를 통하지 않는 우회로를 선택해 실직성을 공격했던 것이다. 그 경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먼저 동해안로를 통해 南下하다가 강릉 북쪽의 양양에서 강릉 서쪽으로 우회 남진해 정선군 임계면에서 동해안 방면의 삼척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sup>151)</sup> 다른 하나는 고구려가 기존에 장악한 국원과 죽령로를 이용해 동진하는 경우이다. 곧 남한강 수로를 이용해서 충주-청풍-단양-영월-정선-삼척으로 진출할 수 있다.<sup>152)</sup> 어느 경우이든 간에 삼척 서북쪽에 있는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일대에 다다르게 된다. 결국 신라가 고구려의 실직성 공략 후 하슬라인을 동원해서 니하에 성을 쌓은 까닭은 삼척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실직성 서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세력의 방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니하성을 정선군의 송계리산성으로 비정한 최근 일련의 연구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sup>153)</sup>

143)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祇摩尼師今 14년.

144)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4년·6년·7년.

14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4, 江陵大都護府 山川. “大關嶺…府治五十里 俗號大嶺.” 大嶺을 竹嶺으로 보기도 한다(서영일, 앞의 논문, 2003, 25쪽의 각주 28; 金鎭光, 『三國史記』 本紀에 나타난 靺鞨의 性格, 『高句麗渤海研究』 35, 2009, 22쪽). 그러나 ‘대령책을 습격하고 니하를 지났다’고 했으므로 니하가 대령책의 북쪽에 있을 수 없다.

146) 『三國遺事』 卷3, 塔像4, 臺山五萬眞身·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

14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4, 江陵大都護府 山川. “五臺山 在府西一百四十里 東滿月 南麒麟 西長嶺 北象王 中智爐 五峯環列大小均敵故名之我.” 『三國遺事』 卷3, 塔像4, 臺山五萬眞身과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에도 五臺山の 西臺를 長嶺山이라고 하였다.

148) 홍영호, 앞의 논문, 2010, 61쪽. ‘진고개’와 ‘긴고개’의 상통성을 잘 보여준다.

149) 때문에 대관령 북쪽에 있는 연곡천은 후보지가 될 수 없다. 홍영호는 조선시대 지리지와 고지도에서 강릉 북쪽의 ‘泥川水’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니하를 의식한 가상의 하천이라 하였다(홍영호, 앞의 논문, 2010, 47쪽).

150) 이곳의 니하 후보 하천으로는 송천, 임계천, 오대천을 꼽을 수 있는데 모두 조양강으로 합류한다. 최근 이곳을 주목한 이들이 서영일·홍영호·박성현(앞의 논문, 2010, 209~210쪽)이다. 『대동여지도』를 참고하면, 이 하천들도 泥峴 서쪽에서 남하하므로 ‘泥河’로 불려도 어색하지 않다.

151) 세부적으로는 강릉 서쪽의 왕산면을 지나는 35번국도(강릉-삼당령-버들고개-송계)와 오대산에서 하진부로 남하하는 59번 및 42번국도로 동쪽으로 삼척에 갈 수 있다. 『삼국유사』 慈藏定律에 따르면, 자장은 만년에 오대산에 들어가 평창군 진부면의 水多寺와 정선을 거쳐 태백산 淨岩寺를 세웠다. 후자의 교통로는 이것과도 연관된다.

152) 대체로 이 경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정운용, 앞의 논문, 1989, 11쪽.

이인철, 「高句麗의 南進經營과 靺鞨」, 『春州文化』 11, 1996 : 앞의 책, 2000, 307쪽.

박성현, 앞의 논문, 2011, 68~69쪽.

그런데 기록에서는 고구려가 실직성을 攻取하였다. 만일 이 상태에서 신라가 삼척의 서북쪽에 니하성을 쌓았다면 실직성의 고구려군은 고립된다. 아마도 고구려군은 실직성을 공취한 후 북쪽 하슬라의 신라군을 의식해 회군한 듯하다. 고구려군이 1만 명의 말갈을 용병으로 기용한 것도 실직성에 오래 머물기 어려운 요인이었을 것이다. 신라 입장에서도 실직성에 고구려군이 주둔한 상태라면 하슬라에서 대규모의 민을 동원해 축성사업을 벌이기는 무리였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는 고구려가 물러간 후 삼척의 실직성을 방어하기 위해 니하성을 축조한 것 같다. 동해안로의 지리적 조건을 살펴보면, 삼척에서 울진 사이의 해안지대가 암석해안이어서 통행에 장애요소가 된다.<sup>154)</sup> 때문에 북쪽에 있는 나라가 삼척을 장악하면 그 남쪽에 이르는 동해안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다.<sup>155)</sup> 곧 삼척은 지형적 특징상 신라가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기에 적합하며, 최종 방어선 겸 전진거점이 될 만한 전략지역이었다.<sup>156)</sup> 이렇게 보면 신라는 니하성을 축조함으로써 동해안로 북단의 요충지에 대한 방어체제를 구축한 셈이다.

468년 이후 고구려의 신라 공격은 소강상태를 맞았다. 그것은 아마도 백제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 같다. 곧 469년 백제가 고구려의 남변을 공격하였다[48]. 이때부터 고구려가 백제 한성을 공략하는 475년까지의 교전양상이 남아 있지 않지만, 개로왕이 472년에 北魏 孝文帝에게 보낸 외교문서에 “추악한 무리들[고구려]이 점차 성해져서 드디어 [우리는] 능멸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으며, 원한을 맺고 병화가 이어진 지 30여 년에 재물도 다하고 힘도 고갈되어 점점 약해지고 위축되었습니다”라고 호소한 것<sup>157)</sup>을 보면, 고구려의 백제에 대한 공세와 그로 인해 백제가 느끼는 압박감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개로왕 국서는 장수왕의 親征을 초래했는데, 고구려는 한성 공격을 위해 수년간 국방력을 집중시켰을 것이다. 신라로서는 고구려와의 관계에 있어 유예기간을 벌은 셈이었다. 이는 곧 慈悲王(458~479)이 고구려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성 구축에 주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sup>158)</sup>

신라는 먼저 470년 충북 보은에 三年山城을 쌓았다. 이곳은 서쪽으로는 금강의 水系와 연결되고, 북쪽으로도 달천을 통해 남한강 유역과 가까운 삼국의 군사력이 충돌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sup>159)</sup> 신라로서는 계림령로와 죽령로가 만나는 경북 상주에서 서쪽으로 화령만 넘어가면 다다를 수 있다. 때문에 삼년산성은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어 서북방으로 진출하는데 중요한 거점성 역할을 하였다. 신라는 471년에는 荊老城을 쌓았고, 474년에는 一牟城[충북 청원군 문의]·沙尸城[충북 옥천군 이원면]·廣石城[충북 영동군]·沓達城[경북 상주시 화서면]·仇禮城[충북 옥천군 옥천읍]·坐羅城[충북 영동군 황간면] 등에 집중적인 축성사업을

153) 송계리산성은 태백산맥 서쪽에 있지만 고갯길을 이용해 영동지역으로 진출하기 쉽다(앞의 보고서, 2006, 19쪽).

154) 徐榮一, 「斯盧國의 悉直國 併合과 東海 海上權의 掌握」, 『新羅文化』 21, 2003, 331쪽.

155) 차장섭, 『고요한 아침의 땅 삼척』, 역사공간, 2006, 17쪽.

156) 윤명철, 「삼척지역의 海港도시적 성격과 金異斯夫 선단의 출항지 검토」, 『이사부와 동해』 2, 한국이사부학회, 2010 : 『해양역사상과 항구도시들』(윤명철해양논문선집 5), 학연문화사, 2012, 243쪽.

삼척지역의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실직의 非禮山이 中祀 四海 중 北海의 제장으로 편제되었다(金昌謙, 「新羅 中祀의 ‘四海’와 海洋信仰」, 『韓國古代史研究』 47, 2007, 177~180쪽).

157)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蓋鹵王 18년.

158) 자비왕~소지왕대 축성지역의 위치비정은 필자가 자세히 정리하였다(장창은, 앞의 논문, 2004b : 앞의 책, 2008, 155~159쪽, 162~171쪽). 이때 확정짓지 못한 위치비정은 전덕재의 연구(全德在, 「관산성 전투에 대한 새로운 고찰」, 『新羅文化』 34, 2009, 35~41쪽)를 참고해 보완했다. 이에 이하의 서술에서는 자료와 연구성과 인용은 생략한다.

159) 삼년산성의 지리적 조건은 崔永俊, 『嶺南大路-韓國古道路의 歷史地理的 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0 : 『한국의 옛길 嶺南大路』,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2004, 83~85쪽과 『報恩 三年山城-2004년도 발굴조사보고서』, 중원문화재단연구원·보은군, 2006, 22~24쪽 참조.

진행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성이 소백산맥 서쪽과 그 너머 금강 상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60)</sup> 사시성도 상주에서 화령을 넘어 삼년산성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신라가 소백산맥 서북쪽 너머에 축성사업을 했던 까닭은 소백산맥의 지형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곧 소백산맥의 북사면이 남사면보다 경사가 완만해서 고구려군이 군사작전 시에 신라군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sup>161)</sup> 그런데 고구려가 계림령으로 남진하기 위해서는 긴 협곡 지대를 통과해야 하므로 신라가 방어하기 유리했다.<sup>162)</sup> 죽령로의 경우 양국의 우호기에는 활발히 이용되었지만 갈등기에 교전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sup>163)</sup> 이렇게 보면 5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와 신라는 소백산맥의 죽령과 계림령을 기점으로 삼아 대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164)</sup> 6~7세기에 고구려가 신라로부터 빼앗긴 한강 유역의 영유권을 주장할 때 계림령과 죽령 이북의 연고권만을 주장했던<sup>165)</sup> 까닭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 3. 고구려의 대신라 공세와 교착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된 것은 백제 한성을 공략한 이후였다. 곧 481년 3월에 말갈군과 함께 신라 북변을 침입해 狐鳴城[경북 청송군 또는 영덕군] 등 7城을 빼앗고 彌秩夫[경북 포항시 흥해]까지 진군하였다[58]. 신라 입장에서는 수도 인근까지 위협당하는 위기상황이었다. 하지만 신라·백제·가야의 동맹군이 길을 나누어 방어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泥河 서쪽까지 추격해서 고구려군 1천 명을 목베는 것으로 귀결되었다[58]. 이때 고구려군이 남진한 경로는 어디였을까? 일단 468년의 니하성 축조로 삼척 이북의 방어 체제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므로 동해안로 일변도의 남진은 아닐 것이다. 이는 백제·가야의 동맹군과 길을 나누어 방어했다는 것으로도 방증된다. 그렇다면 경북 내륙루트밖에 없는데, 죽령로 일대에는 신라군이 방어하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우회하는 경로가 유력하다. 기왕에는 고구려군이 중원에서 ‘新羅土內幢主’가 있던 지역으로 進攻하고, 말갈은 신라의 하슬라와 실직의 거점을 고립시킨 채 동해안선을 따라 흥해에서 습軍, 경주를 압박한 것으로 본 적이 있다.<sup>166)</sup> 또한 순흥·봉화·예안 등지에 잔존해 있던 고구려 군사가 임하-진보-청송-영덕-흥해를 통해 기습한 것으로도 이해했다.<sup>167)</sup> 현 단계에서 고구려군의 남진경로를 분명히 하기는 힘들지만, 니하가 퇴로의 귀착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한강 상류 정선에서 니하성을 우회해 태백산을 넘어 봉화-예안-진보(청송)-영해-영덕-흥해로 가면서 7성을 급습해 공략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68)</sup>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백제·가야와의 적절한 공조로 신라

160) 백제 입장에서도 부담되었을 것이다. 다만 백제 측의 대응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나제동맹이라는 특수상황이 이러한 축성사업을 가능케 했던 것 같다. 이 지역의 신라 산성은 5세기대 고구려와의 관계에서 축성되었지만, 나제의 관계가 이완된 6세기부터는 대백제 방어성의 역할도 겸했을 것이다.

161) 최영준, 앞의 책, 2004, 79~80쪽.

162) 서영일, 앞의 책, 1999, 200쪽.

163) 신라가 이 지역에 산성축조를 한 고고학적 정황은 車勇杰, 「竹嶺路와 그 부근 嶺路沿邊의 古城址 調査研究」, 『國史館論叢』 16, 국사편찬위원회, 1990 참조.

164) 이한상도 5세기대 고구려·신라가 죽령을 경계로 대치한 것으로 보았고(이한상, 「읍내리분묘군의 편년을 통해 본 5세기대 순흥지역의 위상」, 『역사문화연구』 19, 한국의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3, 27쪽), 김현숙은 481~500년 사이 고구려세력이 경북지역에서 물러가면서 550년까지 죽령을 경계로 대치한 것으로 이해했다(김현숙, 앞의 논문, 2002, 107쪽). 서영일도 계림령에 한해 5~6세기 중엽 두 나라 간 완충지대로 인식된 것으로 파악했다(서영일, 앞의 책, 1999, 201쪽).

165)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1년 ; 卷41, 列傳1, 金庾信 上 ; 卷45, 列傳5, 溫達.

166) 정운용, 앞의 논문, 1989, 13쪽.

박경철, 앞의 논문, 2007, 64쪽.

167) 김현숙, 앞의 논문, 2002, 103~105쪽. 흥영호는 중원-경북 북부-안동-영해-미질부로 진공한 것으로 파악했다(흥영호, 앞의 논문, 2010, 71~72쪽).

의 승리로 끝이 났다.<sup>169)</sup>

481년 경북 내륙과 동해안을 통해 신라를 압박하려 했던 고구려의 의도는 좌절되었다. 이에 고구려는 작전선을 바꾸어 백제와 신라의 국경선이 맞닿아 있는 미호천 유역을 공략하였다. 곧 484년 母山城[충북 진천군]을 공격한 것이다. 그러나 역시 나제동맹군의 활약으로 고구려군이 대패하였다[62]. 이때 고구려군이 진천에서 나제동맹군과 교전할 수 있었던 것은 475년 한성 함락 후 지속된 남진의 결과와 관련이 깊었다. 곧 고구려는 한성 함락 이후 몽촌토성을 거점으로 삼아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를 압박해 남진을 지속하였다. 청원 남성골 유적<sup>170)</sup>과 대전 월평동산성<sup>171)</sup>은 5세기대 고구려의 남진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 성남 판교동·용인 보정동·화성 청계리 등 경기 남부에서 고구려 석실분이 발굴됨으로써<sup>172)</sup> 고구려의 남진경로에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곧 고고학적 정황을 존중할 때 5세기 후반 고구려가 백제를 공략한 경로는 한성(몽촌토성)-성남-용인-안성-진천<sup>173)</sup>에서 미호천을 경유하여 금강 유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74)</sup>

炤知王(479~500)은 485년에 仇伐城[경북 의성군]을 쌓았다[63]. 다음해에는 一善界[경북 선산군] 丁夫 3천 명을 징발해 三年山城과 屈山城[충북 옥천군 청산면]을 고쳐 쌓았다[65]. 그리고 488년과 490년에 각각 刀那城[경북 상주시 모동면]을 쌓고 鄙羅城을 증축하였다[70·72]. 소지왕은 자비왕대의 방어성 구축을 계승하면서도, 소백산맥 이남 교통로상의 요충지에도 2차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하였다. 다만 소지왕대는 자비왕대와 달리 축성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고구려의 파상적인 공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곧 489년 9월 신라 북변에 침입하여 戈峴을 경유한 후 10월에는 狐山城을 장악하였다[71]. 고구려가 475년 이후 신라와 치룬 교전 중 남진의 거점으로 공취한 성으로는 처음이

168) 필자는 정운용·김현숙이 경북 내륙경로를 주목한 것에 동조하면서도, 이 시기까지 소백산맥 이남에 고구려 군사가 주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위험상황이 잔존한 상태에서 신라가 소백산맥 너머 서북쪽 변경과 동해안로에 축성사업을 추진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도학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李道學, 『新羅의 北進經路에 관한 新考察』, 『慶州史學』 6, 1987, 26쪽).

169) 때문에 경북일대 ‘고구려고지’를 481년 전쟁의 결과와 관련짓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고구려고지’는 5세기 중반 이전의 산물로 이해한다.

170)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忠北大學校 博物館, 2004 ;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2006년도 추가발굴조사』, 忠原문화재단연구원, 2008. 1차 발굴 결과 고구려식 집터와 고구려 토기류(130여 점), 철제 무기류가 다량 발굴되었고, 2차 발굴에서는 고구려 양식의 금제 귀걸이와 철제 鑣가 발굴되었다. 유적의 연대는 목책 구덩이에서 나온 숯의 방사성 탄소연대 값이 5세기 후반 경으로 나오고, 시루의 형식 등을 감안해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으로 보았다.

171) 『大田 月坪洞遺蹟』, 국립공주박물관·충남대학교박물관, 1999 ; 『大田 月坪洞山城』, 충청문화재단연구원, 2003. 이곳에서 5세기 말경을 하한으로 하는 고구려 토기편 20여 점이 출토되었다.

172) 「성남 판교지구 문화유적2차 발굴조사-5차 지도위원회의 자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12.1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901-3번지 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한양대학교 문화재단연구소, 2007.7.

이한용·윤중현, 「용인 보정동 고구려 석실묘 발굴조사」, 『계간 한국의 고고학』(가을호), 2007, 104~111쪽.

「화성 청계 택지개발지구 내 문화재 발굴조사 3차 지도위원 회의자료(가지구)」, 한백문화재단연구원, 2008.9.

보정동에서는 抹角藻井의 천장구조를 가진 고구려 석실묘 2기와 고구려 양식의 흑색마연토기호 1점이 출토되었다. 판교동과 청계리에서도 각각 고구려 석실묘 2기가 발굴되었고, 청계리 1호분에서는 흑색마연토기호 1점이 출토되었다. 고분의 천장구조와 토기 양식으로 볼 때 5세기 후반 고구려 석실분으로 이해한다.

173) 진천 대모산성에서도 고구려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鎭川 大母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6, 84쪽).

174) 張彰恩, 「5~6世紀 高句麗의 南下와 한강 유역의 領域方向-『三國史記』 地理志 ‘高句麗故地’의 實際(II)」, 『白山學報』 88, 2010c, 243쪽. 주령로를 이용해 충주에서 달천을 따라 올라가 괴산-증평에서 미호천 유역으로 진출했을 가능성과 두 경로에서의 협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부오는 아차산성 일대로부터 남한강 하류를 거쳐 땅이산성 방면에서 미호천 유역으로 남하한 것으로 이해하였다(李富五, 「5세기 말 금강 중상류의 대치선 이동과 삼국의 전략」, 『軍史』 7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19~20쪽).

었다. 다만 그 위치를 알 수 없다. 고구려는 文咨明王(491~519) 즉위 후에도 신라에 대한 압박의 공세를 이어갔다. 곧 494년 7월 薩水原[충북 괴산군 청천면]<sup>175)</sup>에서 신라군과 싸워 승리하였다. 신라는 이때 犬牙城[상주시 화북면 견훤산성]으로 후퇴해 고구려군에 포위당했다. 백제 동성왕이 3천군을 보내 간신히 포위를 풀 수 있었다<sup>177)</sup>.

그런데 고구려가 살수원으로 진출한 경로는 장수왕대와 사뭇 다른 인상을 준다. 왜냐하면 경기 남부와 진천지역을 경유해서 미호선 서쪽으로 남하하는 루트가 484년 모산성 전투의 패전으로 봉쇄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살수원은 충주지역에서 달천을 따라 남진하면 쉽게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국원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크다.<sup>176)</sup> 이것은 곧 고구려가 5세기 중반 국원을 장악한 이후 지속적으로 영역지배 하였음을 시사한다. 다만 그동안 「중원비」 외에 고구려의 충주지역 지배와 경영을 뒷받침해 주는 고고학 자료가 부족했었다. 그런 와중에 충주시 두정리에서 황혈석식실분 6기가 발굴되어 주목을 받았다.<sup>177)</sup> 고고학계에서는 고분의 구조적 특징상 1~4호분에서 모서리를 말각조정한 점과, 2호·4호분에서 출토된 短頸壺와 長胴壺가 고구려 토기라는 점, 그리고 4호분에서 출토된 은제 지환이 평양대성산 출토품과 유사한 데 주목해 두정리고분군을 고구려 고분군으로 파악하였다. 유적의 조성연대는 토기 형식에 주목해 5세기 중·후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78)</sup> 뿐만 아니라 최근 탐평리유적에서 발굴된 구들시설도 고구려의 것으로 파악되어<sup>179)</sup> 향후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충주지역의 고고학 성과는 국원이 5세기대 고구려의 남진거점으로서 중요시되었음을 웅변해 준다.

국원의 활용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죽령로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도 최근 고고학 자료가 축적되고 있어 주목된다. 기존의 춘천 천전리·방동리·신매리고분 외에 홍천 역내리·철정리유적, 원주 건등리유적에서 고구려 유물·유적이 출토되었다. 철정리유적에서는 생산유구로 추정되는 수혈부 구상유구에서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고, 역내리유적 4호주거지에서도 帶狀把手가 부착된 長胴壺가 고구려 토기로 파악되었다.<sup>180)</sup> 특히 원주 건등리유적은 생활유적으로서 주거지와 구상유구에서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어<sup>181)</sup> 그 의미가 배가된다. 비록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흡하지만 죽령로의 도상에서 발굴되는 고구려 유물·유적은 향후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5세기대 고구려의 남방 교전지역과 고고학 발굴양상을 종합해 볼 때, 고구려는 광개토왕의 남정 이후 죽

175) 구체적으로 청천면의 후평리 별관으로 비정하기도 한다(金榮官, 「古代 淸州地域의 歷史的 動向」, 『白山學報』 82, 2008, 47쪽의 각주 46).

176) 이부오가 당시 고구려가 미호선 방면으로부터 협공을 동반하지 못했던 까닭을 당시 백제가 미호선 유역을 회복했기 때문이라고 한 점도 맥락이 닿는다(이부오, 앞의 논문, 2009, 27~28쪽).

177) 『忠州 豆井里 遺蹟』, 중원문화재연구원·충주시, 2010.

178) 최장열, 「고구려의 중원 경영」, 『중원의 새로운 문화재』Ⅱ,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117~118쪽.

성정용, 「중부지역에서 백제와 고구려 석실묘의 확산과 그 의미」, 『황혈석식실분의 수용과 고구려 사회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2009, 146~147쪽.

白種伍, 「南韓內 高句麗 古墳의 檢討」, 『高句麗渤海研究』 35, 2009, 231~232쪽, 242~243쪽.

최종택, 「남한의 고구려고분」,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2-고분과 유물』, 동북아역사재단, 2009, 128~130쪽.

양시은,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방식에 대한 검토」, 『고고학』(제9권 제1호), 중부고고학회, 2010, 45~46쪽.

안신원, 「최근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 고구려계 고분」, 『高句麗渤海研究』 36, 2010, 82~88쪽.

다만 발굴보고서에서는 석실분의 축조시기를 5세기 후반~6세기 초로 추정하였다(앞의 보고서, 2010, 159쪽).

179) 『고대도시유적 中原京-유물편-』,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1, 29쪽.

180) 『下花溪里·哲亭里·驛內里 遺蹟(I)』,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286쪽, 378~381쪽.

181) 『原州 建登里遺蹟-원주 건등리 아파트신축부지 발굴조사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94~99쪽.

령로를 남진경로로 활용하였고, 장수왕대인 5세기 중반 국원을 차지한 뒤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백제와 신라를 압박했음을 알 수 있다.<sup>182)</sup>

고구려는 496~497년 신라의 牛山城을 집중 공략하였다. 먼저 496년 7월에 공격하였는데, 이때는 신라 장군 實竹의 활약으로 니하 상류에서 패하였다. 하지만 다음해 8월 다시 공격하여 결국 우산성을 함락시켰다. 우산성의 위치를 충주·보은 방면으로 추정하거나,<sup>183)</sup> 비슷한 관점에서 충주지역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sup>184)</sup> 그 위치를 분명히 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구려가 우산성을 공격했을 때 실족이 니하에서 교전했으므로, 니하성에 다다르기 이전의 서쪽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산성은 니하와 니하성의 서쪽 인근인 정선과 영월 정도로 위치를 비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sup>185)</sup> 그렇다면 고구려의 우산성 공략은 죽령로와 남진거점인 국원에서 남한강 상류를 경유해 신라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 결과 남한강 상류의 거점성인 우산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라에 대한 새로운 공세루트를 개척해나가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고구려와 신라의 교전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보면, 문자명왕대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지 못한 듯하다. 도리어 신라는 智證王(500~514) 즉위 후인 504년에 波里城 외 12성을 축성하는가 하면, 다음해에는 異斯夫를 悉直州의 軍主로 파견해 동해안로의 방어체제를 완비하였다[92].<sup>186)</sup> 512년에는 于山國까지 복속함으로써<sup>187)</sup> 고구려의 對倭航路를 차단하고 동해안 일대의 制海權마저 장악하였다.<sup>188)</sup> 결국 고구려의 대신라 남방진출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에 따라 삼국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재설정되었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4~5세기 고구려의 남방진출 양상과 대신라 관계의 변화를 연관지어 검토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삼고자 한다.

고구려와 신라는 4세기 후반 백제를 사이에 두고 양국 간 군사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급속히 가까워졌다. 그 결과 신라는 377년과 381년에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前秦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다만 이 시기 두 나라의 관계는 신라 측의 의도와 별개로 고구려에 의해

182) 그렇게 보면 정운용·박경철이 468년 실직성 공취와 481년 호명 등 7성을 장악하고 미질부에 진출했던 고구려군의 출발지를 국원으로 본 것은 타당했다고 생각한다. 결국 죽령로는 고구려가 동해안로와 소백산맥 서쪽 경로로 남진하는데 있어서 중심 매개 교통로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183) 津田左右吉, 「好太王征服地域考」, 『朝鮮歴史地理』上, 1913 : 亞世亞文化社, 1986, 78~79쪽 및 「長壽王征服地域考」, 같은 책, 96~98쪽.

184) 박성현, 앞의 논문, 2010, 209~214쪽.

185) 이인철도 우산성의 위치를 중원군과 단양일대로 비정하면서도, 우산성이 본래 신라의 소유였다는 점을 상기해 그보다 더 동쪽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이인철, 앞의 논문, 1996 : 앞의 책, 2000, 303쪽).

186) 장창은, 앞의 논문, 2007 : 앞의 책, 2008, 227~236쪽.

187)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13년 및 卷44, 列傳4, 異斯夫.

188) 金皓東, 「삼국시대 新羅의 東海岸 制海權 확보의 의미」, 『大丘史學』65, 2001, 73~78쪽.

김정숙, 「古代 各國의 동해안 運營과 防禦體系」, 『전근대 동해안 지역사회의 운용과 양상』(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景仁文化社, 2005, 30쪽.

김창석, 앞의 논문, 2009, 124~126쪽.

윤명철, 「울릉도·독도의 역사적 환경과 의미」, 『독도 학술세미나』, 한국문화원연합회, 2010 : 『해양역사와 미래의 만남』(윤명철해양논문선집 8), 학연문화사, 2012, 363~364쪽.

김창겸, 「신라의 東北方 진출과 異斯夫의 于山國 정복 출항지」, 『史學研究』101, 2011, 58~59쪽.

주도권이 행사되었다. 백제와의 대결구도에서 신라를 끌어들이어 백제를 측면에서 견제하고 전략적 부담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구려의 이해가 더 관철되었고, 그에 따라 신라가 고구려에 종속될 소지가 컸다. 고구려는 前燕과의 관계를 통해 인질외교의 효용성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신라와의 관계에서 적극 활용하였다. 奈勿王(356~402)은 고구려의 요청에 따라 ‘고구려의 强盛’을 인정하며 實聖을 인질로 파견하였다. 여기에는 혈연적으로 방계였던 정적을 견제하려는 정치적인 이유도 내재되어 있었다. 이 시기 신라 사신단이 고구려로 나아가는 교통로는 백제의 감시와 견제에서 안전한 ‘동해안로’가 이용되었다. 곧 수도 경주에서 동해안로를 이용해 함흥지방에 이른 후 서북쪽으로 황초령을 넘어 장진-아득령-강계를 거쳐 國內城에 이르렀다.

고구려에 대한 신라의 종속적 우호관계는 廣開土王(391~412)의 南征으로 인해 심화되었다. 광개토왕은 永樂 6년(396)에 백제로부터 58城 700村을 획득하며 남한강 상류까지 진출함으로써 중부 내륙과 영서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죽령로’를 장악하였다. 이로써 고구려는 예성강~한강 하류 유역에서 공방전을 벌였던 백제를 남한강 상류에서 서남진하여 압박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신라로 진출하는 교통로를 다변화했다. 광개토왕은 庚子年(400)에 왜군이 신라를 쳐들어오자 5만군을 파견하여 신라를 구원함으로써 신라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증폭시켜갔다. 다만 광개토왕의 남방진출은 後燕의 침략으로 인해 적극적인 영역지배보다는 군사적 거점지배의 형태로 유지되었다. 광개토왕은 고구려에 오랜 기간 불모로 잡혀있어 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미약했던 실성을 즉위시켜 신라 내정에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자 했다. 實聖王(402~417)은 즉위 후 경자년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써 직접 고구려에 가서 朝貢하였다. 실성왕은 나물왕 직계를 견제하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쳐들어온 倭國을 회유하고자 末斯欣을 불모로 보냈다. 하지만 왜국은 고구려에 있어 당시 백제와 연결되어 있는 토벌의 대상이었다. 곧 실성왕이 추진한 왜국과의 通好는 의도와 무관하게 고구려의 이해와 배치되는 측면이 강했다. 실성왕은 결국 집권 말기 추진한 閱兵이 고구려에게 독자적인 군사행보 추구로 오해 받아 실각하였다. 고구려는 以夷制夷 차원에서 나물왕 직계와 방계 간의 대립을 적절히 이용했고, 그 결과 놀지를 즉위시켰다.

訥祗王(417~458)은 고구려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즉위했지만, 고구려에 불모로 간 적이 없어 성장과정과 지지기반이 실성왕에 비해 고구려로부터 자유로웠다. 長壽王(413~491)은 실성왕이 고구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색한 자립화행보를 거울로 삼아 신라 왕경에 군사단을 주둔시켰고, 신라에게 공납의 부담도 가중시켜갔다. 이에 놀지왕은 고구려세력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놀지왕은 먼저 425년에 고구려에 불모로 가 있던 동생 卜好[寶海]를 탈출시켰다. 그리고 백제 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433~434년에 羅·濟同盟을 체결해 고구려와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는 메시지를 표방하였다. 하지만 고구려는 427년 평양천도를 전후해 복잡했던 내부사정과, 430년대 이후 증폭된 北魏와의 갈등국면으로 인해 신라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장수왕은 오히려 고구려의 영향권에서 이탈해가는 신라를 회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사하였다. 그 결과물이 450년에 건립된 「中原高句麗碑」였다. 장수왕은 곧 國原[충북 충주시] 진출을 기념하고 고구려 국력을 과시하여 신라를 회유하고자 놀지왕을 국원으로 불러 형제관계임을 천명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급속히 이완되어 갔다. 450년 7월에 고구려 변방장수가 悉直[강원 삼척시]의 들에서 사냥하다가 何瑟羅[강원 강릉시] 城主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은 그 서막이었다. 이때 장수왕은 국원지방에서의 우호를 상기시키며 놀지왕을 나무라면서 군사를 파견했고, 이에 놀지왕이 사과하면서 사태가 수습되었다. 고구려

와 신라의 불안정했던 우호관계는 453년 7월 신라가 왕경에 주둔해있던 고구려 군사 100명을 誅殺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급기야 고구려가 이에 대응해 다음해 신라를 쳐들어오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대립국면으로 변화되었다. 455년에 이르러 나제동맹군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러한 삼국관계의 변화를 웅변해 준다.

고구려는 이후 신라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여갔다. 먼저 468년 봄에 靺鞨軍 1만을 거느리고 신라 북변의 悉直城을 공취하였다. 이때 고구려군은 신라가 장악하고 있던 何瑟羅를 통하지 않는 우회로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고구려군은 군단의 구성이 용병 위주였고, 북쪽의 하슬라에 주둔해있던 신라군의 반격에 고립될 것을 우려해 실직성에 오래 머물지 않고 회군한 듯하다. 신라는 이에 468년 9월에 하슬라인을 동원해 泥河[강원도 정선군 송계리산성]에 성을 쌓았다. 이것은 고구려 남진의 최종 방어선이자 전진거점이었던 삼척의 실직성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다. 468년 이후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공격은 백제와의 관계로 인해 소강상태를 맞았다. 이에 慈悲王(458~479)은 고구려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성 구축에 주력하였다. 특히 소백산맥의 지형적 특성상 북사면이 남사면보다 경사가 완만해서 고구려군이 군사작전 시에 신라군보다 유리했기 때문에, 신라의 축성사업은 소백산맥 서쪽과 그 너머 금강 상류에 집중되었다. 신라는 470년 三年山城[충북 보은군] 축조를 시작으로 471년에는 芎老城, 474년에는 一牟城[충북 청원군 문의]·沙尸城[충북 옥천군 이원면]·廣石城[충북 영동군]·沓達城[경북 상주시 화서면]·仇禮城[충북 옥천군 옥천읍]·坐羅城[충북 영동군 황간면] 등을 쌓아 방어체제를 마련해 나갔다.

고구려는 475년 백제 한성을 공략한 이후 신라에 대한 남방진출을 본격화하였다. 먼저 481년에 말갈군과 함께 북변을 침입해 狐鳴城[경북 청송군 또는 영덕군] 등 7城을 빼앗고 彌秩夫[경북 포항시 흥해]까지 진군하였다. 이때 고구려군은 남한강 상류 정선에서 니하성을 우회해 태백산을 넘어 봉화-예안-진보(청송)-영해-영덕-흥해로 가면서 7성을 급습해 공략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백제·가야와의 적절한 공조로 신라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고구려는 경북 내륙과 동해안을 통해 신라를 압박하려 했던 의도가 좌절되자, 작전선을 바꾸어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미호천 유역을 공략하였다. 그것은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 공략 이후 몽촌토성을 거점으로 삼아 성남-용인-안성-진천을 거쳐 미호천을 경유하여 금강 유역까지 백제를 압박했던 데서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484년에 발생한 母山城[충북 진천군] 전투 역시 나제동맹군의 활약으로 고구려가 패배하였다. 이때의 패전으로 인해 고구려는 미호천 서쪽의 남진교통로를 상실하였다. 이 때문에 文咨明王(491~519) 즉위 후의 신라에 대한 공세는 주로 국원을 거점으로 파병되었다. 그것은 곧 5세기 중반 이후 국원과 죽령로가 고구려에 의해 안정적으로 영역지배[거점지배]됐음을 전제로 하였다. 충주 두정리고분군과 죽령로 도상의 흥천 역내리유적·철정리유적, 원주 건동리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 유물·유적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고구려는 494년 7월에 薩水原[충북 괴산군 청천면]에서 신라군과 싸워 승리하였다. 신라는 이때 犬牙城[상주시 화북면 견훤산성]으로 후퇴해 고구려군에 포위당했다가, 백제 동성왕이 3천군을 보내 간신히 포위를 풀 수 있었다. 고구려는 또한 496~497년 신라의 牛山城을 집중 공략해 장악하였다. 고구려는 남한강 상류의 거점성인 우산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라에 대한 새로운 남진경로를 개척해나가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러나 문자명왕대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압박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도리어 신라가 智證王(500~514) 즉위 후 504년에 波里城 외 12성을 축성하는가 하면, 다음해에는 異斯夫를 悉直州 軍主로 파견해 동해안로 방어체제를 완비하였다. 512년에는 于山國까지 복속하여 고구려의 對倭航路를 차단하고

동해안 일대의 制海權마저 장악하였다. 결국 고구려의 대신라 남방진출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삼국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재설정되었다.

## 「4~5세기 고구려의 남방진출과 대신라 관계」에 대한 토론문

김병곤 (동국대)

발표자께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을 기반으로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 아주 많은 내용을 자세히 다루며 상당한 분량의 발표문을 작성함. 그런 까닭에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염려됨. 물론 발표자의 이와 같은 노력하는 연구 자세는 토론자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음. 논문의 대요는 발표문 자체의 결론에 잘 정리되어 있어 바로 토론자의 역할을 수행하겠음.

\* 3쪽 : 삼국은 그들 사이에 완충역할을 했던 樂浪郡과 帶方郡이 4세기 초반 한반도에서 축출되면서 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 고구려와 백제는 대립적 분위기로 출발했고, 반면에 고구려와 신라는 우호적인 관계로 추구되었다.

-> (314~4년 한군현 축출이 삼국이 상호 어떠한 양상이든 교류하게 되는 먼 원인이지만) 상기 내용은 삼국사가 타율적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서술되었고 일정부분 사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음. 특히 <표 1>에 잘 정리된 바와 같이 366과 8년 백제가 신라에 꾸준히 우호를 요청하는 시도는 고구려의 남진에 대한 일종의 대비책임은 동의하지만, 그 계기가 무려 50년 전인 한군현의 소멸에서 찾을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고구려 고국원왕의 대외 노선의 변화(요동에서 한반도 남부로)와 이를 감지한 백제의 움직임이 삼국간 외교적인 관계를 본격화시키는 직접적인 계기로 여겨짐.

-> 또한 고구려와 신라는 우호적인 관계로 추구되었다고 하는데 역시 한군현 소멸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1) 6쪽 : 고구려 입장에서도 백제와의 열세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백제의 배후를 견제해 줄 수 있는 신라와의 우호관계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했다... 고구려가 주도적으로 신라에 화친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다.

-> 당시 상황을 표1을 이용해 정리해 보면 1) 369년 고국원왕의 백제 원정 실패, 371년 초 고구려의 백제 침략 실패, 동년 겨울 백제 근초고왕의 친정에 평양성에서 고국원왕 전사. (373년 독산성주 망명) 375~387년까지 꾸준히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근구수왕 3년에 평양성을 친정하기도 하지만)함. <377(태원 원년은 376), 381년 2차례에 걸쳐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으로 중국에 사신 파견> 389~390 백제가 고구려를 선공. 이후 또 고구려가 백제 지속적으로 침공함.

당시 고구려가 백제에 대해 일시적인 열세적 국면(1)은 보였지만 지속적이지 않았고, 당시 신라의 국력을 감안할 때, 신라와의 우호가 백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일지? 기껏해야 백제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정도의 외교적 차원의 접근으로 여겨짐.

발표자도 주장했듯이 375년 이후 고구려는 단독적으로 백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열세를 승세적 국면으로 전환시켜 갔는데, 이러한 변화에 신라는 어떠한 도움을 할 수 있었을지? 더불어 백제가 가야~왜 등과 연계하여 신라를 압박하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신라측이 고구려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을 여지가 더 많을 듯함? 그러므로 4세기 후반 고구려가 신

라로부터 인질을 받는 등 주도권을 장악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음.

2) 9~10쪽 : 학계에서 제법 논란이 심한 광개토왕의 남정(396년)에 따른 58성 700촌의 위치를 북한강과 남한강 상류 유역까지로 파악하는 편에 섰고 이를 계기로 죽령로를 개통한 것으로 이해함. 그러므로 9쪽에는 “고구려가 죽령로를 얻음으로서 백제를 남한강 상류에서 서남진하여 측면에서 압박할 수 있는 교두보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10쪽에는 “죽령로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남한강 유역에서 백제 동변을 압박하는 모습이 남아 있지 않다. 고고학적으로도 발견되지 않는....”

\* 396년 광개토왕의 남정의 결과에 대한 일관성있는 논지 전개와 서술의 필요할 듯.

-> 결과적으로 광개토왕대 북한강 남한강 상류(강원도 일대)까지 정복하였다면 남한강 유역에서 백제 동변을 압박하는 모습이 왜 남아있지 않았을까? 발표자는 중요 교통로 위주의 제한적 거점지배(선·점지배)에 머무르고 광역의 면지배로 관철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런 결과 『삼국사기』 지리지에 ‘고구려고지’ 중 삭주와 명주에 고구려계 지명 어미가 드물다고 함.

->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제한적 지배에 머물렀는데 어떻게 광개토왕릉비에 58개성 700촌의 정복을 기록할 수 있었을지? 만일 58개성만이 기록되었다면 ‘선 또는 거점지배’를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700촌도 적기되어 있음. 700촌이 58성과 무관하다면 별 문제 없지만 58성과 700촌이 연관성이 있는 공간 범위라면 이는 소위 ‘면지배’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임. 그렇다면 광개토왕은 남한강 상류 영역에 대한 면지배까지 실현한 것으로 이해해야만 하며 이후 발표문의 논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14쪽 : 각주 83) (김병곤은) 433년 나제동맹이 은밀히 추진되며 신라가 고구려와의 기존 외교를 유지하는 양단책을 유지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하 발표자의 반론) 그러나 신라 왕정에 주둔하고 있었던 고구려 군사단에 의해서라도 신라와 백제의 사신 교환은 본국에 전달됐을 것이다.” 라면서 기 발표 논문에 실린 토론자의 논지에 부정적 시각을 제시.

-> 그러나 발표자께서는 본문에서 400년 광개토왕의 신라 구원전 이후 고구려 군사가 신라 영토 안에 주둔했을 것이라는 이해를 거부하고, 453년 이리떼가 시림에 들어온 때부터 고구려 군사의 신라 왕정 주둔의 시점으로 파악하고 있음. 토론자도 본래 관련 (심사용) 논문에 <시림과 이리떼>를 주둔 시점으로 언급하였지만, 심사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니 방증사례나 부가적 설명 요구 등이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 제외한 아픈 기억이...

3) 18쪽 : 고구려의 국원 진출 시기도 고고학적 조사 결과(원주 법천리 고분군, 충주 장미산성, 중원 탐평리유적)를 활용하여 백제가 4세기 후반~5세기 후반까지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광개토왕의 남정 때 국원을 영역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국원 진출 시기는 고고학적 정황과 「중원비」 연대를 조합해 5세기 초반~중반으로 추정 가능하다.”라고 서술함.

-> 고고학적 정황을 보면 5세기 후반까지 백제가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고구려가 어떻게 5세기 초~중반 국원(충주)에 진출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4) 21쪽~22쪽 : 하슬라와 실직성의 비논리적 기사 체계의 합리적 이해를 위해 니하의 위치 비정이 관건이라 하며, 발표자는 니하의 위치 추정에 거듭 ‘대령’과 ‘장령’을 활용함(토론

자도 동의함). 그러나 말갈의 신라 침략로에 거둬 대령과 장령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동일 지역에 대한 이표기일 여지가 많음(이점은 발표자도 동의). 그러면서도 발표자는 대령은 대관령으로 장령은 『신증동국여지승람』(각주 127 ; 오대산조)을 인용해 오대산 서쪽에 장령이 있었음을 주목하여 대령과 구별함. (오대산이 대관령의 서북쪽에 위치하기는 함)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관련 기사를 보면 ‘오대산은 동에 만월 남에 기린(봉) 서에 장령(봉) 북에 상왕(봉) 중에 지로(봉)의 오봉이 어찌고 저찌고’. 곧 서에 장령(봉)은 오대산을 이루는 다섯 봉우리 중의 일개의 작은 봉우리명에 불과하며 더욱이 다섯 봉오리는 각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상징적 의미를 가진 명칭에 불과함. 그런 상징적 의미만을 가진 오대산의 서봉 장령은 대령(또는 장령)이라 불리울 만한 실제적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님. 그러한 속성의 (서봉) 장령을 말갈의 침입로상에 등장하는 장령으로 파악하거나 니하의 위치 비정에 활용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울 듯함.

\* 21쪽 13줄 - 강릉과 삼척이 분명한 하슬라 · 삼척의 위치 -> 실직

5) 23쪽 : 발표자는 비논리적인 하슬라와 실직성 관련 기사를 현재의 지리적 관념 하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함. 곧 고구려가 하슬라를 공고히 장악하고 있던 신라군을 우회하여 실직성을 공취했다가 역시 하슬라의 신라군을 의식해 불과 몇 개월만에 회군하였다고 주장. 이러한 주장이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당시 고구려가 (비록 말갈병을 동원한 공격이지만) 실직성을 공취하여 얻고자한 바에 대한 개연성있는 설명이 필요함.

\* 23쪽 : 삼척에서 울진사이의 해안지대가 암석해안이어서 통행에 장애요소가 된다. 때문에 북쪽에 있는 나라가 삼척을 장악하면 그 남쪽에 이르는 동해안에 쉽게 진출할 수 있다. -> 비논리적인 서술인 듯.

# 4~5세기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정재윤(공주대)

## 목 차

- I. 머리말
- II. 중국 군현을 둘러싼 백제와 고구려의 격돌
- III.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하와 백제의 대응
- IV. 대고구려 강경정권의 등장과 한성 전투
- V. 맺음말

### I. 머리말

4세기는 한반도에서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 군현의 축출과 고구려·백제·신라 등 삼국 중심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겐 경질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 철제 무기와 농공구의 대량 보급 등 여러 요인이 견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이 각기 자신의 지역권에서 우월한 생산력과 기술을 배경으로 주변을 정복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4세기는 고구려와 백제가 한반도의 자원을 겨루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신라를 끌어들이는 형국이었다. 신라는 두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괄목한 성장을 한다. 두 나라의 균형이 한성 전투에서 무너지면서 신라는 어느덧 삼국의 한축을 차지하며, 한강 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각축에 참여하게 된다. 본격적인 삼국시대가 열린 것이다.

한강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항쟁과 각축에 주목하면서 많은 연구들은 주로 5~6세기 삼국의 대외관계에 집중되었다.<sup>1)</sup> 그 결과 삼국의 실리적 외교와 국제사회의 연동성 등 많은 성

1) 이에 대한 주요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盧重國, 1981, 「高句麗·百濟·新羅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盧泰敦, 1984, 「5~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44.  
金秉柱, 1984, 「羅濟同盟에 관한 研究」, 『韓國史研究』 46.  
梁起錫, 1994, 「5~6世紀 前半 新羅와 百濟의 關係」,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5  
鄭雲龍, 1996, 「羅濟同盟期 新羅와 百濟 關係」, 『白山學報』 46.  
鄭雲龍, 1996, 「5~6世紀 신라 對外關係史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공석구, 1996, 「5~6世紀의 對外關係」, 『한국사5 삼국의 정치와 사회1-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崔鍾澤, 1998,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진출과 백제」, 『百濟研究』 28.  
鄭載潤, 2001, 「熊津時代 百濟와 新羅의 關係에 대한 考察-羅濟同盟에 대한 비판적 검토」, 『湖西考古學』 4-5.  
주보돈, 2003, 「熊津都邑期 百濟와 新羅의 關係」,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박윤선, 2007, 「5世紀 중후반 백제의 대외관계」, 『歷史와 現實』 63.  
양기석, 2007,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정재윤, 2009, 「5~6세기 백제의 南朝중심 외교정책과 그 의미」, 『百濟文化』 41.  
강민식, 2010, 「5~6世紀 중반 百濟의 對外關係」, 忠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과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삼국 항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4세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다.<sup>2)</sup> 5~6세기 삼국의 대외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부수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졌으며, 종합적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4세기 중반 한반도에서 자웅을 겨룬 백제와 고구려의 충돌에 주목하고자 한다. 두 나라가 어떠한 배경과 목적에서 충돌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과 결과를 일관되게 살펴볼 것이다. 무엇보다도 두 나라의 충돌이 어떻게 확대되어 가는가, 그리고 그 경향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만 그 범위는 한성 전투까지로 제한하고자 한다. 한성 전투 이후 그 성격이 삼국의 각축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두 나라보다 발전이 늦었지만 신라가 삼국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통일의 주체로 등장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소 논리적으로 비약이 심한 면도 있지만 삼국의 각축과 통일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하며, 선학들의 질정을 바란다.

## II. 중국 군현을 둘러싼 백제와 고구려의 격돌

백제와 고구려는 369년 고구려의 선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sup>3)</sup> 전쟁터가 된 稚壤은 황해도 延白郡 銀川面<sup>4)</sup>으로, 백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전쟁이 벌어지기 전 이미 치양이 백제에 속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369년 이전 백제는 구 대방군 관할인 황해도 지역 일부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근초고왕 26년(371)에는 2차례 전쟁이 있었으며,<sup>5)</sup> 이 역시 고구려의 선공으로 시작되었다. 이 때 백제는 예성강으로 비정되고 있는 溟河<sup>6)</sup>에 이른 고구려군을 격파하였을 뿐 아니라 정병 3만 명을 이끄는 대규모 반격전을 개시하여 평양성<sup>7)</sup>까지 이르렀다. 이 전투에서 백제는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대승을 거두었다. 근초고왕 30년(375)에는 고구려가 다시 水谷城을 공격해 와서 함락시켰다. 이에 백제는 군사를 크게 일으켜 보복을 하려 했으나 흉년이 들어 실행하지 못했다.<sup>8)</sup> 수곡성은 황해도 新溪郡 多栗面으로,<sup>9)</sup> 이 무렵 백제가 획득한 것임도 드러난다. 이와 같이 근초고왕 때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은 고구려의 선제 공격과 백제의 반격이라는 유형으로 진행되었다. 또

2) 본고와 같은 시기를 다룬 연구로는 盧重國의 논문(2005, 「4~5세기 백제의 성장·발전과 삼국의 각축」, 『郷土서울』 6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을 들 수 있다.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래와 같다.

姜鍾元, 2002, 『4세기 백제사 연구』, 서경.

강 선, 1996, 「4~5세기 高句麗의 영도확장과 平壤遷都」, 『淑明韓國史論』.

李仁哲, 1996, 「4~5세기 高句麗의 南進經營과 重裝騎兵」, 『軍史』 33, 國防軍史研究所.

趙宇然, 2007, 「4~5세기 고구려 정치체제-고구려의 '南進'과 관련하여-」, 『高句麗研究』 28, 高句麗研究會.

3) 『三國史記』 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4年 9月條.

4) 『新增東國輿地勝覽』 43 黃海道 白川郡條.

5) 『三國史記』 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6年條.

6) 李丙燾, 1983a, 『譯註 三國史記』 下, 乙酉文化社, 20~21쪽.

7) 평양시 대성산성 일대로 보기도 하나 백제의 진격이 너무 깊숙하다는 점에서 황해도 신원 일대의 남평양으로 파악하기도 한다(손영중, 1990,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76~183쪽).

8) 『三國史記』 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30年條.

9) 『新增東國輿地勝覽』 42 黃海道 新溪縣 古蹟條.

한 백제는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점차 영역이 북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평양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근구수왕 때에도 여전히 고구려와 충돌하였다. 근구수왕 2년(376) 겨울에 고구려가 다시 북쪽 경계를 쳐들어왔다.<sup>10)</sup> 이에 근구수왕은 이듬 해 10월 3만 명을 동원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고, 고구려는 11월에 다시 쳐들어왔다.<sup>11)</sup> 이와 같이 백제와 고구려는 371년에서 377년까지 모두 7차례 전쟁을 하였다. 이 중 고구려는 선공 5회, 백제는 2회의 반격에 그쳐, 이 기간 동안의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제의 전성기에 이루어진 공세적 측면보다 고구려의 남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sup>12)</sup> 아울러 등장하고 있는 지명을 통해 이 무렵 백제와 고구려는 재령강-예성강 분수령인 멸악산맥 일대를 중심으로 접경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sup>13)</sup>

백제의 북상과 고구려의 남하는 황해도·평안도 일대의 중국 군현의 철수와 관련이 있다. 중국의 한나라는 B.C. 194년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하였다. 이 중 임둔과 진번은 곧바로 폐지되고, 현도는 흥경 방면으로 이동하여 낙랑군이 한반도를 관할하였다. 발달한 선진문물을 겸비한 낙랑군은 한반도와 왜 세력을 통제하였다. 낙랑군은 토착민들에게 자치를 허용한 간접지배방식을 택하였다.<sup>14)</sup> 이러한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토착세력가들은 자발적으로 조공을 하여 그 권위를 인정받고, 낙랑군은 이들에게 책봉과 위세품을 하사하여 중국적 질서 속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2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韓濊가 강성해지고 군현의 통제가 힘들게 되자 백성들이 오히려 韓國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공손씨 정권은 대방군을 설치하여 韓과 왜 세력을 지배하려 하였다. 이 때 印綬와 衣幘을 받은 자가 천여 명에 이르렀다 한다.<sup>15)</sup> 이와 같이 중국 군현은 분열과 회유 정책을 통해 그 지배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중국 군현과의 교류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본열도에서 한반도 서남해안을 거쳐 중국 군현에 이르는 바닷길이 개척되었다. 『三國志』에는 당시의 교역로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군에서 왜까지는 해안을 따라 물길로 가서 韓國을 거쳐 때로는 남쪽으로 때로는 동쪽을 나아가면 그 북쪽 대안인 狗邪韓國에 도착하는데, 거리가 7천여 리이다. 처음으로 바다를 건너는데, 1천여 리를 가면 對馬國에 도착한다. (중간 생략) (대마국에서) 남쪽으로 바다 1천여 리를 건너는데, 이름은 澣海라고 하며, 一大國에 이른다.”<sup>16)</sup>고 한다.

이 교역로를 주관한 세력은 중국 군현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철과 소금 등의 원자재를 구입하는 대신에 토착세력들에게는 선진문물을 전수해줌으로써 교역로를 주도하였다. 이처럼 중국 군현은 선진문물의 근원지이며, 교역의 주관자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여러 세력들에게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었다.

10) 『三國史記』 24 百濟本紀2 近仇首王 2年 11月條.

11) 『三國史記』 24 百濟本紀2 近仇首王 3年條.

12) 梁起錫, 1996, 「百濟 近仇首王의 對外活動과 政治의 地位-高句麗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百濟論叢』 6, 百濟文化開發研究院, 47쪽.

13) 여호규, 2012,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84, 170~172쪽.

14) 權五重, 1992, 『樂浪郡研究-中國 古代邊郡에 대한 事例의 檢討』, 一潮閣, 46~59쪽.

15) 『三國志』 30 魏書 東夷傳 韓條.

16) 『三國志』 30 魏書 東夷傳 倭條.

고구려는 중국의 西晉이 패망하고 5胡16國 시대가 시작되는 혼란의 시기에 이르자, 美川王 때 西安平 지역을 점령하여 중국 군현이 본토와 통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313년에는 낙랑이, 314년에는 대방이 한반도에서 축출되며,<sup>17)</sup> 낙랑군은 移置된다.<sup>18)</sup>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중심지가 해체된 것이다. 주변 나라를 복속하고 이 지역과 경계를 맞닿은 두 나라가 이곳에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였다.

이 중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세력은 고구려였다. 낙랑과 대방의 축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고구려가 이 지역을 곧바로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동북 방면에서는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前燕과 치열한 공방을 하여야 했다. 아울러 정치체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 지역에는 수백 년에 걸쳐 선진문물과 기술을 습득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존재하였다. 이들의 물적·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면 요동 방면에서의 충돌에 대비할 수 있으며, 한반도 방향으로의 남하도 가능하다. 반면에 거센 저항에 직면한다면 또 다른 우환이 생길 것은 자명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직접적인 지배보다는 간접적인 방향에서 이 지역을 지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중국 군현 지역 지배 시도는 기록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백제와의 접경 지역이 대방군 지역이라는 점에서 낙랑군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은 확인된다. 또한 고국원왕 4년(334) 8월에는 평양성을 증축하고,<sup>19)</sup> 13년(343) 7월에는 평양 東皇城<sup>20)</sup>으로 왕성을 옮겼으며, 371년에는 평양성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 때 등장하는 평양이 낙랑군의 치소와 동일한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평양 동황성을 제외하고 그 지점이 중국 군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고구려가 남하를 추진한 산물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 고구려의 이 지역 지배에 대한 실상은 어느 정도 파악된다. 이를 보여주는 것은 황해도 安岳郡 俞雪리에 위치한 안악3호분이다. 墨書銘에 보이는 冬壽는 336년 고구려로 망명하였으며,<sup>21)</sup> 357년 사망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 무덤은 최소한 4세기 중반 이후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무덤이 고국원왕대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가 받은 관직은 使持節都督諸軍事 平東將軍護撫夷校尉 樂浪相 昌黎玄菟帶方太守이며, 관작은 都鄉侯이다. 이에 대한 논쟁은 크게 묘주가 누구인가와 동수가 받은 관직의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 묘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sup>22)</sup> 동수의 관직과 관작은 자칭 혹은 동진, 전연으로 받았거나 아니면 고구려 등 그의 활동 영역에 따른

17) 『三國史記』 17 高句麗本紀5 美川王 14·15年條.

18) 『資治通鑑』 88 晉紀10 建興 元年 4月條.

19) 『三國史記』 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4年條. 이때의 평양성은 고국원왕이 전사한 평양성과 다를 개연성이 있다. 전투 지역이 아닌 지배 차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할 경우 현재의 평양 지역으로 이해된다(申東河, 1988, 「高句麗의 寺院造成과 그 意味」, 『韓國史論』 19, 19쪽).

20) 이에 대해서는 중국 吉林城 東台子유적, 慈江道 江界, 현재의 평양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譯註 三國史記』 3, 487쪽 註 18). 이 중에 현재의 평양은 장수왕대의 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21) 『晉書』 109 慕容皝載記와 『資治通鑑』 95 晉紀 咸康 2年 正月條에 보이는 修壽와 동일 인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22) 이에 대해서는 徐永大,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 韓國古代社會研究所, 54~71쪽을 참조하라. 미천왕과 고국원왕 설이 있지만 당시 묘주와 관련이 없는 문서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孔錫龜의 견해(1989, 「安岳 3號墳의 墨書銘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121, 32~36쪽)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동수묘로 보고자 한다.

다양한 경로에서 취득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구려와 다른 별개의 집단임을 의미하는 견해<sup>23)</sup>도 있지만, 그의 독자성을 인정하더라도 고구려 정권과 배치되는 외교적 독립성까지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최소한 안악 지역이 대방군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방태수직은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국원왕이 전연으로부터 받은 營州諸軍事征東大將軍營州刺史樂浪公高句麗王과 낙랑상을 관련시킨다면,<sup>24)</sup> 고구려와의 관련성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무덤이 석실봉토분이라는 점 또한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동수는 중국계 이주민으로, 그가 받은 관작은 자칭의 개연성이 크지만 고구려 정권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sup>25)</sup> 이를 통하여 4세기 중반 경 고구려는 안악 지방까지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중국계 이주민을 통하여 간접지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이와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평양시 평양역 구내에서 출토된 永和 9년 명 전축분도 흥미롭다. 이 무덤의 축조 시기는 동진 穆帝 9년(353)으로, 주인공 修利는 遼東韓玄菟太守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요동출신으로 낙랑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던 동리가 동진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이라는 견해,<sup>27)</sup> 허구화된 관직의 자칭에 불과하다는 입장<sup>28)</sup>도 있다. 무덤 또한 전축분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무덤이었던 봉토석실분과는 전혀 다른 양식이다.<sup>29)</sup> 하지만 고구려화로 추정되는 彎弓의 단편이 출토<sup>30)</sup>되었고, 韓太守라는 칭호는 자칭의 개연성이 크다. 중국과 어떤 관련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리도 중국계 이주민으로 고구려와 관련을 가지면서 평양 일대에서 세력을 가졌다고 생각된다. 동수와 동리는 고구려로 망명하여 지역적 연고가 없는 낙랑·대방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는 이들을 활용하여 토착세력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구려는 중국계 망명인들을 서북한 지역에 정착시켜 주로 재지 질서를 재편하는데 활용하였던 것이다.<sup>31)</sup>

이와 관련하여 황해도 鳳山郡 文井面 昭封里 1호분에서 출토된 張撫夷塼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태세기년법 용례에 의거하여 동진 永和 4년(348)으로 비정된다.<sup>32)</sup> 무덤의 주인공이 받은 관직인 撫夷校尉는 虛號로 보거나<sup>33)</sup> 자칭에 불과한 보는 견해<sup>34)</sup>가 있다. 피장자의

23) 岡崎敬, 1964, 「安岳三號墳(冬壽墓)の研究-その壁畫と墓誌銘を中心として」, 『史淵』 93, 65~66쪽. 孔錫龜, 1988, 「平安 黃海道地方出土 紀年昭塼에 대한 研究」, 『震檀學報』 65, 17쪽.

24) 坂元義種, 1978, 「朝鮮金石文小考」, 『百濟史の研究』, 塙書房, 378쪽.

25) 林起煥, 1995, 「4세기 고구려의 樂浪帶方地域 경영-안악3호분-덕흥리고분의 墨書銘 검토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147, 3~15쪽.

26) 간접지배방식도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식(孔錫龜, 1998,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書景文化社, 180~196쪽)과 고구려에 의해 이들이 활용되는 방식, 다시 말하면 都督-幕府制라는 편제 방식(임기환, 1995, 앞의 논문, 20~42쪽)으로 보는 등 시각차가 존재한다. 필자는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영역지배로 나간 것으로 생각한다.

27) 三上次男, 1966, 『古代東北アゾア史研究』, 51쪽.

28) 孔錫龜, 1988, 앞의 논문, 23쪽.

29) 강현숙, 1994, 「고구려 봉토 석실분의 변천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31, 112쪽.

30) 金基雄, 1985, 「武器와 馬具」, 『韓國史論』 15, 國史編纂委員會, 39~41쪽.

31) 여호규, 2012, 「4세기~5세기 초 高句麗와 慕容燕의 영역확장과 지배방식 비교」, 『고구려 광개토왕과 동아시아』 한국고대사학회 제25회 합동토론회 발표요지문, 84쪽.

32) 岡崎敬, 1964, 앞의 논문, 66쪽.

33) 岡崎敬, 1964, 앞의 논문, 66쪽.

34) 孔錫龜, 1988, 앞의 논문, 25쪽.

신분도 요동의 대방군 지역에서 태수를 지내다가 이 지역으로 망명하여 죽은 망명객으로 보기도 한다.<sup>35)</sup> 하지만 인접한 황해도 봉산군 문정면 토성지를 대방군의 치소로 보고 있는 견해<sup>36)</sup>를 참조하면, 피장자를 대방 지역과 관련이 있는 중국계 이주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무이전 피장자의 경우 시기적으로 가장 빠르고, 지역 중 가장 남쪽이며 완전한 중국식 전축분인 점<sup>37)</sup>을 고려하면 동수와 동리의 경우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동리의 경우 동수와 연관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연에서 망명한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sup>38)</sup> 하지만 장무이의 경우 이와는 분명하게 다르다. 무엇보다 472년 백제에서 북위에 사신으로 간 張茂가 대방태수를 칭하고 있는 점<sup>39)</sup>을 고려하면, 장씨를 고구려와의 관련성 속에서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따라서 장무이전의 피장자는 대방계 인물로, 이 무렵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백제에서 대방계로 보이는 인물들이 사신으로 활약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4세기 중반 고구려가 남하를 할 무렵 백제도 이 지역으로 북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와 첫 전투를 벌인 치양은 대방군에 속한 지역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백제는 서울에서 북상하여 대방 지역에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백제는 치양 전투에서 승리하여 대방지역을 재패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40)</sup> 이는 4세기 중반에서 후반 무렵 백제가 황해도 황주 지역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sup>41)</sup> 따라서 이 무렵 백제는 치양에서 수곡성, 황주 등 점차 그 영역을 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백제가 이와 같이 대방 지역으로 북상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아래의 사료는 이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 A. 坂上大忌村劫田麻呂 등이 표를 올려 “신 등은 본래 후한 靈帝의 증손인 阿智王의 후손입니다. 한이 위로 바뀌자 아지왕은 神牛의 가르침을 따라 대방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중간 생략) 홀연히 진귀한 보옥으로 장식한 상서로운 띠를 얻었는데 그 모양이 궁성과 같았습니다. 이에 국읍을 세우고 백성들을 길렀습니다. 후에 父兄을 불러 놓고 ‘제가 들으니 동쪽 나라에 성스러운 임금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 귀속하여 따르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래도록 이곳에 머무르면 아주 없어지게 될까 두렵습니다.’라 말하고, 곧 친동생인 迂興德 및 일곱 성씨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화하여 내조하였습니다. 이것은 饗田天皇이 천하를 다스리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지왕이 ‘신은 옛날에 대방에 살았는데, 백성들은 남녀 모두 채주와 숨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살면서 마음 속으로 아직 거취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천황의 은혜로 사자를 파견하여 그들을 불러 주

35)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6, 「平壤부근의 1~3세기 유적에 대하여」, 『고조선문제연구논문집』, 140쪽.

36) 關野貞, 1932, 『朝鮮美術史』, 13쪽.

37) 이에 비하여 동리묘는 塼石混築墳으로, 전축분에서 봉토석실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양식으로 본다(林起煥, 1995, 앞의 논문, 23쪽).

38) 林起煥, 1995, 앞의 논문, 13쪽.

39)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蓋鹵王 18年條.

40) 李丙燾, 1983a, 앞의 책, 34쪽.

41) 崔鍾澤, 1990, 「黃州出土百濟土器例」, 『韓國上古史學報』 4, 334쪽.

십시오.’라고 아뢰어 청하였다(『續日本記』 38 桓武天皇 延曆 4년 6월 癸酉條).

위의 사료는 대방인들이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살면서 어느 쪽으로 귀화할 것인가 고민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남녀 모두 재주와 솜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매우 필요한 인물을 말해준다. 바로 대방인의 흡수가 물적·인적 자원의 확보라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아울러 迂興德 및 일곱 성씨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화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친속과 향당을 단위로 이주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up>42)</sup>

다음으로 백제가 중국 군현에 주목하는 것은 중국 군현이 개척한 교역로의 주관과 관련이 있다. 낙랑·대방 세력의 축출 이후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교역을 주관할 세력이 부재하였다.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가야 세력이 쇠퇴한 요인으로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sup>43)</sup> 그 이전에 가야는 교역을 주관한 군현의 축출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이 무렵 군현을 대신하여 부상한 세력은 바로 백제였다.

백제는 366년 가야의 卓淳國을 매개로 왜와 교류를 시작하였다.<sup>44)</sup> 369년 마한 세력을 복속시킨 여세를 몰아, 372년에는 왜에 칠지도를 하사하여<sup>45)</sup> 관계를 굳건히 하였다. 이와 같이 백제는 선진물자를 가지고 전남 지역 병합 이후 중국 남조-한반도 서남해안-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교역루트를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sup>46)</sup> 이는 백제 중심의 새로운 동아시아 교역권 구축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역권의 장악, 선진문물의 수입과 인적 자원의 확보라는 실질적인 목적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 백제와 고구려의 군현 지역을 둘러싼 쟁패는 영역 확장이라는 측면 외에 정치 1번지의 장악이라는 상징성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보다 우위에 있었고, 선제 공격을 한 고구려가 백제에게 패배를 한 요인은 무엇일까. 이는 고구려가 처한 대외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당시 고구려는 동북방면에서 새롭게 부상한 전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고구려 고국원왕은 5년(335)에 나라 북쪽에 新城을 쌓았다. 이러한 기세로 340년대에는 고구려가 요동에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공세는 전연의 반발을 가져와 342년 전연의 침공을 가져왔다. 이 전쟁에서 전연군의 주력이 남도로 향하는 예상하지 못한 전술에 말려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그 결과 미천왕의 시신이 탈취되고, 왕모를 비롯한 5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에 고국원왕은 다음 해 전연에 아우를 보내 신하라 칭하며 조공을 하여 부왕의 시신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여전히 갈등이 상존하였다. 345년 전연의 慕容恪이 쳐들어와 南蘇를 함락시킨 것은 이를 보여준다. 이에 고국원왕은 전연을 안심시키기 위해 349년 전 東夷護軍 宋晃을 송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355년 전연에 인질과 조공을 바치면서 어머니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연은 이를 수락하여 고국원왕을 征東大將軍 營州刺史樂浪公으로 책봉하였다.<sup>47)</sup> 고구려는 동북 방향에서 전연과 치열한 항쟁을 하였으나 조공과 책봉이라는

42) 윤용구, 2007, 「중국계 관료와 그 활동」, 『百濟의 對外交渉』,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62쪽.

43) 광개토왕의 남정과 관련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입장이다.

44) 『日本書紀』 9 神功皇后 46年 春3月條.

45) 『日本書紀』 9 神功皇后 52年 秋9月條.

46) 李賢惠, 1988, 「4세기 加耶社會의 交易體系의 變遷」, 『韓國古代史研究』 1, 174쪽.

상하관계를 맺어 비로소 안정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는 중국 군현을 직접 지배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계 이주민들을 통한 간접 지배방식을 취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하지만 동북 방향에서의 상황이 안정되자 적극적인 남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고구려의 남하는 전연과의 전선이 안정된 결과이지만 백제를 제압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힘든 상황이었다. 수도가 함락되는 등 계속된 전쟁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하지 못하였고, 남하를 추진하였지만 여전히 동북 방향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 등은 고구려의 전력이 반감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었다.

이에 반하여 백제는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근초고왕 때에는 진씨 왕비족 시대가 열리면서<sup>48)</sup> 왕권을 뒷받침했으며, 대외적으로는 369년 마한을 복속시켰다.<sup>49)</sup> 백제는 이 무렵 명실상부한 한반도 서남부 지역의 패자로 등장한 것이다. 이와 같이 백제는 체제를 안정시키고, 후방 지역인 마한을 복속시킴으로써 이곳으로부터 물적·인적 자원을 충당할 수 있었다. 고구려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중국 군현이 개척한 동아시아 교역로의 구축을 시도하면서 중국 군현의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와 함께 이를 주관할 수 있는 대표성도 획득할 필요가 있었다. 고구려에 비해 더욱 중국 군현에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백제는 대방 지역으로 북상하면서 인재들을 확보하고, 이들을 통해서 더욱 국가체제를 완비하였다. 더욱이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을 전사시킴으로써 강적 고구려에 우위를 점하였다. 이러한 승리는 국제사회에 백제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아래의 사료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 B-1. 춘 정월 신축 백제왕과 林邑王이 각기 사신을 보내 여러 물건을 바쳤다(『晉書』9 簡文帝 咸安 2年條).
- 2. 6월 사신을 보내 백제왕 餘句를 鎮東將軍 領樂浪太守로 삼았다(『晉書』9 簡文帝 咸安 2年條).
- 3. 봄 2월에 사신을 진나라로 보내 조공하였다(『三國史記』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8年條).

위의 사료에 의하면 백제는 371년과 372년 연이어 중국 남조의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있다. 이는 기록상 서진의 패망 이후 동진에 처음 사절을 보낸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때 백제라는 국명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sup>50)</sup> 이는 백제가 더 이상 마한의 외피를 쓰지 않아도 되었음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47) 『三國史記』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3年·12年·15年·19年·25年條.

48) 李基白, 1959, 「百濟王位繼承考」, 『歷史學報』11, 31~32쪽.

49) 마한의 복속 시기와 지배 형태 등에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이 무렵 백제가 마한을 복속시킨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는 소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拙著(2008, 『百濟史資料譯註集-中國篇-』,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17~18쪽)를 참조하라.

50) 서진 때에는 백제가 마한주의 이름으로 통교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때 백제는 중국 왕조에게 마한의 일원으로 인식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에 대한 견해는 拙著(2008, 앞의 책, 48~49쪽)를 참조하라.

아울러 B-2에 보이는 영낙랑태수라는 관작은 주목할 만하다. ‘領’은 ~을 관장하다는 의미이다.<sup>51)</sup> 따라서 낙랑태수직을 관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받은 ‘領樂浪太守’라는 爵은 백제왕을 이전에 중국 황제의 명을 받아 한반도를 통치한 낙랑태수와 같은 위상으로 여겼음을 의미한다. 물론 고구려는 이보다 앞서 355년 전연에 의해 낙랑공으로 책봉되었지만 남조로부터 받은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난다. 이후 장수왕과 문자명왕이 낙랑공으로 책봉되었으며, 신라의 경우 진흥왕 이후 왕들이 낙랑군공 혹은 낙랑군왕으로 책봉되었다. 이러한 봉작은 낙랑군이 소멸된 후에도 중국의 여러 왕조가 낙랑을 그들의 동방영역 개념으로 사용한 데에서 온 것이라 생각된다.<sup>52)</sup> 백제는 두 나라보다 앞서 근초고왕 때 명실상부한 한반도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동진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는 백제 외교술의 극치로 볼 수 있다.

백제가 360년대에 들어서서 동아시아 교역로를 새롭게 구축하며, 중국의 남조와 통교한 것은 국제사정에 밝은 인물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나아가 백제가 국제적인 위상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사정에 밝은 외교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바로 백제의 복상에 따라 대방인이 백제에 흡수되어 활약한 결과로 보면 억측일까. 이는 대방계 인물들이 백제에서 활약을 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sup>53)</sup> 따라서 동진과의 통교 등 대외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은 중국계, 그 중에서도 대방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동진으로부터 조공과 책봉의 절차를 거침에 따라 이의 수행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과 화술을 습득한 대방 계통의 전문지식인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특히 대방계의 참여는 이후 백제가 남조 중심의 외교 관계를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sup>54)</sup> 이들 漢人들은 동진에 대한 歸依에 마음을 품었으므로, 백제의 親東晉 정책은 군현계 주민의 백제 유입을 촉진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55)</sup>

### III.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하와 백제의 대응

여러 가지 정황이 백제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가운데 두 나라의 1차 격돌은 백제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고구려의 패배는 전연과의 치열한 항쟁에 따라 전력을 극대화할 수 없었던 것에 요인이 있었다. 이에 소수림왕은 국가체제의 정비에 박차를 가해 재위 2년(372)에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였다. 3년에는 율령을 반포하였다.<sup>56)</sup> 이와 같은 불교와 유교 교육기관의 설치, 율령의 반포는 고대 중앙집권국가의 발전 단계에서 보이는 표지로서, 이

51) 小田省吾, 1932, 「平壤出土永和九年玄菟太守に関する一考察」, 『靑丘學叢』 9, 106쪽.

52) 金光洙, 1987, 『中國正史朝鮮傳 譯註』 1, 國史編纂委員會, 392~393쪽.

53) 정재윤, 2010, 「중국계 백제관료에 대한 고찰」, 『2010세계대백제전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문, 245~249쪽.

54) 정재윤, 2010, 앞의 발표요지문, 251쪽.

55) 宋知娟, 2003, 『漢城百濟와 帶方郡의 關係』,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碩士學位論文, 58쪽. 윤용구, 2007, 앞의 논문, 267쪽.

56) 『三國史記』 18 高句麗本紀6 小獸林王 2年 6月·3年條.

무렵 고구려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광개토왕이 남하하기 전까지 백제와 고구려와의 국경선은 진사왕 2년(386)의 “ 봄에 나라 안 사람으로 나이 15세 이상인 자를 징발하여 국경을 지키는 요새를 설치하였는데, 靑木嶺에서부터 북쪽으로 八坤城에 닿고 서쪽으로 바다에 이르렀다.”는 기사<sup>57)</sup>가 참고된다. 이 요새가 백제의 국경선 부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청목령은 개성 송악산,<sup>58)</sup> 혹은 경기도 開豐郡 嶺南面 靑石洞<sup>59)</sup>으로 비정된다. 팔곤성은 마식령산맥의 동북쪽에 위치한 이천의 개연산 부근으로 추정하거나,<sup>60)</sup> 서흥에서 멸악산맥을 넘어 신계나 평산으로 진입하는 교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곳<sup>61)</sup>으로 비정한다. 아울러 수곡성을 둘러싸고 아신왕 3년(394)에도 전쟁을 벌인 것<sup>62)</sup>을 보면 광개토왕의 남진으로 58성을 빼앗길 때까지 대체로 예성강 선을 유지하였다<sup>63)</sup>고 보아도 무난하다. 실제 386년 8월에 고구려가 쳐들어 왔지만 백제는 389년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침입하고, 390년 9월에는 都坤城을 빼앗고 2백 명을 사로잡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sup>64)</sup> 이와 같이 광개토왕의 본격적인 남진이 있기 전까지 백제는 고구려에 크게 밀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광개토왕이 즉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광개토왕은 불세출의 정복 군주로 즉위하자마자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광개토왕의 개인적 능력도 있겠지만 고국원왕의 전사 이후 추진된 국가체제 정비의 결실과도 관련이 있다. 광개토왕의 즉위 이후 상황 변화는 아래의 사료에서 엿볼 수 있다.

C-1. 가을 7월에 고구려 왕 談德이 군사 4만 명을 이끌고 북쪽 변경을 공격해 와서 石峴城 등 10개의 성을 함락시켰다. 왕은 담덕이 군사를 잘 부린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막지 못해 漢水 북쪽의 여러 부락이 많이 없어졌다.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關彌城을 쳐서 빼앗았다. 왕이 狗原에서 사냥하였는데, 열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11월에 왕이 구원의 行宮에서 죽었다(『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辰斯王 8年條).

-2. 가을 8월에 왕이 (眞)武에게 말하길 “관미성은 우리 북쪽 변경의 요충지이다. 지금 고구려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는 과인이 분하고 애석하게 여기는 바이다. 경은 마땅히 마음을 써서 설욕하라”고 하였다. 드디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치기로 하였다. 무가 직접 일반 군사들보다 앞장서서 화살과 돌을 무릅쓰며 석현성 등 5개의 성을 되찾으려고 먼저 관미성을 에워쌌지만 고구려 사람들이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무는 군량 수송이 이어지지 않자 이끌고 돌아왔다(『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阿莘王 2年條).

57)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辰斯王 2年條.

58) 『新增東國輿地勝覽』 4 開城府上 山川松嶽條.

59) 安鼎福, 『東史綱目』 1, 馬韓 百濟始祖 10年條.

60) 문안식, 2006,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170~171쪽.

61) 여호규, 2012, 앞의 발표요지문, 174~175쪽.

62)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阿莘王 3年 秋7月條.

63) 양기석, 1996, 앞의 논문, 49쪽.

64)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辰斯王 2年 8月·5年·6年條.

위의 사료에 의하면 광개토왕은 즉위년(391)<sup>65)</sup>에 석현성 등 10여 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의 요충지인 관미성을 함락시켰다. 그런데 위의 사료 C-2에 의하면 석현성<sup>66)</sup>은 관미성<sup>67)</sup>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러한 충격의 여파로 진사왕이 죽었다는 점이다. 전쟁 패배 직후에 진사왕이 구원에 사냥을 간 사실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바로 구원의 행궁에서 죽은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에 따라 진사왕의 죽음을 정상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sup>68)</sup> 이의 사실성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진사왕의 죽음이 고구려의 패배에 따른 충격과 관련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겠다.

아신왕이 즉위하자마자 관미성을 공격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당시 백제가 이들 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신왕 역시 관미성의 수복에 실패하였다. 나아가 재위 3년과 4년 연달아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있다.<sup>69)</sup> 이와 같이 『삼국사기』 기록에서는 광개토왕이 즉위하자마자 백제를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당대의 기록인 광개토왕비문에는 396년에 처음 백제를 공격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삼국사기』 기사가 능비에 집약된 것으로 보거나,<sup>70)</sup> 직접 대응시킬 수 없다는 견해<sup>71)</sup>가 있다. 이에 실마리를 주는 것은 광개토왕비문 6년조에 보이는 關彌城이다. 이를 위의 사료 C에 보이는 관미성과 동일하게 본다면 광개토왕 즉위년의 『삼국사기』 기사와 상통한다. 또한 광개토왕이 획득한 58성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 중 阿旦城은 서울의 아차산성, 彌鄒城을 인천으로 비정된다.<sup>72)</sup> 그런데 58성은 광개토왕의 정복 루트를 따라 기술된 것으로, 이 경우 광개토왕의 정복은 백제의 수도 앞에 이르렀다 다시 우회하는 등 동선 상에 문제가 있다. 즉 이는 한 해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396년 기사는 광개토왕의 즉위 이후 수행된 백제 정벌을 축약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비문에 따르면 광개토왕이 아리수(한강)를 건너 수도를 육박하자, 백제 아신왕은 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이에 광개토왕은 58성 700촌을 획득하고 백제왕의 아우와 대신 10인

65) 고구려본기에는 392년으로 사실로 기록되어 있으나 광개토왕비문에 의해 391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李丙燾, 1983b, 『譯註 三國史記』上, 乙酉文化社, 330쪽). 그렇다면 이에 대응되는 백제본기 기사 또한 기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다룰 예정이다.

66) 한강과 임진강 사이에 있었던 성으로 보는 견해(池內宏, 1927, 「高句麗滅亡後遺民叛亂及び唐新羅關係」,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12), 황해도 곡산 서남 20리로 보는 견해(金正浩, 『大東地志』18 곡산조), 경기도 개풍군 청석동으로 보는 견해(李丙燾, 1983a, 앞의 책, 36쪽), 과주시 과평면 일대로 보는 견해(여호규, 2012, 앞의 발표요지문, 181~182쪽)가 있다.

67) 고구려본기에 언급되고 있는 사면이 가파르고 해수로 둘러 있다는 표현과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오두산성설(金正浩, 『大東地志』3 교하 성지조. 윤일영, 1990, 「關彌城 位置考」, 『北岳史論』2, 103쪽)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제 견해는 양기석의 저서(2008, 『百濟史資料譯註集-韓國篇 I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369쪽)를 참조하라.

68) 진사왕의 실정(姜鍾元, 2002, 『4세기 백제사 연구』, 서경, 140~141쪽)과 고구려의 침공으로부터의 미숙한 대응 혹은 패전 후 사후수습을 명분으로 진사왕을 제거하고 즉위하였다는 견해(梁起錫, 1982, 「百濟 腆支王代の 政治的 變革」, 『湖西史學』10, 호서사학회, 15쪽)가 있다.

69) 『三國史記』25 百濟本紀3 阿莘王 3年4年條.

70) 那呵通世, 1893, 「高句麗石碑考」, 『史學雜誌』49, 29~30쪽.

71) 李丙燾, 1975, 「廣開土王의 雄略」,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378~380쪽.

72) 아산설(金聖昊, 1982, 『沸流百濟와 日本의 國家起原』, 知文社, 53~57쪽), 楊洲古邑說(金起燮, 1998, 「彌鄒忽의 위치에 대하여」, 『韓國古代史研究』13, 95~98쪽)도 있지만 인천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을 데리고 수도로 개선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를 통하여 광개토왕 때부터 고구려가 백제에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은 확인된다.

이와 같이 광개토왕이 백제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고구려의 중국 군현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도 연관시킬 수 있다. 이에 주목되는 것은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의 벽화고분이다. 408년 조성된 이 벽화고분은 묘주인 진의 국적과 고구려의 영영과 지배방식 등에서 논쟁이 있다.<sup>73)</sup> 그런데 이 무덤의 목서명에는 ‘建威將軍 [國]小大兄 左將軍 龍驤將軍 遼東太守 使持節東[夷]校尉幽州刺史鎮 年七十七薨[焉]永樂十八年’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건위장군과 유주자사 등 중국 관직에 국소대형 등 고구려 관등이 혼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진을 독자세력으로 보아 평양 부근의 유력세력이었기에 고구려의 관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sup>74)</sup> 하지만 무덤이 고구려 계통인 석실봉토분이라는 점과 영락이라는 고구려 연호를 사용한 사실은 이 묘주가 4세기 중반의 동수보다 훨씬 고구려에 예속되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진 또한 그의 작호로 볼 때 연의 망명인으로 보이며, 5세기 초반에는 고구려화된 중국계 이주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광개토왕 때에는 중국 군현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었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광개토왕 3년(393) 평양에 9개의 사찰을 세운 사실이다. 불교가 전래되었을 때 소수림왕은 후속 조치로 재위 5년(375)에 省門寺와 伊弗蘭寺를 창건하였다.<sup>75)</sup> 평양에 무려 9개의 사찰을 세운 것은 고등 종교를 통한 민심의 융합 차원일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낙랑 지역 주민을 고구려에 복종하게 하는 본격적인 통치술의 일환으로 보인다.<sup>76)</sup> 아울러 광개토왕은 재위 18년(408) 평양의 민호를 새로 쌓은 禿山城 등으로 옮겼다.<sup>77)</sup> 이는 기존 주민들에 대한 해체 작업으로 볼 수도 있다.<sup>78)</sup>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광개토왕 때에는 중국 군현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에 보이는 재위 9년에서 15년까지 후연과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는 기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물론 후연은 고구려에 매우 위협적인 세력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전연처럼 그렇게 위협적인 세력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동북방에서 밀리지 않고, 한반도 방향으로의 팽창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79)</sup> 무엇보다도

73) 徐永大, 1992, 앞의 책, 79~88쪽.

74) 武田幸男, 1989, 「德興里壁畫古墳被葬者の出自と經歷」, 『朝鮮學報』 130, 14~20쪽.

75) 『三國史記』 18 高句麗本紀6 小獸林王 5年 2月條.

76) 이도학, 2011, 「古代 東아시아 佛教와 王權」, 『충청학과 충청문화』 13, 59~60쪽.

77) 『三國史記』 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18年條.

78) 이도학, 2012, 「廣開土王代の 南方 政策과 韓半島 諸國 및 倭의 動向」, 『고구려 광개토왕과 동아시아』 한국고대사학회 제25회 합동토론회 발표요지문, 117쪽.

79) 이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대외팽창은 한반도 쪽으로 추구하였다는 견해(노태돈, 2012, 「광개토왕대의 정복활동과 고구려 세력권의 구성」, 『고구려 광개토왕과 동아시아』 한국고대사학회 제25회 합동토론회 발표요지문, 11쪽)도 있다. 이에 덧붙이자면 백제와 특히 관련이 있는 듯하다. 광개토왕비문에 의하면 영락 6년조 외에 영락 9년에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왜와 화통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영락 10년조에 백제와 관련이 있는 듯한 구절이 보인다. 판독이 어려운 비문 중 왕건군의 ‘殘倭潰逃’라는 새로운 판독(王健群(林東錫 譯), 1985,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261쪽)을 적극 해석하면 백제와 왜가 궤멸하여 도주하였다는 이해도 가능하다. 이는 『日本書紀』 19 欽明天皇 2년 4월조에 ‘옛날 신라가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하여 임나와 백제를 공격하였는데도 오히려 이기지 못하였는데, 신라가 어찌 홀로 임나를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백제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이도학, 2012, 앞의 발표요지문, 128쪽). 아울러 14년조도 백제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이에 대해서는 뒤에 기술하겠다). 끝으로 17년조도 정벌을 대후연전으로 보는 견해(水谷悌二郎,

백제 관련 기사가 많다는 것은 고구려의 기본적인 대외팽창의 방향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광개토왕 무렵의 대외관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구려와 신라의 접근이다. 이는 백제와 고구려의 충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점차 주변국을 끌어들이며, 대외관계가 다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두 나라는 주변을 점차 복속시키면서 중국 군현에 이르렀고, 대처되는 상황에 주변국인 신라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신라를 먼저 끌어들이는 것은 백제였다. 백제 근초고왕은 재위 21년(366) 봄 3월에 사신을 보내 신라를 예방하였다. 이어 368년에도 사신을 신라로 보내 좋은 말 2필을 주었다.<sup>80)</sup> 이듬해인 369년은 마한을 복속시킨 해이다. 이와 같이 후방이 안정되자, 백제는 369년과 371년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백제와 신라의 좋은 관계는 과국을 맞이하게 된다. 373년 禿山城의 성주가 300명을 이끌고 신라로 달아났고, 돌려달라는 백제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가 급랭한 것이다. 이 때 백제 근초고왕은 ‘두 나라가 화친을 맺어 형제가 되기를 약속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sup>81)</sup> 이어서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에 대처하기 위해 신라와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인다.<sup>82)</sup>

반면에 고구려는 백제와의 전투에 패하자 신라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었다. 377년 신라가 전진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sup>83)</sup> 이 때 신라를 안내한 것은 고구려였다.<sup>84)</sup> 따라서 고구려는 신라에 선진문물과 대중국 교류 창구 역할을 하며,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 고국양왕 8년(391) 봄에는 사신을 신라에 보내 우호를 약속하니 신라왕이 조카 실성을 인질로 보내<sup>85)</sup> 두 나라의 관계를 확고히 하였다. 광개토왕의 신라 구원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백제는 366년 가야의 탁순국을 매개로 왜와 교섭을 시작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왜와의 교섭이 신라와 우호를 맺은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는 백제의 전방위 외교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아신왕 6년(397)에는 倭國과 우호를 맺고 태자 腆支를 불모로 보냈다.<sup>86)</sup> 이 시기는 영락 6년 백제의 아신왕이 굴욕적인 항복을 한 다음 해이다. 따라서 백제는 고구려에 밀린 후 왜의 세력을 끌어들이고 고구려에 대항하려는 구도로 전환하고 있는 것임이 드러난다. 아신왕 11년(402) 5월 사신을 倭國에 보내 큰 구슬을 구했고, 이

---

1959, 「好太王碑考」, 『書品』 100, 東洋書道協會, 159쪽)도 있지만 백제전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공석구, 2012, 「廣開土王代 遼西地方의 政治的 動向과 高句麗의 西方進出」, 『고구려 광개토왕과 동아시아』 한국고대사학회 제25회 합동토론회 발표요지문, 107쪽). 두 입장은 나름의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무어라 단정하기에는 주저된다. 이에 대해서는 공석구의 글을 참조하라. 무엇보다도 64성 1400촌을 광개토왕의 총 결과물로 본다면 최소한 영락 6년에 58성 700촌을 공략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을 백제에서 취했던 것은 분명하다. 이를 고려하면 광개토왕의 정복 활동은 백제 중심의 남정임을 확신할 수 있다.

80) 『三國史記』 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1-23年條.

81) 『三國史記』 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18年條.

82) 양기석, 1996, 앞의 논문, 51쪽.

83) 『資治通鑑』 184 晉紀26.

84) 末松保和, 1954, 「新羅建國攷」, 『新羅史の諸問題』, 184쪽.

85) 이에 대해서는 광개토왕 즉위년으로 보기도 한다.

86)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阿莘王 6年條.

듬해 봄 2월에 왜국의 사신이 오자 왕이 특별히 환대한 것<sup>87)</sup>은 두 나라의 밀접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

광개토왕비문의 영락 14년조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 이에 의하면 왜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대방계를 침입하였으나 고구려군에 의해 왜구가 궤멸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왜의 군사적 행동도 위에서 언급한 아신왕의 각별한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최근 왕건군은 ‘和通殘兵’이라는 글자를 새롭게 판독하였다.<sup>88)</sup> 그런데 ‘잔’은 백제에 대한 비칭인 ‘백잔’과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석한다면 왜병은 백제병과 공동의 군사협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전쟁 과정에 보이는 석성을 석현성과 통한다고 보는 견해<sup>89)</sup>를 취하면 백제는 광개토왕의 즉위년에 빼앗긴 대방 지역을 왜병의 군사적 협조를 받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광개토왕의 정복 전쟁 수행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살펴본 여러 요인도 있지만 왕위 계승상의 혼란이 없었다는 점도 하나로 들 수 있다. 백제는 전지왕과 아신왕의 즉위 과정뿐만 아니라 전지왕이 즉위할 때도 삼촌인 磔禮의 모반이 있었다.<sup>90)</sup> 이는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sup>91)</sup> 무엇보다 왕으로의 권력이 집중되지 못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신라도 실성왕과 눌지왕의 갈등이 있었다. 바로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 무렵 두 나라가 권력의 배분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고구려가 순조롭게 왕위 계승이 이루어진 것은 전력의 극대화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아신왕이 고구려에 굴복한 상황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광개토왕이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아신왕 정권을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 주목된다. 이는 장수왕이 개로왕을 참수한 것과 관련시키면 왕의 개인적인 성향으로만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일방적인 우위보다는 아직까지 백제를 제압하는데 따른 반발도 우려되고, 무엇보다도 한강 유역을 지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끝으로 왜가 백제의 요청으로 대방계에 침입한 사실도 놓칠 수 없다. 왜는 가야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대방 지역에서도 고구려와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왜의 한반도로의 진출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면에서 본다면 일정 정도 사실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에서 선진문물을 구하려는 왜의 의도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야 지역과 대방 지역은 과거 선진문물의 주요 창구였다. 중국 군현이 붕괴되면서 이러한 교역로가 흔들렸지만 백제에 의해 다시 새롭게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고구려의 남하로 다시 붕괴되었다. 왜의 입장에서는 백제 편에 서서 교역로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자국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백제와 왜의 협력 관계가 확고하게 구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광개토왕이 관미성과 석성을 장악한 것은 백제의 대방교역로를 빼앗

87)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阿莘王 11·12年條.

88) 王健群(林東錫 譯), 1985, 앞의 책, 역민사, 273쪽.

89) 양기석, 2008, 앞의 책, 100~101쪽 註 367.

90)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腆支王 卽位年條.

91) 李基白, 1959, 앞의 논문, 12~13쪽.

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백제에 매우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왜의 세력을 끌어 들여 이를 재건하고자 하는 백제의 의도가 드러난다.

#### IV. 백제의 고구려 포위 전략과 장수왕의 한성 공격

아신왕 때 백제는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하에 굴복하였다. 이제 백제는 고구려와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였다. 고구려의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이에 대항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그런데 아신왕이 항복할 때 왕의 동생을 볼모로 보내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지왕이 즉위할 때 설례와 훈해 등 아신왕의 동생들이 태자의 즉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이다. 이는 왕의 형제들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전지왕의 즉위가 순탄하지 못한 것에는 아직까지 부자상속이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한 요인도 있었겠지만 백제의 유력 귀족인 진씨 세력과 해씨 세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해씨가 전지왕의 즉위에 도움을 주고, 이를 계기로 왕비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확인이 되지만, 진씨가 중앙정계에 등장하지 않은 것은 역설적으로 전지왕의 반대편에 서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sup>92)</sup> 진씨의 실각과 해씨의 부상도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의 유산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당시 정국의 중요한 변수였던 대고구려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진사왕의 즉음이 고구려전의 패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이를 짐작케 한다. 또한 아신왕 때 새롭게 沙豆가 부상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아신왕은 진무가 대고구려전에서 연달아 패배하자 병관좌평으로 승진시키는 대신 沙豆를 左將으로 임명하였다. 병관좌평은 군정권은 있으나 군령권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수통수권을 사두에게 맡긴 것이다.<sup>93)</sup> 진사왕대의 眞嘉謨, 아신왕 때의 眞武가 대고구려전을 주도하였지만 이들이 패배함으로써 진씨의 입지가 약해졌을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해씨의 대두는 대고구려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전지왕은 즉위 후 왕위계승상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였으며, 해씨 또한 진씨를 대신해서 국정을 수습해야 하였다. 이러할 경우 고구려와의 대치 국면은 상당히 버거웠을 것이다. 고구려도 후연 등 북방세력과 치열한 다툼과 평양 지역을 비롯한 중국 군현에 대한 지배력의 강화 등이 오히려 당면한 과제였을 것이다.<sup>94)</sup> 따라서 백제가 고구려의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고, 고구려 또한 더 이상 백제를 공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일정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씨 세력이 집권하고 나서 비유왕까지 근 50년 동안 백제와 고구려가 전쟁을 치루지 않은 것<sup>95)</sup>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

92) 盧重國, 1978,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 『韓國史論』 4, 서울대, 61~62쪽. 梁起錫, 1982, 앞의 논문, 18쪽.

93) 姜鍾元, 2002, 『4세기 백제사 연구』, 서경, 87쪽.

94) 노중국, 2006,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11, 고구려연구재단, 165쪽.

95) 李龍虎, 2009, 「百濟 腆支王代 解氏勢力의 擡頭와 對高句麗 政策」, 『韓國史研究』 147, 74~78쪽.

다.

대신 고구려는 長壽王 15년(427) 평양 천도를 단행하여 중국 군현을 새로운 고구려의 중심지로 삼았다. 이는 고국원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중국 군현 지배의 완결점이었다. 서북방 방면으로는 406년 後燕과의 전쟁 이후 6세기 후반까지 중국 및 북방 유목 국가와도 충돌이 없는 안정을 유지하였다.<sup>96)</sup> 이에 따라 평양 천도는 적극적인 남하 정책으로 보거나,<sup>97)</sup> 遼下以西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한 사전 정리 작업으로 이해하는 반론<sup>98)</sup>도 있다. 이의 타당성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고구려의 정책은 동아시아 정세 변동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따라서 서방과 남방 정책이 상호 연동성을 가졌다는 점은 확인된다.

평양 천도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결단이었다. 귀족 세력에 대한 통제, 경제적 기반의 확보, 평양 지역의 인적·문화적 기반의 확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sup>99)</sup> 이와 같이 고구려는 낙랑군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새로운 국가체제를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정치세력의 대두와 국내성 귀족들의 쇠퇴도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었다. 당시 북위로 망명한 세력 중에 고구려 귀족 계통의 인물이 보이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sup>100)</sup>

이러한 시기에 백제에서 집권한 세력은 해씨였다. 해씨는 비교적 온건한 대고구려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백제가 고구려에 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비유왕 7년(433)과 8년 연이은 신라와의 통호는 이제까지 두 나라가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01)</sup> 왜와의 관계도 전지왕 5년(409)과 14년(418)의 교류 기사<sup>102)</sup>가 확인되는 등 원활하였다고 생각된다.

대외관계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중국 남조인 송나라와의 긴밀한 관계이다.<sup>103)</sup> 유송은 건국하자 420년 주변 나라의 왕들을 책봉하였다. 이 때 백제왕의 작을 높여 鎮東大將軍으로 책봉하였다. 이어 424년, 425년, 429년, 430년, 440년, 443년, 450년 등 구이신왕·비유왕대에 교류 기사가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백제가 유송과 적극적으로 교섭한 것은 무엇보다도 고구려와 유송이 국제관계 속에서 상호 긴밀해지려는 것을 막고, 백제 중심의 대외정책을 펴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또한 유송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하여 발달된 선진문물

96) 盧泰敦, 1984, 「5~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44, 1쪽.

97) 盧重國, 1981,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69쪽. 孔錫龜, 1996, 「5-6세기의 대외관계」,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78~84쪽.

98) 朴京哲, 1989, 「高句麗 軍事戰略 考察을 위한 一試論」, 『史學研究』 40, 韓國史學會, 53~61쪽.

99) 文銀順, 2007, 『高句麗의 平壤遷都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博士學位論文, 6~7쪽.

100) 徐永大, 1981,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 『韓國文化』 2, 152쪽.

101) 이와 같은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나제동맹의 성립으로 보고 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433에서 554년까지로 보는 설(金秉柱, 1984, 「羅濟同盟에 관한 研究」, 『韓國史研究』 46, 29~39쪽)과 455년에서 554년까지로 보는 설(鄭雲龍, 1996, 『5-6世紀 新羅 對外關係史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91~105쪽)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필자는 백제와 신라의 협력 관계를 동맹으로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오히려 신라는 6세기에 이르러 고구려와 백제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에서 한발 물러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았다(拙稿, 2001, 「熊津時代 百濟와 新羅의 關係에 대한 考察-羅濟同盟에 대한 비판적 검토-」, 『湖西考古學』 45合輯, 67~86쪽).

102)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腆支王 5年·14年條.

103) 이하는 拙稿(2009, 「5~6세기 백제의 남조 중심 외교정책과 그 의미」, 『百濟文化』 41, 176~181쪽)를 요약발췌하였다.

과 제도를 전수받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sup>104)</sup> 이시기 대외관계는 대비는 하지만 공세적인 측면은 아니었다.

그러나 개로왕이 즉위하자 상황은 변화되었다. 먼저 개로왕의 집권에 대해서는 정변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선왕인 毗有王이 29년에 黑龍이 출현하고,<sup>105)</sup> 사망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黑龍의 출현은 국가의 불길한 징조를 나타낸 것으로, 비유왕이 정변에 의해 시해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sup>106)</sup> 또한 『三國史記』에 개로왕 14년까지가 공백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개로왕 집권 초기에 정변이 일어난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107)</sup> 이의 사실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개로왕이 최소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즉위하였고, 이를 타개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아래의 자료이다.

D. (大明) 2(458 : 필자 註)년 慶(개로왕 : 필자 註)이 사신을 보내어 표문을 올려 말하기를, “신의 나라는 예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고 文武의 훌륭한 신하들이 대대로 조정의 관작을 받았 습니다. 行冠軍將軍 右賢王 餘紀 등 11명은 충성스럽고 부지런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마땅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가엾게 여기시어 모두 제수해주기를 청하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行冠軍將軍 右賢王 餘紀를 冠軍將軍으로 삼고, 行征虜將軍 左賢王 餘昆과 行征虜將軍 餘暈을 모두 征虜將軍으로, 行輔國將軍 餘都和 餘乂를 모두 輔國將軍으로, 行龍驤將軍 沐衿과 餘爵을 모두 龍驤將軍으로, 行寧朔將軍 餘流와 麋貴를 모두 寧朔將軍으로, 行建武將軍 于西와 餘婁를 모두 建武將軍으로 삼았다(『宋書』 97 列傳 57 夷蠻 百濟條).

위의 기사는 개로왕이 재위 4년 宋에 官爵의 승인을 요청한 기사이다. 그런데 11명 중 8명은 왕족인 餘氏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餘都和 餘昆은 각각 文周王과 昆支로 비정된다.<sup>108)</sup> 이밖에도 木氏나 麋氏, 于氏 등 귀족들도 보인다. 이와 같이 왕족들이 중용되는 것은 집권 후 왕족 중심으로 친정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여겨진다.<sup>109)</sup> 따라서 이들을 개로왕 집권 초기에 정국의 중심에 선 인물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인물에는 이제까지 권력의 핵심에 섰던 해씨가 빠져 있다. 이는 해씨가 개로왕의 즉위에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권력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준다. 최소한 해씨의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되었음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해씨가 대고구려전에서 유화정책을 주도하였다면,<sup>110)</sup> 이는 대고구려 정책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

개로왕이 대고구려 강경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아래의 사료에서도 확인된다.

104) 유송으로부터 元嘉曆의 도입은 그 좋은 예이다. 원가력은 원가 22년(445) 도입되어 백제 말기까지 활용되었다 한다(李殷晟, 1984, 「武寧王陵의 誌石과 元嘉曆法」, 『東方學志』 43, 47쪽). 역법은 농사 등 경제생활 외에도 국가의 제의와 예악 등 사상체계를 지배하는 근간이 되는 면에서 그 중요성은 말할 나위 없겠다.

105)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毗有王 29年 秋9月條.

106) 李道學, 1985,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位繼承과 王權의 性格」, 『韓國史研究』 50-51合, 3~4쪽.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140~141쪽.

107) 千寬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 下, 『韓國學報』 3, 139쪽.

108) 李基東, 1974, 「中國史書에 보이는 百濟王 牟都에 대하여」, 『歷史學報』 62, 30~33쪽.

109) 鄭載潤, 1999, 熊津時代 百濟 政治史의 展開와 그 特性, 西江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4~24쪽. ,

110) 李龍虎, 2009, 앞의 논문, 65~59쪽.

E. 가을 8월에 장수를 보내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쳤다. 겨울 10월에 雙峴城을 수리하였다. 靑木嶺에 큰 목책을 세우고 北漢山城의 군사들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蓋鹵王 15年條).

위의 사료에 의하면 개로왕은 재위 15년(469)에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삼국사기』에서는 전지왕 이후 고구려를 공격한 기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임진강 일대로 보이는 쌍현성<sup>111)</sup>을 수리하고, 개성 부근으로 추정되는 청목령에 목책을 세워 고구려와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확실히 이전의 정권과 다른 양상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개로왕이 대고구려 강경 정책으로 선회한 요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해서 세력의 실각과 개로왕의 불안한 정국 돌파용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구려의 압박에 따른 유화 정책에 대한 반발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사료에서는 이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F. 신의 할아버지 須(근구수왕 : 필자 주)가 군사를 정비하여 번개같이 달려가서 기회를 노려 날쌔게 쳤는데, 화살과 돌이 잠시 오가고는 釗(고국원왕 : 필자 주)의 머리를 목베었습니다. 이로부터 감히 남쪽을 돌아보지 못하더니, 馮氏의 운수가 다하여 남은 무리들이 바빠 달아나 숨으면서부터 추악한 무리들이 점차 번성하여 마침내 능멸과 꺾박을 당하였습니다. 원한을 맺고 재난이 30여 년이나 이어지자 재물도 다하고 힘도 다하여 점점 약해지고 위축되었습니다. (중간 생략) 지금 璉(장수왕 : 필자 주)이 죄를 지어 나라가 스스로 으깨지고, 大臣과 힘센 귀족들을 끝없이 죽여 죄가 차고 악이 쌓였으며, 백성들은 무너지고 흩어졌습니다. 이는 멸망할 시기이자 손써야할 때입니다. 또 馮族의 군사와 말은 새와 짐승이 주인을 따르는 정을 가지고 있으며, 낙랑의 여러 郡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 천자의 위엄이 한번 떨치면 정벌은 있을지언정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蓋鹵王 15年條 上表文).

위의 사료는 개로왕이 북위에 고구려의 정벌을 요청한 상표문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충돌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앞부분은 다소 과장되긴 하였지만 근초고왕 때 고국원왕과의 전쟁에서 현재까지 이르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구절은 백제가 능멸과 꺾박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의례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개로왕 정권이 인식한 대고구려관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세력은 풍씨로 나온다. 풍씨는 북연계 망명인들로, 이들을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풍홍의 격살 이후 좁아진 입지를 만회하고자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이들이 부각할 수 있는 장점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마술이다. 위의 사료 F에서 다시 한번 풍씨의 군사

111) 파주 장단 북쪽 27리에 위치한 망해산의 쌍령 부근으로 추정하기도 한다(문안식, 2006, 앞의 책, 194~195쪽).

와 말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이를 확인시켜 준다.<sup>112)</sup>

30여 년이란 기간은 북연이 436년 멸망한 이후 현재까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점차 고구려의 압박이 거세지자 대고구려 강경 정권인 개로왕이 등장하는 배경이 된 것이다. 위의 사료 F에 보이는 것처럼 장수왕은 이에 반대하는 귀족들을 숙청하였으며, 그 주변에는 풍씨와 낙랑계 사람들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동시에 개로왕 초기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한 인물들은 기존의 귀족들과 달리 왕족과 목씨, 미씨, 우씨 등 새로운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개로왕의 의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개로왕이 집권하자마자 다음 달 고구려가 공격을 하는 것도<sup>113)</sup> 심상치 않다. 따라서 개로왕의 집권은 대고구려 강경 정권의 출범으로 보아도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개로왕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신라 눌지왕은 백제를 구원하여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이 이루어졌다. 개로왕이 집권하고 나서 신라와 군사적 협력 관계를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또한 461년에는 左賢王 昆支를 왜로 보내어 일본 열도로부터의 군사적 지원을 강구하였다.<sup>114)</sup> 이처럼 개로왕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신라, 왜와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자, 고구려는 462년 북위에 조공을 하였다. 고구려는 439년 이후 중단된 북위와의 교류를 재개한 것이다. 이는 사료상의 누락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공교롭게도 백제에 대응 한다는 점도 단순하지 않다. 465년 이후에는 거의 매년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는 점도 백제를 의식한 교류라는 확신을 들게 한다. 이는 기존의 대외관계와는 분명 차이가 나며, 실질적인 국제간의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개로왕의 대고구려 연합 전선은 앞의 사료 F에 보이는 것처럼 472년 이제까지 외교 관계가 없었던 북위에 고구려 정벌을 요청함으로써 정점으로 치달았다. 이에 고구려 또한 백제에 대응하여 1년에 두 차례나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이 때 이후로 공물을 바치는 것이 이전의 배가 되었다 한다. 이처럼 두 나라는 치열하게 외교전을 전개하였다.<sup>115)</sup> 아울러 勿吉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려는 시도도 보인다.<sup>116)</sup> 이와 같이 백제는 여러 나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포위하고자 하였음이 확인된다.<sup>117)</sup>

개로왕이 이처럼 반고구려 연합전선을 주도하여 고구려를 공격하고자 한 이유로는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시킴과 동시에 백제의 대고구려 포위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앞의 사료 F에 의하면 개로왕은 장수왕의 남하 정책을 주도하는 풍씨와 낙랑의 군현 세력들도 마음 속으로는 고구려에 복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위가 고구려를 정벌한다면 내부에서도 호응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백제는 북위가 고구려 정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북위와 관계를 끊고 있다.

112) 풍흉이 격살된 후 그 일당은 여러 곳으로 흩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에 잔류한 인물도 있지만 450년 백제에서 사신으로 파견된 馮野部라는 인물이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일부는 백제에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조로도 이주하여 嶺南 지역에서 남해 무역을 주관한 풍씨도 보인다(河原正博, 1980, 『隋唐時代の嶺南の酋領馮氏と南海貿易』, 『山本達郎博士古稀記念 東南アジア・イソ드의社會文化』 I, 山川出版社, 392~412쪽).

113) 『三國史記』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10月條.

114) 拙著, 1999, 앞의 책, 22~32쪽.

115) 金壽泰, 1998, 「百濟 蓋鹵王代の 對高句麗戰」, 『百濟史上의 戰爭』, 忠南大 百濟研究所, 145쪽.

116) 『魏書』100 列傳 88 勿吉國條.

117) 梁起錫, 1994, 「5-6世紀 前半 新羅와 百濟의 關係」, 『新羅의 對外關係史研究』, 78~79쪽.

이는 외교전에서 백제가 패배한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고구려는 한성 공격을 한 달 앞둔 475년 8월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때의 사신 파견은 그 시기를 감안하여 보면 북위에 백제의 침공을 통보하였거나 적어도 북위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sup>118)</sup> 결국 백제는 고구려의 한성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수도가 함락당하는 비운을 겪었다.

한성 전투는 무엇보다도 백제와 고구려의 대결이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고구려의 남하에 밀리면서 백제가 주변국뿐만 아니라 왜와 중국 세력도 끌어들이면서 점차 국제전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이후 당 제국의 한반도 개입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한강 유역이 삼국 간 주요 전쟁터로 부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 군현 지역을 둘러싼 백제와 고구려의 싸움에서 그 장소가 한강 유역으로 남하하며, 신라가 성장하면서 역할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한강이 삼국 간 항쟁의 접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아울러 고구려가 한성 전투를 감행하여 한강 유역을 점령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 군현 지역에 대한 지배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외적인 팽창도 가능해진 것이다. 이처럼 한강 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각축은 바로 4세기 중반 이후 중국 군현에 대한 지배를 놓고 벌어진 두 나라의 다툼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 V. 맺음말

---

118) 拙著, 1999, 앞의 책, 42~43쪽.

## 「4~5세기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를 읽고

박 찬 규(단국대학교)

한국고대사에서 4~5세기가 갖는 의미는 크다. 이 시기는 백제의 경우 집권국가로서의 틀을 완성하고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그 세가 급전직하하여 한성으로부터 웅진으로 도읍이 바뀌기 까지 하는 그야말로 격변기였다. 그것도 고구려의 경우와는 달리 타의에 의해 국가의 중심이 옮겨지게 되는 상황이어서 백제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한편 고구려 또한 심한 변화를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국가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중에 서북으로부터의 강력한 저항과 남진과정 중에 국왕의 전사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게 되고, 이를 극복하게 되면서 한강 유역 진출이라는 대업을 완성하게 되는 때가 이 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한 이해는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발표된 이 논문이 이 시기와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우선, 한반도 중국 군현의 운명에 따른 고구려·백제의 움직임과 이 지역을 둘러싼 양국 간 격돌을 추적하였다. 즉 冬壽묘로 불리는 안악3호분이나 修利가 주인공인 평양 永和 9년명 전축분, 황해도 봉산군 소봉리 1호분의 張撫夷塼 등의 분석을 통한 군현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방식이 거론되었다. 아울러 백제는 대방인과 같은 중국 군현계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중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논하였다.

다음은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하와 백제의 대응에 대한 내용이다. 광개토왕이 남하하기 전까지 양국의 국경선은 대체로 예성강선을 유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광개토왕이 즉위하면서 상황이 바뀌어 '58성 700촌' 정복이라는 광개토왕비의 표현대로 고구려의 일방적 우세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고구려의 중국군현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한편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천도를 전후한 정세의 변화는 백제로 하여금 새로운 대외기조를 형성하게 하였는바, 개로왕대의 대고구려 강경책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실패하여 장수왕의 공격을 당하고 한성이 함락되고 만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발표문의 기본적인 줄거리에 대해서는 본 토론자로서도 대략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바이다.

첫째, II장에서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하는 평양성의 위치비정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주 7에서 평양시 대성산성이나 황해도 신원 일대의 남평양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소개하여 놓았다. 그런데 본고에서 필자의 견해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듯하다. 이 문제는 당시 백제군의 진격로와도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이다. 혹 필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둘째, II장에서 평양 永和 9년명 전축분의 주인공 修利의 관직명 '遼東韓玄菟太守'의 '韓太守'라는 칭호가 중국과 어떤 관련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칭일 개연성이 크다고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보충되었으면 한다. 만약 이 칭호가 허구화된 자칭에 불과하다더라

도 ‘韓’이라는 명칭이 修利의 관직명에 들어 있는 연유가 궁금하다.

셋째, II장 사료 B-2에서 근초고왕이 동진으로부터 받은 ‘領樂浪太守’라는 관명의 ‘領’을 ‘~을 관장하다’로 보았다. 이는 이 기본적 의미 외에 ‘높은 품계의 관리가 낮은 직무를 겸직할 때 붙이는 글자’라는 뜻을 갖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의미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넷째, III장 영락 14년조의 서술내용 중 “최근 왕건군은 ‘和通殘兵’이라는 글자를 새롭게 판독하였다”고 하였다. 광개토왕비에서 이 부분은 과손이 심하여 판독하기 난해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왕건군의 판독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위하여 전후 원문을 제시해 주어야 할 듯하다. 즉 이 내용이 원문의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보여준다면 보다 쉽게 내용 파악이 될 것이다. 참고로 이 대목의 원문 판독문구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十四年甲辰 而倭不軌 侵入帶方界 (和)(通)(殘)(兵)△△城”

다섯째, IV장 15쪽 논지 서술이 갑작스러운 국면전환으로 내용파악이 다소 어렵다. 즉 전지왕의 즉위 내용이 소개되다가, 진사왕의 죽음과 아신왕 때의 상황이 서술되고, 다시 전지왕 때의 상황이 전개되는 등 문맥 연결에 혼란한 감이 없지 않다.

여섯째, IV장 16쪽에서 고구려 평양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대두와 국내성 귀족들의 쇠퇴”를 가져왔는데 “당시 북위로 망명한 세력 중에 고구려 귀족 계통의 인물이 보이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고 했다. 이에 대한 인용 문헌을 각주에서 소개하였지만, 구체적인 원문 사례를 제시해 준다면 논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질의라기보다 문맥을 오해할 소지가 있는 듯하여, 참고했으면 하는 사항이다.

첫째, 고구려와 전연이나 후연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동북방면’과 ‘서북방면’을 혼용하고 있다. 이는 용어를 통일해야 할 듯하다.

둘째, IV장의 목차상 제목과 본문에서의 제목에 차이가 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인적인 견해 몇 가지를 말씀드렸다. 토론자가 잘못 본 점이 있다면 발표자의 양해를 구한다.

# 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と高句麗・北齊関係 —新出『裴遺業墓誌』の検討を中心に—

井上直樹（京都府立大学）

## はじめに

高句麗の古都、吉林省集安市に屹立する「広開土王碑」に刻記されているように、4・5世紀、高句麗にとって倭は、高句麗と敵対する百済と同盟し、高句麗の南進に抵抗する存在であった<sup>1)</sup>。「広開土王碑」のなかで倭は高句麗と関係する諸国のうち、最多の8回登場する。高句麗はその支配秩序を乱す倭を強く意識していたのであった<sup>2)</sup>。一方、その倭もまた高句麗を強く意識しながら対南朝外交を展開していた<sup>3)</sup>。朝鮮半島における高句麗と百済の対立を前提に高句麗と倭は互いをそれぞれ敵対視していたのであり、このことは4・5世紀の古代東アジア世界を理解する上で看過できない重要な要素であった。

ところが、570年代、高句麗は突如として倭に外交使節を派遣し、倭との通交を試みるようになる。その後、高句麗から倭への使者派遣はしばらくみられなくなるが、6世紀末から高句麗の対倭外交は再開し、6世紀末から7世紀前半、高句麗と倭の通交はより活発化し、高句麗から倭に僧侶が派遣され、先進文物も将来されることになった。こうした倭への高句麗からの先進文物の流入は倭に少なからぬ影響をもたらすことになる。それゆえ、倭と高句麗との交流は日本古代史上、重要で軽視できず、そのため高句麗と倭との関係については日本古代史や考古学の観点からこれまで精力的に研究が進められてきた<sup>4)</sup>。

しかし、このような高句麗と倭の通交を考究するにあたっては、倭の立場だけでなく、高句麗の視点からそれを討究する必要がある。とりわけ、高句麗がはじめてそれまで敵対していた倭に対して使節を派遣した570年代の対倭外交は、高句麗のみならず、古代東アジア世界の構造の転換を迫るものとして注目されており<sup>5)</sup>、それだけに高句麗をして対倭外交を推進させた要因などを高句麗の観点から論じることが斯学の課題の一つとなっていた。ところが、当該期の高句麗の対倭外交についても必ずしも積極的に追究されてきたとは言い難い状況であった。こうした研究状況をふまえ、筆者は当該期の高句麗を取り巻く状況をふまえつつ、改めて高句麗側の視点から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について検討を行った<sup>6)</sup>。

その後、筆者の見解をふまえつつも、新たな観点から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の意義について論じた研究もみられるようになった<sup>7)</sup>。それは当該期の高句麗外交についての研究の進展を示しており、その指摘も興味深く、軽視できないところでもある。さらに、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に大きく関わると考えられる北齊と高句麗に関する新たな出土文字資料も報告され<sup>8)</sup>、当該期の高句麗を取り巻く史料状況も変化している。

そこで、本報告ではそれら新たな研究を批判的に検証し、さらに高句麗と北齊との関係を示す新出文字資料についても討究して、570年前後の高句麗を取り巻く諸情勢を明らかにし、当該期の高句麗の対倭外交について再検討してみたいとおもう。

1)本稿では律令国家以前の日本を倭・倭国とし、律令以後を日本とする。

2)武田幸男『広開土王碑との対倭』（白帝社、2007年）。

3)武田幸男「長寿王の東アジア認識」（武田幸男『高句麗史と東アジア』岩波書店、1989年）。

4)倭と高句麗との関係についてはキトラ古墳の天文図などを手がかりに主に考古学の立場から積極的に探究されているが、それについては宮嶋一彦「キトラ古墳天文図」（『キトラ古墳学術調査報告書』明日香村教育委員会、1999年）、同「キトラ古墳天文図と東アジアの天文学」（『東アジアの古代文化』97、1998年）、千田稔「キトラ古墳と渡来文化」（『東アジアの古代文化』97、1998年）、和田萃「四神図の系譜」（『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80、1999年）などを参照されたい。また、日本古代史の観点からの研究もあるが、それについては坂元義種「推古朝の外交」（『歴史と人物』100、1979年）、李成市「高句麗と日隋外交—いわゆる国書問題に関する一試論—」（『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国家』岩波書店、1998年、[初出]『思想』795号、1990年）などがある。この他、高句麗と倭の関係についてはこれまで多くの研究者が指摘してきたところであるが、その詳細については拙稿「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について」（『年報朝鮮学』11、2008年）註8参照。

5)李成市「高句麗と日隋外交—いわゆる国書問題に関する一試論—」（前掲）。

6)拙稿「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について」（前掲）。以下、特にことわりのない限り拙稿とはこの論文をさす。

7)李成制「570年代 高句麗의 対倭交渉과 그 意味—새로운 対外戰略의 추진 배경과 내용에 대한 재검토—」（『韓国古代史探究』2、2009年）。なお、本稿脱稿後、徐榮教「高句麗 平原王代 南進과 遣倭使」（『歴史と世界』41、2012年）を得た。568年の北齊・武成帝死亡・北齊の混乱によって高句麗は「北齊の脅威から自由」となり、対新羅戦略を押し進め、元山地域奪還が高句麗の対倭外交の契機となったとし、高句麗の倭への使節派遣は「不確定性のなかで始められた」と指摘する。高句麗の遣倭使の出発地などについては今後の調査を俟って論じることにはしたいが、北齊との関係については、高句麗は568年以後も北齊に遣使入朝しており、北齊の存在を十分に意識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から、上述のような理解にはにわかに従いがたい。

8)王其禕・周曉薇「新出北齊聘高麗使主《裴遺業墓誌》疏証」（『北方文物』2012年2期）。

## 1 欽明紀以前の高句麗遣使記事についての新見解と問題点

高句麗の対倭外交記事については朝鮮史料である『三国史記』にみえず、『日本書紀』神功紀（以下、『日本書紀』は省略する）以降に散見される。しかし、高句麗の対倭外交は、【史料1】欽明紀31（570）年4月条の

【史料1】欽明紀31（570）年4月条

越人江淳臣裾代詣京奏曰、高麗使人辛苦風浪、迷失浦津。任水漂流、忽到着岸。郡司隱匿、故臣顯奏。詔曰、朕承帝業若干年、高麗迷路始到越岸。雖苦漂溺、尚全性命。豈非徽猷広被、至德魏魏、仁化傍通、洪恩蕩蕩者哉。有司、宜於山背国相樂郡、起館淨治、厚相資養。

という記事を以て開始されたと考えるのが妥当で、それまでの高句麗の対倭外交記事は信憑性に疑問が残る、とする見解が有力である<sup>9)</sup>。筆者もそのように考え、【史料1】以前の記事については史実として理解できないと指摘してきた<sup>10)</sup>。しかし、拙稿とほぼ同時期にこの問題について検討した徐京甫氏は、百済と高句麗が新羅に対する利害の一致から512年から523年まで通交関係を維持しており、【史料2】継体紀10（516）年秋9月条

【史料2】継体紀10（516）年秋9月条

戊寅、百済遺灼莫古將軍、日本斯那奴阿比多、副高麗使安定等、來朝結好。

にみえる高句麗から倭への遣使記事を高句麗の最初の対倭外交記事であるという見解を提示した<sup>11)</sup>。【史料2】にみえる高句麗の遣使記事については、かつて三品彰英が当該期の高句麗と百済の良好な関係を前提として高句麗と倭の通交を指摘し<sup>12)</sup>、近年でも熊谷公男氏が三品説をふまえ、百済の外交戦略を倭国に受け入れさせようとして、百済が高句麗使節を伴って入朝したのではないかと推定しており<sup>13)</sup>、史実として理解しようとする見解が提出されていた。これは高句麗の対倭外交を考察する上での基本的な問題でもある。そこで、改めて【史料2】について検討してみることしよう。

上述したような【史料2】の解釈は興味深いがいわかに従い難い部分も存在する。それは第一に、【史料2】を史実とする見解の前提ともなっている高句麗—百済の和平関係に疑問が残ることである。5世紀末～6世紀初の高句麗と百済は、高句麗による475年の百済王都陥落（『三国史記』高句麗本紀・長寿王63年9月条、百済本紀蓋鹵王21年条など、以下、高句麗本紀は麗紀と、百済本紀は済紀と、新羅本紀は羅紀とし、『三国史記』は省略する）や正始年間（504～507年）に高句麗の使者苒悉弗が北魏に対して百済討伐の許可を得たこと（『魏書』卷100・高句麗伝）から明らかのように敵対関係にあったとみてよい。麗紀・済紀も506年、507年、512年に高句麗と百済間の交戦を伝えている（麗紀・文咨明王15・16・21年条、済紀・武寧王6・7・12年条）。

だが、その後、『三国史記』は523年まで高句麗と百済の交戦を伝えていない。さらに、【史料3】『梁書』卷54・百済伝には

【史料3】『梁書』卷54・百済伝

普通2（521）年、王余隆始復遣使奉表、称累破句驪、今始与通好、而百済更為強国。

とあって、百済が高句麗を破り、高句麗と通交し強国となったと記している。これによれば両国の関係は好転したかのようには見えなくもない。徐京甫氏もこのことを史的根拠として、【史料2】を史実として理解するのである。

そこで改めて検討してみたいのが【史料3】である。これによれば百済はしばしば高句麗を破り、高句麗と始めて通交することになったと解釈できなくもない。だが、これが百済の使者によって伝えられた内容であることに注意すべきである。この百済の梁への入朝には新羅使節も随行しているが、この時、百済は新羅を「旁小国」と位置づけ、百済に「附」備するものとして扱うなど、百済が強国であることを梁にアピールしている<sup>14)</sup>。こうした百済の外交戦略を勘案すれば、百済使節の持参した表文にも、百済が強国であることを示す修辭が使用されていた可能性は想定されうであろう。それゆえ、その内容をただちに当該期の高句麗と百済の関係を反映したものとして理解するには躊躇せざるをえないのである。ちなみに、済紀・武寧王21（521）年11月条には3それは【史料3】を史料的典拠としているためであって、両者の記事の一致から記事内容の信憑性が高いとは判断できない。

このようにみれば、【史料3】にみえる高句麗・百済の関係をただちに認めるわけにはいかず、今のところ、この時期、高句麗と百済が通交していたとする史料は見出し難いと解してよかろう。現存の高句麗・百済関係史料からみて、高句麗と百済の関係についてのすべての記録が残存しているとは考えがたいが、両国が和平に転じたということの重要性に比して、諸史料がそのことをまったく言及しないのは不審である。したがって、高句麗と百済の交戦記事の欠如か

9)津田左右吉「百済に関する日本書紀の記載」（前掲）、山尾幸久「大化前後の東アジア情勢と日本の政局」（『日本歴史』229、1967年）、李成市「高句麗と日隋外交—いわゆる国書問題に関する一試論—」（前掲）、平野卓治「日本古代史料にみる倭王権・日本律令国家と高句麗」（『高句麗 正体性 高句麗研究』18、学研文化社、2004年）など。

10)拙稿「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について」（前掲）。

11)徐京甫「百済を媒介とする高句麗と倭との交渉」（『東京大学史料編纂所研究紀要』18、2008年）。

12)三品彰英『日本書紀朝鮮関係記事考証』下（天山舎、2002年、1971年脱稿）。

13)熊谷公男「いわゆる「四県割讓」の再検討」（『東北学院大学論集 歴史学・地理学』39、2005年）。

14)この時の百済の外交的パフォーマンスについては、李鎔賢「梁職貢図 百済国使条の「旁小国」」（『朝鮮史研究会論文集』37、1999年）参照。

ら、両国の関係が改善したと理解するのも留保せざるをえず、むしろ、麗紀や済紀が523年・529年に高句麗と百済の交戦を伝え（麗紀・安臧王5・11年条、済紀・聖王元・7年条）、さらにその後も高句麗と百済との戦闘が認められることから、両国は依然として敵対関係にあったとみるほうが自然であろう。

第二に、継体紀の高句麗使者の入朝に関して、『日本書紀』の記述があまりにも簡潔にすぎることである。欽明代に高句麗使節が到達した際には、倭国ではそれを迎接するための客館が造営されている（欽明紀31（570）年条）。また高句麗使節に関する記事も比較的詳細に記載されている。これまで倭国と敵対していた高句麗から使者が到着したことは、倭国にとっても重要事件であったはずである。それゆえ、欽明紀の場合には高句麗使節の来倭に関して比較的詳細に記されているのであろう。それに対して継体紀では何も記されていない。このことは【史料2】の高句麗使節来倭に対する疑念を抱かせる。

第三は、第二の点と関連するが、欽明紀が継体紀の高句麗使節到達を無視していることである。欽明紀31（570）年4月条には高句麗使節の来着について、

高麗迷路始到越岸。

と記し、高句麗使節が「始めて越の岸に到」ったとする。これによれば、欽明朝以前には高句麗使節は倭国に到達することはなかったことになる。もっともこの場合、「始」は越に来たことを指し、漂流しなければ倭国に到達できたというニュアンスで理解できなくもない。応神紀以来の高句麗の遣使入朝をふまればそうした解釈も不可能ではない。だが、これ以前の記述は史実とみなしがたく、高句麗からの使節が太宰府に到着するのは、高句麗と百済が対新羅攻撃によって利害が一致し、朝鮮半島西海岸を経由する航路を選択するよう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7世紀初以後のことであり、それまではもっぱら朝鮮半島東海岸を出発して、日本海を経由するルートが用いられたのであって<sup>15)</sup>、「始」は越に到着しただけでなく、初めて倭に到着したことをも含んでいと考えたほうがよいであろう。とすれば、欽明紀の記事は継体紀の高句麗使節到達を無視したかのような記述となっていることになる。高句麗使節入朝に対する継体紀と欽明紀の矛盾は、『日本書紀』編纂者の問題に帰せられるのかもしれないが、欽明紀がそのように記したのは、それ以前に高句麗使者の入朝がなかったと考えられていたからであろう。とすれば、第二の点と関連して、ここからも継体紀の記事を認めるわけにはいかないであろう。

以上の点から、継体紀の高句麗使節の来朝記事の信憑性には問題があり、【史料2】をそのまま高句麗と倭国の関係を示すものとして理解するのは困難で<sup>16)</sup>、高句麗の対倭外交は高句麗使節が「始めて越国に到」ったとする欽明紀31（570）年より始まる、と考えるのが妥当であることを改めて強調しておきたい。

それでは、これまで百済との対立を前提として敵対してきた倭国に対して、高句麗はなぜこの時期に、使節を派遣し、対倭外交を開始しようとしたのであろうか。次にその点について拙稿の論点を述べ、それに対する新見解を紹介し、検討してみよう。

## 2 570年代の対倭外交に対する新見解と問題点

### (1) 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と高句麗・北齊関係

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関係記事は欽明紀31（570）年4月条・敏達紀元（572）年5・6月条などにみられるが、それらよると高句麗使節は「路に迷」い、越に漂着した結果、難解な国書を提出したという。こうした状況をふまえて、この時の高句麗使節の倭国到来は陳との交流を前提として二次的なもの、あるいは偶然漂着したもので、偶発的なものであった可能性があり、国書を誤って「道君」に贈ってしまったことなど、混乱が認められることから、高句麗使節に対しては疑義を抱かざるを得ない、という議論が提出されている<sup>17)</sup>。それに対して高句麗使節が国書を持参していることを重視し、それは高句麗と倭との外交交渉を前提としたものであったと理解し<sup>18)</sup>、こうした立場からそうした議論

15)高句麗の対倭外交の航路について論及したものとしては、小嶋芳孝「高句麗・渤海との交流」（網野善彦編『海と列島文化1 日本海と北国文化』小学館、1990年）、古畑徹「環日本海諸「地域」間交流史の中の渤海国—7～10世紀における航路の変遷を中心に—」（『唐代史研究会報告第八集 東アジア史における国家と地域』刀水書房、1999年）、拙稿「古代山城と高句麗」（『南山城地域における文化的景観の形成過程と保全に関する研究（平成18年度京都府立大学地域貢献型特別研究成果報告書）』京都府立大学、2007年）、윤재윤「동해 항로의 유래와 경로」（동북아역사재단『고대 환동해 교류사 1부 고구려와 왜』동북아역사재단、2010年）などを参照されたい。

16)このほか欽明紀元（540）年8月条には、「八月、高麗・百濟・新羅・任那、並遣使獻、並修貢職」とあって、高句麗が入貢したことを伝えるが、坂本太郎他校注『日本古典文学大系 日本書紀』（岩波書店、1965年）は「このころの事実としてはなほ疑わしい」とする。筆者もまた570年以前の高句麗使節の来倭は本論で論究したように困難であるため、同年記事は書記編纂過程で造作されたものと理解しておく。

17)新川登亀男「高句麗と日本（倭）」（『日本古代文化史の構想』名著刊行会、1994年）、金善民「6세기 후반 倭의 高句麗인식—『日本書紀』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韓日關係史学会編『동아시아 속에서의 高句麗와 倭』景仁文化社、2007年）。

18)李成市「高句麗と日隋外交—いわゆる国書問題に関する一試論—」（前掲）、延敏洙「古代日本の 高句麗觀 研究」（韓日關係史学会編『동아시아 속에서의 高句麗와 倭』景仁文化社、2007年）など。

への反論も提示されている<sup>19)</sup>。

このような高句麗使節の倭国派遣が高句麗の対倭外交戦略と深く関わっているという観点から当該期の高句麗の対倭外交について論じたものは早くから認められ、いち早くこの問題に言及した李弘植氏はこの遣使が新羅の東海岸地域進出と関わっ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推測した<sup>20)</sup>。そうしたなかでこれを朝鮮半島情勢と関連させ、積極的に論じたのが、山尾幸久氏であった<sup>21)</sup>。

山尾氏は、高句麗が新羅を共通の敵とする百済と和好し、それを背景として百済と同盟関係にあった倭に接近し、その結果、新羅に対して高句麗・百済の対新羅共同対処ということが醸成されたと指摘した<sup>22)</sup>。だが、私見によればこの時期、高句麗が百済と同盟関係にあったとはいえず、百済と高句麗の同盟は7世紀半ば以後のことであり<sup>23)</sup>、にわかには山尾説には従えない。

そもそも山尾説は高句麗の視点から当該期の高句麗の対倭外交を論じられたものではない。それゆえ、改めて高句麗の視点からそれを論究する必要があるが、これについて積極的に高句麗の立場から言及したのが李成市氏であった<sup>24)</sup>。李成市氏は高句麗の対倭外交がそれまでの高句麗対百済・倭という構造を激変させたもので、古代東アジア史を理解する上で軽視できず、その理由を「高句麗側にあった格別の事由をもって説明させなくてはならない」と指摘した。その上で、高句麗の対倭外交の原因を新羅の勢力拡大、新羅の南北朝外交に求めた。すなわち、新羅は『黄草嶺碑』・『磨雲嶺碑』に認められるように568年頃までに朝鮮半島北東部を高句麗より奪取するが、それは高句麗にとって切実な問題であったとする。あわせて、新羅は560年代から南北両朝と通交するが、そうした外交が軍事的圧力とともに高句麗の多大な脅威を与え、新羅の抬頭に対する対策の一つとして対倭外交が展開された、と説いたのである。

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を高句麗の観点から論じたのは、管見によれば李成市氏がはじめてであり、その後の研究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た。その後、延敏洙氏、林起煥氏、イオンシク氏らも高句麗の対倭外交について論究しているが、570年代のそれについては、基本的には李成市説を踏襲し、新羅の勢力拡大と新羅の対中国王朝外交がその主たる要因であったとしている<sup>25)</sup>。

こうした指摘は重要で軽視できないが、これを攻究する上で看過できないのが、高句麗外交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きた北朝の動向である。そもそも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はわずか4年で中断するが、李成市氏もその主たる原因を北齊・北周の滅亡、隋の中国統一など「複雑な様相を呈していた北朝の動向」に求めていた。これによれば、高句麗の対倭外交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たのは新羅だけでなく、北朝の動向でもあ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李成市氏の研究はその後の隋代の隋・高句麗・倭との関係に主眼が置かれているため、それについて言及されていないが、この視点は重要である。それゆえ、六世紀半ばの高句麗の対倭外交を理解するためには、新羅の動向のみならず高句麗と北朝（北齊）との関係を討究し、それらを総合的に考察する必要があるのである。

そこで改めて北齊と高句麗の関係についてみると、注目されるのが、以下の【史料4】『北史』高麗伝にみえる北齊の高句麗に対する強引な魏末流人の返還要求である。

【史料4】『北史』高麗伝

天保三（552）年、文宣至營州、使博陵崔柳使于高麗、求魏末流人。勅柳曰、若不従者、以便宜従事。及至、不見許。柳張目叱之、拳擊成、墜於牀下、成左右雀息、不敢動、乃謝服、柳以五千戸反命。

この天保3年は諸史料の比較検討から天保4年に改めるべきであるが<sup>26)</sup>、軽視できないのは、本条が崔柳の武勇談のような形式となっているものの、高句麗が当初、北齊の要求を拒否し、その後、崔柳の行動によって仕方なくそれに応じたと理解でき、これ以後、高句麗の北齊への入朝回数がそれ以前と比べ激減し、この事件を契機として高句麗と北齊の関係が悪化していったと考えられることである（論文末 表1 550-590年代の高句麗の対外関係表参照）。すなわち、陽原王は即位以来、毎年、東魏に入朝していたが、550年5月に北齊が建国されるとその翌月には朝貢し（『北

19) 이영식 「5・6세기 고구려와 왜의 관계」 (『北方史論叢』 11、高句麗研究財団、2006年)。

20) 李弘植 「『日本書紀』所載高句麗関係記事」 (『東方学志』 1・3、1954・1957年)。

21) 山尾幸久 「大化前後の東アジア情勢と日本の政局」 (前掲)。

22) これ以外にも栗原朋信 「上代の対外関係」 (『森克己・深田次郎編『対外関係』山川出版社、1978年)は、高句麗の倭国への使者派遣が、中国の南北分裂から隋の中国統一に対応したものとするが、隋の中国統一は589年であり、この時の高句麗の対倭外交はそれ以前のことである。したがって隋の中国統一を高句麗の対倭外交の原因と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

23) 拙稿 「六世紀から七世紀半ばの東アジア状況と高句麗の対倭外交」 (『朝鮮学報』 221、2011年)。

24) 李成市 「高句麗と日隋外交—いわゆる国書問題に関する一試論—」 (前掲)。

25) 林起煥 「高句麗と倭の交渉—『日本書紀』記事を中心に—」 (『高句麗シンポジウム 日本と高句麗；人とサラム』九州国立博物館、2005年)、延敏洙 「古代韓日外交史—三国과 倭를 중심으로—」 (『古代韓日交流史』 해안、2003年、[初出] 『韓国古代史研究』 27、2002年)。

同 「古代日本の 高句麗観 研究」 (韓日関係史学会編 『동아시아 속에서의 高句麗와 倭』 景仁文化社、2007年)、이영식 「5・6세기 고구려와 왜의 관계」 (前掲)。

26) 拙稿 「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について」 (前掲)。

齊書』文宣紀・天保元年6月条)、さらに翌551年5月にも再度入朝し(『北齊書』文宣紀・天保2年5月条)、積極的に北齊に朝貢しており、高句麗は対北齊外交重視策を採っていた。しかし、こうした高句麗の積極的な対北齊外交は天保4(553)年の流人返還要求以後、認められなくなり、その後、同事件から陽原王在位の7年間の間に、高句麗が北齊に朝貢したのはわずかに555年だけであった(『北齊書』文宣紀・天保6年11月条)。553年の流人返還問題を契機として高句麗の北齊の関係は悪化し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り、陽原王を嗣いだ平原王代においても570年までの北齊への朝貢がわずかに564・565年の二度にとどまることから(武成紀・河清3年歳条、後主紀・天統元年歳条)、陽原王代にもそうした状況は続いてい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論文末 表1 550-590年代の高句麗の対外関係表参照)。

さらに軽視できないのは高句麗と北齊の関係が悪化していた564年に、高句麗と対立していた新羅が北齊に朝貢し(『北齊書』武成紀・河清3年歳条)、さらに565年に新羅王が北齊から「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を授けられたこと(『北齊書』武成紀・河清4年2月条)である。高句麗と敵対する新羅にとって北齊入朝による北齊との連携は、高句麗を牽制する上で重要であったであろう。一方、北齊に対して警戒心を抱き、新羅と直接対立していた高句麗にとって、この新羅と北齊の提携は看過しえないものであったであろう。しかも、この時の冊封号のうち東夷校尉は東夷の中心勢力に授けられていたもので、従来、高句麗に授けられていたものであった<sup>27)</sup>。しかし、565年の段階でそれが新羅に授けられたのである。このことは北齊が新羅を重視していたことを意味する。これまで北齊の東方世界の中心勢力として認定されてきた高句麗にとって、これはゆるがせにはできない問題であったであろう。高句麗と北齊関係悪化後から570年の高句麗の対倭外交までの高句麗の北齊への遣使朝貢はまさにこの時期に該当し、564・565年の北齊への入朝は北齊と新羅との連携を意識して行われた可能性が高い。

また高句麗はこの翌年の566年に陳に対しても遣使朝貢している(『陳書』廢帝紀・天康元年条)。平原王の陳への入朝は平原王即位2年目の561年とこの566年にのみであるが、566年の陳への朝貢は上述のような北齊と新羅との連携をふまえ、北齊を牽制すべく行われたものであったと考えられ、高句麗は北齊・新羅との関係をふまえて外交活動を展開しており、高句麗は敵対する新羅を高く評価した北齊に対して警戒心を抱き続け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

一方、新羅は『黄草嶺碑』・『磨雲嶺碑』からもうかがえるように、568年に朝鮮半島北東部を支配下に治め、高句麗領を侵食していたのであり、その結果、高句麗は後退せざるを得なくなっていたのであった。また、高句麗西方では真興王が『黄草嶺碑』・『磨雲嶺碑』を立碑した同年九月、北齊が北周に和を請い、北齊と北周の和睦が成立する(『資治通鑑』卷117・光大2(568)年8月条)<sup>28)</sup>。この和睦は翌569年11月に北周と北齊の戦闘によって消滅するが、570年、さらにその翌年の571年、北齊は北周軍を撃破する(『資治通鑑』陳紀・太建2年条、同3年条など)。さらに、571年にはそうした状況をふまえてか、陳が使者を北齊に派遣し、共同で北周を討伐せんことを打診している(『北齊書』後主紀武平2年4月条)。北齊と北周の対立は、560年代後半から570年代初まで、高句麗が警戒していた北齊優位で展開していたのである。

一方、領土を拡大し、単独で中国王朝との交渉をなしえ、北齊から高く評価された新羅は、568年にはじめて陳へ遣使朝貢する(『陳書』卷4・廢帝紀光大2年7月条)<sup>29)</sup>。高句麗は西方での北齊、南方での新羅との対立に加え、この新羅の陳への入朝による新羅と陳の提携によって、外交的苦境に陥る。そしてこうした状況下において高句麗を出発したであろう対倭外交使節が、570年に倭国に到達するのである。おそらくそれは北齊・新羅との対立という高句麗を取り巻く厳しい情勢と無関係ではなく、それを打開しようとしてとられた措置であり、これによって南方の新羅に対処しようとするため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

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はこうした新羅との対立に加え、北齊との関係悪化をふまえて展開されたものであったが、その北齊はその後衰退の一途をたどる。572年6月に北周との交戦で活躍し、北齊を支えてきた名将斛律光が讒言によって殺害され、その息子、さらにその弟で突厥が恐れ「南可汗」と称されていた斛律光の弟、斛律羨が誅殺される(『資治通鑑』陳紀・太建4年6月条<sup>30)</sup>)。その翌573年5月には北周との交戦で活躍した勇将蘭陵武王高長恭が後主によって毒殺される(『資治通鑑』陳紀・太建5年5月条)。こうして北齊を支えてきた重臣が次々と殺害され、北齊は滅亡の道を歩む。573年には陳の北伐軍により北齊支配下の諸城が次々と陥落し(『資治通鑑』陳紀・太建5年条)、これに加えて575年、北周が北齊を攻撃しはじめ(『資治通鑑』陳紀・太建7年条)、北齊はさらに苦境に陥り、577年に滅亡する。

27)東夷校尉については、盧泰敦「5~6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고구려사연구』사계절, 1999年、【初出】『東方学志』44、1984年)、三崎良章「東夷校尉」(『五胡十六国の基礎的研究』汲古書院、2006年、【初出】「東夷校尉考—その設置と「東夷」への授与—」『西嶋定生博士追悼論文集 東アジア史の展開と日本』山川出版社、2000年)参照。

28)『北齊書』後主紀天統4年9月条は、同年9月に北齊と周が和したとし、『周書』武帝紀天和3年8月条は、『資治通鑑』と同じく、同年8月のこととする。ここでは『周書』・『資治通鑑』に従っておきたい。

29)羅紀は真興王27(566)年、28(567)年に陳に朝貢したとするが、中国史料に対応する記事が認められず、それらの入朝記事には疑問が残るため、ここでは対応する記事が認められる568年を、新羅の陳に対する最初の入朝年とする。

30)『北齊書』後主紀武平3年7月条によれば斛律光の誅殺を同年7月とするが、ここではひとまず『資治通鑑』に従う。

一方、高句麗の対倭外交もまた北齊が衰退した以後、認められなくなる。新羅との対立はこの時期も継続しているから、新羅を牽制する上でも倭に対する高句麗の位置づけは高かったであろう。にもかかわらず高句麗は対倭外交を継続して行っていないのであり、このことよりこの時期の高句麗の対倭外交が北齊との関係と深く関わっていたことがわかる。これは北齊を倒し河北を統一した北周、その後の華北統一王朝である隋との関係においても確認できる。すなわち、高句麗は北齊が滅亡し、北周が華北を統一するとすかさず北周到朝貢し、北周との対立を避けている。北齊との関係悪化期にはほとんど朝貢することのなかった高句麗であったが、華北を統一した北周に対しては積極的な外交を展開したのである。高句麗は北周到朝貢することによって高句麗西方の安定を模索したのであろう。その4年後の581年、今度は隋が北周に代わり華北に君臨するが、高句麗は開皇元（581）年よりほぼ毎年、隋に朝貢し、時には一年に数回朝貢している。高句麗は隋との関係を重視していたのである。このように北齊滅亡後、華北を統治した北周・隋と高句麗との関係は比較的安定していた。そして、こうした状況と対応して当該期、高句麗の対倭外交はみられない。むしろ、高句麗の対倭外交が再開するのは高句麗と隋との関係が悪化してからである。

こうした点を勘案すれば、高句麗の対倭外交が高句麗と北齊との関係と密接に連動していたと理解されよう。それゆえ、570年代における高句麗の対倭外交もまた新羅との対立を大前提としつつも、高句麗と北齊との関係悪化が大きな要因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って、ここに朝鮮半島情勢のみならず、高句麗の西方で直接国境を接していた華北の状況とも関わって展開された高句麗外交の特徴が認められるのである。

## (2) 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についての新見解と問題点

こうした見解に対して、新たな観点から当該期の高句麗の対倭外交について検討を加えたのが李成制氏であった<sup>31)</sup>。李成制氏は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が新羅との対立を前提とし、北齊との関係悪化が高句麗の対倭外交の要因であったという上述の理解に対して、当該期、高句麗は必ずしも新羅との対立に苦しんでいたわけではなかったとする。すなわち、李成制氏は北齊が新羅に対して東夷校尉を授与し、北齊と新羅の連携が高句麗に脅威を与えていたものの、それはその時期に限定されており、その後の新羅の外交も対陳外交に局限され、しかもそれは「一般的な使節の派遣」にとどまるので、新羅外交が高句麗に脅威を与えてい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のである。さらに李成制氏は以下の【史料5】羅紀・真興王29（568）年10月条

【史料5】羅紀・真興王29（568）年10月条

冬十月、廢北漢山州、置南川州。又廢比列忽州、置達忽州。

に注目し、568年に朝鮮半島東海岸の拠点であった比列忽州（安辺）を廢して達忽州（高城）を設置したこと、さらに北漢山州も廢止して南川州（利川）を設置したことから、新羅の朝鮮半島東部・西部における勢力が後退した、と理解した。そして、この記事から高句麗と新羅の対立は「高句麗軍の反撃によって勝負は原点に戻った」とするのである。それゆえ、対倭外交の前提となっていた560年代末、高句麗は「不利な状況を反転させて、現状を回復していた」ので、「危機はすでに克服されていた」とし、外交上の打開策として対倭外交を位置づけることはできない、と説いたのである。

その上で、高句麗にとって脅威となるのは新羅が北朝と連携することであり、こうした事態に備えるために高句麗もまた外交を展開させねばならなくなり、長安城の築城もその一貫で、「未来志向の対策」の一つとして対倭外交・対陳外交も行われた、と考えるのである。つまり、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は、「直面した危機状況からの脱出であっ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のである。

李成制氏の研究は、当該期の高句麗の対外関係のうち、主に新羅との関係を再検討し、高句麗の対倭外交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興味深い指摘でもある。しかしながら、にわかに首肯できない部分も少なからず存在しているのも事実である。たとえば、570年代の対倭外交を「未来志向の対策」とするが、それがなぜこの時期に限定して行われているのか説明がなされていない。そもそも外交とはおおよそ「未来志向の対策」なのであり、「未来志向の対策」はこの時期に限定されるべきものでもなく、その後も説明し得てしまう一般的な解釈といわざるをえないのである。そうした説明で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を説明することは、当該期の高句麗を取り巻く状況と関わって展開された高句麗の対倭外交の特徴を捨象してしまうおそれがある。

また李成制氏は新羅の動向を検討した上で高句麗の対倭外交について論じるが、それについてもにわかに納得できない部分もある。そこで改めて李成制氏が指摘した高句麗と新羅の関係、さらには北齊、陳との関係を再検討してみよう。

まず、李成制氏が【史料5】から高句麗と新羅の関係が「原点回帰」したということから考えてみよう。この場合の「原点回帰」とは具体的にいかなる時期の、どのような状況を指すのか、具体的記述はないが、おそらく真興王が『黄草嶺碑』・『磨雲嶺碑』立碑地域を支配し、新羅が高句麗領域を深く侵食する前のことであつたのであろう。李成制氏が指摘したように、たしかに【史料5】によれば新羅は568年10月に北漢山州、比列忽州を廢止し、それよ

31)李成制「570年代 高句麗의 対倭交渉과 그 意味—새로운 対外戰略의 추진 배경과 내용에 대한 재검토—」(前掲)。

り南方の利川、高城にそれぞれ南川州、達忽州を設置し、州の南方への移動を伝えているから、新羅の勢力後退を示すものとして理解できなくはない。だが、軽視できないのは、そうした新羅の朝鮮半島東北部拡張過程を具体的に伝える『黄草嶺碑』・『磨雲嶺碑』の記述である。

『磨雲嶺碑』には「太昌元年歲次戊子□□廿一日」とあり、この「太昌元年」は真興王29(568)年に該当する。『磨雲嶺碑』にはさらに「行至十月二日癸亥」とあり、『黄草嶺碑』には「八月廿一日癸未」とあって、「十月二日」が癸亥に、「八月廿一日」が癸未となるのはいずれも568年であることから、真興王は568年8月21日に王都を出発し、『黄草嶺碑』を経て10月2日に『磨雲嶺碑』地域に到達したと考えられる<sup>32)</sup>。少なくともこの二つの『碑文』によれば、当該地域は568年10月まで新羅領であったことになる。

既述のように李成制氏は【史料5】の比列忽州・北漢山州の廃止を重視し、それをもって高句麗勢力の反撃の結果とみなすようであるが、少なくとも『磨雲嶺碑』・『黄草嶺碑』の内容からみれば、新羅は達忽州ラインまで後退していたとはいえ、むしろ568年頃はそれよりもかなり北を領有していたのであり、568年の段階で高句麗の反撃によって新羅勢力が後退したとはいえない。かりに李成制氏のいうところの「原点回帰」なるものが、前掲のように新羅の朝鮮半島東北部領有以前の状態を指すというのであれば、少なくとも568年の段階においては、「高句麗が不利な状況を転換させて、現状を回復させていた」というような状態とはなっていなかったのである。

かといって【史料5】の内容を誤りとしてただちに記事の内容そのものを否定してしまうのも困難であろう。【史料5】は勢力を拡張させた新羅と高句麗の対立をふまえ、そうした状況を反映したものと考えられなくはないからである。おそらく、568年10月からほどなくして、高句麗は新羅に奪われた旧領を奪還するために新羅へ反撃を試みたであろう。そうした高句麗と新羅との対立の過程で新羅は高句麗の軍事的圧力をふまえ、比列忽州や北漢山州を廃止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のであって、【史料5】はそのような事態を反映したものであろう。私見によれば【史料5】の繫年は金石資料の内容からみてただちに首肯できない部分もあるものの、内容そのものは高句麗と新羅の対立の一過程を新羅の州の廃置という観点から伝えている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

それゆえ、【史料5】から568年頃の朝鮮半島東北部における新羅と高句麗の対立状況を把握するのは困難であり、それを前提として当該期の高句麗を取り巻く状況を論じるのも問題が残らざるを得ないのである。

次に李成制氏が積極的に言及した新羅と北齊の関係についても言及しておくことにしよう。新羅と北齊の関係は、

【史料6】『北齊書』武成紀・河清3(564)年歲條に

【史料6】『北齊書』武成紀・河清3(564)年歲條

是歲、高麗・靺鞨・新羅並遣使朝貢。

とあって、564年、新羅ははじめて北齊へ入朝する。それをふまえ、北齊は【史料7】『北齊書』武成紀・河清4(565)年2月條に

【史料7】『北齊書』武成紀・河清4(565)年2月條

河清四年二月甲寅、詔以新羅國王金真興為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

とあるように、北齊は新羅入朝後、すかさず真興王に「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を授け授けている。しかも、そこにはこれまで高句麗に授けられていた東方世界の中心勢力に与えられていた東夷校尉も含まれていたのである。このことは北齊が新羅を重視し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これは成長著しい新羅を高く評価しただけでなく、関係の悪化した高句麗の背後を脅かす勢力として北齊が新羅を高く位置づけたからであろう。李成制氏も【史料7】の北齊から新羅への冊封号の授けなどをふまえ、この時期、北齊と新羅の連携が高句麗にとって脅威となっていたとする。問題となるのは、その後である。李成制氏はその後、新羅・北齊間に外交関係がみえず、さらに568年以後は新羅の対中国王朝外交は陳に限定され、それは「使節の派遣にとどまり」、こうした状況が「高句麗をして外交を展開させた」とみるのは困難とするのである。

たしかに、その後の北齊と新羅の関係は現存史料による限り、史料に確認できない。だが、565年に北齊が新羅王を冊立し、東方世界の第一の勢力に授けられる東夷校尉を新羅に与え、高句麗を敵対する新羅を高く評価していたことは、高句麗にとって軽視できないことであつたであろう。なぜなら、高句麗と北齊の関係は良好な関係であつたわけではなかったからである。北齊と高句麗の関係が悪化状態であればあるほどに、高句麗と敵対する新羅を高く評価した北齊、さらにはそれから高く評価された新羅に対する警戒心は高まっていったであろう。加えて、新羅は『磨雲嶺碑』・『黄草嶺碑』にもあるように、高句麗領土を大きく侵食し、高句麗と新羅の対立は激化していたのであり、こうした状況も高句麗の警戒心を高めたであろう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

さらに新羅は【史料8】『陳書』廢帝紀・光大2(568)年7月條にみえるように

【史料8】『陳書』廢帝紀・光大2(568)年7月條

(光大)二年…秋7月…戊申、新羅國遣使獻方物。

568年2月にはじめて陳に遣使入朝する。既述のように、同年8月に真興王は新たに獲得した朝鮮半島東北部の『磨雲嶺碑』・『黄草嶺碑』地域への巡狩を行っている。それは自らを皇帝に擬えたもので、新たに新羅領となった地域

32) 『黄草嶺碑』・『磨雲嶺碑』については盧鏞弼『新羅真興王巡狩碑研究』(一潮閣、1996年)を参照。

へ巡撫を示したもので、飛躍的に領土を拡大させた真興王の自信の現れでもあろう。陳への遣使朝貢もおそらく、そうした真興王による飛躍的な勢力拡大と軌を一にしたものであったであろう。新羅から陳への入朝後、陳から新羅王への冊授はなかったものの、それを「一般的な使節の派遣」とし切り捨てることはできないであろう。勢力を拡大する新羅が陳へ遣使朝貢し、接近を図ったことは、新羅に脅威を感じていた高句麗にとって看過できなかったとおもわれるのである。新羅との対立が続けば続くほどに高句麗は敵対する新羅の動向を軽視できなかったであろう。朝鮮半島においては大幅に高句麗領を侵食し、国際社会においては自力で南朝との通交をなしとげ、国際社会に登場した新羅の動向を、それと敵対していた高句麗が安閑とみていたとは考えがたく、現実には侵攻する新羅の高句麗領奪取と関わってその動向は高句麗にとって看過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とおもわれるのである。

このように568年の前後、高句麗は新羅の朝鮮半島・国際社会での積極的な活動に直面していたのである。ただし、新羅と敵対していたのはそれ以前からのことであり、かつその後も継続していたことである。それゆえ、このような新羅の勢力拡大と積極的な対外関係をもつてのみ、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の要因として説明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なぜなら、新羅との対立、新羅の積極的な対外外交はその後も継続して認められるものの、高句麗の対倭外交はその後、みえなくなるからであり、新羅との対立の先鋭化に加え、別の観点もこの時期の高句麗の対倭外交を促進させた状況を考慮すべきである。すなわち、対新羅関係のみから高句麗の対倭外交を理解するのは問題で、それを考究する上で看過できないのが既述した北斉との関係悪化という状況であったのである。新羅との対立、新羅の積極的な対外活動のみが当該期の高句麗の対外政策と関わっていたわけではなく、北斉との関係悪化ということもこの時期の高句麗の外交、さらに対倭外交を理解する上で軽視されてはならないのである。

このように570年代の対倭外交には高句麗と北斉との対立が主要因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が、不審なのは李成制氏が拙稿を批判的に検討しながら、570年代の高句麗の対外関係について論及するに際して、この北斉と高句麗との関係について積極的に言及していないことである。それは李成制氏が前述した流民返還事件以後、北斉と高句麗は友好関係を結び、北斉との安定的な関係を前提として、高句麗は新羅・百済に対処したと考えていることとも無関係ではないのかもしれない<sup>33)</sup>。しかし、すでに指摘したように、流民返還要求以後、高句麗との北斉との関係はその後、悪化していったのであり、それが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にも大きく関わってい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それゆえ、当該期の高句麗・北斉関係はきわめて重要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この時期の両国の関係を示す史料はきわめて少なく、それらの史料や各国の動向からその関係を推定せざるを得ないという状況であ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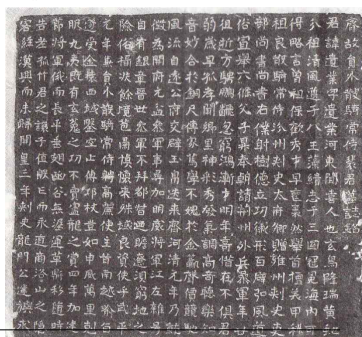
ところが、近年、当該期の高句麗と北斉との関係を示す史料が新たに公表された。そこで、改めてその史料にもとづき、高句麗と北斉との関係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

### 3 新出『裴遺業墓誌』からみた570年代の高句麗・北斉関係

高句麗と北斉との関係を示す新出史料とは『裴遺業墓誌』である。これは王其禕・周曉薇「新出北斉聘高麗使主《裴遺業墓誌》疏証」によって2012年に始めて紹介された（以下、この論文は王・周論文とする。なお、『裴遺業墓誌』についての記述は基本的にこれに基づく）<sup>34)</sup>。墓誌の出土地は山西省臨汾県永固村であるという。王・周論文には墓誌の現在の所蔵先については言及されておらず、不明で、『裴遺業墓誌』に関する考察も拓本によって行われている。墓誌自体の実見調査など今後検討すべき課題も少なくないが、幸い、王・周論文には墓誌の拓本が掲載されている。そこで、ここでは掲載された墓誌の拓本にもとづいて『裴遺業墓誌』について論究していくことにする。

誌文は誌石・誌蓋裏面に刻まれており、誌石の拓本の大きさは縦43.5cm、横45.5cm、誌蓋裏面のそれは縦43.5cm、横45cmであるという。墓誌の大きさもおおよそそれに準ずると考えてよかろう。誌文は誌石・誌蓋裏面にあり、誌石に20行、誌蓋裏面17行の全部で37行である。1行19字が基本である。

『裴遺業墓誌』拓本（王・周論文掲載）



墓誌によれば裴遺業は河東聞喜の人で、曾祖は裴保観、祖父は良、父は子昇、子は君洽である。『新唐書』巻71・宰相世1上によれば、裴保観は中眷裴氏の裴万虎の長子である。祖父良は、字は元賓、北魏の大府卿であったという。父の子昇、さらには墓主である裴遺業の名はここにはみえず不明である。ただし、裴良の墓誌が発見されており、それには「第三子子昇、字仲仙、奉朝正、荊州衛軍府外兵参軍、

33)李成制「北魏末流人」문제를 통하여 본 高句麗의 西方政策—國際情勢의 變化에 따른 高句麗의 対応에 주목하여—(『高句麗의 西方政策研究 北朝와의 対立과 共存의 關係를 중심으로』국학자료원, 2005年[初出]「高句麗와 北齊의 關係—552년 流人 送還의 問題를 중심으로—」(『韓國古代史研究』23, 2001年)。

34)王其禕・周曉薇「新出北齊聘高麗使主《裴遺業墓誌》疏証」(『北方文物』2012年2期)。

以去永安三年在州亡、年二四歳、娶妻隴西李氏」とあるから<sup>35)</sup>、父子昇の字が仲仙で、裴遺業の母も隴西の李氏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

墓誌を直接実見したわけではないため、釈文には異論もあり、今後本格的な墓誌の実見調査が必要であるが、王・周論文に掲載された釈文と墓誌の拓本にもとづき、筆者なりに釈読した裴遺業の業績に関する部分を示せば、以下のようになる。

……(前略)……齊河清元年、乃就／徵爲開府元益參軍事、尋加明威將軍、江左雜号／自有銀章、晉世參軍、不拜都督、酒瞻遼溟、窮地之／險、俗攝扶餘、境苞肅慎、懷來殊域、良資使乎。武平／元年、兼員外散騎侍、聘高麗使主。昔南越喻旨／遂受金裝、西域鑿空、止傳邛杖、豈如申威萬里、剋／服九夷、既有玄菟之功、不賣盧龍之賞。四年、加建節／將軍。俄而長平垂翅、函谷無漚、運革鼎移。隨時告老、孤竹君之讓子、值殷王而永遁、商洛山之隱／客、經漢興而未歸、開皇三年刺史龍門公建旗求／莫、妙選賢明、以州都右望、早辭相待、君願此徒勞／稱疾解退、優遊名教、服膺典禮、温恭昆弟、貽訓子／孫、追石慶之家風、踵陳寔之門法、爰降詔使、表／義旌閭、宗族稱榮、耆舊長歎、樂天知命、澹乎淵靜／桐君之録、何言鴻瑤之蒿無驗。開皇十年八月廿／七日、遘疾於豐義里、春秋六十三……(後略)……。

( / は改行を示す、句点は筆者が適宜施した)

表2 東魏・北齊・梁・陳・陳から派遣された使者およびその官職

No	年次	西暦	国	派遣先	使者名	官職
1	大同3年	537	東魏	梁	李諧／盧元明／李業興	兼散騎常侍／吏部郎／通直侍郎
2	大同3年	537	東魏	梁	張樂皐	司農
3	大同4年	538	東魏	梁	鄭伯猷	兼散騎常侍
4	大同4年	538	東魏	梁	劉孝儀	散騎常侍
5	大同5年	539	東魏	梁	王元景・魏收	散騎常侍
6	大同6年	540	東魏	梁	李象	兼散騎常侍
7	大同6年	540	東魏	梁	明少遐	兼散騎常侍
8	大同6年	540	東魏	梁	李騫	兼散騎常侍
9	大同8年	542	東魏	梁	李繪	兼散騎常侍
10	大同8年	542	東魏	梁	楊斐	兼散騎常侍
11	大同9年	543	東魏	梁	李渾	兼散騎常侍
12	大同10年	544	東魏	梁	魏季景	散騎常侍
13	大同11年	545	東魏	梁	李獎	兼散騎常侍
14	大同11年	545	東魏	梁	尉瑾	中書舍人
15	中大同元年	546	東魏	梁	元廓	散騎常侍
16	太清元年	547	東魏	梁	李系	兼散騎常侍
17	太清2年	548	東魏	梁	謝挺／徐陵	建康令／散騎常侍
18	承聖元年	552	北齊	梁	曹文皎	散騎常侍
19	天嘉3年	562	北齊	陳	崔瞻	散騎常侍
20	天嘉3年	562	北齊	陳	？	？
21	天嘉3年	562	北齊	陳	封孝 瑛	兼散騎常侍
22	天嘉4年	563	北齊	陳	崔子武	兼散騎常侍
23	天嘉5年	564	北齊	陳	皇甫亮	兼散騎常侍
24	天嘉5年	564	北齊	陳	劉逖	兼散騎常侍
25	天嘉6年	565	北齊	陳	王季高	兼散騎常侍
26	天嘉7年	566	北齊	陳	韋道儒	兼散騎常侍
27	光大元年	567	北齊	陳	司馬幼之	散騎常侍
28	光大2年	568	北齊	陳	鄭大護	兼散騎常侍
29	光大2年	568	北齊	陳	斛斯文 販	侍中
30	光大2年	568	北周	北齊	陸程	軍司馬
31	光大2年	568	北齊	陳	李諧	兼散騎常侍
32	太建元年	569	北齊	北周	叱列長叉	侍中
33	太建元年	569	北齊	陳	裴讖之	兼散騎常侍
34	太建3年	571	北齊	陳	劉環儁	兼散騎常侍
35	太建3年	571	北齊	陳	？	？
36	太建3年	571	北齊	北周	赫連子悅	侍中
37	太建4年	572	北齊	北周	封輔相	領軍
38	太建5年	573	北齊	陳	崔象	？
39	太建5年	573	北齊	北周	王紘	開府儀同三司

これによれば、裴遺業は北齊の河清元(562)年に参軍事となり、ついで明威將軍(正六品)となっている。その後、誌文は裴遺業と高句麗との関係を記す。王・周論文で指摘されているように、裴遺業の業績に関する記述のうち、このことが彼の業績として特記されている。これは墓誌作成者にとって裴遺業の業績のうち、北齊・高句麗関係において彼が多大な功績をあげたと考えられ、そのことが彼の業績を示す上で特段に重視されたからである。

『裴遺業墓誌』によれば、彼は武平元(570)年に「員外散騎常侍、聘高麗使主」となり、高句麗に赴いたことになる。高句麗・北齊関係においてこの墓誌の重要性の第一はこの記述にある。すなわち、現存する文献史料には570年の北齊から高句麗への使節派遣記事は認められず、墓誌は文献史料にみえない新たな高句麗・北齊関係を伝えているのである。それだけに『裴遺業墓誌』の意義は小さくない。

第二の意義は、北齊から高句麗に派遣された使節の名前、彼が帯びた官職が具体的に確認できることである。高句麗と中国諸王朝との関係を示す史料はきわめて簡潔で、わずかに使者の派遣の有無を伝えるにすぎず、使者の名前はおろか、彼らが帯びた官職を示す事例は極めて少ない。それだけに『裴遺業墓誌』によって明らかになった官職から、北齊の対高句麗外交の位置づけの一端がかいまみられるのであって<sup>36)</sup>、その点からも『裴遺業墓誌』の伝える内容は高句麗・北齊関係を理解する上で重要である。

このように既存の文献史料にはみられない貴重な北齊・高句麗関係の一側面を伝える『裴遺業墓誌』であるが、これにもとづきながら570年前後の高句麗・北齊関

35)「裴良墓誌」(羅新・葉煒『新出魏晉南北朝墓誌疏証』中華書局、2005年)。

36)北齊の事例ではないが、北魏から高句麗へ派遣された使者の官職から北魏の高句麗に対する位置づけを検討したものとしては三崎良章「北魏の対外政策と高句麗」(『朝鮮学報』102、1982年)がある。

係について検討してみることにしよう。

『裴遺業墓誌』によれば、裴遺業は前述のように武平元（570）年に「員外散騎常侍・聘高麗使主」となり、高句麗に派遣されている。裴遺業は高句麗へ使節として派遣されるに際して「員外散騎常侍」を授与されたのであろう。墓誌によれば、裴遺業はそれ以前、正六品下の明威將軍であった。員外散騎侍郎は『通典』職官条にみえる北齊の職品によれば、正五品上であるから、高句麗派遣と関わってその官階は上昇したことになる。

史料には北齊から梁・北周に派遣された人物とその時の官職が記されており、表2は『資治通鑑』にみえる東魏・北齊・北周・梁・陳から派遣された使者とその官職を整理したものである。これによれば北齊から梁・陳へ派遣された使者の官職は不明なものもあるが、それを除けばみな散騎常侍（従三品）である。東魏から梁に派遣された使節の帯びた官職もまたほとんどが散騎常侍であったから、北齊の対南朝外交使節の官職は東魏のそれを踏襲していたのであろう。

ちなみに北魏から南朝へ派遣された使者の官職は461年以後、員外散騎常侍（正五品上）であったから<sup>37)</sup>、東魏・北齊は使節の官職からみれば北魏よりも対南朝外交を重視していたことになる。西魏・北周との対立という状況によって、東魏・北齊の南朝に対する位置づけが相対的に高まったのであろう。また北齊から北周へ派遣された使者は侍中（正三品）、領軍（従二品）、開府儀同三司（従一品）であったから、北齊にとっては対北周外交のほうが、対南朝外交より重視されていたことになる。華北で対峙する北周との外交は北齊にとって最重要であったことを反映しているのであろう。

このように北齊では北周に侍中・領軍・開府儀同三司が、南朝に散騎常侍の官職の使者が派遣されたのに対して、高句麗に派遣された裴遺業は員外散騎常侍（正五品上）であるから、北周、梁・陳に派遣された使者が帯びた官職よりも低い。このことから当該期の北齊の対高句麗外交は対北齊・対南朝外交よりも相対的に低かったとみてよからう。

北魏では470年代、高句麗へは主に散騎常侍が派遣されたから、北魏と北齊との官品の違いがあるものの、当該期の北齊の対高句麗外交の位置づけは470年代の北魏の対高句麗外交よりもその位置づけは相対的に低かったといわざるを得ない。

これは高句麗との通交が北齊建国時と比べ低調で、流民返還要求以後、その関係が従前に比べて悪化していたということとも矛盾しない。ただし、北齊が必ずしも対高句麗外交を重視していなかったとはいいきれない。正六品の明威將軍であった裴遺業を高句麗に派遣するに際して、上位の員外散騎常侍に任命していることはそれを示唆している。そもそも北齊は高句麗に対して裴遺業を派遣しており、そのこと自体が北齊の高句麗に対する積極的な対外政策の一端を示しているといえる。

では、裴遺業の高句麗派遣という状況をふまえ、この時期の高句麗と北齊の関係はどのように理解できるのであろうか。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が高句麗・北齊関係とも関連すると考える立場からすれば、これは看過できない問題である。そこで改めて『裴遺業墓誌』から高句麗・北齊関係を検討してみよう。

この点と関わって問題となるのは、裴遺業が高句麗の要請によって北齊から派遣されたという王其禕・周暁薇氏の見解である。王其禕・周暁薇氏は、高句麗からまず北齊に対して隣好の旨が伝えられ、それをうけて裴遺業が高句麗に派遣された、と推定するのである。これが妥当であればこの時期、高句麗は北齊に対して使者を派遣し、緊張関係を緩和させようとしたことになる。

だが、それはあくまでも王其禕・周暁薇氏の推測にすぎず、史料的な根拠があるわけではない。それゆえ、それは推測の域を出るものではなく、必ずしもそのように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ものではない。また、現存する史料からみて、高句麗が北齊に使者派遣を要請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も考えがたいところである。

ただ、現存する史料に裴遺業の高句麗派遣に先立つ高句麗からの要請を伝える記事が残っていないだけで、今回の『裴遺業墓誌』のように史料に伝えられていないことが実際にはあった可能性も完全には否定できず、それならばそうした推定も考慮されてもよいのかもしれない。

そこで改めてこれについて攻究してみたい。その際、注目されるのが墓誌の「昔南越諭旨、遂受金装、西域鑿空、止伝邛杖、豈如申威万里、剋服九夷、既有玄菟之功、不壳盧龍之賞」という記述である。ここでは裴遺業の「聘高麗使主」としての対高句麗外交での功績を、漢代の対南越外交、対西域外交と比べ、それよりも勝っていた、と高く評価している。南越は周知のように、漢の高祖が陸賈を派遣し、和親の関係を結んだが、その後、漢に叛き、武力討伐を受けて滅亡にいたっており、墓誌の「昔南越諭旨、遂受金装」はそのことを伝えている（『史記』南越伝）。また、「西域鑿空、止伝邛杖」とは武帝代に張騫が西域に使いし、西域諸国との交通路を開拓し、新たな情報をもたらすとともに張騫が大夏で邛杖を見、それが見毒国（印度）から大夏に入っていたことから、漢もまた見毒国（印度）と通じようとしたが、昆明のために身毒国と通じ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をいう（『史記』西南夷伝）。漢の対南越、対西域外交では陸賈や張騫などがそれぞれ多大な業績を与えたが、南越は前述したようにやがて漢に叛くことになり、張騫についても西南夷の情報を得たものの、身毒国と通交す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のである。それに対して、

37)三崎良章「北魏の対外政策と高句麗」（前掲）。

墓誌にいう「玄菟之功、不売盧龍之賞」の具体的内容は詳らかではないが、後述するように、裴遺業が使者として赴いた高句麗は北斉に叛くことなく、朝貢してきたのであって、そのことをふまえて墓誌は漢代の対南越・西域外交で多大な功績を挙げた彼らより裴遺業の業績を高く評価したのである。

このように墓誌が裴遺業の対高句麗外交であげた功績を漢代の対南越外交、西域外交と比べ高く評価するのは、それらと比較することを通して裴遺業の業績を頌徳するためのものであったが、北斉と高句麗を取り巻く状況が、漢武帝代の南越・西域諸国との関係とも酷似していたからでもあろう。すなわち、南越は漢の南辺を侵略し、漢からの使者が派遣され和睦が計られるなど、必ずしも良好な関係を維持し続けたわけではなく、西域諸国や身毒国もまた漢と通交することはなかった。一方、北斉と高句麗の関係もまた縷述してきたように魏末流入漢人の返還以降、必ずしも良好とはいえなかったものであり、両者のおかれた状況はよく似ていたのである。裴遺業の業績と関わって漢の対南越外交、対西域外交の叙述がなされたのは、そうしたことをふまえてのことでもあったであろう。こうした記述からも高句麗と北斉の関係が良好でなかったことが推定されるのである。

そもそも仮に高句麗から使者派遣要請を受けて、高句麗に赴くというような北斉・高句麗関係が平和的であったとすれば、裴遺業の「聘高麗使主」もそれほど困難なことではなかったであろう。墓誌に対高句麗外交における裴遺業の業績が特記されたのは、北斉と高句麗の関係が決して良好ではなく、裴遺業の任務もかなりの困難を伴うものであり、そのような状況下にもかかわらず、高句麗の北斉朝貢という状況を将来したからであろう。したがって墓誌のこうした叙述からもまた当該期の高句麗・北斉関係が緊張関係にあったことをうかがえるのである。『裴遺業墓誌』は570年の裴遺業派遣の段階において北斉と高句麗の関係が悪化していたことを伝えているのであり、それゆえ、高句麗がまず北斉に隣好の旨を北斉に打診したという王其禕・周暁薇氏の見解には従えない。

もっとも、あえて困難な状況を説明し、その上でそれを克服したことによって裴遺業の業績をより一層頌徳しようとする意図がそうした叙述に含まれていた可能性も完全には否定できないかもしれない。だが、裴遺業の業績を頌徳するために、当該期の高句麗と北斉の関係を全く無視し、墓誌が作成されたとは考えがたいであろう。そもそも他の史料からも既述のように565年以後、高句麗から北斉に対する遣使朝貢がなく、現実的にも両国の関係が悪化していたから、墓誌作成に際して北斉・高句麗関係を改める必要などなかったはずである。『裴遺業墓誌』は570年頃、高句麗と北斉の関係が友好関係にあったわけではなく、緊張関係にあったことを伝えているのである。

そして、高句麗から北斉に対して積極的な遣使朝貢がなかったからこそ、北斉は570年に裴遺業をわざわざ高句麗に派遣したのである。このようにみれば、北斉は高句麗との関係を深めようと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だが、それはあくまでも北斉の対高句麗外交政策である。高句麗がすぐさまこうした北斉の対高句麗政策に応え、これを契機に北斉との関係を改善しようとし、その結果、高句麗と北斉が良好な関係となったと理解するならば、それは性急のそしりを免れぬであろう。『裴遺業墓誌』には後述するように、裴遺業の高句麗派遣をうけて、すぐに高句麗から北斉に対する遣使朝貢がなされたことを伝えておらず、またそうした状況は現存の文献史料にも確認できるからである。

それでは墓誌に対高句麗外交で大きな功績をあげたとする墓誌の記述と当該期の高句麗・北斉関係はどのように理解すればよいのであろうか。その手がかりとなるのが『裴遺業墓誌』の「四年、加建節將軍」であるとおもわれる。既述のように、裴遺業の業績として高句麗派遣が墓誌に特筆され、それが高く評価されたのは、それまで決して良好な関係ではなかった高句麗と北斉の関係を改善させたからである。そして、その功績として刻記されたのが高句麗派遣記事に続く「四年、加建節將軍」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570年の裴遺業の高句麗派遣以後の高句麗と北斉との通交については、【史料9】『北斉書』後主紀・武平4（573）年是歳条に

【史料9】『北斉書』後主紀・武平4（573）年是歳条

是歳、高麗・靺鞨並遣使朝貢。

とあって、573年に、565年以来、8年ぶりの高句麗から北斉への遣使入朝を伝えている。裴遺業が武平元（570）年に「聘高麗使主」として派遣され、北斉と高句麗との関係改善に向けての努力が、まさにこの武平4（573）年の高句麗の北斉入朝をもって実現したのである。墓誌にみえる裴遺業への建節將軍（正四品上）授与はまさにこの年のことであり、両者が無関係であったとは考えがたい。『裴遺業墓誌』にみえる高句麗派遣に続く裴遺業への武平4（573）年の建節將軍の授与はまさにこの高句麗の北斉への遣使入朝をうけてのものでもあったに相違ない。またこの時、裴遺業に授けられた建節將軍という將軍号もまた「聘高麗使主」として高句麗に派遣され、高句麗の北斉への朝貢に大きく貢献した彼の功績にふさわしく、まことに彼の対高句麗外交交渉における功績に適ったものであったといえる。ここからも墓誌は既存の史料にみえぬ北斉・高句麗関係の一側面を伝えている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

こうした理解に大過なしとすれば、少なくとも高句麗は570年に北斉からの使者裴遺業を受け入れつつも、対北斉関係をすぐさま改めようとはしなかったことがわかる。高句麗の北斉へ遣使入朝は、前述のように573年まで待たねばならなかったのであって、高句麗の対北斉外交の一端がここにかいまみられるのである。そして、高句麗が北斉に対してすぐさま対応せずに、北斉との緊張関係にあったまさにこの時期、高句麗は対倭外交を展開していたのであったのである。

『裴遺業墓誌』は573年の高句麗の北斉への遣使入朝を裴遺業の功績として高く評価するが、高句麗側からすれば、それは570・571年の北斉の一方的な百濟王への冊立、さらには572年の新羅・百濟の北斉入朝という北斉と新羅・

百済との連携をふまえ、それを牽制することを意図したものであったと考えられ、高句麗が北斉との関係を改善しようとしたものではなかったことは、その後、高句麗が北斉に対して一度たりとも朝貢していなかったことから確認できる。高句麗を取り巻く東アジア諸国の外交活動が高句麗の北斉への遣使入朝を実現させたわけであり、それゆえ、高句麗の北斉への遣使朝貢を裴遺業の功績にのみ帰すわけにはいかない。その限りにおいて、『裴遺業墓誌』には裴遺業の業績をより際立たせるための誇張があったとみるべきであろう。だが、縷述したように、そこには高句麗・北斉関係の推移が伝えられているのであり、その意味において新出『裴遺業墓誌』が伝える内容は高句麗・北斉関係を理解する上で軽視できないのである。

このように理解すれば、570年前後の高句麗と北斉の関係悪化は否定されるものではなく、むしろ新出『裴遺業墓誌』によってもそうした状況が認められるのであって、こうした北斉との関係悪化が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の大きな要因であったことが再度確認できるのである。このように高句麗の対外関係は高句麗を取り巻く諸状況をふまえて展開されたのであって、そこに高句麗外交の特徴がかいまみられるのである。

#### 小結

以上、これまで高句麗の対倭外交の時期について検討し、高句麗の対倭外交が570年代より認められることを改めて確認した。その上で、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が、新羅との対立に加え、北斉との緊張関係という高句麗を取り巻く外交上の危機から積極的に行われてきたことを再確認し、特にそれに北斉との関係がきわめて大きく関与していたことを強調してきた。

また、それとかわかって、今回、新たに近年紹介された『裴遺業墓誌』にみえる北斉・高句麗関係記事に注目し、既存の文献史料からは確認できなかった570年前後の高句麗・北斉関係についても考察を加えた。その結果、第一に、北斉は570年に裴遺業を「員外散騎常侍・聘高麗使主」に任命し、高句麗に派遣したが、北斉の諸国に派遣された使者の帯びた官職の比較を通して、北斉の対外関係における高句麗の位置づけが対北周・対梁外交に比べ相対的に低いこと、第二に、北斉はこれまで緊張関係にあった高句麗に対して使者を派遣し、対高句麗外交を展開しようとしたが、高句麗は570年の裴遺業の高句麗派遣をふまえてもただちに対北斉外交を展開せず、両国の緊張関係がその後も継続してい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このように既往の文献史料にはみえない高句麗・北斉関係の一側面を伝える『裴遺業墓誌』からも570年前後の高句麗・北斉の緊張関係が確認できるのであり、そこからも改めて当該期の高句麗の対倭外交が北斉との関係と大きく関わっている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を理解する上で、高句麗・北斉関係は決して軽視されてはならないのであって、高句麗の対倭外交は朝鮮半島情勢だけでなく、華北の動向と関わって展開されたのであった。ここに高句麗外交の特徴が認められるのである。

《挿入》表1 550-590年代の高句麗の対外関係表

西暦	皇帝	元号	年	主名	年	月	北朝	南朝	百濟新羅;北朝	百濟新羅;南朝	朝鮮半島・高句麗国内情勢
545	孝静帝	武定	3	陽原王	1	12	高→東魏○				※王位継承争い 欽明紀6年
546			4		2	11	高→東魏○				
547			5		3		高→東魏○				
548			6		4	1					高→百★、新、百を援助
						3	高→東魏○	梁→高◎ 侯景の乱			
549			7		5	10	高→東魏○			百→梁○	
550	文宣帝	天保	1		6	1					百→高口 高→百口、新→百☆
						3					
						5	※北斉建国				
						6	高→北斉○				
						9	北斉→高◎				
551			2		7	5	高→北斉○			突厥→高★	新→高☆、十城を奪取
552			3		8	1	北斉→庫莫奚☆				長安城を築城
553			4		9	10	北斉→高、魏末の流入漢人の返還*『北斉書』紀により改む 北斉→契丹☆				新→百☆
554			5		10	冬					百→新★*聖明王戦死 高→百★
555			6		11	11	高→北斉○				
556			7		12						
557			8		13	1	北周、建国				
						10		陳、建国			丸都城で反乱
558			9		14						
559	廃帝		10		15	3					陽原王死亡
560	(北斉) 孝昭帝	乾明 皇建	1 1	平原王	2 11	2	北斉→高◎ 北斉→庫莫奚☆				
561	武成帝	大寧	2		3						7.百→新★(濟紀) 562年記事と同一
562		河清	1		4	2		高→陳○		陳→百◎	*新→大加那滅亡 7.百→新★(羅紀) 561年記事と同一 *濟紀は562年 8.倭→百→高☆ 大倭連狭手彦、高句麗を討伐
						7					
						8					
563			2		5						
564			3		6	?	高→北斉○		新→北斉○		
565	後主	天統	1		7	2	高→北斉○			北斉→新◎	
566			2		8	12		高→陳○			新→陳○(羅紀のみ)
						?					
567			3		9	9				百→陳○	
						10				百→北斉○	
						?				新→陳○(羅紀のみ)	
568			4			7				新→陳○	
						10				*黄草嶺神、磨雲嶺碑立碑	
569			5		11	9					
570		武平	1		12	2			2.北斉→百◎		
						4	高→倭○越国に漂着【第1次】				
						6				新→陳○	
						11		高→陳○			
						?	北斉→高口裴遺業(『裴遺業集誌』)				
571			2		13	1			北斉→百◎		
						2		*高→陳○(羅紀のみ)			
						5		高→陳○		新→陳○	
572			3		14	?				百→新羅→北斉○	
573			4		15	5	高→倭○【第2次】(放逐)				
						?	高→北斉○				
574			5		16	1		高→陳○			
						5	高→倭大嶋首盤日らを帯回【第3次】				

575			6		17	7						
576			7		18	10						
577	幼主 (北周)	承光	1		19	1	北齊、北周により滅亡				百→陳○	百→新★
	武帝	建德	6			7						
	宣帝	宣政	1			11				百→陳○		
						?	高→陳○周→高◎					
578		宣政	1		20	7					新→陳○	
						10				百→陳○		
579		大象	1			11						
580			2		22							
581	靜帝	大定	1		23	2	北周滅亡					
	隋文帝	開皇	1			10				百→隋○隋→百◎		
						12	高→隋○隋→高◎					
582			2		24	1	高→隋○			百→隋○		
						11	高→隋○					
583			3		25	1	高→隋○					
						4	高→隋○					
						5	高→隋○					
584			4		26	春	高→隋○				百→陳○	
						11						
585			5		27	12		高→陳○				
586			6		28	9					百→陳○	長安城へ遷都
587			7		29							
588			8		30							
589			9		31			※陳、滅亡		百→隋○		
590			10		32	10	高→隋○ 隋→高◎					

百;百済 新;新羅 ○;朝貢 ◎;爵位除授 ☆;交戦勝利 ★;交戦敗北 □;使者派遣

# 570년대의 고구려의 對倭외교와 고구려·백제 관계

-신출 '裒遺業墓誌'의 검토를 중심으로-

이노우에 아오키\*(井上直樹)

## 머리말

고구려의 古都인 吉林省 集安市에 우뚝 서 있는 '광개토왕비'에 새겨있듯이 4·5세기 고구려에 있어서 倭는, 고구려와 적대하는 백제와 동맹해, 고구려의 남진에 저항하는 존재였다.<sup>1)</sup> 「광개토왕비」속에서 倭는 고구려와 관계하는 제국 가운데, 가장 많은 8회 등장한다. 고구려는 그 지배 질서를 어지럽히는 倭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sup>2)</sup> 한편, 그런 倭도 또한 고구려를 강하게 의식하면서 對南朝外交를 전개하고 있었다.<sup>3)</sup> 한반도에 있어서의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을 전제로 고구려와 倭는 서로를 각각 적대시 하고 있었고, 이것은 4·5 세기의 고대 동아시아 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런데 570년대 고구려는 갑자기 倭에 외교 사절을 파견해, 倭와의 통교를 시도하게 된다. 그 후, 고구려로부터 倭로의 사절 파견은 당분간 볼 수 없게 되지만, 6세기말로부터 고구려의 대외외교는 재개되고, 6세기말에서 7세기 전반 고구려와 왜의 통교는 보다 활발해져, 고구려로부터 왜에 승려가 파견되어 선진 문물도 오게 되었다. 이러한 왜의 고구려로부터의 선진 문물의 유입은 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왜와 고구려와의 교류는 일본 고대역사상, 중요하고 경시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고구려와 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고대사나 고고학의 관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정력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고구려와 왜의 통교를 살펴보는 데에는, 왜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고구려의 시점으로부터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고구려가 처음으로 그때까지 적대시하고 있던 왜에 대해 사절을 파견한 570년대의 대외외교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구조의 전환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주목받고 있어<sup>5)</sup> 그런 만큼 고구려가 대외외교를 추진한 요인 등을 고구려의 관점으로부터 논하는 것이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해당 시기의 고구려의 대외외교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동향에 유의하면서 필자는 해당시기 고구려를 둘러싼 상황을 검토하면서, 재차 고구려측의 시점으로부터 570년대의 고구려의 대외외교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했다.<sup>6)</sup>

그 후 필자의 견해를 근거로 하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570년대의 고구려의 대외외교의 의의에 대해 논급한 연구도 볼 수 있게 되었다.<sup>7)</sup> 그것은 해당시기 고구려 외교에 대한 연구의 진전을 나타내고 있어 그

\* 日本 京都府立大學 教授

1) 本稿에서는 律令國家 이전의 일본을 倭·倭國이라 하고, 律令國家 이후를 日本이라고 한다.

2) 武田幸男, 2007, 『広開土王碑との対倭』, 白帝社.

3) 武田幸男, 1989, 「長寿王の東アジア認識」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4) 倭와 高句麗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토라고분의 천문도 등을 단서로 주로 考古學쪽에서 적극적으로 연구가 되어왔는데, 이에 관해서는 宮嶋一彦, 1999, 「キトラ古墳天文図」 『キトラ古墳學術調査報告書』, 明日香村教育委員會; 宮嶋一彦, 1998, 「キトラ古墳天文図と東アジアの天文学」 『東アジアの古代文化』97; 千田稔, 1998, 「キトラ古墳と渡来文化」 『東アジアの古代文化』97; 和田萃, 1999, 「四神図の系譜」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80 등이 참조된다. 또한 日本古代史의 관점에서도 연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坂元義種, 1979, 「推古朝の外交」 『歴史と人物』100; 李成市, 1998, 「高句麗と日隋外交—いわゆる国書問題に関する一試論—」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国家』, 岩波書店(1990, 初出, 『思想』795) 등이 있다. 이외에 高句麗와 倭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가 지적을 해왔는데, 그 자세한 것은 拙稿, 2008, 「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について」 『年報朝鮮學』11, 註 8번을 참조 바란다.

5) 李成市, 1998, 위의 글.

6) 拙稿, 2008, 위의 글. 아래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拙稿라고 하는 것은 이 논문을 가리킨다.

7) 李成制, 2009, 「570年代 高句麗의 対倭交渉과 그 意味-새로운 対外戰略의 추진 배경과 내용에 대한 재검토-」 『韓國

지적도 흥미롭고, 경시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570년대의 고구려의 대외외교에 크게 관련된 북제와 고구려에 관한 새로운 출토 문자 자료도 보고되어<sup>8)</sup> 해당기의 고구려를 둘러싼 사료 상황도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연구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아울러 고구려와 북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신출 문자 자료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570년 전후의 고구려를 둘러싼 제정세를 명확히 하여 해당시기 고구려의 대외외교에 대해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欽明紀 이전의 高句麗 遣使記事에 대한 新見解와 문제점

고구려의 대외 외교 기사에 대해서는 한국 사료인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고, 『일본서기』 神功紀(이하 『일본서기』는 생략한다) 이후에 산견된다. 그러나 고구려의 대외외교는 <사료 1> 欽明紀31(570)年4月条에,

### <사료1>

越人江淳臣裾代詣京奏曰 高麗使人辛苦風浪 迷失浦津 任水漂流 忽到着岸 郡司隱匿 故臣顯奏 詔曰 朕承帝業若干年 高麗迷路始到越岸 雖苦漂溺 尚全性命 豈非徽猷廣被 至德魏魏 仁化傍通 洪恩蕩蕩者哉 有司 宜於山背國相樂郡 起館淨治 厚相資養(欽明紀31(570)년 4월조)

라는 기사로 개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때까지의 고구려의 대외외교 기사는 신빙성에 의문이 남는다는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sup>9)</sup> 필자도 것처럼 생각해 <사료 1>이전의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로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sup>10)</sup> 그러나 줄고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한 서보경씨는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이해의 일치로부터 512년부터 523년까지 통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사료 2> 繼體紀10(516)년 秋9월조에,

### <史料2>

戊寅 百濟遺灼莫古將軍 日本斯那奴阿比多 副高麗使安定等 來朝結好(繼體紀10(516)년 秋9월조)

에 보이는 고구려로부터 왜의 견사기사를 고구려의 최초의 대외 외교기사라고 하는 견해를 제시했다.<sup>11)</sup> <사료 2>에 보이는 고구려의 견사기사에 대해서는, 일찍이 三品彰英이 해당기의 고구려와 백제의 양호한 관계를 전제로 해서 고구려와 왜의 통교를 지적했고,<sup>12)</sup> 최근에 熊谷公男씨가 미시나설을 근거로 해서 백제의 외교 전략을 왜에 받아들여지게 하려고, 백제가 고구려 사절을 수반해 入朝한 것은 아닐까 추정하고 있

古代史探究』2. 또한 本稿 脱稿後에 徐榮教, 2012, 「高句麗 平原王代 南進과 遣倭使」 『歴史と世界』41을 입수했다. 568년의 북제 武成帝의 사망과 북제의 혼란에 의해서 고구려는 ‘북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가 되어, 대신라 전략을 추진해 원산지역탈환이 고구려의 대외외교의 계기가 되었다고 해, 고구려의 왜로의 사절 파견은 ‘불확정성 속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한다. 고구려 遣倭使의 출발지등에 대해서는 향후의 조사를 기다린 후 논하고 싶지만, 북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구려가 568년 이후도 북제에 遣使入朝하고 있어 북제의 존재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술과 같은 이해에는 따르기 어렵다.

8) 王其禕·周曉薇, 2012, 「新出北齊聘高麗使主『裴遺業墓誌』疏証」 『北方文物』2012-2.

9) 津田左右吉, 「百濟に関する日本書記の記載」, 위의 글; 山尾幸久, 1967, 「大化前後の東アジア情勢と日本の政局」 『日本歴史』229; 李成市, 1998, 위의 글; 平野卓治, 2004, 「日本古代史料にみる倭王権・日本律令国家と高句麗」 『高句麗研究』18, 學研文化社 등.

10) 拙稿, 2008, 앞의 논문.

11) 徐甫京, 2008, 「百濟を媒介とする高句麗と倭との交渉」 『東京大学史料編纂所研究紀要』18.

12) 三品彰英, 2002, 『日本書記朝鮮關係記事考証』下, 天山舎(1971年脱稿).

어,13) 사실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것은 고구려의 대외외교를 고찰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시 <사료 2>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이상의 <사료 2>에 대한 해석은 흥미롭지만 수궁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그것은 첫째로 <사료2>를 사실로 보는 견해의 전제나 되고 있는 고구려-백제의 평화 관계에 의문이 남는 것이다. 5세기말~6세기 초 고구려와 백제는, 고구려에 의한 475년의 백제 왕도 함락(『삼국사기』고구려본기 장수왕 63년 9월 조, 백제본기 개로왕 21년조 등, 이하, 고구려본기는 麗紀로 백제본기는 濟紀로, 신라본기는 羅紀로 하고, 『삼국사기』는 생략한다)이나 正始연간(504~507년)에 고구려의 사자 芮悉弗이 북위에 대해서 백제 토벌의 허가를 얻은 것(『위서』권100 고구려전)로부터 분명하게 적대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도 좋다. 려기·제기도 506년, 507년, 512년에 고구려와 백제간의 교전을 전하고 있다(려기·문자명왕 15·16·21년조, 제기·무령왕 6·7·12년조).

다만 그 후 『삼국사기』는 523년까지 고구려와 백제의 교전을 전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사료3> 『梁書』卷54·百濟伝에는,

<사료3> 普通2(521)年 王余隆始復遣使奉表 称累破句驪 今始与通好 而百济更為強国  
(『梁書』卷54·百濟伝)

라고 있어서, 백제가 고구려를 격파하고 고구려와 통교하여 강국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것에 의하면 양국의 관계가 호전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서보경씨도 이것을 역사적 근거로서 <사료 2>를 사실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거기서 재차 검토해 보고 싶은 것이 <사료 3>이다. 이것에 의하면 백제가 자주 고구려를 격파하여, 고구려와 통교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백제의 사절에 의해 전해진 내용인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 백제의 梁에의 入朝에는 신라 사절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때 백제는 신라를 ‘旁小國’으로 위치지어 백제에 ‘부용’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등, 백제가 강국인 것을 梁에 어필하고 있다.14) 이러한 백제의 외교 전략을 감안하면, 백제 사절의 지참한 표문에도 백제가 강국인 것을 나타내는 수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바로 해당시기의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해하려면 주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덧붙여서, 제기·무령왕 21(521)년 11월조에는 <사료 3>으로 같은 내용을 전하지만, 그것은 <사료 3>을 사료적 전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있고, 양자의 기사의 일치로부터 기사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보면, <사료 3>에 보이는 고구려·백제의 관계를 즉시 인정할 수는 없고, 현재, 이 시기에 고구려와 백제가 통교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료는 찾기가 어렵다. 현존의 고구려·백제 관계 사료에서 보고,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에 대한 모든 기록이 잔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양국관계가 평화로워졌다는 것의 중요성에 비하면, 여러 사료가 그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의심스럽다. 따라서 고구려와 백제의 교전 기사의 결여로부터, 양국의 관계가 개선됐다고 이해하는 것도 유보 해야만 한다. 오히려 려기나 제기가 523년·529년에 고구려와 백제의 교전을 전하고(려기·안장왕 5·11년조, 제기·성왕 원·7년조), 그 후도 고구려와 백제와의 전투가 인정되는 것에서, 양국은 여전히 적대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두번째로, 繼體紀의 고구려 사절의 入朝에 관한 『일본서기』의 기술이 너무 간결하다는 것이다. 欽明대에 고구려 사절이 도달했을 때에는, 왜국에서는 그들을 영접하기 위한 客館이 축조 되고 있다.(欽明紀31(570)년조) 또한 고구려 사절에 관한 기사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지금까지 왜국과 적대하고 있던 고구려로부터 사절이 도착한 것은, 왜국으로서도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欽明紀의 경우에는 고구려 사절의 도착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것에 대한 繼體紀에서는

13) 熊谷公男, 2005, 「いわゆる任那‘四県割讓’の再検討」 『東北学院大学論集 歴史学・地理学』39.

14) 이 시기 백제의 외교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李鎔賢, 1999, 「‘梁職貢図’百济国使条の‘旁小国’」 『朝鮮史研究会論文集』37 참조.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다. 이것은 <사료 2>의 고구려 사절의 왜 도착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한다.

셋째로 두 번째 것과 관련이 있지만, 欽明紀가 繼體紀대 고구려사절의 도착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欽明紀31(570)년 4月条에는 고구려 사절의 도착에 대해,

高麗迷路始到越岸

라고 적어, 고구려 사절이 “처음으로 越의 해안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것에 의하면, 欽明朝 이전에는 고구려 사절이 왜에 도달할 적이 없었던 것이 된다. 무엇보다 이 경우, ‘처음으로’라는 것은 越에 온 것을 가리켜, 표류하지 않으면 왜국에 도달할 수 없었다고 하는 뉘앙스로 이해할 수도 있다. 應神紀이래의 고구려의 遣使入朝를 근거로 하면 그러한 해석도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이것 이전의 기술은 사실로 간주하기 어렵고, 고구려로부터의 사절이 다자이후에 도착하는 것은, 고구려와 백제가 대신라 공격에 의해서 이해가 일치해, 한반도 서해안을 경유하는 항로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7세기초 이후의 일로, 그때까지는 오로지 한반도 동해안을 출발하여, 동해를 경유하는 루트가 이용되었으며,<sup>15)</sup> ‘처음으로’라는 것은 越에 도착했던 것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왜에 도착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欽明紀의 기사는 繼體紀의 고구려 사절 도착을 무시한 것 같은 기술이 되고 만다. 고구려 사절 入朝에 대한 繼體紀와 欽明紀의 모순은, 『日本書紀』 편찬자의 문제로 귀결될지도 모르지만, 欽明紀가 것처럼 기록된 것은, 그 이전에 고구려 사자의 入朝가 없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과 관련하여, 지금부터라도 繼體紀의 기사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의 점으로부터, 繼體紀의 고구려 사절의 來朝기사의 신빙성에는 문제가 있어, <사료 2>를 그대로 고구려와 왜국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고,<sup>16)</sup> 고구려의 대외외교는 고구려 사절이 “처음으로 越國에 도착하는” 欽明紀 31(570)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함을 재차 강조해 두고 싶다.

그러면, 지금까지 백제와의 대립을 전제로 해서 적대해 온 왜국에 대해서, 고구려는 왜 이 시기에, 사절을 파견해, 대외외교를 개시하려고 한 것일까. 다음에 그 점에 대해 줄고의 새로운 견해를 소개하고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570년대 对倭外交에 대한 新見解와 問題点

### (1) 570년대 고구려의 对倭外交와 高句麗·北齊關係

570년대의 고구려의 대외 관계 기사는 欽明紀31(570)년 4월조·敏達紀 원년(572) 5·6월조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고구려 사절은 ‘길을 잃어’ 越에 표착하여, 난해한 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해서, 이 때의 고구려 사절의 왜국 도래는 陳과의 교류를 전제로 해서 이차적인 것, 혹은 우연히 표착한 것으로, 우발적인 것인 가능성이 있어, 국서를 잘못해 ‘道君’에 주어 버리고 있는 것 등, 혼란이 인정되는 것부터, 고구려 사절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논의가 제출되고 있다.<sup>17)</sup>

15) 高句麗 对倭外交의 航路에 대해 論及한 것으로는, 小嶋芳孝, 1990, 「高句麗·渤海との交流」 『海と列島文化』1-日本海と北国文化-, 小学館; 古畑徹, 1999, 「環日本海諸‘地域’間交流史の中の渤海国-7~10世紀における航路の変遷を中心に-」 『東アジア史における国家と地域』, 刀水書房; 拙稿, 2007, 「古代山城と高句麗」 『南山城地域における文化的景観の形成過程と保全に関する研究』-平成18年度京都府立大学地域貢献型特別研究成果報告書, 京都府立大学; 윤재운, 2010, 「동해 항로의 유래와 경로」 『고대 환동해 교류사』1부-고구려와 왜,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참조가 된다.

16) 이외 欽明紀元(540년)8月条에는, ‘八月 高麗·百濟·新羅·任那 並遣使献 並修貢職’라고 하여, 高句麗가 入貢한 것을 전하는데 坂本太郎他校注, 1965, 『日本古典文学大系 日本書紀』, 岩波書店에서는 ‘이 무렵의 사실은 의심스럽다’고 한다. 筆者도 또한 570년 이전 고구려 사절의 일본 도착은 본문에서 다루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같은 해의 기사는 일 본서기 편찬과정에서 조작된 것으로 이해해 놓는다.

17) 新川登龜男, 1994, 「高句麗と日本(倭)」 『日本古代文化史の構想』, 名著刊行会; 金善民, 2007, 「6세기 후반 倭의 高句

이에 반해 고구려 사절이 국서를 지참하고 있는 것을 중시해, 그것은 고구려와 왜와의 외교교섭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이해해,<sup>18)</sup> 이러한 입장에서부터 그러한 논의에의 반론도 제시되고 있다.<sup>19)</sup>

이러한 고구려 사절의 왜국 파견이 고구려의 대왜외교 전략과 깊게 관련되고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부터 해당기의 고구려의 대왜 외교에 대해 논급 한 것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재빨리 이 문제에 언급한 이흥직씨는 이 遣使가 신라의 동해안 지역 진출과 관련되고 있던 것은 아닐까 추측했다.<sup>20)</sup> 그런 중에서 이것을 한반도 정세와 관련시켜 적극적으로 논한 것이, 山尾幸久氏였다.<sup>21)</sup>

야마오씨는, 고구려가 신라를 공통의 적으로 하는 백제와 화평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백제와 동맹 관계에 있던 왜에 접근해, 그 결과 신라에 대해서 고구려·백제의 대신라 공동 대처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지적했다.<sup>22)</sup> 하지만 私見에 의하면 이 시기 고구려가 백제와 동맹 관계에 있었다고는 해도, 백제와 고구려의 동맹은 7세기 중반 이후의 일이어서,<sup>23)</sup> 야마오설에는 따르게 하지 않는다.

원래 야마오설은 고구려의 시점에서 해당시기 고구려의 대왜외교를 논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재차 고구려의 시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구려의 입장에서 언급한 것이 李成市 씨였다.<sup>24)</sup> 이성시씨는 고구려의 대왜외교가 지금까지의 고구려대 백제·왜라고 하는 구조를 격변시킨 것으로, 고대 동아시아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경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고구려 측에 있던 각별한 사유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 위에, 고구려의 대왜외교의 원인을 신라의 세력 확대, 신라의 남북조 외교에서 찾았다. 즉 신라는 「황초령비」·「마운령비」에서 인정되듯이 568년경까지 한반도 북동부를 고구려로부터 빼앗았는데, 그것은 고구려에 있어서 절실한 문제이었다고 한다. 아울러, 신라는 560년대부터 남북 양조와 통교 하지만, 그러한 외교가 군사적 압력과 함께 고구려의 많은 위협을 주어 신라의 대두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대왜외교가 전개되었다고 설명한 것이다.

570년대의 고구려의 대왜외교를 고구려의 관점에서 논한 것은, 좁은 식견에 의하면 이성시씨가 처음이며, 그 후의 연구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 후 연민수씨, 임기환씨, 이영식씨 등도 고구려의 대왜외교에 대해 논구하고 있지만, 570년대의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성시설을 답습해 신라의 세력 확대와 신라의 대 중국 왕조 외교가 그 주된 요인이었다고 하고 있다.<sup>25)</sup>

이러한 지적은 중요하고 경시할 수 없지만, 이것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고구려 외교에 큰 영향을 주어 온 北朝의 동향이다. 원래 570년대의 고구려의 대왜외교는 불과 4년만에 중단되었지만, 이성시씨도 그 주된 원인을 북제·북주의 멸망, 수의 중국 통일 등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던 북조의 동향’에서 찾고 있다. 이것에 의하면, 고구려의 대왜외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던 것은 신라뿐만이 아니라, 북조의 동향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 된다. 이성시씨의 연구는 그 후의 수대의 수·고구려·왜와의 관계에 주목적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점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6

麗인식-『日本書紀』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속에서의 高句麗와 倭』, 景仁文化社.

18) 李成市, 1998, 앞의 논문; 延敏洙, 2007, 「古代日本の 高句麗觀 研究」 『동아시아 속에서의 高句麗와 倭』, 景仁文化社 등.

19) 이영식, 2006, 「5·6세기 고구려와 왜의 관계」 『北方史論叢』11, 고구려연구재단.

20) 李弘植, 1954·1957, 『日本書紀』所載高句麗關係記事』 『東方學志』1·3.

21) 山尾幸久, 1967, 앞의 논문.

22) 이외에도 栗原朋信, 1978, 「上代の對外關係」 『對外關係』, 山川出版社에서는, 고구려의 倭國의로의 사자 파견이, 중국의 남북 분열로부터 수의 중국 통일에 대응한 것으로 보지만, 수의 중국 통일은 589년이며 이 때의 고구려의 대왜외교는 그 이전의 일이다. 따라서 수의 중국 통일을 고구려의 대왜외교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23) 拙稿, 2011, 「六世紀から七世紀半ばの東アジア状勢と高句麗の対倭外交」 『朝鮮學報』221.

24) 李成市, 1998, 앞의 논문.

25) 林起煥, 2005, 「高句麗と倭の交渉-『日本書紀』記事を中心に-」 『高句麗シンポジウム 日本と高句麗; 人とサラム』, 九州国立博物館; 延敏洙, 2002, 「古代韓日外交史-三國과 倭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27(2003, 『古代韓日交流史』, 혜안); 延敏洙, 2007, 「古代日本の 高句麗觀 研究」 『동아시아 속에서의 高句麗와 倭』, 景仁文化社; 이영식, 2006, 앞의 논문.

세기 중반의 고구려의 대외외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라의 동향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북조(북제)와의 관계를 검토해,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거기서 재차 북제와 고구려의 관계에 대해 보면, 주목되는 것이 이하의 <사료 4> 『북사』고려전에 보이는 북제의 고구려에 대한 무리한 魏末流人の 반환 요구이다.

<史料4> 天保三(552)年 文宣至營州 使博陵崔柳使于高麗 求魏末流人 勅柳曰 若不從者 以便宜從事 及至不見許 柳張目叱之 拳擊成 墜於牀下 成左右雀息 不敢動 乃謝服 柳以五千戶反命(『北史』高麗傳)

이 天保 3년은 여러 사료의 비교 검토로부터 天保 4년으로 고쳐야 하는 것이지만,<sup>26)</sup> 경시할 수 없는 것은, 이 條가 崔柳의 무용담과 같은 형식이 되고 있지만, 고구려가 당초, 북제의 요구를 거부해, 그 후 최류의 행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응했다고 이해할 수 있어 이후, 고구려의 북제에의 入朝회수가 그 이전과 비교해 격감해, 이 사건을 계기로 고구려와 북제의 관계가 악화되어 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논문말 <표1> 550-590년대의 고구려의 대외관계표 참조) 즉 陽原王은 즉위 이래, 매년 東魏에 入朝했지만, 550년 5월에 북제가 건국되자 그 다음달에 조공하고,(『北齊書』文宣紀·天保 원년 6월조), 아울러 다음 해인 551년 5월에도 재차 入朝해,(『北齊書』文宣紀·天保 2년 5월조) 적극적으로 북제에 조공하여, 고구려는 대북제외교 중시책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구려의 적극적인 대북제외교는 天保 4(553)년의 流人 반환 요구 이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그 후 같은 사건으로부터 양원왕 7년의 사이에, 고구려가 북제에 조공 한 것은 조금 555년 뿐이었다.(『北齊書』文宣紀·天保 6년 11월조) 553년의 流人 반환 문제를 계기로 고구려의 북제의 관계는 악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양원왕을 이어받은 평원왕대에도 570년까지의 북제에의 조공이 겨우 564·565년의 두 번에 머무르는 것에서(武成紀·河清 3年是歲條, 後主紀·天統元年是歲條), 양원왕대에도 그러한 상황은 계속 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논문말 <표1> 550-590년대의 고구려의 대외관계표 참조).

한층 더 경시할 수 없는 것은 고구려와 북제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던 564년에, 고구려와 대립하고 있던 신라가 북제에 조공하고,(『北齊書』武成紀·河清3年是歲條) 게다가 565년에 신라왕이 북제로부터 ‘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을 제수 받은 것이다.(『北齊書』武成紀·河清4年2月條) 고구려와 적대하는 신라에 있어서 북제입조에 의한 북제와의 제휴는, 고구려를 견제하는데 있어서 중요했을 것이다. 한편, 북제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신라와 직접 대립하고 있던 고구려에 있어서, 이 신라와 북제의 제휴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 때의 책봉호 가운데 東夷校尉는 동이의 중심세력에 수여되고 있던 것으로, 종래 고구려에게 수여되었던 것이었다.<sup>27)</sup> 그러나 565년의 단계에서 그것이 신라에 수여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북제가 신라를 중시하고 있던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북제의 동방 세계의 중심세력으로서 인정되어 온 고구려에 있어서,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것이다. 고구려와 북제 관계 악화 후부터 570년의 고구려의 대외외교까지의 고구려의 북제에의 견사조공은 확실히 이 시기에 해당해, 564·565년의 북제로의 入朝는 북제와 신라와의 제휴를 의식해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 고구려는 이 다음 해인 566년에 陳에 대해서도 遣使朝貢하고 있다.(『陳書』廢帝紀·天康元年條) 평원왕의 陳에의 入朝는 평원왕 즉위 2년째인 561년과 이 566년 만이지만, 566년의 진에의 조공은 상술과 같은 북제와 신라와의 제휴를 근거로 해서 북제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행해진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고구려는 북제·신라와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고구려는 적대하는 신라를 높게 평가

26) 拙稿, 2008, 앞의 논문.

27) 東夷校尉에 대해서는, 盧泰敦, 1984, 「5~6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東方學志』44(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三崎良章, 2000, 「東夷校尉考-その設置と‘東夷’への授与-」 『西嶋定生博士追悼論文集-東アジア史の展開と日本』, 山川出版社(2006, 『五胡十六國の基礎的研究』, 汲古書院) 참조.

한 북제에 대해서 경계심을 계속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신라는 「황초령비」·「마운령비」에서 알 수 있듯이, 568년에 한반도 북동부를 지배하에 두고 고구려영토를 침식하고 있던 것이어서, 그 결과 고구려는 후퇴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고구려 서방에서는 진흥왕이 「황초령비」·「마운령비」를 세운 같은 해 9월, 북제가 북주에 화의를 청해, 북제와 북주의 화목이 성립한다.(『資治通鑑』卷117·光大2(568)년 8월조).<sup>28)</sup> 이 화목은 다음해인 569년 11월에 북주와 북제의 전투에 의해서 소멸하지만, 570년과 그 다음 해인 571년에 북제는 북주군을 격파한다.(『資治通鑑』陳紀·太建 2년조, 동3년조 등). 게다가 571년에는 그러한 정황을 근거로 해서인가, 陳이 사자를 북제에 파견해, 공동으로 북주를 토벌할 것을 타진하고 있다.(『北齊書』後主紀武平 2년4월조) 북제와 북주의 대립은, 560년대 후반부터 570년대초까지로, 고구려가 경계하고 있던 북제 우위로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영토를 확대해, 단독으로 중국 왕조라는 교섭을 하여 북제로부터 높게 평가된 신라는, 568년에 처음으로 陳에 遣使朝貢한다.(『陳書』권4·廢帝紀光大 2년 7월조)<sup>29)</sup> 고구려는 서방에서의 북제, 남방에서의 신라와의 대립에 가세해 이 신라의 진에의 入朝에 의한 신라와 진의 제휴에 의해서, 외교적 곤경에 빠진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대해 고구려를 출발했을 대외외교 사절이, 570년에 왜국에 도달하는 것이다. 아마 그것은 북제·신라와의 대립이라고 하는 고구려를 둘러싼 어려운 정세와 무관계하지 않고, 그것을 타개하려고 취해진 조치이며, 이것에 의해서 남방의 신라에 대처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570년대의 고구려의 대외외교는 이러한 신라와의 대립에 가세해 북제와의 관계 악화를 근거로 해서 전개된 것이었지만, 그 북제는 그 후 쇠퇴의 길에 접어든다. 572년 6월에 북주와의 교전에서 활약하고, 북제를 지탱해 온 명장 斛律光이 중상모략에 의해서 살해되어 그 아들, 아울러 그 남동생으로 돌궐이 무서워해 ‘南可汗’이라고 칭해지던 斛律光의 남동생인 斛律羨이 주살당한다.(『資治通鑑』陳紀·太建 4년 6월조<sup>30)</sup>) 그 다음해인 573년 5월에는 북주와의 교전에서 활약한 용장 蘭陵武王 高長恭이 後主에 의해 독살된다.(『資治通鑑』陳紀·太建 5년 5월조) 이렇게 북제를 지탱해 온 중신이 차례로 살해되어 북제는 멸망의 길을 걷는다. 573년에는 陳의 북벌군에 의해 북제 지배하의 제성이 차례차례로 함락 당해,(『資治通鑑』陳紀·太建 5년조) 이것에 더해 575년, 북주가 북제를 공격하기 시작해(『資治通鑑』陳紀·太建 7년조), 북제는 한층 더 곤경에 빠져 577년에 멸망한다.

한편, 고구려의 대외외교도 또한 북제가 쇠퇴한 이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신라와의 대립은 이 시기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를 견제하는데 있어서도 왜에 대한 고구려의 위치설정은 높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대외외교를 계속하지 않았고, 이로부터 이 시기의 고구려의 대외외교가 북제와의 관계와 깊게 관련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북제를 타도하고 河北을 통일한 북주, 그 후의 화북 통일 왕조인 隋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구려는 북제가 멸망하고, 북주가 화북을 통일하자 재빠르게 북주에 조공해, 북주와의 대립을 피하고 있다. 북제와의 관계 악화기에는 거의 조공 할리가 없었던 고구려였지만, 화북을 통일한 북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했던 것이다. 고구려는 북주에 조공하는 것에 의해서 고구려 서방의 안정을 모색한 것일 것이다. 그 4년 후의 581년, 이번엔 隋가 북주에 대신해 화북에 군림하지만, 고구려는 開皇원년(581)부터 거의 매년 수에 조공하고, 때로는 일년에 몇 차례 조공하고 있다. 고구려는 수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북제 멸망 후, 화북을 통치한

28) 『北齊書』 後主紀天統4년9월조에는, 同年9월에 北齊와 北周가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고, 『周書』 武帝紀 天和3년8월조에는, 『資治通鑑』과 같이 同年 8월의 일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周書』·『資治通鑑』를 따르고 싶다.

29)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眞興王27(566)년·28(567)년에 陳에 朝貢했다고 하지만, 中國史料에 대응하는 기사가 보이지 않아 그 入朝記事에는 위문이 남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응하는 기사가 인정되는 568년을 신라의 陳에 대한 최초의 入朝年으로 한다.

30) 『北齊書』 後主紀 武平3년 7월조에 의하면 斛律光의 誅殺을 同年 7월이라 했지만, 여기서는 일단 『資治通鑑』를 따른다.

북주·수와 고구려와의 관계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해당시기 고구려의 대외외교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고구려의 대외외교가 재개되는 것은 고구려와 수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나서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고구려의 대외외교가 고구려와 북제와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동하고 있었다고 이해된다. 그러므로 570년대에 있어서의 고구려의 대외외교도 또 신라와의 대립을 대전제로 하면서도, 고구려와 북제와의 관계 악화가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서방에서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던 화북의 상황과도 관련되어 전개된 고구려 외교의 특징이 인정되는 것이다.

## (2) 570년대 高句麗의 對倭外交에 대한 新見解와 問題點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부터 해당기의 고구려의 대외외교에 대해 검토를 더한 것이 이성제씨였다.<sup>31)</sup> 이성제씨는 570년대의 고구려의 대외외교가 신라와의 대립을 전제로 해, 북제와의 관계 악화가 고구려의 대외외교의 요인이었다고 하는 상술의 이해에 대해서, 해당시기 고구려는 반드시 신라와의 대립에 괴로워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즉, 이성제씨는 북제가 신라에 대해서 동이 교위를 수여해, 북제와 신라의 제휴가 고구려에 위협을 주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 시기로 한정되고 있어 그 후의 신라의 외교도 對陳 외교에 국한 되었고, 게다가 그것은 ‘일반적인 사절의 파견’에 머무르므로, 신라 외교가 고구려에 위협을 주고 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더욱이 李成制氏는 아래의 <史料5> 羅紀·真興王29(568)年10月条

<史料5>冬十月 廢北漢山州 置南川州 又廢比列忽州 置達忽州(羅紀·真興王29(568)年10月条)

에 주목해, 568년에 한반도 동해안의 거점이었던 비렬홀주(안변)를 폐지하고 달홀주(고성)를 설치한 것, 아울러 북한산주도 폐지해 남천주(이천)를 설치한 것에서, 신라의 한반도 동부·서부에 있어서의 세력이 후퇴했다고 이해했다. 그리고 이 기사로부터 고구려와 신라의 대립은 ‘고구려군의 반격에 의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외외교의 전제가 되고 있던 560년대말, 고구려는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고, 현상을 회복하고 있었다’ 때문에, ‘위기는 벌써 극복되고 있었다’라고 해, 외교상의 타개책으로서 대외외교를 위치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그 위에, 고구려에 있어서 위협이 되는 것은 신라가 북조와 제휴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고구려도 또 외교를 전개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장안성의 축성도 그 일환으로, ‘미래 지향의 대책’의 하나로서 대외외교·대진외교도 행해졌다고 보는 것이다. 즉 570년대의 고구려의 대외외교는, ‘직면한 위기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성제씨의 연구는, 해당기의 고구려의 대외관계 가운데, 주로 신라와의 관계를 재검토해, 고구려의 대외외교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흥미로운 지적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수궁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570년대의 대외외교를 ‘미래 지향의 대책’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왜 이 시기로 한정해 행해지고 있는지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래 외교는 대체로 ‘미래 지향의 대책’인 것이며, ‘미래 지향의 대책’은 이 시기로 한정되어야 할 것도 아니고, 그 후도 설명 할 수 있어 버리는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설명으로 570년대의 고구려의 대외 외교를 설명하는 것은, 해당시기 고구려를 둘러싼 상황과 관련되어 전개된 고구려의 대외외교의 특징을 사장시켜 버릴 우려가 있을 것이다.

또 이성제씨는 신라의 동향을 검토한 다음 고구려의 대외외교에 대해 논하지만, 거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성제씨가 지적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또 북제·진과의 관계를 재검토해 보겠다.

31) 李成制, 2009, 앞의 논문.

우선 이성제씨가 <사료 5>로부터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원점 회귀’했다고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겠다. 이 경우의 ‘원점 회귀’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기의, 어떠한 상황을 가리키는지, 구체적 기술은 없지만, 아마 진흥왕이 「황초령비」·「마운령비」를 세운 지역을 지배하고, 신라가 고구려 영역을 깊게 침식하기 전 일 것일 것이다.

이성제씨가 지적한 것처럼, 분명히 <사료 5>에 의하면 신라는 568년 10월에 북한산주·비열홀주를 폐지하고, 그것보다 남방의 이천·고성에 각각 남천주·달홀주를 설치해, 주의 남방으로의 이동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의 세력 후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없지는 않다. 하지만 경시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신라의 한반도 동북부 확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황초령비」·「마운령비」의 기술이다.

「마운령비」에는 ‘太昌元年歲次戊子□□廿一日’라고 있는데, 이 ‘太昌元年’은 진흥왕 29(568)년에 해당한다. 「마운령비」에는 나아가 ‘行至十月二日癸亥’라고 있고 「황초령비」에는 ‘八月廿一日癸未’라고 있어, ‘10월 2일’이 계해에, ‘8월 21일’이 계미가 되는 것은 모두 568년인 것이어서, 진흥왕은 568년 8월 21일에 왕도를 출발해, 「황초령비」를 거쳐 10월 2일에 「마운령비」지역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sup>32)</sup> 적어도 이 두 「비문」에 의하면, 해당 지역은 568년 10월까지 신라령인 것이 된다.

이미 서술했듯이 이성제씨는 <사료 5>의 비열홀주·북한산주의 폐지를 중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구려 세력의 반격의 결과로 간주하는 것 같지만, 적어도 「마운령비」·「황초령비」의 내용에서 보면, 신라는 달홀주 라인까지 후퇴하고 있었다고는 해도, 오히려 568년경은 그것보다 꽤 북쪽을 영유 하고 있던 것이어서, 568년의 단계에서 고구려의 반격에 의해서 신라 세력이 후퇴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만일 이성제씨가 말할 곳의 ‘원점 회귀’되는 것이, 전술과 같이 신라의 한반도 동북부 영유 이전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이라면, 적어도 568년의 단계에 있어서는 ‘고구려가 불리한 상황을 전환시키고, 현상을 회복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상태는 되지 않았던 것이다.

<사료 5>의 내용을 잘못으로서 즉시 기사 내용 그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것도 곤란하다. <사료 5>는 세력을 확장시킨 신라와 고구려의 대립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568년 10월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고구려는 신라에 빼앗긴 옛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서 신라에 반격을 시도했을 것이다. 그러한 고구려와 신라와의 대립의 과정에서 신라는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을 근거로 해서 비열홀주나 북한산주를 폐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며, <사료 5>는 그러한 사태를 반영한 것일 것이다. 私見에 의하면 <사료 5>의 계년은 금석자료 자료의 내용에서 보고 즉시 수긍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내용 그 자체는 고구려와 신라의 대립의 한 과정을 신라의 州의 廢置라고 하는 관점에서 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사료 5>에서 568년경의 한반도 동북부에 있어서의 신라와 고구려의 대립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해당시기 고구려를 둘러싼 상황을 논하는 것도 문제가 남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음에 이성제씨가 적극적으로 언급한 신라와 북제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기로 하자. 신라와 북제의 관계는 <史料6> 『北齊書』武成紀·河清3(564)年是歲條에,

<史料6>是歲 高麗·靺鞨·新羅並遣使朝貢(『北齊書』武成紀·河清3(564)年是歲條)

라고 하여, 564년에 신라는 처음으로 북제에 入朝한다. 그것을 근거로 해 북제는 <史料7> 『北齊書』武成紀·河清4(565)年 2月條에,

<史料7>河清四年二月甲寅 詔以新羅國王金真興為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  
(『北齊書』武成紀·河清4(565)年 2月條)

32) 『黃草嶺碑』·『磨雲嶺碑』에 대해서는 盧鏞弼, 1996, 『新羅真興王巡狩碑研究』, 一潮閣을 참조할 것.

라고 있듯이, 북제는 신라입조 후 재빠르게 진흥왕에게 ‘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을 제수하고 있다. 게다가 거기에는 지금까지 고구려에 수여되고 있던 동방 세계의 중심세력에게 주어졌던 동이 교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북제가 신라를 중시하고 있던 것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성장이 현저한 신라를 높게 평가했던 것 뿐만 아니라, 관계가 악화된 고구려의 배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서 북제가 신라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성제씨도 【사료 7】의 북제로부터 신라에의 책봉호의 제수 등을 근거로 해서 이 시기, 북제와 신라의 제휴가 고구려에 있어서 위협이 되고 있었다고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있다. 이성제씨는 그 후 신라·북제간에 외교 관계가 보이지 않고, 게다가 568년 이후는 신라의 대중국 왕조 외교는 陳으로 한정되고 그것도 ‘사절의 파견에 머물러’, 이러한 상황이 ‘고구려를 움켜져 외교를 전개시켰다’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분명히, 그 후의 북제와 신라의 관계는 현존 사료에 의하는 한, 사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565년에 북제가 신라왕을 책봉해, 동방 세계의 제일의 세력에 수여되는 동이 교위를 신라에게 주어 고구려를 적대하는 신라를 높게 평가하고 있던 것은, 고구려에 있어서 경시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구려와 북제의 관계는 양호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북제와 고구려의 관계가 악화 상태일 정도로, 고구려와 적대하는 신라를 높게 평가한 북제, 또 그리고 높게 평가된 신라에 대한 경계심은 높아지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신라는 「마운령비」·「황초령비」에도 있듯이, 고구려 영토를 크게 침식해 고구려와 신라의 대립은 격화하고 있던 것이어서, 이러한 상황도 고구려의 경계심을 높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신라는 <史料8> 『陳書』廢帝紀·光大2(568)年7月条에 보이듯이,

<史料8> (光大) 二年…秋7月…戊申 新羅国遣使献方物(『陳書』廢帝紀·光大2(568)年 7月条)

568년 2월에 처음으로 陳에 遣使入朝한다. 이미 서술했듯이 동년 8월에 진흥왕은 새롭게 획득한 한반도 동북부의 「마운령비」·「황초령비」지역에의 순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것은 스스로를 황제에 비교한 것으로, 새롭게 신라령이 된 지역에 순무를 나타낸 것으로, 비약적으로 영토를 확대시킨 진흥왕의 자신감의 표현일 것이다. 陳에의 遣使朝貢도 아마, 그러한 진흥왕에 의한 비약적인 세력 확대와 궤를 같이 한 것이었을 것이다. 신라로부터 진에의 입조 후, 진으로부터 신라왕에게의 冊授는 없기는 했지만, 그것을 ‘일반적인 사절의 파견’이라고 평가절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력을 확대하는 신라가 진에 견사조공 해 접근을 도모한 것은, 신라에 위협을 느끼고 있던 고구려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신라와의 대립이 계속 되면 계속 될수록 고구려는 적대하는 신라의 동향을 경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큰 폭으로 고구려령을 침식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자력으로 남조와의 통교를 이루어 국제사회에 등장한 신라의 동향을, 그와 적대하고 있던 고구려가 한가롭게 보고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현실에 침공하는 신라의 고구려령 탈취와 관련되어 그 동향은 고구려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568년의 전후, 고구려는 신라의 한반도·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신라와 적대하고 있던 것은 그 이전부터의 일로, 한편 그 후도 계속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라의 세력 확대와 적극적인 대외관계만을, 570년대의 고구려의 대외외교의 요인으로서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라와의 대립, 신라의 적극적인 대외 외교는 그 후도 계속하고 인정되지만, 고구려의 대외외교는 그 후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어서, 신라와의 대립의 급진화에 가세해 다른 관점도 이 시기의 고구려의 대외외교를 촉진시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즉 대신라관계만으로 고구려의 대외외교를 이해하는 것은 문제로, 그것을 본질 파악하는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기술한 북제와의 관계 악화라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신라와의 대립, 신라의 적극적인 대외 활동만이 해당시기 고구려의 대외 정책과 관련되고 있던 것이 아니고, 북제와의 관계 악화라고 하는 일도 이 시기의 고구려의 외교, 아울러 대외외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570년대의 대외외교에는 고구려와 북제와의 대립이 주요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이성제씨가 졸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570년대의 고구려의 대외관계에 대해 논급할 때에, 이 북제와 고구려와의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성제씨

가 전술한 유민 반환 사건 이후, 북제와 고구려는 우호 관계를 맺어, 북제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전제로서 고구려는 신라·백제에 대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도 무관계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sup>33)</sup> 그러나, 벌써 지적한 것처럼, 유민 반환 요구 이후 고구려와의 북제와의 관계는 그 후 악화되어 간 것이어, 그것이 570년대의 고구려의 대외외교에도 크게 관련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시기 고구려·북제 관계는 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양국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료는 극히 적고, 그러한 사료나 각국의 동향에서 그 관계를 추정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해당시기 고구려와 북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료가 새롭게 발표되었다. 거기서 재차 그 사료에 의거해, 고구려와 북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다.

### 3. 新出『裴遺業墓誌』로 본 570년의 高句麗·北齊關係

고구려와 북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새로운 사료는 「裴遺業墓誌」이다. 이것은 王其禕·周曉薇 「新出北齊聘高麗使主『裴遺業墓誌』疏証」에 의해서 2012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이하, 이 논문은 王·周 논문으로 한다. 덧붙여 「裴遺業墓誌」에 대한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것에 근거한다)<sup>34)</sup> 묘지의 출토지는 山西省 臨汾縣 永固村이다. 王·周 논문에는 묘지의 현재의 소장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裴遺業墓誌」에 관한 고찰도 탁본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묘지 자체의 실견 조사 등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지만, 다행히 王·周 논문에는 묘지의 탁본이 게재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게재된 묘지의 탁본에 의거해 「裴遺業墓誌」에 대해 논구해 나가기로 한다.

誌文은 誌石·誌蓋裏面に 새겨져 있는데, 지식의 탁본의 크기는 세로 43.5cm, 가로 45.5cm, 지개이면은 세로 43.5cm, 가로 45cm라고 한다. 묘지의 크기도 대체로 거기에 준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지문은 지식·지개이면에 있고, 지식에 20행, 지개이면 17행, 전부 37행이다. 1행 19자가 기본이다.

『裴遺業墓誌』拓本(王·周論文掲載)



묘지에 의하면 배유업은 河東聞喜 사람으로, 증조부는 裴保觀, 조부는 良, 아버지는 子昇, 자식은 君洽이다. 『新唐書』卷71·宰相世1上에 의하면, 裴保觀은 中眷裴氏 裴万虎의 장자이다. 祖父 良은, 字가 元賓으로, 北魏의 大府卿이었다고 한다. 아버지인 子昇과, 또 무덤의 주인인 배유업의 이름은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裴良의 묘지가 발견되었

는데, 거기에는 ‘第三子子昇 字仲仙 奉朝正 荊州衛軍府外兵參軍 以去永安三年在州亡 年二四歲 娶妻隴西李氏’라고 있어<sup>35)</sup> 아버지인 子昇의 字가 仲仙이고, 배유업의 어머니가 隴西 李氏임을 알 수 있다.

묘지를 직접 실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석문에는 이론도 있어, 향후 본격적인 묘지의 실견 조사가 필요하지만, 王·周 논문에 게재된 석문과 묘지의 탁본에 의거해 필자 나름대로 석독한 배유업의 업적에 관한 부분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前略)……齊河清元年、乃就 / 徵爲開府元益參軍事、尋加明威將軍、江左雜号 / 自有銀章、晉世參軍、不拜都督、迺瞻遼溟、窮地之 / 險、俗攝扶餘、境苞肅慎、懷來殊域、良資使乎。武平 / 元年、兼員外散騎侍、

33) 李成制, 2001, 「高句麗와 北齊의 關係-552년 流人 送還의 문제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23(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研究-北朝와의 対立과 共存의 關係를 중심으로』, 국학자료원).

34) 王其禕·周曉薇, 2012, 「新出北齊聘高麗使主『裴遺業墓誌』疏証」 『北方文物』2012-2.

35) 羅新·葉煒, 2005, 「裴良墓誌」 『新出魏晉南北朝墓誌疏証』, 中華書局.

聘高麗使主。昔南越喻旨 / 遂受金裝、西域鑿空、止傳邛杖、豈如申威萬里、剋 / 服九夷、既有玄菟之功、不賣盧龍之賞。四年、加建節 / 將軍。俄而長平垂翅、函谷無泥、運革鼎移。隨時告老、孤竹君之讓子、值殷王而永遁、商洛山之隱 / 客、經漢興而未歸、開皇三年刺史龍門公建旗求 / 莫、妙選賢明、以州都右望、早辭相待、君願此徒勞 / 稱疾解退、優遊名教、服膺典禮、溫恭昆弟、貽訓子 / 孫、追石慶之家風、踵陳寔之門法、爰降詔使、表 / 義旌閭、宗族稱榮、耆舊長歎、樂天知命、澹乎淵靜 / 桐君之錄、何言鴻瑤之篇無驗。開皇十年八月廿 / 七日、邁疾於豐義里、春秋六十三……（後略）……。

( / は改行을 나타내며, 구두점은 필자가 임의로 한 것이다)

이것에 의하면, 배유업은 북제의 河淸원년(562)에 參軍事가 되어, 그 다음에 明威將軍(정6품)이 되었다. 그 후 誌文은 배유업과 고구려와의 관계를 기록한다. 王·周 논문에서 지적되었듯이, 배유업의 업적에 관한 기술 가운데, 이것이 그의 업적으로서 특기 되고 있다. 이것은 묘지 작성자에게 있어서 배유업의 업적 가운데, 북제·고구려 관계에 대해 그가 많은 공적을 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것이 그의 업적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특별히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裴遺業墓誌」에 의하면, 그는 武平원년(570)에 ‘員外散騎常侍 聘高麗使主’가 되어, 고구려로 향해 간 것이 된다. 고구려·북제 관계에 대해 이 묘지의 중요성의 첫째는 이 기술에 있다. 즉, 현존 하는 문헌 사료에는 570년의 북제로부터 고구려에의 사절 파견 기사는 인정되지 않고, 묘지는 문헌 사료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고구려·북제 관계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裴遺業墓誌」의 의의는 작지 않다.

둘째 의의는, 북제로부터 고구려에 파견된 사절의 이름, 그가 띤 관직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고구려와 중국제왕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료는 극히 간결하고, 겨우 사자 파견의 유무를 전하는데 지나지 않아, 사자의 이름은 커녕, 그들이 띤 관직을 나타내는 사례는 지극히 적다. 그런 만큼 「裴遺業墓誌」에 의해서 밝혀진 관직에서, 북제의 대고구려 외교의 위치설정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것이어서,<sup>36)</sup> 그 점으로부터도 「裴遺業墓誌」가 전하는 내용은 고구려·북제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문헌 사료에는 볼 수 없는 귀중한 북제·고구려 관계의 한 측면을 전하는 「裴遺業墓誌」이지만, 이것에 의거하면서 570년 전후의 고구려·북제 관계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裴遺業墓誌」에 의하면, 배유업은 전술했듯이 武平元年(570)에 ‘員外散騎常侍 聘高麗使主’가 되어, 고구려에 파견되고 있다. 배유업은 고구려에 사절로서 파견되는데 즈음하여 ‘員外散騎常侍’가 수여된 것일 것이다. 묘지에 의하면, 배유업은 그 이전에 정6품하의 明威將軍이었다. 員外散騎侍郎은 『通典』職官條에 보이는 북제의 직품에 의하면, 정5품상이기 때문에 고구려 파견과 관련되어 그 관계는 상승한 것이 된다.

36) 北齊의 사례는 아니지만 북위에서 高句麗에 파견된 사자의 관직에서 北魏의 高句麗에 대한 위상 지움을 검토한 것으로는 三崎良章, 1982, 「北魏의 對外政策と高句麗」 『朝鮮學報』102가 있다.

<표 2> 東魏·北齊·梁·陳에서 파견된 사자 및 그 관직

東魏・北齊から他国に派遣された使者一覧

No	年次	西曆	国	派遣先	使者名	官職
1	大同3年	537	東魏	梁	李諧／盧元明／李業興	兼散騎常侍／吏部郎／通直侍郎
2	大同3年	537	梁	東魏	張樂舉	司農
3	大同4年	538	東魏	梁	鄭伯猷	兼散騎常侍
4	大同4年	538	梁	東魏	劉孝儀	散騎常侍
5	大同5年	539	東魏	梁	王元景・魏收	散騎常侍
6	大同6年	540	東魏	梁	李象	兼散騎常侍
7	大同6年	540	梁	東魏	明少遐	兼散騎常侍
8	大同6年	540	東魏	梁	李騫	兼散騎常侍
9	大同8年	542	東魏	梁	李繪	兼散騎常侍
10	大同8年	542	東魏	梁	楊斐	兼散騎常侍
11	大同9年	543	東魏	梁	李渾	兼散騎常侍
12	大同10年	544	東魏	梁	魏季景	散騎常侍
13	大同11年	545	東魏	梁	李獎	兼散騎常侍
14	大同11年	545	東魏	梁	尉瑾	中書舍人
15	中大同元年	546	東魏	梁	元廓	散騎常侍
16	太清元年	547	東魏	梁	李系	兼散騎常侍
17	太清2年	548	梁	東魏	謝挺／徐陵	建康令／散騎常侍
18	承聖元年	552	北齊	梁	曹文皎	散騎常侍
19	天嘉3年	562	北齊	陳	崔瞻	散騎常侍
20	天嘉3年	562	北齊	陳	?	?
21	天嘉3年	562	北齊	陳	封孝琰	兼散騎常侍
22	天嘉4年	563	北齊	陳	崔子武	兼散騎常侍
23	天嘉5年	564	北齊	陳	皇甫亮	兼散騎常侍
24	天嘉5年	564	北齊	陳	劉逖	兼散騎常侍
25	天嘉6年	565	北齊	陳	王季高	兼散騎常侍
26	天嘉7年	566	北齊	陳	韋道儒	兼散騎常侍
27	光大元年	567	北齊	陳	司馬幼之	散騎常侍
28	光大2年	568	北齊	陳	鄭大護	兼散騎常侍
29	光大2年	568	北齊	陳	斛斯文暉	侍中
30	光大2年	568	北周	北齊	陸程	軍司馬
31	光大2年	568	北齊	陳	李諧	兼散騎常侍
32	太建元年	569	北齊	北周	叱列長叉	侍中
33	太建元年	569	北齊	陳	裴讜之	兼散騎常侍
34	太建3年	571	北齊	陳	劉環備	兼散騎常侍
35	太建3年	571	北齊	陳	?	?
36	太建3年	571	北齊	北周	赫連子悅	侍中
37	太建4年	572	北齊	北周	封輔相	領軍
38	太建5年	573	北齊	陳	崔象	?
39	太建5年	573	北齊	北周	王紘	開府儀同三司

사료에는 북제로부터 梁·北周에 파견된 인물과 그 때의 관직이 기록되고 있고, 표 2는 『資治通鑑』에 보이는 東魏·北齊·北周·梁·陳에서 파견된 사자와 그 관직을 정리한 것이다. 이것에 의하면 북제로부터 梁·陳에 파견된 사자의 관직은 불명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모두 散騎常侍(종3품)이다. 동위에서 양에 파견된 사절이 먼 관직도 또 대부분이 散騎常侍였기 때문에, 북제의 對南朝 외교 사절의 관직은 동위의 그것을 답습하고 있던 것일 것이다.

덧붙여서 북위로부터 남조에 파견된 사자의 관직은 461년 이후, 員外散騎常侍(정5품상)였기 때문에,<sup>37)</sup> 동위·북제는 사절의 관직에서 보면 북위보다 대남조 외교를 중시하고 있던 것이 된다. 서위·북주와의 대립이라고 하는 상황에 의해서, 동위·북제의 남조에 대한 위치설정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일 것이다. 또 북제로부터 북주에 파견된 사자는 侍中(정3품), 領軍(종2품), 開府儀同三司(종1품)였기 때문에, 북제에 있어서는 대북주외교 쪽이, 대남조 외교보다 중시되고 있던 것이 된다. 화북에서 대치하는 북주와의 외교는 북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이와 같이 북제에서는 북주에 侍中·領軍·開府儀同三司가, 남조에 산기상시의 관직의 사자가 파견된 것에 반하여, 고구려에 파견된 배유업은 원외산기상시(정5품상)이기 때문에, 북주, 양·진에 파견된 사자의 관직보다 낮다. 이것으로부터 해당시기 북제의 대고구려 외교는 대북제·대남조 외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북위에서는 470년대, 고구려에는 주로 산기상시가 파견되었기 때문에, 북위와 북제와의 관품의 차이가 있지만, 해당시기 북제의 대고구려 외교의 위치설정은 470년대의 북위의 대고구려 외교보다 그 위치설정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고구려와의 통교가 북제 건국시와 비교해 저조하고, 유민 반환 요구 이후 그 관계가 종전에 비해 악화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모순되지 않는다. 다만 북제가 반드시 대고구려 외교를 중시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6품의 명위장군인 배유업을 고구려에 파견할 즈음에, 상위의 원외산기상시에 임명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시사하고 있다. 원래 북제는 고구려에 대해서 배유업을 파견하고 있어, 그것 자체가 북제의 고구려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 정책의 일단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배유업의 고구려 파견이라고 하는 상황을 근거로 해서 이 시기의 고구려와 북제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570년대의 고구려의 대외외교가 고구려·북제 관계와도 관련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부터 하면,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거기서 재차 「裴遺業墓誌」로부터 고구려·북제 관계를 검토해 보자.

이 점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배유업이 고구려의 요청에 의해서 북제로부터 파견되었다고 하는 王其禕·周曉薇씨의 견해이다. 王其禕·周曉薇씨는, 고구려로부터 우선 북제에 대해서 隣好의 취지가 전해지고 그것을 받아 배유업이 고구려에 파견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타당하면 이 시기에 고구려는 북제에 대해서 사자를 파견해, 긴장 관계를 완화 시키려고 한 것이 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王其禕·周曉薇씨의 추측에 지나지 않고, 사료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추측의 단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것처럼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또, 현존 하는 사료에서 보아도 고구려가 북제에 사자 파견을 요청했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다.

단지, 현존 하는 사료에 배유업의 고구려 파견에 앞서는 고구려로부터의 요청을 전하는 기사가 남지 않은 것뿐으로, 이번 「裴遺業墓誌」와 같이 사료에게 전할 수 있지 않은 것이 실제로는 있던 가능성도 완전하게는 부정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러한 추정도 고려되어도 괜찮은 것인지도 모른다.

거기서 재차 이것에 대해 검토해 보고 싶다. 그 때 주목받는 것이 묘지의 ‘昔南越喻旨 遂受金装 西域鑿空 止伝邛杖 豈如申威万里 剋服九夷 既有玄菟之功 不壳盧龍之賞’이라고 하는 기술이다. 여기에서는 배유업의 ‘聘高麗使主’로서의 대고구려 외교 공적을, 漢代의 대남월외교, 대서역 외교와 비교해서 그것보다 낮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南越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의 고조가 陸賈를 파견해 화친의 관계를 맺었지만,

37) 三崎良章, 1982, 위의 논문.

그 후, 한에 반란을 해서 무력 토벌을 받고 멸망에 이르고 있어, 묘지의 ‘昔南越喻旨 遂受金裝’은 그것을 전하고 있다.『史記』南越傳) 또 ‘西域鑿空 止伝邛杖’이란 武帝代에 張騫이 西域에 사신으로 가서, 서역 제국과의 교통로를 개척해 새로운 정보를 가져오는 것과 동시에 張騫이 大夏에서 지팡이를 보고, 그것이 見毒國(인도)으로부터 大夏에 수입된 것이어서, 漢도 또한 見毒國(인도)으로 통하려고 했지만, 昆明 때문에 見毒國으로 통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한다.(『史記』西南夷傳) 漢의 대남월, 대서역 외교에서는 陸賈나 張騫이 각각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南越은 전술한 것처럼 이윽고 한에 반란을 하였고, 장건에 대해서도 西南夷의 정보를 얻었지만, 신독국과 통교 하는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에 반해, 묘지에 말하는 ‘玄菟之功 不壳盧龍之賞’의 구체적 내용은 자세하지 않지만, 후술 하듯이 배유업이 사자로서 향한 고구려는 북제에 반란함이 없이 조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묘지는 한대의 대남월·서역 외교로 많은 공적을 올린 그들보다 배유업의 실적을 높게 평가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묘지가 배유업의 대고구려 외교로 올린 공적을 한대의 대남월외교, 서역 외교와 비교해 높게 평가하는 것은, 그것들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 배유업의 실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북제와 고구려를 둘러싼 상황이, 漢 武帝代의 南越·서역 제국과의 관계와도 아주 비슷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남월이 한의 남변을 침략해, 한으로부터의 사자가 파견되어 和睦이 맺어지는 등, 반드시 양호한 관계를 지속한 것이 아니고, 서역 제국이나 신독국도 또한 한과 통교하지는 않았다. 한편, 북제와 고구려의 관계도 또 상술해 온 것처럼 魏末流入漢人의 반환 이후, 반드시 양호하다고는 말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양자의 상황은 매우 비슷했던 것이다. 배유업의 업적과 관련되어 한의 대남월외교, 대서역 외교의 서술이 이루어진 것은, 그러한 일을 근거로 한 일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로부터도 고구려와 북제의 관계가 양호하지 않았던 것이 추정되는 것이다.

원래 만일 고구려로부터 사자 파견 요청을 받고, 고구려로 향해 간다라고 하는 북제·고구려 관계가 평화적이었다고 하면, 배유업의 ‘聘高麗使主’도 그만큼 곤란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묘지에 대고구려 외교에 있어서의 배유업의 업적이 특기 된 것은, 북제와 고구려의 관계가 결코 양호하지 않고, 배유업의 임무도 상당한 곤란을 따르는 것이어, 그러한 상황하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북제 조공이라고 하는 상황을 장래 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묘지의 이러한 서술로부터도 또 해당기의 고구려·북제 관계가 긴장 관계에 있던 것을 방문하는 것이다. 『裴遺業墓誌』는 570년의 배유업 파견의 단계에 있어 북제와 고구려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던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우선 북제에 인호의 취지를 북제에 타진했다고 하는 王其禕·周曉薇씨의 견해는 따르기 어렵다.

무엇보다, 굳이 곤란한 상황을 설명하고, 게다가 그것을 극복한 것에 의해서 배유업의 업적을 보다 한층 기리려고 하는 의도가 그러한 서술에 포함되어 있던 가능성도 완전하게는 부정 할 수 없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배유업의 실적을 기리기 위해서, 해당시기 고구려와 북제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묘지가 작성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래 다른 사료로부터도 기술과 같이 565년 이후, 고구려로부터 북제에 대한 遣使朝貢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묘지 작성에 임하여 북제·고구려 관계를 고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裴遺業墓誌』는 570년경, 고구려와 북제의 관계가 우호 관계에 있던 것이 아니고, 긴장 관계에 있던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로부터 북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遣使朝貢이 없어서, 북제는 570년에 배유업을 일부러 고구려에 파견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북제는 고구려와의 관계를 깊게 하려 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제의 대고구려 외교 정책이다. 고구려가 곧 바로 이러한 북제의 대고구려 정책에 응해 이것을 계기로 북제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해, 그 결과, 고구려와 북제가 양호한 관계가 되었다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성급하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裴遺業墓誌』에는 후술하듯이, 배유업의 고구려 파견을 받고, 곧바로 고구려로부터 북제에 대한 견사조공이 된 것을 전하지 않고, 또 그러한 상황은 현존의 문헌 사료에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묘지에 대고구려 외교로 큰 공적을 올렸다고 하는 묘지의 기술과 해당시기 고구려·북제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것과 관계된 부분이 『裴遺業墓誌』의 ‘四年 加建節將軍’이라고 생각된다. 기술과 같이, 배유업의 실적으로서 고구려 파견이 묘지에 특필되어 그것이 높게 평가된 것은, 그것까지 결코

양호한 관계는 아니었던 고구려와 북제의 관계를 개선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공적으로 기록된 것이 고구려 파견 기사에 계속 되는 ‘四年 加建節將軍’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570년 배유업의 고구려 파견 이후의 고구려와 북제와의 통교에 대해서는, <사료 9>『北齊書』後主紀·武平4년(573) 是歲條에,

<사료 9> 是歲 高麗·靺鞨竝遣使朝貢(『北齊書』後主紀·武平4년(573) 是歲條)

라고 하여, 573년에 565년 이래, 8년만에 고구려로부터 북제에의 견사입조를 전하고 있다. 배유업이 武平元年(570)에 ‘빙고구려사주’로서 파견되어 북제와 고구려와의 관계 개선을 향한 노력이, 확실히 이 무평 4년(573)의 고구려의 북제입조를 가지고 실현되었던 것이다. 묘지에 보이는 배유업에의 建節將軍(正4品上) 수여는 확실히 이 해의 일로, 양자가 무관계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裴遺業墓誌』에 보이는 고구려 파견에 계속 되는 배유업의 武平 4년(573)의 建節將軍의 수여는 확실히 이 고구려의 북제에의 견사입조를 받아들인 것에 다름 아니다. 또 이 때, 배유업에 하사할 수 있었던 건절장군이라고 하는 장군호도 또 ‘빙고구려사주’로서 고구려에 파견되어 고구려의 북제에의 조공에 크게 공헌한 그의 공적에 어울리고, 정말로 그의 대고구려 외교교섭에 있어서의 공적에 필적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로부터도 묘지는 기존의 사료에 보이지 않는 북제·고구려 관계의 한 측면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큰 잘못이 없다면, 적어도 고구려는 570년에 북제로부터의 사자 배유업을 받아들이며서도, 대북제관계를 곧 바로 고치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북제에 견사입조는, 전술과 같이 573년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고, 고구려의 대북제외교의 일단이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가 북제에 대해서 곧바로 대응하지 않고, 북제와의 긴장 관계에 있던 확실히 이 시기에 고구려는 대외외교를 전개하고 있던 것이다.

『裴遺業墓誌』는 573년의 고구려의 북제에의 견사입조를 배유업의 공적으로서 높게 평가하지만, 고구려 측에서 보면, 그것은 570·571년의 북제의 일방적인 백제왕 책봉, 또 572년의 신라·백제의 북제입조라고 하는 북제와 신라·백제와의 제휴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견제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고구려가 북제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은, 그 후 고구려가 북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조공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를 둘러싼 동아시아 제국의 외교 활동이 고구려의 북제에의 견사입조를 실현시킨 것이었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북제에의 견사조공을 배유업의 공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런면에서 『裴遺業墓誌』에는 배유업의 실적을 보다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과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술한 것처럼 거기에는 고구려·북제 관계의 추이를 전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의미에 대해 신출 『裴遺業墓誌』가 전하는 내용은 고구려·북제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경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해하면, 570년 전후의 고구려와 북제의 관계 악화는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출 『裴遺業墓誌』에 의해 그러한 상황이 인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북제와의 관계 악화가 570년대의 고구려의 대외외교의 큰 요인이었던 것이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대외관계는 고구려를 둘러싼 제상황을 근거로 해서 전개된 것이며, 거기에 고구려 외교의 특징이 엿보이는 것이다.

## 결론

이상에서 지금까지 고구려의 대외외교의 시기에 대해 검토하여, 고구려의 대외외교가 570년대부터 인정되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그 위에 570년대의 고구려의 대외외교가, 신라와의 대립에 가세해 북제와의 긴장 관계라고 하는 고구려를 둘러싸는 외교상의 위기로 인해 적극적으로 행해져 온 것을 재확인해, 특히 거기에 북제와의 관계가 극히 크게 관여하고 있던 것을 강조했다.

또, 그것과 관련지어 이번, 새롭게 최근 소개된 「배유업 묘지」에 보이는 북제·고구려 관계 기사에 주목해, 기존의 문헌 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570년 전후의 고구려·북제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을 더했

다. 그 결과, 첫째로 북제는 570년에 배유업을 ‘員外散騎常侍·聘高麗使主’에 임명해 고구려에 파견했지만, 북제의 제국에 파견된 사자가 가진 관직의 비교를 통하고, 북제의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고구려의 위상이 대북주·대량외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 두 번째로, 북제는 지금까지 긴장 관계에 있던 고구려에 대해서 사자를 파견해 대고구려 외교를 전개하려고 했지만, 고구려는 570년의 배유업의 고구려 파견을 근거로 해도 즉시 대북제외교를 전개하지 않고, 양국의 긴장 관계가 그 후도 계속되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기왕의 문헌 사료에는 보이지 않는 고구려·북제 관계의 한 측면을 전하는 「배유업 묘지」에서 570년 전후의 고구려·북제의 긴장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거기로부터도 재차 해당시기의 고구려의 대왜외교가 북제와의 관계와 크게 관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70년대의 고구려의 대왜외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고구려·북제 관계는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되고, 고구려의 대왜외교는 한반도 정세뿐만이 아니라, 화북의 동향과 관련되어 전개되고 있던 것이다. 여기에 고구려 외교의 특징이 인정되는 것이다.

<표1> 550-590년대 고구려의 대외관계

西曆	皇帝	元号	年	王名	年	月	北朝	南朝	百济新羅;北朝	百济新羅;南朝	朝鮮半島・高句麗国内情勢
545	孝靜帝	武定	3	陽原王	1	12	高→東魏○				※王位継承争い 欽明紀6年
546			4		2	11	高→東魏○				
547			5		3		高→東魏○				
548			6		4	1					高→百★、新、百を援助
					3		高→東魏○	梁→高◎ 侯景の乱			
549			7		5		高→東魏○			百→梁○	
					10						
550	文宣帝	天保	1		6	1					百→高口 高→百口、新→百☆
					3						
					5		※北斉建国				
					6		高→北斉○				
					9		北斉→高◎				
551			2		7	5	高→北斉○				新→高☆、十城を奪取
					9				突厥→高★		長安城を築城
552			3		8	1	北斉→庫莫奚☆				新→百☆
553			4		9						
					10		北斉→高、魏末の流入漢人の返還*『北斉書』記により改む 北斉→契丹☆				
554			5		10	冬					百→新★*聖明王戦死 高→百★
555			6		11	11	高→北斉○				
556			7		12						
557			8		13	1	北周、建国	陳、建国			九都城で反乱
					10						
558			9		14						
559	廢帝		10		15	3					楊原王死亡
560	(北斉) 孝昭帝	乾明 皇建	1	平原王 皇建	2	2	北斉→高◎ 北斉→庫莫奚☆				
561	武成帝	大寧	1		3	11		高→陳○			7.百→新★(濟紀) 562年記事と同一
562		河清	1		4	2		陳→高◎		陳→百◎	*新→大加耶滅亡 7.百→新★(羅紀) 561年記事と同一 *濟紀は562年 8.倭・百→高☆ 大伴連狭手彦、高句麗を討伐
					7						
					8						
563			2		5						
564			3		6	?	高→北斉○			新→北斉○	
565			4		7	2				北斉→新◎	
566	後主	天統	1		?		高→北斉○				
			2		8	12		高→陳○			
					?					新→陳○(羅紀のみ)	
567			3		9	9				百→北斉○	
					10						
					?					新→陳○(羅紀のみ)	
568			4		7					新→陳○	
					10					*黃草嶺碑、磨雲嶺碑立碑	
569			5		11	9					
570		武平	1		12	2			2.北斉→百◎		
					4		高→倭○(羅紀に添着【第1次】)			新→陳○	
					6						
					11		高→陳○				
					?		北斉→高口要遺業(要遺業集誌)				
571			2		13	1			北斉→百◎		
					2			*高→陳○(羅紀のみ)			
					5			高→陳○		新→陳○	
572			3		14	?			百・新羅→北斉○		
573			4		15	5	高→倭○【第2次】(放逐)				
					?		高→北斉○				
574			5		16	1		高→陳○			
					5		高→倭大嶋首盤日らを帶回【第3次】				

575			6		17	7					
576			7		18	10					
577	幼主 (北周) 武帝 宣帝	承光 建德 宣政	1 6 1		19	1 7 10 11 ?	北齊、北周により滅亡  高→隋○隋→高◎		百→陳○  百→隋○	百→陳○	百→新★
578		宣政	1		20	7 10			百→隋○	新→陳○	
579		大象	1			11					
580			2		22						
581	靜帝 隋文帝	大定 開皇	1 1		23	2 10 12	北周滅亡  高→隋○隋→高◎		百→隋○隋→百◎		
582			2		24	1 11	高→隋○ 高→隋○		百→隋○		
583			3		25	1 4 5	高→隋○ 高→隋○ 高→隋○				
584			4		26	春 11	高→隋○			百→陳○	
585			5		27	12		高→陳○			
586			6		28	9				百→陳○	長安城へ遷都
587			7		29						
588			8		30						
589			9		31			※陳、滅亡	百→隋○		
590			10		32	10	高→隋○ 隋→高◎				

百:百濟 新:新羅 ○:朝貢 ◎:爵位除授 ☆:交戦勝利 ★:交戦敗北 □:使者派遣

井上直樹 선생님의 「570年代 高句麗의 對倭外交와 高句麗·北齊 관계  
-新出 ‘裴遺業墓誌’의 검토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李成制(東北亞歷史財團)

발표자는 570년대 고구려의 대외외교가 개시된 배경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지난 2008년 그것이 ‘신라와의 대립에 가세하여 북제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점’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토론자가 종래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을 학계에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발표문은 新出 墓誌에 보이는 고구려와 북제의 관계를 토대로 발표자의 선행 연구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에 발표자의 이해가 가진 연구사적 의의를 먼저 언급해 두어야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이는 津田左右吉·李弘植이었다. 이들의 이해는 眞興王代 신라의 영역 확장, 즉 신라의 군사적 위협에서 원인을 찾았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여기에 대해 李成市의 연구는 동아시아사적 시각에서 고구려의 대외외교를 살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신라의 성장이 몰고온 위기는 군사적 위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對南北朝外交를 통해 고구려와 중국 남북조의 관계에 위협을 주었고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가 고구려를 대외외교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사적 흐름에서 보아 발표자의 연구는 ‘신라와의 대립을 전제로 하면서도 북제와의 관계 악화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왕의 이해를 토대로 삼고 있으면서도 독창적인 것이었다. 또한 570년대 중반 북제의 몰락 내용을 드러내어 당시 국제정세의 새로운 면을 드러내주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일별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568년을 기점으로 고구려의 반격으로 신라군은 쏠 전선에서 퇴각하게 되었고, 북제의 진흥왕 책봉(565)으로 양국 간에는 긴밀한 협력관계의 토대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후속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 과연 고구려의 대외외교가 이들 문제에 기인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즉 570년의 시점에서 고구려가 직면해 있던 과제란 신라의 성장이 몰고 온 대내외적 위기가 될 수 없다. 이 점에서 토론자는 고구려의 대외외교가 對症療法으로서의 대응이 아니라, 신라와 중국 세력의 연계라는 위협의 심각성에서 문제의 소재를 따져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고 보았다. 또한 그것이 왜에의 접근만이 아니라 陳과의 관계 개선까지 포괄하는 것이었으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었다고 이해하였다. 이러한 국가전략의 또 다른 모습이 장기적인 복안 아래 조영해 나갔던 長安城 축조였다.

이러한 토론자의 연구에 대해 발표자는 상세한 분석을 통해 반론을 제기하고 선행의 연구를 제차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문제로 나누어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1. 먼저 570년대 고구려의 대외외교는 제3차 사질 파견(574)을 끝으로 중단되었다는 이해와 관련, 발표자는 북제관계가 그 動因이었기 때문에 북제 문제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대외외교도 불필요해지게 되었다고 본다. 이것은 津田左右吉 이래의 연구자들이 대외외교 개시의 배경을 제각각 달리보면서도 일치된 이해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토론자는 574년 이후에도 대외외교가 이어졌다고 이해한다. 대외외교가 대증요법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외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단 토론자의 이해는 논외로 하더라도 대외외교의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관계 사료가 없다는 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교류의 기록이 20년 넘게 없다가 갑자기 595년이 되어 고구려승 慧慈가 聖德太子의 스승이 되었

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은 없지만 혜자의 渡倭에 앞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양국 관계의 진전 과정이 있었다고 상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진전 과정이 없었다고 본다면 과거 적국이었던 나라의 승려가 어떻게 倭 조정의 실력자 배후에 서게 되었던 것인지 설명해주기 바란다.

2. 眞興王巡狩碑의 건립과 北邊 州의 후퇴는 568년에 한꺼번에 진행되었다. 발표자는 568년 10월의 시점까지 신라가 北漢山州와 比列忽州를 두고 있어, 그때까지 이들 지역은 신라령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토론자가 중시했던 부분은 신라의 군사적 위협, 즉 고구려가 한강유역과 동해안 북부 지역을 빼앗겼던 전황이 568년 10월을 기점으로 역전되었다는 사실이다. 신라 南川州(利川)와 達忽州(高城)로의 이전은 어느 한쪽 방향이 아닌 쏠 전선에서의 후퇴가 이 시점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입장에서 신라의 군사적 위협이 갖는 의미를 본다면, 어느 쪽이 강조되어야 하는 점은 분명하다고 본다. 북변주의 치폐 사료에도 불구하고 568년 10월 무렵 신라 세력이 후퇴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까닭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주기 바란다.

3. ‘이성제씨는) 570년대 고구려와 북제의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565년 북제의 진흥왕 책봉에 앞서 552(3)년 유민 송환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되어 갔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분하여 살필 필요가 있겠다.

우선 진흥왕에게 ‘東夷校尉’직을 포함한 책봉호가 수여되었다는 사실이 종래의 연구에서 주목되어온 바다(三崎良章, 노태돈). 그러나 그에 앞서 552(3)의 유민 송환이 결과했던 바에도 관심이 베풀어져야 한다고 본다(이성제, 2001). “北齊廢帝封王 爲使持節·護東夷校尉·遼東郡公·高句麗王”(『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平原王 2(560)年 春二月)의 기록은 고구려와 북중국왕조 간의 안정적 관계를 보여주는 잣대라고 하는 ‘동이교위’ 책봉호가 고구려왕에게 수여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민의 송환 이후 양국 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갔다는 근거는 어디있는지 발표자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의 기록은 564년 신라의 북제 조공과 이듬해 북제의 책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신라의 대북제 외교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반면 북제는 신라의 군사적 성공이 한창이던 560년의 시점에도 신라에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564년 신라의 조공이 이르고서야 비로소 고구려를 배후에서 압박할 세력으로 보게 되었다. 고구려가 직면했던 대외적 위기에서 신라 문제를 우선시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신라와 같이 고구려세력권 내에 있었거나 그렇게 간주되었던 세력이 고구려에 적대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중국세력과 연계하게 되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발표자는 570년대 고구려가 직면하고 있던 대외적 위기에서 무엇보다 북제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제의 위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에 따라 고구려의 대응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북제 문제의 중요성도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고구려와 북제의 관계에서 고구려가 565년의 사절 파견 이후 8년만인 573년 사절을 보낸 것을 두고 관계 개선의 노력이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토론자는 북제 문제는 고구려가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인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북제의 관심이 신라에서 백제로 옮겨갔다는 것(威德王 책봉, 571년)은 북제의 외교적 책략이 고구려의 배후세력과 연계하여 고구려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었음

말하여 주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고구려는 왜와 陳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4. 신라와 진의 관계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토론자가 신라의 對陳外交를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토론자는 신라의 대진외교가 ‘일반적인(誤記) -> 일방적인’ 사절 파견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해한다. 신라의 진에 대한 접근은 분명 고구려에게 경각심을 주었을 것이다. 결코 그 동향에 무관심했다고 본 것이 아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움직임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는 신라의 조공에도 불구하고 진의 책봉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신라의 접근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그것이 고구려의 대외관계에는 어떤 문제를 주었는가 하는 점이 당시 고구려를 둘러싼 대외정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제일터인데, 신라는 그 출발점이라고 할 책봉조공관계의 성립조차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반면 비교적 소원했던 고구려와 진의 관계(562년 책봉)에서는 고구려의 사절 파견이 보이며, 그것이 570년의 시점이라는 점에 중시했던 것이다.

5. 발표자가 소개한 <裴遺業墓誌>는 문제의 570년 대 양국관계를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이 간다. 특히 이 묘지에는 묘주의 이력을 언급하는 가운데 고구려에의 사행 성과를 기술하고 있어 흥미롭다. 내용상 북제가 고구려에 사자를 보냈던 것으로 이 부분은 사서에 전하지 않는 내용임에 분명하다. 발표자는 그 성과로서 ‘긴장상태에 있던 양국 관계를 이 사행으로 개선시켰다고’ 이해하고 있다. 표현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개선’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주기 바란다. 양호(?)하지 않은 관계를 고구려가 개선하려 했다면 모를까, 북제쪽이라는 점에서 보충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묘지의 ‘昔南越喻旨 遂受金裝 西域鑿空 止伝邛杖 豈如申威万里 剋服九夷 既有玄菟之功 不賣盧龍之賞’ 부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고구려에 압력을 가해 북제가 원했던 바를 얻었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과연 ‘반란없이 조공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또한 묘주의 사망년도는 590년으로 진을 멸하여 수가 통일한 이듬해가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통일제국 수의 등장에 대해 고구려가 방어태세를 갖추었고 이를 수가 비판한 기사가 떠오른다. 고구려 사행의 이력이 특필되었던 데에는 이러한 묘주 사망시기의 사회분위기가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

## 3-5世紀東北亞諸民族·政權的關係研究

### ——以高句麗中期歷史為中心——

孫 泓

西元3 - 5世紀，是東北亞地區政權極其混亂的時期，由於中國中央政權的衰落，引起群雄爭霸，中國中原地區有西晉、東晉政權，北方則有五胡十六國，各勢力都在加緊擴張勢力，處於群龍無首的狀態。而朝鮮半島也處於新羅、百濟、伽倻諸政權分立，互爭長短之時。倭（日本）爲了擴張勢力，也將觸角伸向了朝鮮半島。

而高句麗在這一時期爲了自身的發展，採取和平外交和對外征戰相結合的政策，與魏、晉、前秦、前燕、北燕、後燕、樂浪郡的佟壽、慕容鎮政權都建立的聯繫。並利用局勢的混亂，展開西進、南進的擴張政策，向西佔領遼東郡，向南佔有樂浪郡、帶方，將勢力擴展到大同江流域。並利用半島內有新羅、百濟爭雄，外有倭侵略，新羅、百濟需要依靠高句麗來抵禦倭入侵的時機進一步控制了半島南部，直至427年遷都半島北部的平壤，在東北亞地區的角逐中取得勝利，成爲橫跨今中朝兩國國土的強大政權，爲中朝韓三國人民留下了大量的優秀文化遺產。

本文討論的時間段爲246年至427年，因爲246年田丘儉征高句麗，決定了高句麗與魏晉的關係。427年高句麗遷都平壤，高句麗歷史也展開了新的紀元。

擬圍繞三個階段展開討論：

#### 一、西元246年—313年

高句麗早在西元前二世紀，即朱蒙以前，就隸屬於漢玄菟郡。據《三國志·高句麗傳》記載：“高句麗……本涓奴部爲王，稍微弱，今桂婁部代之。漢時賜鼓吹伎人，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高句麗令主其名籍。”說明高句麗最初是隸屬於漢玄菟郡，是由漢玄菟郡高句麗縣令主其名籍。

等到王莽夺取汉政权后，推行歧视外族的外交政策，激化了边境各族的矛盾。据《汉书·匈奴传》记载“王莽之篡位也，建国元年，遣五威将王骏率甄阜、王飒、陈饶、帛敞、丁业六人，多赍金帛，重遗单于，谕晓以受命代汉状，因易单于故印。”并把许多少数民族的首领的政治地位都给降低了。据《汉书》卷九十九《王莽传》记载：“莽策命曰：‘普天之下，迄于四表，靡所不至。’其东出者，至玄菟、乐浪、高句骊、夫馀；南出者，逾徼外，历益州，贬句町王为侯；西出者，至西域，尽改其王为侯；北出者，至匈奴庭，授单于印，改汉印文，去‘玺’曰‘章’。”匈奴、西域因此挑畔滋事，王莽“發高句麗兵以伐匈奴，不欲行，強迫遣之，皆亡出塞爲寇盜。……尤誘期句麗侯駒至而斬之，傳送其首詣長安。莽大悅，佈告天下，更名高句麗爲下句麗。當此時爲侯國，漢光武帝八年，高句麗王遣使朝貢，始見稱王。”據此記載可知，因高句麗不願奉命發兵伐胡，紛紛逃亡塞外，追殺的汉朝辽西官员也被杀，王莽迁怒于高句麗侯，將高句麗改爲下句麗，並將其王降爲侯，表明了王莽對高句麗的統屬關係。<sup>1)</sup>

东汉建立后，开始逐步收复辽东和朝鲜半岛北部，高句麗审时度势，决定与汉修好，于漢建

1) 《漢書·王莽傳》。

武八年（高句麗大武神王三十五年、西元32年），遣使到漢朝貢，漢光武帝恢復了其王位。<sup>2)</sup>在後漢一百八十餘年中，高句麗和漢相互間僅發生過十餘次衝突，為時不過十餘年。<sup>3)</sup>其餘極大部分時間，高句麗都是臣屬於漢，或隸於遼東郡，或屬於玄菟郡。

隨著政局的變化，高句麗與中原王朝的關係物件也不斷發生變化，先後與後漢、公孫氏割據勢力、吳、魏、晉、慕容鮮卑建立了聯繫。

從西元246年田丘儉征高句麗到313年高句麗占樂浪郡的67年間（高句麗山上王、東川王、中、西、烽上王、美川王時期），主要是與魏、西晉的關係。

首先，考察高句麗與魏的關係。延康二年（高句麗山上王二十四年、西元220年），魏代漢，建立政權。高句麗和魏建立了聯繫，延康二年三月，穢貊、夫餘……皆各遣使奉獻。<sup>4)</sup>青龍二年（高句麗東川王八年，西元234年），魏遣使至高句麗和親。青龍四年（西元236年），吳王孫權遣使者胡衛通和，高句麗留其使，後斬之，傳首于魏。<sup>5)</sup>景初元年（西元237年），高句麗遣使如魏，賀改年號。景初二年（西元238年）魏太傅司馬宣王率眾討公孫淵，高句麗王（東川王）遣主簿大加將兵一千人助之。<sup>6)</sup>田丘儉滅公孫淵，消除了公孫淵在遼東的割據勢力，收復了遼東，加強了對樂浪郡、帶方郡的統治，自此，高句麗與魏之間的矛盾已經逐漸顯露，為田丘儉攻打高句麗做了鋪墊。

魏正始三年（西元242年），高句麗遣將襲破遼東郡西安平縣，此即《田丘儉紀功碑》所記正始三年，高句麗反。正始五年（西元244年），田丘儉攻高句麗，連敗於沸流水（今富爾江）及梁貊之谷（今太子河），高句麗王輕敵，最後決戰時，儉為方陣決死而戰，高句麗兵大潰，儉乘勝攻陷丸都城（今集安市）。高句麗王宮逃奔南沃沮（今鹹鏡道）。正始六年（西元245年）儉復遣玄菟太守王碩追之，過沃沮千有餘裏，至肅慎氏南界刻石紀功。刊丸都之山，銘不耐之城。正始七年（246年）報捷于魏帝。因此，《魏書·三少帝紀》及《資治通鑒》、《三國史記·高句麗紀》都記載此戰於正始七年、高句麗山上王二十年（西元246年）。現據《三國志·田丘儉傳》、《三國志·高句麗傳》及《田丘儉紀功碑》補正。<sup>7)</sup>其後高句麗復通中原<sup>8)</sup>，魏甘露四年（高句麗中川王十二年，西元259年）魏將尉遲棣伐高句麗，敗于梁貊之穀<sup>9)</sup>。這兩次戰役給高句麗帶來了沉重的打擊，自此一蹶不振。

通觀曹魏之世，高句麗先后與魏田丘儉及尉遲棣發生過兩次戰爭，前後共五年，其餘數十年都是以和平臣服為主。<sup>10)</sup>

其次，考察高句麗與西晉的關係。265年，西晉建立。在西晉初年，晉朝對邊疆各族採取招撫政策，為有效地統轄和管理活動在东北地区中、东部的“东夷”诸族，西晉政府曾于辽东地区置设“护东夷校尉”，高句麗、夫余、沃沮等均受其管辖和节制。當時，高句麗方為魏田丘儉所破後不久，元氣大傷，一蹶不振，無力與西晉抗衡，因此高句麗一直恭順臣服于晉。歷年發現的“晉高句麗率善邑長”、“晉高句麗率善任長”、“晉高句麗率善佰長”之印<sup>11)</sup>，表明在西晉時，不僅高句麗王受封于中央，連高句麗的各級地方官員也是由晉發給印璽，說明高句麗與西晉的關係是非常緊密的。

及至西晉後期，中央王朝衰弱，中原戰爭頻繁，“永嘉之亂”发生后，中央王朝无暇顾及东北，鮮卑慕容氏遂崛起于辽西。高句麗遂乘機侵佔土地，掠獲人口。晉太安元年（高句麗美川王

2) 《後漢書·高句麗傳》。

3) 《後漢書·高句麗傳》。

4) 《三國志·魏書·文帝紀》。

5) 《三國史記·高句麗紀·東川王》。

6) 《三國史記·高句麗紀·東川王》。

7) 周國林：《對田丘儉功碑考略的一點異議》，《中國文物報》第24期1988年6月17日。

8) 《三國志·高句麗傳》。

9) 《三國史記·高句麗紀》。

10) 《三國志·高句麗傳》、《三國史記·高句麗紀》中川王十二年。

11) 瞿中溶：《集古官印考證》。

三年、西元302年），高句麗王率兵三萬侵玄菟郡，虜獲八千人，移之平壤（今集安境、非大同江之平壤）。晉永嘉五年（高句麗美川王十二年、西元311年），高句麗遣將襲取西安平縣。晉建興元年（高句麗美川王十四年、西元313年），高句麗侵佔晉樂浪郡，虜獲男女二千餘口。晉建興二年（西元314年），高句麗南侵晉帶方郡。晉建興三年，高句麗攻破玄菟城，殺獲甚眾。<sup>12)</sup>美川王乙弗利之頻寇晉州郡，先後占取了晉的樂浪郡、帶方郡、玄菟郡等地，掠取了大量漢人。高句麗成爲當時中國境內同其他十餘個地方割據政權漢、燕等一樣的地方割據政權。

第三，考察高句麗占樂浪、帶方郡。高句麗很早就企圖向朝鮮半島擴張勢力。西元37年，一度攻佔漢的樂浪郡。但西元44年，漢光武帝遣兵渡海，伐樂浪，取其地爲郡縣，薩水（今清川江上游）以南屬漢，收復了樂浪郡。

高句麗又曾一度征服朝鮮半島東北部的沃沮。據《三國志·東夷傳》記載：“（沃沮）其國迫小，介於大國之間，遂臣屬高句麗。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以相監領，責其租稅。貂布魚鹽及海中食物，千里擔負致之。又送其美女爲婢妾，遇之如奴僕。魏正始中，毌丘儉討句麗，句麗王宮奔沃沮，遂進師擊之，沃沮邑落皆破。”

西元313年，高句麗趁西晉末年衰落，八王之亂，攻佔了晉的樂浪郡、帶方郡，開始進入朝鮮半島。樂浪郡的漢人部分北徙中國，部分南徙百濟、新羅、日本，部分留居大同江流域。

據《三國史記·高句麗紀》記載：“美川王十四年（西元313年）冬十月，侵樂浪郡，虜獲男女二千餘口。十五年（西元314年）秋九月南侵帶方郡。”

《資治通鑒·晉紀十》亦載：“晉帝建興元年（西元313年），遼東張統據樂浪、帶方二郡，與高句麗王乙弗利相攻，連年不解。樂浪王遵說統帥其民千餘家歸廆，廆爲之置樂浪郡（於遼西），以統爲太守，遵參軍事。”

從史料記載可知，高句麗美川王時期曾經從樂浪虜獲二千餘口，而高句麗乙弗利時期，遼東的張統曾經帶領樂浪、帶方千余戶投奔慕容廆，慕容廆在遼西設立樂浪郡來安置他們，並任命張統爲樂浪太守。

另據《魏書·地理志》記載：“樂浪郡……治連城。”連城應該就是河連城。據《水經注》卷十四記載：“渝水首受白狼水，西南循山徑一故城西，世以爲河連城，疑即‘侯水北入渝’者也。《十三州志》曰：‘侯水南入渝’，《地理志》蓋言自北而南也。”據《東北歷史地理》卷二考證雲：“此侯水當爲今西遼河，白狼水爲今大凌河上游，渝水爲今牴牛河及大凌河下游。據此，河連城應在大凌河匯合牴牛河後，而未匯合西河前的一段河道上，應在今遼寧義縣境內。水徑故城西，則城在河之東。”<sup>13)</sup>又據《東北歷史地理》卷二考證：“萬佛堂石窟在義縣西北十九裏萬佛堂村大凌河北岸……東區第五窟內有《北魏韓貞造像題記》，題記中有‘於帶方之右，沃黎之西建造私窟’，……則帶方郡當在今義縣紅牆子、今萬佛堂之西。”<sup>14)</sup>

根據以上考證可知，樂浪郡及帶方郡於西元313年遷至遼西，張統所率的樂浪和帶方二郡的移民及美川王所虜獲的二千餘口，是樂浪郡民北遷的一部分，是從朝鮮半島遷居到今天吉林集安附近。

高句麗佔領樂浪、帶方等郡後，漢族勢力退至遼西，而高句麗的統治勢力還未進入樂浪郡，形成近百年的真空，佟壽和慕容盛先後佔據了這一地區。總的來說，在西元4世紀以前，高句麗基本上還未進入朝鮮半島。

第四，考察慕容鮮卑和高句麗的淵源。早在高句麗族剛形成時，就和鮮卑族發生了關係。據《三國史記·高句麗紀》記載：“琉璃明王三十一年（西元前9年）鮮卑恃險，不和我親，利則出抄，不利則入守，爲國之患（王用扶芬奴計）。攻下其城，鮮卑降爲屬國。”西元二世紀，鮮卑、穢貊連年寇鈔東漢邊郡，驅掠小民，動以千數。<sup>15)</sup>《三國志·高句麗傳》載：“自伯固時（高

12) 《三國史記·高句麗紀》、《資治通鑒·晉紀》。

13) 孫進己等：《東北歷史地理》卷二，黑龍江人民出版社1987年版。

14) 孫進己等：《東北歷史地理》卷二，黑龍江人民出版社1987年版。

15) 《後漢書·高句麗傳》。

句麗新大王，西元165—179年），數寇遼東，又受亡胡五百餘家。建安中（西元196—），拔奇怨爲兄而不得立，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余詣康降，還住沸流水，降胡亦叛伊夷模。”這裏所說的胡，應該指的就是鮮卑，因爲鮮卑屬於東胡系，故亦稱胡。但此鮮卑應該不是鮮卑慕容部，因爲慕容鮮卑的勢力還達不到這一地區。

晉代鮮卑強盛，企圖借西晉末年統治勢力衰落之機進軍遼東，鮮卑慕容部和高句麗圍繞遼東地區展開了連年征戰。據《三國史記·高句麗紀五》記載：“烽上王三年（西元293年）慕容廆來侵，王欲往新城避賊，行至鵠林。慕容廆知王出，引兵追之，將及，王懼，時新城宰北部小兄高奴子領五百騎迎王，逢賊奮擊之。廆軍敗退。五年（西元296年）慕容廆來侵，至故國原，見西川王墓，使人發之。王謂群臣曰：‘慕容氏兵馬強盛屢犯我疆場，爲之奈何？’”“後從國相倉助利計，以高奴子爲新城太守，廆不復來寇。”“及（高句麗美川王）乙弗利頻寇遼東，廆不能制。”<sup>16)</sup>

從史料記載可以看出，高句麗和鮮卑雖然早有矛盾，但還是屬於中國大陸內部的矛盾，主要是爲了爭奪遼東而展開，雙方互有攻伐侵擾，又有和平相處。

## 二、西元314年—394年

313年，高句麗占樂浪郡後，漢族勢力退至遼西投奔鮮卑，慕容廆設樂浪郡、帶方郡（張統）。由於受到前燕與前秦的阻撓，高句麗雖然佔領了半島北部，但還無力實行有效的統治，形成近百年的真空。

314年西晉滅亡、東晉建立，到394年前秦滅亡，共計80年，主要是高句麗的美川王、故國原王、小獸林王、故國壤王、廣開土王時期，這一時期主要是高句麗與前秦、前燕及東晉、後趙的關係。

首先，考察高句麗和東晉、後趙的關係。高句麗自建國以後，就與中國中央王朝保持密切的往來，隨著中國中央王朝政權的更替、分裂割據，高句麗也不斷變換交往物件，甚至同時與數個政權保持聯繫。當其中某一政權取得正統資格時，高句麗便立即向其稱臣朝貢，高句麗先後向東晉、趙、燕、秦朝貢。

東晉太興初（西元318年）晉平州刺史崔毖自以中州人望，鎮遼東，而士民多歸慕容廆，心不平。乃陰說高句麗、段氏、宇文氏，使共攻之，約取其地分之，廆使離間計，高句麗中途引兵歸。次年慕容廆占遼東，崔毖奔高句麗。高句麗王數遣兵寇遼東，慕容廆遣慕容翰、慕容仁伐之，高句麗王求盟，翰、仁乃還。<sup>17)</sup>

後趙建平元年（高句麗美川王三十年、西元330年），高句麗遣使朝貢于後趙，致其楛矢。東晉咸康二年（高句麗故國原王六年、西元336年），遣使如晉貢方物。<sup>18)</sup>東晉咸康四年（西元338年），趙王虎擬討伐慕容氏，以船三萬艘，運穀三十萬斛詣高句麗，使典農中郎將王典眾萬余屯田海濱。<sup>19)</sup>可見當時高句麗同時臣屬於趙和晉，並朝貢于趙和晉，接受趙在其地貯存軍糧，以備攻慕容氏。這也爲慕容氏日後攻打高句麗埋下了隱患。

其次，考察高句麗與前燕的關係。前文已經提及了初期高句麗與鮮卑的淵源和關係。及至337年，鮮卑慕容部逐漸強盛，慕容皝稱王，建立前燕，高句麗與鮮卑慕容部也就展開了連年的征戰。

晉咸康五年（高句麗故國原王九年、西元339年），燕王皝侵高句麗，兵及新城，高句麗王乞盟，燕兵乃還。晉咸康六年（高句麗故國原王十年、西元340年）王遣世子朝于燕王皝。

晉咸康八年（故國原王十二年、西元342年）慕容皝率勁兵四萬，入自南陝，以伐高句麗。

16) 《北史·高句麗傳》。

17) 《資治通鑑·晉紀》、《三國史記·高句麗紀》、《晉書·慕容載記》。

18) 《三國史記·高句麗紀》。

19) 《資治通鑑·晉紀》。

使翰及子垂爲前鋒，遣長史王寓等勒眾萬五千，從北道而進。高句麗王釗謂皝軍之從北路也，乃使其弟武統精銳五萬拒北道。躬率弱卒以防南陝。翰與釗戰於木底，大敗之，乘勝遂入丸都，釗單馬而遁。皝掘釗父乙弗利墓，載其屍並其母妻珍寶，掠男女五萬餘口，焚其宮室，毀丸都而歸。<sup>20)</sup>這五萬餘口高句麗人當置於遼西。封裕諫慕容皝書稱：“句麗、百濟及宇文，段部之人皆兵勢所致……今戶垂十萬，狹湊都城。恐方將爲國家深害，宜分其兄弟諸屬，徙于西境諸城。”<sup>21)</sup>這五萬餘口高句麗人居住于燕之都城（今朝陽）與鮮卑人雜居，長期密切交流，逐漸融合。

故國原王十三年（西元343年）王遣其弟稱臣入朝于燕，貢珍異以升數。燕王皝乃還其父屍，獨留其母爲質。十五年（西元345年）燕王廆使慕容恪來攻，拔南蘇，置戍而還。二十五年（西元355年）王遣使詣燕納質修貢，以請其母。燕王雋許之。……

高句麗故國壤王及廣開土王年間，高句麗和慕容燕爲爭奪遼東、玄菟連年爭戰。故國壤王二年（西元385年）高句麗陷遼東、玄菟，但不到半年，爲後燕慕容農所收復。

由於高句麗在與北燕的連年戰爭中，處於劣勢，高句麗奉行燕的年號，接受燕冊封的征東大將軍、營州刺史、封樂浪郡公，王如故。<sup>22)</sup>這裏征東大將軍是中央官職，營州刺史是地方官職，樂浪郡公是爵位，高句麗王是藩國封爵。這種具有多種性質的封號，表明了當時高句麗不僅是燕的藩國，同時又是燕的一個地方政權。

這一時期鮮卑人及鮮卑化的漢人大批遷到朝鮮半島，對當時朝鮮半島的三國：高句麗、新羅、百濟都產生了巨大的影響，給以後朝鮮三國的文化留下了濃厚的鮮卑文化因素。

第三，考察高句麗與佟壽的關係。佟壽是前燕時的遼東司馬，是遼東平郭人。據《資治通鑒》記載佟壽由於戰亂與政事於336年亡命高句麗。具體考察如下：

據《晉書》卷一百九《載記第九》記載：慕容皝即位初年（西元334年）和弟弟慕容仁發生內戰，“初，皝庶兄建威翰驍武有雄才，素爲皝所忌，母弟征虜仁、廣武昭並有寵於廆，皝亦不平之。及廆卒，並懼不自容。至此，翰出奔段遼，仁勸昭舉兵廢皝。皝殺昭，遣使按檢仁之虛實，遇仁於險瀆。仁知事發，殺皝使，東歸平郭。皝遣其弟建武幼、司馬佟壽等討之。仁盡眾距戰，幼等大敗，皆沒於仁。襄平令王冰、將軍孫機以遼東叛於皝，東夷校尉封抽、護軍乙逸、遼東相韓矯、玄菟太守高詡等棄城奔還。仁於是盡有遼左之地，自稱車騎將軍、平州刺史、遼東公。宇文歸、段遼及鮮卑諸部並爲之援。”

另據《資治通鑒》<sup>23)</sup>卷九十五記載“……或以仁、昭之謀告皝，皝未之信，遣使按驗。仁兵已至黃水，知事露，殺使者，還據平郭。皝賜昭死，遣軍祭酒封奕慰撫遼東，以高詡爲廣武將軍，將兵五千與庶弟建武將軍幼、稚、廣威將軍軍、甯遠將軍汗、司馬遼東佟壽共討仁。與仁戰於汶城北，皝兵大敗，幼、稚、軍皆爲仁所獲。壽嘗爲仁司馬，遂降於仁。前大農孫機等舉遼東城以應仁。封奕不得入，與汗俱還。東夷校尉封抽、護軍平原乙逸、遼東相太原韓矯皆棄城走，於是仁盡有遼東之地；段遼及鮮卑諸部皆與仁遙相應援。皝追思皇甫真之言，以真爲平州別駕。”《通鑒紀事本末》<sup>24)</sup>亦有相同記載。

而據《資治通鑒》<sup>25)</sup>卷九十五記載：“……帳下皆叛，遂擒之。皝先爲斬其帳下之叛者，然後賜仁死。丁衡、游毅、孫機等，皆仁所信用也，皝執而斬之；王冰自殺。慕容幼、慕容稚、佟壽、郭充、翟楷、龐鑿皆東走，幼中道而還；皝兵追及楷、鑿，斬之；壽、充奔高麗。自餘吏民爲仁所誑誤者，皝皆赦之。封高詡爲汝陽侯。”

20) 此事《晉書》、《北史》均系于咸康七年、建國四年，爲西元341年，但《資治通鑒》、《十六國春秋》、《三國史記》則均系于咸康八年（西元342年），現從後者。

21) 《晉書·慕容廆載記》，《十六國春秋·前燕錄·慕容廆》。

22) 《晉書·慕容皝載記》，《資治通鑒·晉紀》。

23) 武英殿本。

24) 宋·袁樞《通鑒紀事本末》卷十四/四部叢刊本。

25) 世界書局影印鄱陽胡氏本。

對比史料，可以看出，各書對佟壽的記載略有不同，《晉書》僅載明他的官職，而武英殿本《資治通鑑》、《通鑑紀事本末》則進一步明確了他的籍貫為遼東，並載“壽嘗為仁司馬，遂降於仁。”而世界書局影印鄱陽胡氏本更明確記載，仁死後，“壽、充奔高麗”。

當時高句麗還沒有遷都平壤，而晉的樂浪郡勢力已經退出平壤地區，佟壽就得以佔據了朝鮮半島的北部廣大地區，並臣服於東晉。但是高句麗是臣服于前燕，因此，東晉政權不僅承認朝鮮半島北部地方歸佟壽所有，而且把中國的遼東、遼西等地（當時分別歸高句麗和慕容燕所占）也封給佟壽。這可以從朝鮮半島黃海北道安嶽郡發現的佟壽墓的墓誌銘中得到證明，墓誌銘如下：

“永和十三年十月戊子朔廿六日□□  
使持節都督諸軍事平東將軍護夷校尉樂浪□  
昌黎玄菟帶方太守都  
□□幽州遼東平郭  
□ 鄉敬上黑冬壽守□  
□ 年六十九薨官”<sup>26)</sup>

佟壽被東晉封為樂浪公，兼玄菟（遼東地區）、昌黎（遼西地區）、帶方（朝鮮半島中部）三郡的太守，說明了佟壽當時力量的強大。佟壽死於永和十三年（西元357年），永和為東晉年號，佟壽的後代統治半島北部地方到什麼時候查不到有關資料。

東晉封其為“使持節都督諸軍事平東將軍護夷校尉樂浪相昌黎、玄菟、帶方太守都鄉侯”。前半段官職是晉以前封高句麗王的，這時因為高句麗改稱臣于燕，故晉以之封佟壽。後半段的官職，因為昌黎當時是為燕所占，玄菟、樂浪、帶方郡為高句麗所占，都不在佟壽的轄土之內，而東晉以之封佟壽，是表明東晉不承認燕和高句麗對這一地區的佔有，而希望佟壽去佔有這些地方，希望借扶植佟壽，讓他代表晉統治樂浪地區。

第四，考察高句麗與前秦的關係。370年，前秦滅燕，燕部分遺民隨幽州刺史鎮逃到半島北部，後投靠高句麗。由於前秦的壓制，高句麗未能向西、向南擴張勢力。高句麗為了自己的擴張政策，對前秦採取了懷柔政策，與前秦建立了聯繫。從史料的相關記載可以看出前秦與高句麗的關係。

前秦建元六年（高句麗故國原王四十年、西元370年），秦王猛伐燕，燕太傅慕容評奔高句麗，高句麗執之，送于秦。秦建元八年（高句麗小獸林王二年、西元372年）秦主苻堅遣使及浮屠順道送佛像經文，高句麗王遣使回謝，以貢方物。秦建元十三年（高句麗小獸林王十年、西元377年）高句麗、新羅、西南夷皆遣使入貢于秦。秦建元十六年（高句麗小獸林王十年、西元380年）秦幽州刺史行唐公洛謀反，分遣使者徵兵于鮮卑、烏桓、高句麗、百濟、新羅、休忍諸國。諸國皆曰：“吾為天子守藩，不能助行唐公為逆。”<sup>27)</sup>這表明當時高句麗自認為是前秦的藩國。

385年後燕與高句麗爭奪遼東，高句麗取勝，取得了南進的資本。

386年，北魏建立，它與高句麗之間隔後燕、北燕，並沒有直接聯繫。

### 三、西元395—427年

相當於高句麗廣開土王、長壽王時期，主要是高句麗與後燕、北燕、幽州刺史鎮、新羅、百濟、倭的關係。

這一階段前秦滅亡，後燕占遼西，高句麗和後燕爭遼東，404年高句麗開始西進佔玄菟郡、遼東郡。南進佔樂浪、帶方郡。由於倭打擊新羅、百濟，新羅、百濟向高句麗求援，高句麗趁機南進佔領大同江，遷都平壤。開始與新羅、百濟建立聯繫。這一時期與新羅的關係，主要是高句麗出兵救援新羅，擊潰侵新羅的倭軍，新羅為表感謝向高句麗朝貢。與百濟主要是為擴張領土，

26) (朝) 都有浩：《在朝鮮安嶽發現的一些高句麗古墳》，《文化遺產》創刊號，1949年12月，中譯文見《文物參考資料》1952年1期。

27) 《資治通鑑卷一百四·晉紀》。

爭得晉帶方郡之地而戰。百濟和高句麗的關係，實際上是高句麗佔領半島北部後，繼續向南侵略百濟的歷史。西元四世紀，高句麗南占晉樂浪郡、帶方郡，進入朝鮮半島。倭也於西元四世紀後期向北侵佔新羅、百濟地。高句麗出兵援新羅，擊退百濟、倭兵。高句麗和倭才正式有了接觸。

首先，考察高句麗與後燕、北燕的關係。高句麗與後燕、北燕的關係，主要是圍繞爭奪遼東而展開。

西元384年，慕容垂乘符秦衰，起兵，建後燕，命帶方王佐鎮龍城。高句麗故國壤王二年（西元385年）高句麗王出兵四萬襲遼東，佐聞高句麗軍襲遼東，遣司馬郝景將兵救之。高句麗軍擊敗之，遂陷遼東、玄菟，虜男女一萬口而還。冬十一月慕容農將兵，復遼東、玄菟二郡。初幽冀流民多投高句麗，慕容垂遣慕容農以范陽龐淵為遼東太守，招撫之<sup>28)</sup>。西元396年，慕容垂子寶繼位，以句麗王安為平州牧，封遼東、帶方二國王。高句麗始置長史、司馬、參軍官，後略有遼東郡。<sup>29)</sup>是時高句麗為後燕屬國。

後燕長樂二年（高句麗廣開土王九年、西元400年）春正月，高句麗遣使入後燕朝貢。二月，燕王盛以高句麗王禮慢，自將兵三萬襲之。以慕容熙為前鋒，拔新城、南蘇二城。拓地七百餘裏，徙五千餘戶而還。後燕光始二年（西元402年）高句麗王遣兵攻宿軍，燕平州刺史慕容歸棄城走。光始四年（西元404年）冬十一月，高句麗出師侵燕。光始五年（高句麗廣開土王十四年、西元405年）春正月，燕王熙攻高句麗所占之遼東城，且陷。熙命將士毋得先登，俟剽平其城，朕與皇后乘輿而入。由是城中得嚴備，卒不克而還。光始六年（西元406年）燕王熙襲契丹，至陜北。畏契丹之眾，還。遂棄輜重，輕兵襲高句麗。燕軍行三千餘裏，士馬疲凍，死者屬路，攻木底城，不克而還。

正始二年（高句麗廣開土王十七年、西元408年）北燕高雲即位，雲本高句麗人，祖父高和，高麗之支屬。慕容寶以為養子，賜姓慕容氏。馮跋之起兵殺慕容熙，立之為主，是為北燕。後為馮跋所代。高句麗遣使北燕，且敘宗族。北燕王遣侍禦使李拔報之<sup>30)</sup>。

此時，高句麗和當時的北燕一樣，成為中國的一個地方割據政權。但東晉義熙九年（高句麗長壽王元年，西元413年），復遣長史高翼入晉奉表，獻赭白馬。安帝封王為高句麗王、樂安郡公，<sup>31)</sup>高句麗國復為晉之屬國。

其次，考察高句麗與幽州刺史鎮的關係。鎮是前燕的重要官員，曾任前燕的幽州刺史，管轄幽州十三郡，前燕滅亡（西元370年）鎮帶領大量鮮卑人遷到朝鮮半島北部，高句麗封之為“國小大兄”、“中裏都督”，鎮死於高句麗永樂十八年（西元408年），墓葬在今朝鮮平安南道大安市德興裏<sup>32)</sup>，墨書題記位於前室北壁、過道口上方：

“□□郡信都都鄉□甘裏  
釋加文佛弟子□□氏鎮仕  
位建威將軍小大兄左將軍  
龍驤將軍遼東太守使持  
節東校尉幽州刺史鎮  
年七十七薨以永樂十八年  
太歲在戊申十二月辛酉朔廿五日  
乙酉成遷移玉柩周公相地  
孔子擇日武王時歲使一  
良葬送之富及七世子孫

28) 《三國史記》卷十八、《晉書·慕容載記》。

29) 《北史·高句麗傳》。

30) 《三國史記·高句麗紀》。

31) 《晉書》，《冊府元龜·胡關》。

32) 劉永智：《幽州刺史墓》，《歷史研究》1983年2期；孫進己、孫泓：《西元3~7世紀集安與平壤地區壁畫墓的族屬與分期》，《北方文物》2007年4期。

番昌仕宦日遷位至侯王  
造藏萬功日煞牛羊酒米粢  
不可盡且食鹽豉食一記  
世寓寄無”

共計14行154字。永樂十八年（西元408年）系高句麗廣開土王的年號。墓主人名鎮而姓氏漫漶不清，所記“國大小兄”為高句麗的官職，其他基本屬於中國魏晉時期的制度。此墓曾被多次盜掘，隨葬品無可考。”<sup>33)</sup>

查幽州刺史鎮所任官職，除小大兄外，均為前燕官職，應該是在前燕滅亡後帶領部分人來到大同江流域，前期是佟壽佔領了這一地區，佟壽死後，幽州刺史鎮接替佟壽成為這一地區的實際統治者。這一時期高句麗開始向大同江流域擴張，但統治勢力還沒有達到這一地區，所以鎮的官職主要是晉冊封的。在404年高句麗完全佔領大同江流域以後，鎮才先後被封為小、大兄，並奉高句麗年號。但因其408年去世，所以高句麗的官只至小大兄。

從幽州刺史鎮卒于408年，享年77歲來推算，他生於331年，慕容皝時期他還太小（6-17歲），不可能擔任幽州刺史，慕容德、慕容超時期他又太老（67-77歲），也不可能擔任幽州刺史，所以唯有可能的是慕容暉時期，他的年紀在29-39歲之間，正值壯年，出任幽州刺史完全可能。在370年前燕滅亡以後投奔高句麗，來到大同江流域。由於前燕滅亡，所以不見於記載。<sup>34)</sup>

第三，考察高句麗與新羅的關係。高句麗本是中國的境內的一個縣屬侯國，它的活動領域基本在中國境內。它的東面、北面是中國其他民族靺鞨諸部和夫余所建立的政權，西面和南面是中國的遼東郡和樂浪郡、帶方郡。因此高句麗初期與新羅一直沒有交往。但隨著它不斷地寇抄中原、伐滅鄰族，佔領了樂浪郡和帶方郡，進入朝鮮半島之後，才開始與新羅有了交往。

高句麗和新羅最早的一次接觸是在西元3世紀。據文獻記載，魏正始五年（西元244年）毌丘儉攻高句麗，高句麗王逃奔沃沮，與新羅僅隔着東穢。高句麗為在這一地區站穩腳跟，在新羅助賁尼斯今十六年（西元245年）入侵新羅北部邊境。並引起了高句麗東川王二十二年（西元248年），新羅遣使與高句麗結和。<sup>35)</sup>但以後就又中斷了聯繫。至西元313年，高句麗佔有了樂浪郡，勢力到達了大同江流域，進一步向漢江流域擴展時，才和新羅交往頻繁起來。而且主要是圍繞與新羅共同應對百濟與倭國的戰爭而展開。

據《三國史記·高句麗紀六》記載：高句麗故國壤王九年（西元392年）高句麗“遣使新羅修好，新羅王遣侄寶聖為質。”而《三國史記·新羅紀三》新羅奈弗尼斯今三十七年（西元392年）對此事也有記載：“高句麗遣使。王以高句麗強盛，送伊餐大西知子寶聖為質。”結合《廣開土大王碑》所記“辛卯年（西元391年）來，倭渡海破百殘，□□□羅以為臣民”分析，應該是因為倭侵擾新羅有關，新羅為了應對倭的侵擾，欲與高句麗結好以求援助。

據《廣開土大王碑》記載：高句麗廣開土王十九年（西元399年）新羅遣使白王雲：“倭人滿其國境，潰破城池，以奴客為民。歸王請命。太王恩慈矜其忠誠，特遣使還，告以密計。（廣開土王）十年庚子（西元400年）教遣步騎五萬，往救新羅，從男居城至新羅城，倭滿其中，官軍方至，倭賊退。自倭背急追，至任那加羅城，拔城即歸服，安羅人戍兵拔新羅城……昔新羅安錦；未有身來朝貢，□□□□廣開土境好大王□□□□……朝貢。”<sup>36)</sup>這一段碑文詳細記載了高句麗出兵救援新羅，擊潰侵新羅的倭軍的情況。由於高句麗的援助，使新羅擊退了倭軍的侵襲，新羅王為了表示感謝，親自到高句麗來朝貢。對此事，《三國史記》的《高句麗紀》、《新

33) (朝)朝鮮社會科學院、朝鮮畫報社：德興裏高句麗壁畫古墓（日譯），講談社1986年；徐永大：《德興裏古墳墨書銘》，《譯注韓國古代金石文》，韓國古代社會研究所，1992,79-88頁。

34) 筆者：《幽州刺史墓主身份再探討》，待刊。

35) 《三國史記·新羅紀二》、《三國史記·高句麗紀五》。

36) 《廣開土大王碑》釋文，主要依據徐建新釋文，參考耿鐵華、王建群、高明士、水谷悌二郎、末松保和、武田幸男釋文。

羅紀》均未見記載。《廣開土大王碑》彌補了這一不足。

這次戰役以後，新羅與倭關係得到緩和，寶聖尼師今年（西元402年），新羅“與倭國通好，以奈勿王子末斯欣為質。”但為時甚短。四年（西元405年）倭兵再次來侵，為了取得高句麗的援助，新羅寶聖尼師十一年（西元412年），新羅又以奈勿王子卜好，質於高句麗。<sup>37)</sup>

從上面的記載可以看出，這一時期主要是新羅和高句麗聯合對抗倭。以後由於高句麗在北方和魏建立了和平友好的關係，開始向南擴張，即引起了一個多世紀高句麗侵略新羅的戰爭。

第四，考察高句麗與百濟的關係。高句麗王室和百濟相傳有共同的父系祖先，都出於朱蒙。但高句麗的母系祖先是北夫餘，百濟的母系祖先是卒本夫餘。由於兩國中間隔著樂浪郡、帶方郡，因此長期間兩國並無來往。兩國關係的開始是在西元3世紀，而且僅一次，真正頻繁接觸已是西元4世紀。

西元4世紀至5世紀前葉，主要是高句麗和百濟連年戰爭，當時新羅因受倭連年入侵，不得不求助於高麗。而百濟和新羅之間基本平安無事，僅是西元403年有一次百濟入侵新羅邊境。

據史料記載：百濟責稽王元年（西元286年），高句麗攻伐帶方，帶方向百濟求救，百濟出師救援，高句麗怨之。百濟王擔心高句麗侵寇邊境，修築了且城、蛇城來防備高句麗。但因當時高句麗尚未攻下樂浪郡，因此兩國間並未再發生聯繫<sup>38)</sup>。西元313年高句麗攻佔樂浪郡，並鞏固了對這地區的統治後，拉开了南進的序幕，對百濟展開了一系列的征伐戰爭。

首先是高句麗故國原王三十九年（西元369年），高句麗王以兵二萬南伐百濟，戰於雉壤，敗績。這次戰爭高句麗出師不利，初嘗敗績。四十一年（西元371年）“百濟王率兵三萬來攻平壤城。王出師拒之，為流矢所中，是月二十三日薨。”高句麗與百濟的戰爭再一次以失敗告終。

高句麗小獸林王五年（西元375年），高句麗攻百濟水谷城。六年（西元376年）高句麗再次入侵百濟北鄙。七年（西元377年）冬十月，百濟乘高句麗災害，將兵三萬來侵平壤城。十一月，高句麗南伐百濟。

高句麗故國壤王三年（西元386年），秋八月，高句麗發兵南伐百濟。六年（西元389年）百濟侵高句麗，掠南鄙都落而歸。七年（西元390年），百濟遣達率真意謨，攻破高句麗都押城，虜二百人以歸。

這一時期，百濟常與新羅互相支援，在戰爭中佔據優勢，以擊退高句麗的南下。漢江以北歸百濟，百濟遷都漢城。

到高句麗廣開土王時，他凭借國富民康、五穀豐熟的有利條件，展開了對外征伐戰爭。

元年（西元392年）秋七月，高句麗王領兵四萬，攻百濟北鄙，陷石岷等十餘城，漢水北諸部落多沒焉。冬十月，攻陷百濟關彌城。其城四面峭絕，海水環繞，王分軍七道，攻擊二十日乃拔。高句麗取得勝利，在戰爭中扭轉了不利的局面。

二年（西元392年）百濟攻高句麗南邊，高句麗抗之。

三年（西元393年），百濟來攻，高句麗王率精騎五千擊敗之。築國南七城，以備百濟之寇。

四年（西元394年）百濟王命左將真琥等伐高句麗，麗王談德親帥兵七千陣于湞水（今大同江）之上，拒戰，百濟大敗。虜獲八千余級。冬十一月，百濟欲報湞水之役，王親帥兵七千人，過漢水，次於青木嶺下，會大雪，士卒多凍死，回軍至漢山城，勞軍士<sup>39)</sup>。

六年好太王討百濟，退倭寇之戰，為出師有名，碑文刻下了原因，這就是有名的“辛卯年”條，在第一面第八行下部和第九行上部，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破百殘□□、羅，以為臣民。廣開土王六年丙申，王躬率水軍討伐殘國（百濟），軍至□□，攻取百濟五十餘城，逼其國城。百殘王困逼，獻出男女生口一千人、細布一千匹，歸王自誓，從今以後，永為奴客。太王恩赦先迷之愆，錄其後順之誠。於是得五十八城村七百，將殘王弟並大

37) 《三國史記·新羅紀三》。

38) 《三國史記·百濟記·責稽王》。

39) 《三國史記·高句麗紀》，《三國史記·百濟紀》。

臣十人旋師還都。这是據《广开土大王碑》的记载，但此事在《三國史記》中未见记载，且年代兩者有出入。《三國史記》廣開土王六年應為397年。而據《广开土大王碑》丙申年應為西元396年。故此處未標西元年代。

七年（西元398年）百濟將伐高句麗，王出師至漢山北柵，其夜大星落營中有声，王深惡之，而止。

八年（西元399年）百濟欲伐高句麗，大徵兵馬，民苦於役，多奔新羅，戶口衰減<sup>40</sup>。

九年己亥，百殘違誓與倭和通。

十年庚子，高句麗出兵新羅，助之擊退倭軍。移師百殘圍其城，百濟王懼，獻寶物，質其子。此處是據《广开土大王碑》的记载，但此事《三國史記》未載，且年代兩者有出入。《三國史記》廣開土王九年應為400年，而據《广开土大王碑》己亥年應為西元399年，故此處未標西元年代。百濟逐弱。<sup>41</sup>其後停戰八十餘年。

这一时期，高句麗佔優勢，奪取了漢江以北地，並以漢城為別都。百濟遷都熊津。戰爭漸向漢江以南轉移。後期百濟漸弱，臣附於高句麗，聯兵攻新羅，最後新羅求救于唐，唐滅百濟。

综观高句麗與百濟的战争，前後爭戰二百年。戰爭的主要戰場是在湞水（今大同江）及漢江之間，這地區本是魏晉帶方郡地，高句麗和百濟都是為擴張領土、爭得晉帶方郡之地而戰。百濟和高句麗的關係，實際上是高句麗侵略半島北部後，繼續向南侵略百濟的歷史。

第五，考察高句麗與倭（日本）的關係。高句麗建國初期和日本懸隔，因此文獻一直未見有交往的記載。仅《日本書紀》记载了應神天皇七年（西元276年）高句麗入朝<sup>42</sup>。高句麗和倭的正式接觸是在西元四世紀，高句麗向南占领了晉樂浪郡、帶方郡后，進入到朝鮮半島。而此时，倭也为了获取资源，掠夺人口，不断向北侵佔新羅、百濟的地方，百濟与倭结好。高句麗与倭的关系，实际上是高句麗与新羅共同应对百濟与倭联盟，擊退倭兵。关于百濟与倭结盟，《三國史記》、《广开土大王碑》均有记载。如“阿莘王六年（西元397年）王与倭国通好，以太子腆支为质。”及“九年己亥（西元399年），百殘違誓與倭和通。”

高句麗与倭的关系主要见于《广开土大王碑》，主要有七处。摘录如下：

“倭以辛卯年（西元391年）來，渡海，□破百殘，□□羅以為臣民。”

“九年己亥（西元399年），百殘違誓與倭和通。新羅遣使白高句麗王云：“倭人滿其國境，潰破城池，以奴客為民，歸王請命，太王恩慈，矜其忠誠，王遣使告以密計。”

“十年庚子（西元400年），教遣步騎五萬，往救新羅，從男居城至新羅城，倭滿其中。官軍方至，倭賊退。自倭背急迫，至任那加羅從拔城，城即歸服。安羅人戍兵拔新羅城、鹽城。倭滿，倭潰城內……。”

“十四年甲辰（西元404年）而倭不規，侵入帶方界。□□□□石城□連船□□□□率□□□平壤。□□□鋒相遇。王幢要截蕩刺，倭寇潰退，斬殺無數。”

“十七年丁未（西元407年）教遣步騎五萬□□□□□□王師□□□合戰，斬斃蕩盡，所獲鎧甲一萬餘領，軍資器械不可勝數，還破沙溝城……。”<sup>43</sup>

在这几处记载中，391年、399记载的是百濟、新羅与倭的关系。后几次是记载高句麗与倭的战争，第一次是西元400年，高句麗出兵援新羅，擊退倭的入侵。第二次是西元404年，倭出兵，攻帶方（今漢江流域）被高句麗擊退。第三次是407年，高句麗出兵掃盡餘寇。均已高句麗兩大勝而告終，此後，高句麗與倭未再見軍事衝突。

40) 《三國史記·高句麗紀》，《三國史記·百濟紀》。

41) 《三國史記·百濟本紀》阿莘王八年。

42) 朱曼噉：《高句麗與日本的交往》，《社會科學戰線》1995年5期。

43) 《广开土大王碑》释文，主要依据徐建新释文，参考耿铁华、王建群、高明士、水谷悌二郎、末松保和、武田幸男释文。

## 結 語

隨著高句麗的佔據樂浪、帶方兩郡，高句麗的居住範圍、地理環境、經濟生產方式、人員構成也都發生了變化，原來高句麗族主要居住區僅為國內地區、卒本地區，東不包括今延邊，南不過清川江，西不包括遼東，北不過吉林哈達嶺。到西元5世紀以後，高句麗人的居住地域擴大了數倍。東界變化不大，高句麗人似乎沒有大量遷至北沃沮及沃沮人居住區，北界也變化不大，高句麗人似乎也沒有大量遷至夫餘人居住區，但西及南有了較大擴展。西到遼河，南過大同江。所以，李敖稱其民戶三倍于前魏時。

通過對史料的研讀可以看出，多次使高句麗受到摧毀而瀕臨滅亡，是來自中原或北方政權的勢力。自古中國境內的少數民族政權，凡能嚴守藩臣之禮，與中原王朝保持相對穩定，便會出現封部和樂、百姓宴甯、經濟發展和文化繁榮的昌盛局面。412年，長壽王即位以後，敢於正視現實，吸取歷史的經驗教訓，面對高句麗疆域空前擴大，南方趨於緩和與鞏固，北部存有潛在威脅的形勢下，採取了一系列鞏固統治的措施，以順乎歷史的發展趨勢。

首先，在對外政策上，實行北和中原南北諸朝，南攻百濟與新羅的避實就虛戰略。這一戰略，既可減少來自北部的強大壓力，又可鞏固南部的既得利益，使高句麗的勢力得到進一步發展。長壽王從即位元年起，便“遣長史高冀入晉奉表，獻楮白馬”，晉安帝以其“為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麗王、樂浪公”。他取得東晉的承認和支持。

據文獻記載統計，終長壽王之世，朝魏四十六次，“歲致黃金二百斤、白銀四百斤”。而魏“報賜亦稍加焉”，並拜長壽王“為都督遼海諸軍事、征東將軍、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這一通和結好政策，使高句麗避免了前代諸王時所遭受的沉重打擊重演。

其次，在內政建設方面，為了加強對鴨綠江以南地區的統治，充分利用大同江和漢江流域的自然資源，又可遠離北魏威脅，於427年，長壽王將王都南遷平壤。這恰好與避實就虛的對外政策相呼應，對朝鮮半島形勢的發展產生巨大的影響。由於王都南遷平壤以後，使高句麗較先進的文化科學技術帶入半島腹地地區，使大同江和漢江流域得到進一步開發，形成鞏固的統治基地；向南既可就近對付百濟侵擾，又可充分利用漢江流域的農業優勢，壯大統治力量，而北部遠離拓跋氏的威脅，使其鞭長莫及，長期維持和平狀態。一旦形勢有變，或攻或守，皆可選擇。

同時，由於高句麗統治中心南移，對新羅和百濟的發展，也產生了一定推動作用，為後世半島上的民族融合與統一，邁出了第一步。事實上，把長壽王對百濟、新羅的戰爭，同遷都平壤聯繫起來，已含有統一半島的意圖。但是，三國之間的不斷衝突，互相削弱，大大抵消了任何試圖統一的力量，不僅誰都無法使半島歸於統一，反而被後世的唐朝各個擊破，繼續臣屬於中原王朝。

在427年以前的四百多年中，高句麗的統治中心，始終位於國內城。由於廣開土王時，高句麗取得了對百濟戰爭的重大勝利，形勢發生了歷史性的轉折。首先使高句麗的疆界大大南移，已越過大同江，抵達漢江流域，進入朝鮮半島較為富庶的腹地地帶，獲得大片良田沃野，更有利於高句麗的生息繁衍，不斷發展壯大。此時百濟已基本上被高句麗削弱，情願朝貢論事，永為奴客。原來所佔據的樂浪地區，也得到進一步鞏固和發展。此外，雖然遼東地區已被高句麗全部奪得，慕容氏已不再是高句麗的頭號勁敵。但是，鮮卑另一支拓跋氏繼起，建立起一個強大的北魏政權，其勢力不斷南下，同慕容氏展開激烈爭奪。一旦燕亡以後，失去屏障，將直接對高句麗構成嚴重威脅。事實上，436年，北魏太武帝曾“以高句麗違詔，議將擊之”，可見北魏對高句麗的威脅，是客觀存在。

可以說高句麗中期（246 - 427年），也就是西元3 - 5世紀，不僅是高句麗歷史上的重要階段，也是東北亞地區歷史的重要時期。研究清楚這段歷史，對瞭解當時東北亞諸民族政權的關係，還原高句麗與新羅、百濟的關係具有重要意義。

## 3~5세기 동북아 여러 민족·정권의 관계 연구

-고구려 중기의 역사를 중심으로-

孫泓(中國社會科學院 世界歷史研究所)

3~5세기는 동북아지역의 정권이 극히 혼란을 겪던 시기로, 중국 중앙정권의 쇠락으로 말미암아 “群雄爭霸”를 야기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때 중국 중원지역에는 서진, 동진정권이 있었으며, 북방에는 5호16국이 있었는데 모두 각각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힘을 써 “群龍無首”의 상태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한반도 역시 신라, 백제, 가야 등 여러 정권으로 분립하여 서로 대립하고 있던 시기였으며, 왜(일본) 역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한반도로 시선을 돌리고자 하였다.

한편 고구려는 이 시기 스스로의 발전을 위하여 평화 외교와 대외 전쟁이 결합된 정책을 취하였는데, 魏·晉·前秦·前燕·北燕·後燕·樂浪郡의 修壽·慕容 鎭 정권과 모두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고구려는 당시 정세의 혼란을 이용하여 서진, 남진 확장 정책을 전개하여 서쪽으로는 요동군을 점령하고, 남쪽으로는 낙랑, 대방을 점령하여 대동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한반도내에서는 신라와 백제의 대립이 있었으며 밖으로는 倭의 침략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라, 백제는 고구려에 의지하여 왜의 침입을 막고 이를 이용하여 한반도 남부지역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고구려는 427년에 이르러 한반도 북부의 평양으로 천도하여 동북아지역의 각축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한중 양국의 국토를 뛰어넘는 강대한 정권으로 성립되기에 이르렀는데, 이후 한중조 3국에 많은 수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남기게 되었다.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기는 246년부터 427년까지인데, 246년 관구검의 고구려 원정은 고구려와 위진의 관계를 결정하였으며 427년 고구려의 평양천도는 고구려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기원으로 전개가 되었다. 여기서는 세 단계로 나누어 토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 一、 246년~313년

고구려는 일찍이 기원전 2세기 즉, 주몽 이전 한 현도군에 예속되어 있었다. 『三國志·高句驪傳』에는 “高句驪……本涓奴部爲王，稍微弱，今桂婁部代之。漢時賜鼓吹技人，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高句驪令主其名籍。”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고구려가 처음 한 현도군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한 현도군 고구려현 영주로부터 그 名籍을 받았음을 설명해 준다.

왕망이 한 정권을 탈취한 후에는 外族과의 외교 관계 추진을 경시하여 변경의 각 族의 모순이 격화되었다. 『漢書·匈奴傳』에는 “王莽之篡位也，建國元年，遣五威將王駿率甄阜，王颯，陳饒，帛敞，丁業六人，多賚金帛，重遺單于，諭曉以受命代漢狀，因易單于故印。”로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소수 민족 수령의 정치 지위를 모두 강등시켰다. 『漢書』卷99「王莽傳」에는 “莽策命曰：“普天之下，迄于四表，靡所不至。” 其東出者，至玄菟，樂浪，高句驪，夫餘；南出者，

逾徼外，歷益州，貶句町王爲侯；西出者，至西域，盡改其王爲侯；北出者，至匈奴庭，授單于印，改漢印文，去‘璽’曰‘章’.” 로 기록하고 있다. 匈奴, 西域이 말쟁을 일으켜 도전함에 따라 왕망은 “發高句麗兵以伐匈奴，不欲行，強迫遣之，皆亡出塞爲寇盜……尤誘期句麗侯駒至而斬之，傳送其首詣長安. 莽大悅，佈告天下，更名高句麗爲下句麗. 當此時爲侯國，漢光武帝八年，高句麗王遣使朝貢，始見稱王.”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서 고구려는 왕망의 명을 받들어 병사를 일으켜 호를 벌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분분히 塞外로 도망하였는데 이를 쫓던 한조의 요서 관원이 피살당하자 왕망은 고구려 후에 분노하여 고구려를 下句麗로 고치고 그 왕을 侯로 강등시킴으로서 왕망의 고구려에 대한 통속관계를 표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한이 건립된 후로 점차 요동과 한반도 북부를 수복해 가기 시작하였다. 고구려는 형세를 관찰하여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여 한과의 관계 회복을 결정하여 한 건무8년(대무신왕 35년, 서기 32년) 한에 사신을 파견하고 조공하였으며, 한 광무제 때에는 왕위를 회복하였다. 후한 180여 년 동안 고구려와 한 사이에는 10여 차례의 충돌이 발생하였는데 그 시간은 10여 년에 밖에 되지 않는다. 그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동안 고구려는 모두 한에 신속하였거나 요동군 또는 현도군에 예속되어 있었다.

정국이 변화함에 따라 고구려와 중원왕조의 관계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였는데 전후로 후한, 공손씨 할거세력, 오, 위, 진, 모용선비 등과 관계를 맺었다. 246년 관구검이 고구려 공격할 때부터 313년 고구려가 낙랑군을 점령하는 67년간(산상왕~미천왕시기)은 주로 위, 서진과 관계되어 있다.

먼저 고구려와 魏의 관계를 살펴보자. 延康 2년(산상왕 24년, 서기 220년) 위는 漢을 대신하여 정권을 건립하였다. 고구려는 위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연강2년 3월에는 예맥, 부여……등이 모두 각자 사신을 보내 봉헌하였다. 靑龍 2년(동천왕 8년, 234년) 위는 사신을 보내 고구려와 화친하기에 이른다. 청룡 4년(236년) 오왕 손권은 사신 胡衛를 보내 화합하고자 하였는데, 고구려는 사신을 머물게 하였다가 후에 그를 참하여 머리를 위에 전하였다. 景初 원년(237년) 고구려는 사신을 위에 보내어 연호를 고친 것에 대해 축하하였다. 경초 2년(238년) 위 太傅 司馬宣王이 무리를 거느리고 공손연을 토벌하려고하자 고구려왕(동천왕)은 주부 대가 장병 천여 명을 보내 그를 돕도록 하였다. 관구검이 공손연을 멸함에 따라 공손연은 요동에서의 할거세력에서 제거되어 요동이 수복되었고, 낙랑군, 대방군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였다. 이 때부터 고구려와 위 사이의 모순이 점차 나타나면서 관구검으로 하여금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펼치게 되었다.

위 正始 3년(242년) 고구려는 장수를 보내 요동군 서안평현을 습격하여 깨뜨렸는데, 이는 『毌丘儉紀功碑』 정시 3년에 고구려가 반하였다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정시 5년(244년) 관구검은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비류수(지금의 부이강)와 양맥지곡(지금의 태자하)에서 연달아 패하였으며 고구려왕은 적을 가벼이 여기고 최후의 결전에서 관구검이 결사의 전투로 고구려 병을 크게 무너뜨렸다. 검은 승기를 타고 환도성(지금의 집안시)을 함락하였으며 고구려왕 궁은 남옥저(지금의 함경도)로 달아났다. 정시 6년(245년) 검은 현도태수 王頌을 다시 보내 그를 쫓아 옥저 1000여 리를 지나 숙신씨 남쪽 경계에 이르러 돌에 그 공을 새겼다. 정시 7년(246년) 위 황제에게 승리를 보고하였다. 이 때문에 『魏書·三少帝紀』와 『資治通鑒』, 『三國史記·高句麗紀』에서는 모두 이 전쟁을 정시 7년, 산상왕 20년(246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三國志·毌丘儉傳』, 『三國志·高句麗傳』, 『毌丘儉紀功碑』에는 이를 補正하였다. 그 후 고구려는 중원과 다시 통하였고, 위 甘露 4년(중천왕 12년, 259년)에는 위 尉遲棣

가 고구려를 쳤으나 양맥지곡에서 패하였다. 이 두 차례 전투에서 고구려는 심각한 타격을 받아 “一蹶不振”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曹魏 시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구려는 전후로 위 관구검, 위지체와의 두 차례의 전후 5년에 걸친 전쟁을 겪었다. 그 나머지 수십 년 모두 신복관계를 위주로 평화로운 시기였다.

그 다음으로 고구려와 西晉의 관계를 살펴보자. 서진은 265년 건립되었는데, 서진 초년 진 조는 변경의 각 민족에 대하여 위무(招撫) 정책을 취하여 동북지역의 중, 동북의 동이 각 민족을 효과적으로 통할하여 그 활동을 관리하였다. 특히 요동지역에 “護東夷校尉”를 설치하여, 고구려, 부여, 옥저 등을 모두 관할하여 통제하였다. 당시 고구려는 위 관구검에 공격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크게 상처를 입고 일어서기 힘든 상황으로 서진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구려는 줄곧 진에 恭順하게 신복하였다. 수년에 걸쳐서 발견된 “晉高句麗率善邑長”、“晉高句麗率善任長”、“晉高句麗率善佰長”之印은 서진 시기 고구려왕이 중앙에 책봉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구려의 각 지역 관원 역시 진으로부터 인쇄(印璽)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구려와 서진의 관계가 아주 밀접했음을 설명해 준다.

서진 후기에 이르러 중앙왕조가 쇠락하면서 중원에서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특히 “永嘉之亂”이 발생한 후로 중앙왕조는 동북지역까지 일일이 돌보지 못하였다. 이 때 선비 모용씨가 점차 요서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 역시 이 기회를 틈타 점차 영토를 넓히고 인구를 노획하였다. 진 太安 원년(미천왕 3년, 302년) 고구려왕은 병사 3만을 이끌고 현도군을 침범하여 8000여 명을 노획하여 평양(지금의 집안경내, 대동강의 평양의 아님)으로 옮겼다. 진 永嘉 5년(미천왕 13년, 311년) 고구려는 군사를 보내 서안평현을 기습 공격하여 취하였다. 진 建興 원년(미천왕 14년, 313년)에는 진 낙랑군을 점령하고 남녀 2000여 명을 노획하였으며, 진 건흥 2년(314년)에는 고구려 남쪽의 진 대방군을 침략하였다. 진 건흥 3년 고구려는 현도성을 공격하여 깨뜨리고 그 무리를 살획하였다. 미천왕 을불리는 자주 진의 州郡을 침범하여 전후로 진의 낙랑군, 대방군, 현도군 등을 취하였으며 이 때 많은 漢人을 약탈하여 취하였다. 당시 중국경내에는 기타 10여 개 지방할거정권이 있었는데 고구려 역시 漢, 燕 등과 같이 지방할거정권의 하나였다.

세 번째, 고구려와 낙랑, 대방군의 관계를 살펴보자. 고구려는 아주 일찍부터 한반도를 향한 세력 확장을 기도하였다. 37년 단번에 한의 낙랑군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러나 44년 한 광무제가 병사를 보내 바다를 건너 낙랑을 쳐서 그 지역을 군현으로 취하고 살수(지금의 청천강 상류) 이남을 한에 속하여 하고 낙랑군을 수복하였다.

고구려는 또한 한반도의 동북부에 위치한 옥저를 정복하였다. 『三國志·東夷傳』에는 “(沃沮)其國迫小, 介於大國之間, 遂臣屬高句麗.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 以相監領, 責其租稅. 貂布魚鹽及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又送其美女爲婢妾, 遇之如奴僕. 魏正始中, 毌丘儉討句麗, 句麗王宮奔沃沮, 遂進師擊之, 沃沮邑落皆破.”로 기록되어 있다.

313년 고구려는 서진 말년의 쇠락, 팔왕지난의 혼란을 틈타 진의 낙랑군, 대방군을 공격하여 점령하면서 한반도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낙랑군의 漢人 중 일부는 북쪽의 중국으로 달아났고, 일부는 남쪽의 백제, 신라, 일본으로 달아났으며, 또 다른 일부는 대동강 유역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三國史記·高句麗紀』에는 “美川王十四年(313年)冬十月, 侵樂浪郡, 虜獲男女二

千餘口. 十五年(314年)秋九月南侵帶方郡.”으로 기록하고 있다.

『資治通鑑·晉紀十』에는 또한 “晉帝建興元年(西元313年), 遼東張統據樂浪、帶方二郡, 與高句麗王乙弗利相攻, 連年不解. 樂浪王遵說統帥其民千餘家歸虜, 虜爲之置樂浪郡(於遼西), 以統爲太守, 遵參軍事.”로 기록되어 있다.

사료의 기록을 통해 볼 때 고구려는 미천왕 시기 낙랑으로부터 3000여 구를 노획하였으며, 고구려 을블리 시기에는 요동의 장통이 낙랑, 대방 1000여 호를 이끌고 모용외에 의탁하였다. 모용외는 요서에서 낙랑군을 설치하여 이들을 안치하고 장통을 낙랑태수로 임명하였다.

한편 『魏書·地理志』의 기록에는 “樂浪郡……治連城.”으로 되어 있는데 연성은 河連城일 것이다. 『水經注』卷14에는 “渝水首受白狼水, 西南循山徑一故城西, 世以爲河連城, 疑卽‘侯水北入渝’者也. 『十三州志』曰: ‘侯水南入渝’, 『地理志』蓋言自北而南也.”로 기록되어 있다.

『東北歷史地理』卷二 考證에는 “이 侯水는 마땅히 西遼河이며, 白狼水는 지금의 大凌河 상류이며. 渝水는 지금의 牯牛河와 大凌河 하류이다. 이를 근거로 河連城은 마땅히 大凌河와 牯牛河가 합류한 뒤에 있는데 西河가 합류하기 전의 河道上으로 마땅히 지금의 遼寧 義縣경내 일 것이다. 물이 城의 서쪽을 지나므로 성은 강의 동쪽에 있다.” 또한 『東北歷史地理』卷二 考證에는 “萬佛堂 石窟은 義縣에서 西北쪽으로 19리 떨어져 있는 萬佛堂村 大凌河 北岸에 있다.……동쪽구역 第五窟 안에는 『北魏韓貞造像題記』가 있는데, 題記에는 ‘於帶方之右, 沃黎之西建造私窟’로 되어 있다.……즉 帶方郡은 지금의 義縣 紅牆子로 지금의 萬佛堂의 서쪽이다.”

이상의 고증을 근거로 낙랑군과 대방군은 313년 요서로 옮겨졌으며, 장통이 거느린 낙랑과 대방 2군의 이민 및 미천왕이 노획한 2000여 구는 낙랑군민이 북쪽으로 이동한 일부분으로 한반도에서 지금의 길림 집안 부근으로 옮겨간 것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낙랑, 대방을 점령한 후 한족 세력은 요서로 물러났다. 그러나 고구려의 통치 세력은 아직까지 낙랑군에 진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약 100년의 眞空상태가 형성되었으며 이후 동수와 모용성이 전후로 이 지역을 점거하였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4세기 이전까지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한반도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모용선비와 고구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일찍이 고구려족이 막 형성되었을 때 바로 선비족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三國史記·高句麗紀』에는 “琉璃明王三十一年(기원전9년) 鮮卑恃險, 不和我親, 利則出抄, 不利則入守, 爲國之患. 攻下其城, 鮮卑降爲屬國.”로 기록되어 있다. 2세기 선비, 예맥이 매년 동한 邊郡을 침범하여 소민을 노획하여 수천 명을 이동하였다. 또한 『三國志·高句麗傳』에는 “自伯固時, 數寇遼東, 又受亡胡五百餘家. 建安中(196~),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余詣康降, 還住沸流水, 降胡亦叛伊夷模.”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胡는 마땅히 선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선비가 동호계에 속하기 때문에 胡로 불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선비는 당연히 선비모용부는 아니다. 그것은 당시까지 모용선비의 세력이 이 지역까지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대 선비는 강성해지고 또한 서진 말년의 통치 세력이 쇠락한 기회를 틈타 요동으로 진군하려고 하였다. 선비 모용부와 고구려는 요동 지역을 둘러싸고 여러 해 동안 전쟁을 전개하였다. 『三國史記·高句麗紀五』에는 “烽上王三年(293년)慕容廆來侵, 王欲往新城避賊, 行至鶴林. 慕容廆知王出, 引兵追之, 將及, 王懼, 時新城宰北部小兄高奴子領五百騎迎王, 逢賊奮擊之. 廆軍敗退. 五年(296年)慕容廆來侵, 至故國原, 見西川王墓, 使人發之. 王謂群臣曰: ‘慕容氏兵馬強盛屢犯我疆場, 爲之奈何?’, “後從國相倉助利計, 以高奴子爲新城太守, 廆不復來

寇.”,“及(美川王)乙弗利類寇遼東, 魔不能制.”로 기록하고 있다.

사료의 기록을 통해 볼 때 고구려와 선비는 비록 일찍부터 대립 관계에 있었으나 이는 중국 대륙 내부의 모순에 속하는 것으로 주로 요동을 쟁취하기 위해 전개한 것이었으며 양자 사이에는 전쟁과 평화가 서로 교차하였다.

## 二、314년~394년

313년 고구려가 낙랑군을 점유한 후 한족 세력은 요서까지 물러나 선비에 의탁하였으며, 모용외는 낙랑군, 대방군(장통)을 설치하였다. 전연과 전진의 방해를 받아 고구려는 비록 한반도 북부를 점령하였음에도 효과적인 통치를 실행하기에는 힘이 부족하여 이 지역은 거의 100년 동안 眞空상태를 형성하고 있었다.

314년 서진이 멸망하고 동진이 건립되었는데 394년 전진이 멸망할 때까지 80년 동안 고구려는 각각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고국양왕, 광개토왕 시기로 이어졌다. 이 시기 고구려는 주로 전진, 전연 및 동진, 동수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먼저 고구려와 동진, 후조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고구려는 건국 이후부터 중국 중앙왕조와 밀접한 왕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국 중앙왕조 정권의 교체, 분열 할거에 따라 고구려 역시 끊임없이 관계를 전환하였으며 심지어는 동시에 여러 정권과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당시 이들 중에서 어느 한 정권이 정통 자격을 얻었다면 고구려는 즉시 그를 향해 칭신조공 하였는데, 고구려는 전후로 동진, 조, 연, 진에 조공하였다.

동진 太興 초(318년) 진 평주자사 최비는 스스로 中州人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며 요동에 머물었는데 士民 중 많은 수가 모용외에 귀부하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에 몰래 고구려, 단씨, 우문씨와 함께 그를 공격하고 그 땅을 나누기로 약속하였으나 외가 중간에서 간계를 부려 고구려는 중도에 병사를 이끌고 돌아가 버렸다. 다음해에 모용외가 요동을 점령하자 최비는 고구려로 도망쳐버렸다. 고구려왕은 수차례 병사를 보내 요동을 침범하였는데 모용외는 모용한, 모용인을 보내 이를 막았다. 고구려왕이 화맹을 청하였고 이에 한과인이 돌아갔다.

후조 建平 원년(미천왕 30년, 330년) 고구려는 후조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楛矢를 보냈다. 동진 咸康 2년(고국원왕 6년, 336년) 사신을 보내 진에 공물을 보냈다. 동진 함강 4년(338년) 조왕 虎는 모용씨를 토벌하고자 배 3만 척, 곡식 30만 斛을 고구려로 운반하고자 하였으며, 典農中郎將 王典으로 하여금 무리 만 여명을 海濱에 屯田케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고구려가 조와 진에 동시에 신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는 조와 진에 조공하였는데, 조가 그 땅에서 모은 군량을 받아 모용씨를 공격하고자 준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모용씨가 이후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고구려와 전연의 관계를 살펴보자. 전문에서 이미 초기 고구려와 선비의 淵源과 관계를 언급하였다. 337년에 이르러 선비 모용부는 점차 강성해졌는데 모용황은 왕을 칭하고 전연을 건립하여 고구려와 선비 모용부 역시 매년 전투를 벌였다.

진 함강 5년(고국원왕 9년, 339년) 연왕 황은 고구려를 침략하여 병사가 신성에 이르렀다. 고구려왕은 화맹을 청하였으며 이에 연왕이 돌아갔다.

진 함강 6년(고국원왕 10년, 340년) 왕은 세자를 연왕 황에 보내 조건하였다.

진 함강 8년(고국원왕 12년, 342년) 모용황은 병사 4만을 보내 남협으로 들어가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한과 수를 선봉으로 삼고 장사 왕우 등 무리 5만 천을 보내 북도로 진격하였다. 고구려왕 쇠는 황의 군이 북로로부터 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 아우 무에게 정예 5만을 통솔하게 하여 북도를 지키게 하면서 약졸로는 남협을 막게 하였다. 한과 쇠는 목저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고구려군이 크게 패하였다. 승기를 잡은 모용씨는 드디어 환도로 들어왔고 쇠는 홀로 말을 타고 도망하였다. 황은 쇠의 부친인 을불리의 무덤을 도굴하여 그 시신과 왕의 모친, 진귀한 보물, 남녀 5만 여 명을 약탈하였으며, 그 궁실을 태우고 환도를 허물고 돌아왔다. 5만 여 인의 고구려인을 당시 요서에 머물게 하였다. 封裕는 모용황에서 상서를 올려 “句麗、百濟及宇文、段部之人皆兵勢所致……今戶垂十萬，狹湊都城。恐方將爲國家深害，宜分其兄弟諸屬，徙于西境諸城。”라고 간하였다. 이 5만 여 명의 고구려인은 연의 도성(지금의 조양)에 머물거나 선비인과 잡거하면서 장기간의 걸친 밀접한 교류를 통해 점차 융합되었다.

고국원왕 13년(343년) 왕은 그 아우를 보내 연에 입조하여 칭신하고 진귀한 보물을 바쳤다. 연왕 황은 이에 그 부친의 시신을 돌려보내고 그 어머니를 인질로 남겨 두었다. 15년(345년) 연왕 외는慕容恪으로 하여금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하여 남소를 빼앗아 병사를 두고 돌아왔다. 25년(355년)에 왕은 연에 사신과 조공을 보내어 그 어머니를 돌려 달라고 간청하였다. 연왕은 이를 허락하였다. ……

고구려는 고국양왕과 광개토왕 년간에 모용연과 요동, 현도를 두고 연이은 쟁탈전을 벌였다. 고국양왕 2년(385년) 고구려는 요동, 현도를 함락하였으나 반년도 지나지 않아 후연 모용농이 이를 수복하였다.

고구려는 북연과의 연이은 전쟁에서 열세에 처하여 연의 연호를 받들어 시행하고, 연이 책봉한 정동대장군, 영주자사, 낙랑군공으로 봉해졌다. 여기에서 정동대장군은 중앙관직이며, 영주자사는 지방관직이다. 그리고 낙랑군공은 작위이며 고구려왕은 번국봉작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을 담고 있는 봉호는 당시 고구려가 연의 번국일 뿐 아니라 동시에 연의 하나의 지방정권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시기 선비인과 선비화된 한인은 거주를 한반도로 옮겼는데 당시 한반도의 삼국인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3국의 문화에 진한 선비문화 요소가 남게 되었다.

셋째, 고구려와 동수의 관계를 살펴보자. 동수는 전연시기 요동사마로 요동 평곽인이다. 『資治通鑑』의 기록에 따르면, 동수는 전란과 정치적 사건으로 인하여 336년 고구려로 망명하였다. 구체적인 고찰은 아래와 같다.

『晉書』卷109「載記第九」의 기록에 따르면慕容皝 즉위 初年(334년) 동생 모용인과의 내전이 발생하였다.

“初，皝庶兄建威翰驍武有雄才，素爲皝所忌，母弟征虜仁、廣武昭並有寵於廩，皝亦不平之。及廩卒，並懼不自容。至此，翰出奔段遼，仁勸昭舉兵廢皝。皝殺昭，遣使按檢仁之虛實，遇仁於險瀆。仁知事發，殺皝使，東歸平郭。皝遣其弟建武幼、司馬修壽等討之。仁盡衆距戰，幼等大敗，

皆沒於仁。襄平令王冰、將軍孫機以遼東叛於皝，東夷校尉封抽護軍乙逸遼東相韓矯玄菟太守高詡等棄城奔還。仁於是盡有遼左之地，自稱車騎將軍、平州刺史、遼東公。宇文歸、段遼及鮮卑諸部並爲之援。”

또한 『資治通鑿』 卷95에는 “……或以仁、昭之謀告皝，皝未之信，遣使按驗。仁兵已至黃水，知事露，殺使者，還據平郭。皝賜昭死，遣軍祭酒封奔慰撫遼東，以高詡爲廣武將軍，將兵五千與庶弟建武將軍幼，稚，廣威將軍軍，甯遠將軍汗，司馬遼東修壽共討仁。與仁戰於汶城北，皝兵大敗，幼，稚，軍皆爲仁所獲。壽嘗爲仁司馬，遂降於仁。前大農孫機等舉遼東城以應仁。封奔不得入，與汗俱還。東夷校尉封抽，護軍平原乙逸，遼東相太原韓矯皆棄城走，於是仁盡有遼東之地。段遼及鮮卑諸部皆與仁遙相應援。皝追思皇甫眞之言，以眞爲平州別駕。”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通鑿紀事本末』에서도 동일한 기록이 남아 있다.

『資治通鑿』 卷95에는 “……帳下皆叛，遂擒之，皝先爲斬其帳下之叛者，然後賜仁死，丁衡，游毅，孫機等，皆仁所信用也，皝執而斬之；王冰自殺。慕容幼，慕容稚，修壽，郭充，翟楷，龐鑿皆東走，幼中道而還；皝兵追及楷，鑿，斬之；壽，充奔高麗。自餘吏民爲仁所誑誤者，皝皆赦之。封高詡爲汝陽侯。”기록되어 있다.

사료를 대비해서 살펴보면 각 사서에 나타난 동수의 기록은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晉書』에서 또한 그의 관직이 명기되어 있고, 武英殿本 『資治通鑿』, 『通鑿紀事本末』에서는 진일보하게 그의 원적이 요동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또한 “壽嘗爲仁司馬，遂降於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世界書局 影印 鄱陽胡氏本에는 “壽，充奔高麗”로 더욱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당시 고구려는 평양으로 아직 천도하지 않았고, 진의 낙랑군 세력은 이미 평양지역으로 퇴출되었다. 당시 동수가 한반도의 북부의 광대한 지역을 점거하고 있었으며 동진에 신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는 전연에 신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진정권은 한반도 북부지역을 동수의 소유로 승인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의 요동, 요서 등지(당시 고구려와 모용연이 나누어 점유)를 동수에게 봉하였다. 이것은 한반도 황해북도 안악군에서 발견된 동수묘의 묘지명 중에는 증거가 된다. 묘지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永和十三年十月戊子朔廿六日□□  
使持節都督諸軍事平東將軍護夷校尉樂浪□  
昌黎玄菟帶方太守都  
□□幽州遼東平郭  
鄉敬上黑冬壽守□  
年六十九薨官”

동수는 동진으로부터 낙랑공 겸 현도(요동지역), 창려(요서지역), 대방(한반도의 중부) 3군의 태수로 봉해졌는데 이는 당시 동수의 역량이 강대하였음을 설명해준다. 동수가 죽은 영화 13년(357년)에서 영화는 동진의 년호로 동수의 후대가 한반도 북부지역을 언제까지 통치하였는지는 관련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동진은 그를 “使持節都督諸軍事平東將軍護夷校尉樂浪相昌黎，玄菟，帶方太守都鄉侯”로 봉하였다. 앞부분의 관직은 진이 이전에 고구려왕에게 봉한 것인데 이 때 고구려는 연에 칭신하였기 때문에 진은 그것을 동수에게 봉하였다. 뒷부분의 관직은 창려가 당시 연이 점유하고

있었고, 현도, 낙랑, 대방군은 고구려가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동수의 관할 토지 안에 있었다. 따라서 동진은 그것을 동수에게 봉하었는데 이는 동진이 연과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승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동수가 이 지역을 점유하기를 희망하고 동수의 힘을 빌어 그를 대표로하여 진이 낙랑지역을 통치하기를 희망하였던 것이다.

넷째, 고구려와 진진의 관계를 살펴보자. 370년 진진은 연에 멸망하였고 연의 일부 유민이 유주자사 진을 따라 한반도 북부로 도망쳐 와서 후에 고구려에 내투하였다. 진진의 압제로 인하여 고구려는 서쪽과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였다. 고구려는 자신의 확장 정책을 위하여 진진에 대하여 유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진진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사료의 관련 기록을 통해 진진과 고구려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진진 建元 6년(고국원왕 14년, 370년) 진왕 맹이 연을 쳐서 깨뜨렸다. 연 太傅 慕容評이 고구려로 도망쳤는데, 고구려는 그를 잡아 진으로 돌려보냈다.

진 건원 8년(소수림왕 2년, 372년) 진 主符 堅은 사신을 보내 순도를 통해 불상과 경문을 보내고 고구려왕은 사신을 보내 감사의 의미로 방물을 바쳤다.

진 건원 13년(소수림왕 7년, 377년) 고구려, 신라, 西南 夷들이 진에 입조하고 공물을 바쳤다.

진 건원 16년(소수림왕 10년, 380년) 진 幽州刺史 行唐公洛이 모반하였는데, 사신을 선비, 오환, 고구려, 백제, 신라, 休忍 등 나라에 나누어 보내 징병하였다. 이들 나라는 모두 “나는 천자를 지키는 번병으로서 행동공의 모반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고구려가 진진의 번국이었음을 자인하였음을 표명해 주는 것이다.

385년 후연과 고구려의 요동 쟁탈전에서 고구려가 승리를 거두면서 남진의 자본을 얻게 되었다.

386년 북연이 건립되었는데 그와 고구려 사이에는 후연, 북연이 있어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다.

### 三、395년 ~ 427년

고구려 광개토왕, 장수왕 시기는 주로 고구려와 후연, 북연, 유주자사 진, 신라, 백제, 왜와 관계를 맺고 있던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진진은 이미 멸망하였으며 후연이 요서를 점유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후연과 요동을 두고 쟁탈전을 벌였는데, 404년 고구려는 서진을 시작하여 현도군, 요동군을 점유하고 또한 남진하여 낙랑군과 대방군까지 점유하였다. 왜는 신라, 백제에 타격을 주어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고구려는 이 기회를 틈타 대동강을 점령하고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신라, 백제와의 관계를 시작하였다. 이 시기 신라와의 관계는 주로 고구려가 출병하여 신라를 구원하였는데, 신라를 침략한 왜군을 물리쳤으며 신라는 감사의 표시로 고구려에 조공하였다. 백제와는 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진 대방군의 땅을 얻기 위하여 전쟁으로 벌였다.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는 실제로는 고구려가 한반도 북부를 점령하고 후에 계속해서 남쪽으로 백제를 공격한 역사이다. 4세기 고구려는 남쪽으로 진 낙랑군, 대방군을 점령하여

한반도로 진입하였다. 왜 역시 4세기 후기 북쪽으로 신라, 백제 땅을 침략하였는데 고구려는 출병하여 신라를 구원하여 백제, 왜병을 격퇴하였다. 고구려와 왜는 이 때 비로소 정식으로 접촉하게 되었다.

먼저 고구려와 후연·북연의 관계를 살펴보자. 고구려와 후연·북연의 관계는 주로 요동 쟁탈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384년 慕容垂는 부견(符秦)이 쇠한 틈을 타고 군사를 일으켜 후연을 세웠으며 대방왕 佐에 명하여 용성에 진주케 하였다. 고국양왕 2년(385년) 고구려왕은 4만을 출병하여 요동을 습격하였는데, 佐는 고구려군이 요동을 습격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司馬 郝景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케하였다. 고구려군은 이를 격파하고 드디어 요동, 현도를 함락하고 남녀 1만 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11월 모용농이 병사를 거느리고 요동, 현도 2군을 수복하였다. 처음에는 幽冀의 유민 중 많은 수가 고구려에 항복하였으므로 모용수는 모용농을 보내고 范陽의 龐淵으로 요동태수를 삼아 그들을 위무하게 하였다. 396년 모용수는 아들 寶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구려왕 安으로써 평주목으로 삼고 요동, 대방 2국왕으로 봉하였다. 고구려는 비로소 長史, 司馬, 參軍官을 설치하였고 후에 요동군을 다스렸다. 고구려가 후연의 속국이 된 때이다.

후연 長樂 2년(광개토왕 9년, 400년) 정월 고구려는 후연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2월 연왕 盛은 고구려왕의 예가 거만하다고 하여 친히 군사 3만을 이끌고 습격하였다. 慕容熙를 선봉으로 삼아 신성, 남소 2성을 함락하여 700여 리 땅을 개척하고 5천 여 호를 옮겨 돌아갔다. 후연 光始 2년(402년) 11월 고구려는 출병하여 연을 공격하였다. 光始 5년(광개토왕 14년, 405년) 정월 연왕 희는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던 요동성을 공격하였는데 장차 함락되려 하였다. 희는 장사들에게 먼저 오르지 말 것을 명하고 그 성을 토핑하기를 기다려 짐과 황후가 수레를 타고 들어가겠다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성안에서는 방비를 엄격히 하여 병사들이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光始 6년(406년) 연왕 희가 거란을 습격하여 陜北에 이르렀으나 거란의 무리가 많음을 두려워하여 돌아가려 하였는데, 드디어 輜重을 버리고 輕兵은 고구려를 습격하였다. 연군은 3천 여리를 행군하여 병사와 말이 피로하고 얼어죽어 죽은 자가 길에 즐비하였다. 목저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正始 2년(광개토왕 17년, 408년) 북연에서는 高雲이 즉위하였다. 운은 원래 고구려인으로 조부인 高和는 고려의 支屬이었다. 모용보가 그를 양자로 삼고 모용씨를 사성하였다. 馮跋이 병사를 일으켜 모용희를 죽이고 그를 임금으로 내세워 북연을 세웠다. 후에 풍발이 왕위를 이었다. 고구려는 북연에 사신을 파견하여 宗族으로의 예를 베푸니 북연왕은 侍禦使 李拔을 보내 답례하였다.

이 때 고구려와 당시의 북연은 동일하게 중국의 지방할거정권이 되었는데, 동진 義熙 9년(장수왕 원년, 413년) 다시 長史 高翼을 진에 보내 奉表하고 赭白馬를 선물하였다. 安帝는 왕을 高句麗王, 樂安郡公으로 봉하여 고구려국은 다시 진의 속국이 되었다.

다음으로 고구려와 幽州刺史 鎮의 관계를 살펴보자. 진은 전연의 중요 관원으로 일찍이 전연의 유주자사를 역임하여 유주 13군을 관할하였다. 전연 멸망(370년) 진은 많은 수의 선비인을 데리고 한반도 북부로 옮겨 왔으며 고구려는 그를 “國小大兄”, “中裏都督”으로 봉하였다. 진은 고구려 영락 18년(408년)에 죽어 지금의 북한 평안남도 대안시(현재 남포시) 덕흥리에 매장되었는데, 墨書題記가 전실 북벽 통로 입구 상단에 쓰여 있다.

“□□郡信都都鄉□甘裏  
 釋加文佛弟子□□氏鎮仕  
 位建威將軍小大兄左將軍  
 龍驤將軍遼東太守使持  
 節東校尉幽州刺史鎮  
 年七十七薨以永樂十八年  
 太歲在戊申十二月辛酉朔廿五日  
 乙酉成遷移玉柩周公相地  
 孔子擇日武王時歲使一  
 良葬送之富及七世子孫  
 番昌仕宦日遷位至侯王  
 造藏萬功日煞牛羊酒米粢  
 不可盡旦食鹽豉食一記  
 世寓寄無”

모두 14행 154자로 되어 있다. 영락 18년(408년)은 고구려 광개토왕의 연호이며, 무덤 주인의 이름은 鎮으로 성씨는 희미하여 분명치 않다. “國大小兄”은 고구려의 관직이며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중국 위진시기의 제도에 속한다. 이 무덤은 여러 차례 도굴당하여 부장품은 고찰할 수 없다.

유주자사 진이 역임한 관직을 살펴보면 小大兄을 제외하면 모두 전연의 관직이다. 아마도 전연이 멸망한 후 일부의 사람들을 대동강 유역까지 데려왔을 것인데 전기에는 修壽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고 동수가 죽은 후 유주자사 진이 동수를 대신하여 이 지역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 고구려는 대동강 유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였으나 통치세력은 이 지역까지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진의 관직은 주로 진이 책봉한 것이다. 404년 고구려가 완전하게 대동강 유역을 점령한 후에 진은 비로소 小, 大兄으로 봉해졌고, 고구려 연호를 받들게 되었다. 그러나 408년 죽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관직은 小大兄에 이르렀다.

유주자사 진이 죽은 408년을 향년 77세로 추산해 보면 그는 331년 태어났는데, 慕容皝시기에는 그의 나이가(6~17세) 너무 어리기 때문에 유주자사를 역임하기 어렵다. 그리고 慕容德, 慕容超시기에는 그의 나이가(67~77세) 너무 많기 때문에 역시 유주자사를 역임할 수 없다. 그런데 慕容暉시기에는 그의 나이가 29~39세 사이로 정확히 장년의 나이로 완전히 유주자사를 역임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70년 전연이 멸망한 후에는 고구려에 의탁하여 대동강 유역까지 오게 되었으며, 전연이 멸망하였기 때문에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살펴보자. 고구려는 본래 중국 경내의 縣에 속한 侯國으로 그 활동 영역은 기본적으로 중국 경내에 해당한다. 그 동쪽과 북쪽은 중국 기타 민족인 말갈의 여러 部와 부여가 건립한 정권과 접하고 있었으며, 서쪽과 남쪽은 중국의 요동군과 낙랑군, 대방군과 접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고구려는 초기 신라와 직접적인 왕래가 없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중원을 침범하고 이웃 종족을 벌하여 멸망시키면서 낙랑군과 대방군을 점령하면서 한반도에 진입한 후로 비로소 신라의 왕래가 시작되었다.

고구려와 신라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것은 3세기에 이르러서였다. 문헌 기록에 따르면 魏 正始5년(244년) 관구검이 고구려를 공격하였을 때 고구려왕은 옥저로 도망가는데 신라와는 東穢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고구려는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여 두고 있었는데 신라 조분이사금 16년(245년) 신라 북부의 변경을 침범하였다. 그리고 고구려 동천왕 22년(248년)에는 신라가 사신을 보내 고구려와 화친하였으나 이후 이 관계는 또 다시 중단되었다. 313년 고구려는 낙랑군을 점유하는데 그 세력이 대동강유역까지 다다랐으며 다시 한강유역을 향해 전개되었는데 이 때 비로소 신라와의 왕래가 빈번해지게 되었다. 이때는 주로 신라와 함께 백제·왜국과의 전쟁에 공동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三國史記·高句麗本紀六』의 기록에 따르면, 고국양왕 9년(392년) 고구려는 “신라에 사신을 보내 우호관계를 맺자 신라왕은 조카 실성을 보내 불모로 삼았다.” 『三國史記·新羅本紀三』에는 신라 내물이사금 37년(392년) 역시 이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니 왕은 고구려가 강성하므로 伊餐 大西知의 아들인 실성을 보내어 불모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廣開土大王碑』에 기록된 “辛卯年(391年)來, 倭渡海破百殘, □□□羅以爲臣民”와 결합하여 분석해보면 왜가 신라를 침범하여 소요를 일으킨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며 신라는 왜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구려와 우호 관계를 맺고 구원을 요청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廣開土大王碑』 고구려 광개토왕 19년(399년)의 기록에는 “新羅遣使白王雲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恩慈矜其忠誠, 特遣使還, 告以密計. (廣開土王) 十年庚子 (400年)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自倭背急追, 至任那加羅從城, 拔城即歸服, 安羅人戍兵拔新羅城……. 昔新羅安錦, 未有身來朝貢, □□□□廣開土境好大王□□□□……朝貢.” 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락의 비문에는 고구려가 출병하여 신라를 구원하여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한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의 지원으로 신라는 왜군의 침습을 물리칠 수 있었으며 신라왕은 감사의 표시로 친히 고구려까지 가서 조공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三國史記·高句麗本紀』와 『三國史記·新羅本紀』에는 모두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 『廣開土大王碑』을 통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

이 때의 전투 이후 신라와 왜의 관계는 완화되었는데, 실성이사금 원년(402년) 신라는 “왜국과 호의를 통하여 내물왕의 아들인 未斯欣을 불모로 삼았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길지 않았다. 실성이사금 4년(405년) 왜병은 다시 내침하였으며, 고구려의 지원을 얻기 위하여 신라 실성이사금 11년(412년) 신라는 다시 내물왕의 아들 卜好를 고구려에 불모로 보냈다.

위의 기록들을 통해 볼 때 이 시기 신라와 고구려는 주로 왜에 대항하기 위하여 연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고구려는 북방에서 위와 평화 우호 관계를 건립하고 남쪽으로의 세력 확장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몇 세기에 걸쳐 고구려가 신라를 침략하는 전쟁이 야기되었다.

넷째,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를 살펴보자. 고구려 왕실과 백제는 서로 같은 부계의 선조에서 전해 내려왔는데 모두 주몽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고구려의 모계 조상은 북부여이며 백제의 모계 선조는 졸본부여이다. 두 나라의 중간에는 낙랑군, 대방군이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두 나라 사이에 왕래는 없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시작된 것은 3세기부터이나 실질적으로 빈번한 접촉은 4세기에 이르러서였다.

4세기부터 5세기 전엽까지 고구려와 백제는 주로 연이은 전쟁을 벌였는데, 당시 신라는 왜로부터 매년 침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고려의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平安無事하였는데 다만 403년 1차례 백제가 신라의 변경을 침입한 적이 있었다.

사료의 기록에 따르면 백제 책계왕 원년(286년) 고구려가 대방을 공격하자 대방은 백제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백제가 출병하여 구원하자 고구려가 이를 원망하였다. 백제왕은 고구려가 변경을 침입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아단성, 사성을 수축하여 고구려 공격을 방비하였다. 그러나 당시 고구려는 낙랑군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국 사이에 관계는 발생하지 않았다. 313년 고구려가 낙랑군을 점령하고 이 지역에 대한 통치를 공고화한 후부터 남진의 서막이 열리게 되자 백제에 대한 일련의 정벌전쟁이 전개되었다.

먼저 고국원왕 39년(369년) 고구려왕은 병사 2만으로 백제를 남벌하였으나 치양에서 싸워 패하였다. 이 전쟁에서 고구려는 시작이 순조롭지 않아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아야 했다. 41년(371년) “백제왕이 병사 3만을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하였는데 왕이 군사를 보내 막았으나 유시에 맞아 이달 23일 돌아갔다.” 고구려는 백제와의 전쟁에서 다시 한번 실패하고 말았다.

소수림왕 5년(375년) 고구려는 백제의 수곡성을 공격하였다. 6년(376년) 고구려는 다시 백제의 북쪽 경계를 침입하였다. 7년(377년) 10월에 백제는 고구려가 재해를 입은 틈을 타고 병사 3만으로 평양성을 침범하였다. 11월 고구려는 남쪽으로 백제를 쳤다.

고국양왕 3년(386년) 8월 고구려는 병사를 일으켜 남으로 백제를 쳤다. 6년(389년)에는 백제가 고구려를 침범하여 남쪽 경계의 부락을 약탈하고 돌아갔다. 7년(390년) 백제가 達率 眞意謨를 보내어 고구려 都押城을 쳐부수고 2백 명을 사로잡아 갔다.

이 시기 백제는 자주 신라와 서로 지원하였는데 전쟁 중에 전세가 유리하면 고구려의 남쪽으로 내려가 격퇴하였다. 한강 이북은 백제에 속하게 되었으며 백제는 한성으로 천도하였다.

광개토왕 때에 이르러 國富民康, 五穀丰熟의 유리한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대외 정벌 전쟁을 전개하였다. 원년(392년) 7월 고구려왕은 병사 4만을 이끌고 백제의 북쪽 경계를 공격하여 石峴 등 10여 성을 함락하고 한수 북쪽의 여러 부락도 많이 함락되었다. 10월 백제 關彌城을 함락하였는데 그 성은 사면이 몹시 가파르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왕은 7개 길로 군사를 나누어 공격하여 20일 만에 함락하였다. 고구려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전쟁에서 불리했던 국면을 전환할 수 있었다.

2년(392년) 백제가 고구려 남쪽 변경을 공격하였으나 고구려가 이를 막았다.

3년(393년) 백제가 침범하자 고구려왕이 精騎 5천을 거느리고 격퇴하였다. 나라 남쪽에 7성을 쌓아 백제의 침범에 대비하였다.

4년(394년) 백제왕이 左將 眞璠 등에 명하여 고구려를 치게 하였는데 고구려왕 담덕은 친히 병사 7천을 이끌고 패수(지금의 대동강)에서 진을 치고 막아내어 백제를 대패시키고 8천여 명을 사로잡았다. 11월 백제가 패수의 전투를 보복하려 친히 병사 7천 명을 이끌고 한수를 건너 청목령 아래에 이르렀으나 큰 눈을 만나 동사한 병사들이 많아 회군하여 한산성에 이르러 군사를 위로하였다.

6년 호태왕은 백제를 정벌하고 전쟁에서 왜구를 물러가게 하였다. 비문에 그 원인을 새겼는데, 이것은 바로 유명한 “辛卯年”조로 제1면 8행 아래쪽과 제9행 상부에는 “百殘新羅, 旧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 來渡□破百殘□□羅以爲臣民.”로 기록되어 있다. 광개토왕 6년 丙申에는 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군이 □□에 이르러 백제 50여 성을 공취하고, 백제의 도성을 꺾박하였다. 백제왕은 궁궐하여 남녀 생구 1천 명과 세포 1천

필을 바쳤다. 백제왕이 와서 스스로 맹세하기를 지금부터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고 하였다. 태왕은 은혜로서 미혹한 허물을 용서하고 그 후로도 공순한 성의를 보일 것인지 살피었다. 이에 58성과 70촌을 얻었으며 백제왕의 동생과 대신 10명을 데리고 군사를 돌려 국도로 돌아왔다. 이것은 『廣開土大王碑』에 기록을 따른 것인데, 이 사건은 『三國史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게다가 연대도 양자가 서로 맞지 않다. 『三國史記』 광개토왕 6년은 397년이지만 『廣開土大王碑』에 근거하자면 병신년은 마땅히 396년이다. 따라서 이 곳에서는 서력 기원 연대를 표시하지 않았다.

7년(398년) 백제가 고구려를 치고자 왕이 한산 北柵에 이르렀는데 그날 밤 큰 별이 군영 안에 떨어져 소리가 났다. 왕이 크게 꺼려 그만두었다.

8년(399년) 백제가 고구려를 치고자 크게 병마를 징발하였다. 백성들이 병역에 괴로워하며 많은 수가 신라로 도망하여 민호가 줄어들었다.

9년 기해에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왜와 和通하였다.

10년 경자에 고구려는 신라로 출병하여 왜군을 격퇴하였다. 병사를 백제로 옮겨 그 성에 위싸자 백제왕이 두려워 보물을 바치고 그 아들을 볼모로 보냈다. 이것 역시 『廣開土大王碑』의 기록을 따른 것인데 이 사건은 『三國史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연대는 양자가 서로 맞지 않다. 『三國史記』 광개토왕 9년은 400년이나 『廣開土大王碑』에 따르면 기해년은 399년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서력 기원 연대를 표시하지 않았다. 백제는 점차 쇠약해져 그 후로 80여 년간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고구려가 우세를 점하여 한강 이북의 땅을 빼앗고 한성을 別都로 삼았다.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였으며 전쟁은 점차 한강 이남으로 옮겨갔다. 후기 백제는 점차 쇠약해져 고구려에 부속(臣附)하여 연합군으로 신라를 공격하였는데 마지막에는 신라가 당에 구원을 요청하고 당은 백제를 멸하였다.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후로 2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다툼(爭戰)이 지속되었다. 다툼의 주요 戰場은 패수(지금의 대동강)와 한강 사이였다. 이 지역은 본래 위진 대방군의 땅인데, 고구려와 백제는 모두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진 대방군의 땅을 얻고자 다툼을 벌였다.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는 실제로는 고구려가 한반도의 북부를 침략한 뒤이며 계속 남쪽을 향해 백제를 침략하였던 역사이다.

다섯째, 고구려와 왜(일본)의 관계를 살펴보자. 고구려가 건국한 초기 일본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문헌에서는 왕래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日本書紀』에 應神天皇 7년(276년) 고구려가 입조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고구려와 왜가 정식으로 접촉한 것은 4세기에 이르러서였다. 고구려는 남쪽으로 진 낙랑군, 대방군을 점령한 후로 한반도로 진입하게 된다. 이 때 왜 역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약탈하고 끊임없이 북쪽에 있는 신라, 백제 지역을 침범하였는데 백제와 왜는 우호적으로 맺어 있었다. 고구려와 왜의 관계는 실제로는 고구려와 신라가 백제와 왜의 연맹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왜병을 격퇴하는 관계였다. 백제와 왜의 결맹에 관하여 『三國史記』와 『廣開土大王碑』에 모두 기록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阿莘王六年(397)王与倭國通好, 以太子腆支爲質.”와 “九年己亥(399年), 百殘違誓與倭和通.”와 같은 기록이 있다.

고구려와 왜의 관계는 주로 『廣開土大王碑』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주로 7곳으로 이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倭以辛卯年(391년)來，渡海，□破百殘，□□羅以爲臣民。”

“九年己亥(399년)，百殘違誓與倭和通。新羅遣使白高句麗王云：“倭人滿其國境，潰破城池，以奴客爲民，歸王請命，太王恩慈，矜其忠誠，王遣使告以密計。”

“十年庚子(400년)，敎遣步騎五萬，往救新羅，從男居城至新羅城，倭滿其中。官軍方至，倭賊退。自倭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城即歸服。安羅人戍兵拔新羅城鹽城。倭滿，倭潰城內……。”

“十四年甲辰(404년)而倭不規，侵入帶方界。□□□□石城□連船□□□□率□□□平壤。□□鋒相遇。王幢要截蕩刺，倭寇潰退，斬殺無數。”

“十七年丁未(407년)敎遣步騎五萬□□□□□□□王師□□□合戰，斬煞蕩盡，所獲鎧甲一萬餘領，軍資器械不可勝數，還破沙溝城……。”

이러한 몇 군데의 기록에서 391년, 399년 기록된 것은 백제, 신라와 왜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후에 몇 번은 고구려와 왜의 전쟁을 기록한 것으로 첫 번째는 400년 고구려가 신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출병하여 왜의 침입을 격퇴한 것이다. 두 번째는 404년 왜가 출병하여 대방(지금의 한강유역)을 공격하였으나 고구려에 격퇴 당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407년 고구려가 출병하여 남은 도적을 모두 몰아내는데 모두 고구려가 대승을 거두는 기록이다. 이후 고구려와 왜의 군사적 충돌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맺 음 말

고구려가 낙랑, 대방 2군을 점거함에 따라 고구려의 거주 범위, 지리환경, 경제생산방식, 인구구성 등은 변화가 일어났다. 원래 고구려족은 주로 거주구역이 국내 지역, 졸본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동쪽으로 지금의 연변지역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남쪽으로는 청천강을 넘어서지 않았다. 또한 서쪽으로는 요동을 포함하지 않았고 북쪽으로는 길림 합달령을 넘어서지 않았다. 5세기 이후에 이르면서 고구려인의 거주지역은 몇 배로 확대되는데 동쪽 경계는 변화가 크지 않아 고구려인의 북옥저 및 옥조인 거주지역으로의 대량 이동은 거의 없었다. 북쪽 경계 역시 변화가 크지 않아서 부여인 거주 지역으로의 대량 이동은 없었다. 그러나 서쪽과 남쪽은 비교적 큰 변화가 있었다. 서쪽으로는 요하에 이르렀으며 남쪽으로는 대동강을 넘어섰기 때문에 李敖는 그 민호가 前魏 때에 보다 3배가 늘었다고 하였다.

사료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고구려가 몇 차례 심각한 공격을 받아 거의 멸망 단계까지 이르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원 또는 북방정권의 세력에 의한 것이다. 예부터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정권은 무릇 번속의 예를 엄수하여 중원왕조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封部和樂，百姓宴甯，經濟發展과 文化繁榮”의 昌盛국면이 나타날 수 있었다. 412년 장수왕이 즉위한 후로 과감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역사의 경험과 교훈을 흡수함으로써 고구려의 강역은 전에 없이 확대되어 남쪽에서의 안정과 견고함, 북쪽에 잠재하고 있는 위협이 있는 형세에서도 일련의 견고한 통치 대책을 취하여 순조롭게 역사의 발전 추세로 나아갈 수 있었다.

먼저 대외 정책면에 있어 북쪽으로는 중원 남북의 여러 왕조와 화합하고, 남쪽으로는 백제

와 신라를 공격하는 “避實就虛” 전략을 실행하였다. 이 전략은 북쪽으로부터의 강대한 압력을 감소시키고 남쪽으로는 이미 얻은 이익을 공고화함으로써 고구려의 세력이 더욱 발전을 가능토록 하였다. 장수왕은 즉위 원년부터 “長史 高翼을 진에 보내어 表를 봉하고 赭白馬를 선물하였다.” 진 안제는 그를 “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麗王、樂浪公”으로 봉함으로서 동진의 승인과 지지를 얻었다.

문헌 기록의 통계에 따르면, 장수왕대에 위에 조공한 횡수가 46차례에 이르는데, “해마다 황금 200근, 백은 400근을 바쳤다.” 그리고 위는 “보답으로 내리는 것도 조금씩 더하여 주었다.” 그리고 장수왕을 “都督遼海諸軍事、征東將軍、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으로 봉하였다. 이러한 “通和結好” 정책으로 고구려는 전대 여러 왕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장면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內政建設 方面에 있어 압록강 이남 지역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동강과 한강유역의 자연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북위의 위협을 멀리 떨어뜨릴 수 있었다. 427년 장수왕은 왕도를 평양으로 남천하였다. 이것은 바로 “避實就虛”의 대외 정책과 서로 호응하는 것으로 한반도 형세의 발전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왕도를 평양으로 남천한 후로 고구려는 비교적 선진적인 문화와 과학기술을 한반도 중심지역까지 가지고 들어갔으며, 대동강과 한강 유역에 진일보한 개발을 가져옴으로서 견고한 통치 기지를 형성하였다. 남쪽으로는 백제의 침입을 대처하고 한강유역의 농업 우세를 충분히 이용하여 통치 역량을 증대하였으며, 북쪽으로는 탁발씨의 위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장기간에 걸친 평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일단 형세가 변하면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막는 방식을 모두 선택할 수 있었다.

그와 함께 고구려가 통치 중심을 남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신라와 백제의 발전에 있어서도 역시 일정한 추진 작용을 발생시켜 후세에 한반도의 민족 융합과 통일에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장수왕이 백제, 신라에 대한 벌인 전쟁을 평양 천도와 연관시켜 본다면 여기에는 한반도를 통일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삼국 사이의 끊임없는 충돌은 서로를 약화시켜 통일하고자 하는 역량을 크게 상쇄시켜 누구도 한반도의 통일을 가져올 수 없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후세에는 각기 당 왕조에 의해 격파되어 계속해서 중원왕조에 신속하게 되었다.

427년 이전 400여 년 동안 고구려의 통치 중심은 시종일관 국내성에 위치하고 있었다. 광개토왕 시기 고구려가 백제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둠으로서 그 형세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이 발생하게 되었다. 먼저 고구려의 변경이 크게 남쪽으로 이동하여 대동강을 넘어 한강 유역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같이 한반도에서 비교적 풍요로운 중심 지대까지 진입하여 넓고 비옥한 토지를 얻게 된 것은 고구려의 변영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하여 장대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때 백제는 기본적으로 고구려에 의해 힘이 약화되어 “朝貢論事”하기를 원하면서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고 하였다. 원래 점거하고 있던 낙랑지역 역시 더욱 공고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밖에 요동지역은 고구려가 전부 차지하였고 모용씨는 이미 강력한 경쟁 상태가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선비의 한 가지인 탁발씨가 계속 일어나 강대한 북위정권을 건립하였다. 그 세력은 끊임없이 남하하여 모용씨와 격렬한 쟁탈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단 연이 멸망한 후로는 보호벽을 잃어버려 고구려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위협을 끼치게 되었다. 실제로 436년 북위 대무제는 “고구려가 詔命을 어겨 고구려를 칠 것을 의논하였다.” 이를 통해 북위가 고구려에 대한 위협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고구려 중기(246~427년)에 해당하는 3~5세기는 고구려 역사에 있어 중요한 단계일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하게 이 때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당시 동북아 여러 민족정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며, 고구려와 신라, 백제의 관계를 복원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 <3-5世紀 東北亞 諸民族・政權的 關係 研究>에 대한 討論文

孔錫龜(國立한밭大 敎授)

孫泓 선생의 발표문은 3-5세기 高句麗와 中原에서 興滅했던 여러 정권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찰한 글이다. 본 논문은 당시 高句麗와 중국 여러 王朝와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당시의 상황속에서 규명하려고 노력한 글이라기보다는 당시의 兩者關係를 現在的 立場에서 해석하려고 시도한 글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논문은 중국역사를 統一的多民族國家論의 범주 속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발표자의 입장이 여지없이 반영된 글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서 당시 고구려역사의 해석에 대해 발표자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토론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한 역사인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觀點의 차이를 가지고 몇 가지 문제를 토론하고자 한다.

첫째로 구체적인 문제를 토론하기 이전에 한두 가지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한다. ① 서문부분에 慕容鎮政權이라고 표현하였다. 발표자는 덕흥리고분의 피장자를 慕容鎮이라고 해석한 것 같다. 하지만 16쪽을 보면 孫선생은 성씨부분에 대해 불분명한 상태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발표자의 구체적인 소견을 듣고 싶다. ② ‘404년 고구려는 西進을 시작하여 玄菟郡, 遼東郡을 점유하고 또한 南進하여 樂浪郡과 帶方郡까지 점유하였다’라고 하였다(13쪽). 그렇게 기술한 文獻史料의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로, 246-313년, 314-393년, 395-427년으로 구분하여 각 시기 별로 고구려와의 관계를 서술하였다. 그런데 정작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각 해당시기와는 관계없는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 의미부여를 시도한 부분이 많다. 한 예를 들어 246-313년 부분에서 246년 이전에 발생했던 다수의 역사적 사건(後漢, 魏대의 사건)을 기술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처에서 다수 발견된다. 또한 395-427년 부분에서는 370-380년대 고구려-백제관련 기록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부분은 314-395년 부분에서 기술하고 그 관계가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실태는 당시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아마도 발표자의 의도를 곳곳에서 충분히 깨 드러내 위한 목적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셋째로, 사료 해석상의 문제점을 토론하고자 한다. ① 孫선생은 中國側 史料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313년 高句麗는 ...(中略)...朝鮮半島로 進入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있다(5쪽). 이와 같은 시각은 문제가 있다. 朝鮮半島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고구려는 압록강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체제를 발전시켜 나갔다. 압록강 이남의 독로강 유역에서 고구려 초기의 고고학유적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여러 사료(<三國志>.<後漢書><三國史記>)를 보면 313년 이전에 고구려가 압록강 이남의 여러 小國을 비롯하여 함경도, 강원도지역에 있던 東沃沮, 濊 등의 지역을 복속한 사실을 찾을 수 있다. ② 동수의 관작에 대한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東晉이 燕과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점유하고 있음을 승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12쪽). 발표자는 동수의 官爵을 당시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의 심층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관작은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虛構화된 官爵으로서 동수가 自稱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창려, 현도, 대방은 당시 요동, 요서지방에 존재하고 있던 행정구역 명칭이기 때문에 황해도와 재령강유역에 근거하고 있던 동수가 행정적으로 지배하기엔 현실적 의미가 없다는 이유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③ 3장(395년-427년)에서 ‘高句麗는 이 기회를 틈타 大同江을 점령하고 平壤으로 遷都하면서 新羅, 百濟와의 관계를 시작하였다’(13쪽)라고 하였다. 그런데 <三國史記>를 보면 이미 360-380년대에도 고구려가 신라, 백제 간에 발생했던 정치적인 제반관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다수 존재한다. 발표자는 <三國史記> 기록을 참조하지 않은 듯하다. ④ 고구려와 중국의 여러 정권과의 관계를 ‘地方割據政權’, ‘地方政權’, ‘藩國’, ‘屬國’, ‘臣服’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마도 朝貢, 冊封 기사를 바탕으로 이런 해석을 한 것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 이미 많은 논리적 반박이 있었음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시

고구려가 존재하던 시기에 서쪽으로 고구려와 국경을 접했던 王朝는 後漢, 魏, 晉, 前燕, 前秦, 後燕, 北燕, 北魏, 北齊, 隋 등의 여러 王朝였다. 이들 王朝는 고구려와 접경하여 대립, 갈등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했다가 소멸해갔다. 고구려가 지방정권이라는 시각에 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 ⑤ 이와 관련하여 孫선생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이 있다. ‘高句麗와 北燕은 동일하게 中國의 地方割據政權이 되었는데 東晉 의희 9년...(中略)...高句麗國은 다시 晉의 屬國이 되었다’ 라 기술하였다(15쪽). 여기서 中國이 東晉을 말하는 것이라면 고구려가 413년 이전에 東晉의 地方割據政權이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또 고구려가 413년 이후 東晉의 屬國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地方割據政權과 屬國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 413年 高句麗의 對東晉使 派遣과 그 背景

김진한(한국학중앙연구원)

1. 머리말
2. 倭의 位相과 高句麗의 對倭認識
3. 高句麗의 對東晉使 派遣 背景
4. 맺음말

## 1. 머리말

4세기 말 5세기 초 중원대륙은 5胡16國의 혼란기를 벗어나 南北朝時代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처해 있었다. 당시 화북일대에서는 北魏가 南東進하며 요서일대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강남에서는 일시적이거나 東晉이 반란을 진압하고 北進하는 등 세력을 회복하였다. 이러한 시기 장수왕은 즉위 이듬해인 413년 東晉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343년 고국원왕이 사신을 보낸<sup>1)</sup> 이후 70년만의 파견으로써 본격적인 對南朝 교섭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413년 고구려의 對東晉使(이하 東晉使로 약칭) 파견과 관련해서는 일본학계에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倭 5王’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倭’를 주목하였으며 고구려는 이를 밝히기 위한 일환으로 함께 다루어졌다. 그 가운데 고구려의 동진사 파견과 관련한 주요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구려가 동진사를 파견한 배경은 무엇인가하는 점이다. 江畑武는 백제 및 일본(왜)에 대항하기 위한 필요에서 남조에 접근한 것으로 이해하였다.<sup>2)</sup> 池田溫은 백제와 왜의 對南朝交流를 염두에 두면서 東晉에서 宋으로 교체되어가는 남조의 시대적 분위기와 왜를 수반함으로써 동진에 대해 고구려의 國威를 자랑하려는 의도로 파악하였다.<sup>3)</sup> 坂元義種도 왜를 데려와 동진의 환심을 사는 한편 자국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던 것으로 보았다.<sup>4)</sup> 武田幸男은 장수왕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에 따른 南朝와의 교섭 재개는 왜에 대항하려는 고구려의 對倭認識·對倭政策과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sup>5)</sup> 양기석은 백제와 왜의 연결관계를 끊고 왜에 대한 유화책의 일환으로 동진에 함께 교섭을 벌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sup>6)</sup>

1) 『晉書』卷7 帝紀 第7, “(建元元年)十二月 高句驪遣使朝獻”

2) 江畑武, 「四~六世紀の朝鮮三國と日本」, 『朝鮮史研究會論文集』4, 1968 ; 김기섭 편역, 『고대한일관계사의 이해-倭-, 이론과 실천, 1994, 370쪽.

3) 池田溫, 「義熙九年倭國獻方物をめぐって」, 『江上波夫教授古稀記念論集』歴史篇, 山川出版社, 1977 ; 『東アジアの文化交流史』, 吉川弘文館, 2002, 26~37쪽.

4) 坂元義種, 『倭の五王-空白の五世紀』, 教育社, 1981, 73쪽.

5) 武田幸男, 「長壽王の東アジア認識」,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224~226쪽.

6) 梁起錫, 「5세기 百濟와 倭의 關係」, 『왜 5왕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93쪽.

이밖에 동진의 세력신장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견해도 있다. 大庭脩는 410년 東晉將軍 劉裕가 南燕을 멸망시키면서 동진이 산동반도를 영유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sup>7)</sup> 川本芳昭도 외적요인으로 大庭脩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으며 동진의 군사력 신장에 대처하고자 한 것으로 보았다.<sup>8)</sup> 吳慧蓮은 동진이 南燕을 멸망시키면서 그 명성을 다시 떨치게 되자 고구려가 사절을 파견한 것으로 보았다.<sup>9)</sup> 石井正敏도 산동반도 정세의 변화 및 백제와 왜에 대한 抗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남조로 入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sup>10)</sup>

둘째, 고구려와 왜가 함께 동진에 입조하였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同時入貢說과 倭人捕虜說, 個別入朝說 등으로 의견이 나뉘어 있다. 橋本增吉과 今西春秋는 함께 입조한 것으로 보았다.<sup>11)</sup> 池田溫은 貢物과 賜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왜가 고구려의 특산품을 짚에 바쳤다는 점을 주목하고 고구려와 왜의 同時入貢說을 보강하였다.<sup>12)</sup> 川本芳昭는 『日本書紀』應神 37년조에 보이는 阿知使主의 甌那라 파견 기록을 이 기사와 연관시켜 고구려와 왜의 同時入貢說을 지지하였다.<sup>13)</sup>

한편, 坂元義種은 고구려와 왜가 함께 입조하였지만 倭使는 정식사절이 아닌 고구려가 포로로 잡았던 倭人이라고 보았다.<sup>14)</sup> 西嶋定生과 강종훈도 이러한 사카모토의 주장에 동의를 표하였다.<sup>15)</sup> 그리고 武田幸男은 倭國使를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함께 入朝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으며 왜국사가 捕虜인지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강한 대외인식·대외정책의 산물이라고 파악하였다.<sup>16)</sup>

石井正敏은 ‘義熙起居注’<sup>17)</sup>에 보이는 倭國을 誤記 내지 잘못된 인용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sup>18)</sup> 당시는 고구려와 왜가 함께 사신을 파견할 환경이 아니었으며 더구나 외국사신을 황제의 德治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신을 통해 그 나라의 事情을 聽取하는 점을 고려하여 同時入貢說이나 倭人捕虜說을 모두 비판하였다.<sup>19)</sup> 노중국은 共同入貢說(동시입공설)이나 왜인포로설의 근거가 되는 貂皮나 人參은 고구려 특산품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사신의 파견시기 또한 우연히 겹치거나 史官에 의해 일괄 정리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고구려와 왜의 單獨入貢(개별입조)으로 보았다.<sup>20)</sup> 후보돈도 시점이 비슷할 뿐 각기 따로 갔던 것

7) 大庭脩, 「三・四世紀における東アジア諸族の動向」,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3, 學生社, 1981, 145쪽.

8) 川本芳昭, 「倭の五王による劉宋遣使の開始とその終焉」, 『東方學』76, 1988, 21~23쪽 ; 濱田耕策도 川本芳昭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高句麗長寿王という時代-父王広開土王の治績を継いで-」, 『朝鮮學報』199-200, 2005, 235쪽).

9) 吳慧蓮, 「魏晉南北朝時期 中韓關係에 대한 再檢討」, 『百濟史上의 戰爭』, 2000, 204쪽.

10) 石井正敏 外2人 編, 『東アジア世界の成立』, 吉川弘文館, 2010, 77쪽.

11) 橋本增吉, 『東洋史上より見たる日本上古史研究』(改訂増補版), 東洋文庫, 1956, 393~395쪽. 橋本增吉의 견해는 池田溫의 글을 참고하였다. 池田溫, 「義熙九年倭國獻方物をめぐって」, 『東アジアの文化交流史』, 吉川弘文館, 2002, 29쪽 ; 今西春秋, 「MANJU雜記5(50) 晉の起居注」, 『朝鮮學報』63, 1972, 29~30쪽.

12) 池田溫, 「義熙九年倭國獻方物をめぐって」, 『東アジアの文化交流史』, 吉川弘文館, 2002, 30~35쪽.

13) 川本芳昭, 「倭國の四一三年東晉遣使」, 『新版 古代の日本2-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 角川書店, 1992, 191~192쪽. 川本芳昭의 견해는 石井正敏의 글을 참고하였다(「5世紀の日韓關係」,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제1권, 2005, 278쪽).

14) 坂元義種, 『倭の五王-空白の五世紀』, 教育社, 1981, 69~73쪽.

15) 西嶋定生,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會, 1983, 467쪽 ; 강종훈, 「羅濟同盟의 結成 背景과 高句麗의 對外關係」, 『대구사학』105, 2011, 23~24쪽.

16) 武田幸男, 「長壽王の東アジア認識」,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226쪽.

17) 『太平御覽』卷981 香部1 麝香條, 「義熙起居注曰 倭國獻貂皮人參等 詔賜細笙麝香」

18) 石井正敏, 「5世紀の日韓關係」,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제1권, 2005, 283~290쪽.

19) 石井正敏 外2人 編, 『東アジア世界の成立』, 吉川弘文館, 2010, 76~77쪽.

20) 노중국, 「5世紀 韓日關係史」,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제1권, 2005, 227~230쪽.

으로 이해하였다.<sup>21)</sup> 김인홍은 고구려와 왜가 각각 단독으로 입공하였으며 동진에서 우연히 만난 것으로 보았다.<sup>22)</sup>

셋째, 고구려가 동진으로부터 받은 책봉호문제는 堀敏一은 당시 고구려가 받은 책봉호가 前燕으로부터 주어진 것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동진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았다.<sup>23)</sup> 김택민은 『三國史記』와 『宋書』에 보이는 책봉호의 차이를 주목하고 413년 고구려가 보낸 사절은 동진의 실권자인 유유의 간청에 따른 것이며 책봉 또한 고구려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았다.<sup>24)</sup>

이 글에서는 이상의 논의 가운데 고구려의 동진사 파견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연구 흐름이 주목된다. 첫째, 일본학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 시각이다. 일본학계는 왜와 관련해 고구려의 동진사를 검토하였으며 그 속에는 고구려가 왜를 강력한 대항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대한일관계사를 바라보는 일본학계의 시각이 그대로 녹아있다. 즉, 『日本書紀』에 보이는 임나일본부 기사와 광개토왕비문에 나타난 辛卯年조 기사를 통해 왜의 南鮮經營論을 주장하던 예전 입장에서는 후퇴하였지만 왜가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출하고자 했음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구려와 왜는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둘째, 고구려의 동진사 파견 배경을 동진의 세력신장이라고 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관련해 주목하는 견해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백제와 왜에 한정해서 이해하고 있다. 여기에는 4세기 고구려가 한반도 서북부에 자리한 낙랑군과 대방군을 점유하고 남진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백제와 경쟁했던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구려는 남방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늘 西北方諸國과 관계를 맺어왔으며 멸망할 때까지 이를 소홀히 했던 적은 없었다. 이는 광개토왕대 對百濟관계와 함께 對後燕관계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남방문제에 한정해서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서북방정세를 함께 고려하여 그 배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 倭의 位相과 高句麗의 對倭認識

고구려는 왜에 대항하기 위해 동진사를 파견하였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왜의 국제적 위상과 고구려는 당시 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다.

왜의 국제적 지위(위상)를 보여주는 자료로 4~5세기 중원왕조로부터 받았던 책봉호가 있다. 당시 책봉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남북조시대 주변국이 받은 책봉호 가운데 장군호는 국제적 지위를 말해주는 기본적인 척도임<sup>25)</sup>과 동시에 책봉의 주체인 남북조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점<sup>26)</sup>이 밝혀졌다. 물론 중국의 책봉에 대해 관련 諸國이 그 官爵의 高下에 따른 서열을 상호 인정하였는가, 그리고 諸國 상호간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느냐는 한계를 지적하는 견해<sup>27)</sup>도 있다. 다만, 여기서는

21) 후보돈, 「5세기 高句麗·新羅와 倭의 관계」, 『왜 5왕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156~157쪽.

22) 김인홍, 「4~5세기 高句麗와 倭의 外交의 交渉에 대한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36~45쪽.

23) 堀敏一, 『東アジア世界の形成』, 汲古書院, 2006, 244쪽.

24) 김택민, 「중국 고대 정권찬탈자들의 重譯來庭論」, 『歷史學報』213, 2012, 294쪽.

25) 坂元義種, 「五世紀の日本と朝鮮」,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1978, 268~270쪽.

26) 金種完, 『中國南北朝史研究』, 一潮閣, 1995, 125~126쪽.

27) 이성규, 「中國의 分裂體制模式과 東아시아 諸國」, 『韓國古代史論叢』8, 1996, 300~318쪽.

책봉호의 유효성이라는 측면보다는 그것이 반영하는 국제적 위상을 비교분석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아래 표는 4~5세기 고구려·백제·가야·왜에 대한 중원왕조의 책봉호 사례를 각 사서에서 뽑아 정리해 본 것이다. 고구려는 5호16국시대 전연과 후연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이후 남북조시대로 접어들면서는 南·北朝로부터 함께 책봉을 받았다. 백제와 가야, 왜는 남조로부터만 책봉을 받았다.

4~5世紀 東아시아 各國 冊封號 比較

國名	授與國		年度	冊封對象	冊封名	參考文獻
	北朝	南朝				
高句麗	前燕		355	故國原王	營州諸軍事 征東大將軍 營州刺史 樂浪公	晉書
	後燕		395	廣開土王	平州牧 遼東帶方二國王	梁書
		東晉	413	長壽王	使持節 都督營州諸軍事 征東將軍 高句驪王 樂浪公	宋書
		宋	420	長壽王	征東大將軍	宋書
		宋	422	長壽王	散騎常侍 督平州諸軍事	宋書
	北魏		435	長壽王	都督遼海諸軍事 征東將軍 領護東夷中郎將 遼東郡 開國公 高句麗王	魏書
		宋	463	長壽王	車騎大將軍 開府儀同三司	宋書
		南齊	479	長壽王	驃騎大將軍	南齊書
百濟		東晉	372	近肖古王	鎮東將軍 領樂浪太守	晉書
		東晉	386	辰斯王	使持節 都督 鎮東將軍 百濟王	晉書
		東晉	416	腆支王	使持節 都督百濟諸軍事 鎮東將軍 百濟王	宋書
		宋	420	腆支王	鎮東大將軍	宋書
		宋	430	毗有王	前王의 爵號 물려받음	宋書
		宋	457	蓋鹵王	鎮東大將軍	宋書
		南齊	480	東城王	鎮東大將軍	南史
加羅		南齊	479	荷知	輔國將軍 本國王	南齊書
		南齊	490	東城王	都督百濟諸軍事 鎮東大將軍 百濟王	南齊書
倭		宋	438	珍	安東將軍 倭國王	宋書
		宋	443	濟	安東將軍 倭國王	宋書
		宋	451	濟	使持節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將軍	宋書
		宋	462	興	安東將軍 倭國王	宋書
		宋	478	武	使持節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王	宋書
		南齊	479	武	鎮東大將軍	南齊書

413년과 416년 東晉으로부터 책봉호를 수수한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宋書』의 관품규정<sup>28)</sup>을 통해 본다면 3품에 해당한다. 그리고 宋이 들어선 420년 고구려와 백제는 각각 征

28) 『宋書』卷40 百官 下.

東大將軍, 鎮東大將軍으로 進號하였으며 이는 2품에 해당한다. 한편, 왜는 413년 입조하였지만 동진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이를 倭使가 입조하지 않은 근거로 보는 견해<sup>29)</sup>도 있지만 오히려 동진의 관심을 끌만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할 듯 하다. 왜가 책봉을 받은 것은 438년에 이르러서이며 이때 송으로부터 3품에 해당하는 安東將軍 倭國王으로 봉해졌다. 송의 입장에서 고구려와 백제는 왜에 비해 중요하게 평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0)</sup>

송의 평가는 왜의 책봉호 요청에 대한 대응에서도 엿볼 수 있다. 438년 倭王 珍은 使持節 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이라고 자칭하며 표를 올려 이를 승인해 줄 것을 청하였지만 송은 安東將軍 倭國王만을 인정하였다. 주지하듯, 백제는 오래전부터 남조와 교섭을 벌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나라였다. 따라서 왜의 요구에 응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秦韓·慕韓은 이미 사라진 국가들이며<sup>31)</sup> 新羅나 任那는 송과 공식적인 교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이다. 송이 이러한 虛號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당시 고구려·백제·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왜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데는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데서도 찾을 수 있다.<sup>32)</sup> 대체로 왜가 일본열도내 살아가는 왜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은 『漢書』地理志로서 “樂浪의 바다가운데 倭人이 있는데 100여 나라로 나뉘어 있으며 해마다 방물을 바친다”고 나와 있다. 왜는 107년 漢에 遣使한<sup>33)</sup> 이후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公孫氏의 등장과 魏의 東方侵入 이후 대방군을 통해 魏와 교류하면서 왜의 사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졌다. 하지만 266년 晉과의 교류를 끝으로 413년 동진에 입조할 무렵까지 약 140여년간 확인되지 않는다.<sup>34)</sup> 이로 볼 때, 왜는 중원왕조의 지리적 인식에서 벗어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고구려는 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三國史記』高句麗本紀에서는 倭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지만 「廣開土王碑文」(이하 비문)<sup>35)</sup>에는 倭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어 고구려의 對倭認識을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비문에서 倭관련 기사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a-1. 永樂五年歲在乙未…百殘新羅舊是屬民 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破百殘□□新羅以爲臣民

2. 九年己亥百殘違誓與倭和通王巡下平穰而新羅遣使白王云倭人滿其國境潰破城池以奴客爲民歸王請命太王恩慈矜其忠誠□遣使還告以□計

29) 坂元義種, 『倭の五王-空白の五世紀』, 教育社, 1981, 66쪽.

30) 笠井倭人是 5세기 책봉호 비교를 통해 고구려·백제가 왜에 비해 국제질서 속에서 높게 평가받았음을 확인하면서도 애써 당시 實勢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古代の日朝關係と日本書紀』, 吉川弘文館, 2000, 316~317쪽). 한편, 韓昇은 南朝의 국제질서 속에서 고구려, 백제, 일본(왜) 순으로 지위상 차이가 있었으며 고구려는 현실정치와 군사적 측면에서 가장 중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南北朝與百濟政治·文化關係的演變」, 『百濟研究』26, 1996, 232~237쪽).

31) 일본학계에서는 여전히 秦韓·慕韓을 辰韓과 馬韓의 땅에 자리하고 있으며 신라나 백제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은 채 자립을 유지한 小國으로 보고 있다(木村誠, 「朝鮮三國と倭」, 『古代を考える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2005, 88쪽).

32) 高橋善太郎은 왜에 대한 宋의 인식 부족에서 찾고 있다(「南朝諸國の倭國王に與えた稱號について-古代日本の國際的地位(下)-」, 『愛知縣立女子短期大學紀要』7, 1956). 이상은 坂元義種,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1978, 262~263쪽의 요약문을 참고하였다.

33) 『後漢書』卷85 倭傳, “安帝 永初元年 倭國王 帥升等 獻生口百六十人 願請見”

34) 井上秀雄, 「中國文獻にあらわれた朝鮮·韓·倭について」, 『任那日本府と倭』, 寧樂社, 1978.

35)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제1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3. 十年庚子教遣步騎五萬往救新羅從男居城至新羅城倭滿其中官軍方至倭賊退 □ □  
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城即歸服安羅人戍兵□新羅城□城倭寇大潰城□

4. 十四年甲辰而倭不軌侵入帶方界□□□□石城□連船□□□王躬率□□從平穰□□□鋒相遇王  
幢要截濫刺倭寇潰敗斬無數

비문에는 倭가 倭(4)·倭人(1)·倭賊(1)·倭寇(2) 등 다양한 용어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 학계에서는 대체로 비문에서 ‘倭’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점, 고구려가 5만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신라구원전에 나섰던 상황(a-3), 고구려의 영역인 대방지역까지 침입했던 사실(a-4) 등을 고려할 때, 왜가 고구려의 主敵으로 인식되었음을 강조한다. 비문자체에 나타난 기사만을 놓고 본다면, 왜는 고구려의 主敵으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이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비문에 반영된 왜의 정체와 그 위상에 대해서는 고구려가 주요한 적대세력이었던 백제를 의식하여 비문에 보이는 백제를 상대적으로 왜소화 시키고 왜를 부각시키려 했음<sup>36)</sup>이 밝혀졌다. 다만, 일본학계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백제의 배후에 있는 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sup>37)</sup> 이는 비문에 나오는 신묘년조 기사(a-1)뿐만 아니라 『日本書紀』에 반영된 高句麗觀<sup>38)</sup>, 478년 倭王 武가 표문을 올리면서 高句麗의 無道함을 비난하는 기사<sup>39)</sup> 등을 토대로 인식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는 왜의 對高句麗認識이지, 고구려가 왜를 주요한 적대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먼저, 고구려에게 차지하는 왜의 位相이나 輕重을 고려해야 한다. 적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할 만큼 강력한 세력이라고 여길 경우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인식밖에 있으며 고려하지도 않았던 세력이 부당하게 개입하게 된 경우이다.

4세기 이전까지 고구려와 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할만한 여지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고구려는 낙랑·대방군을 영유하고 남하하면서 백제와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의 변화속에 백제가 왜와 손잡으면서(a-2) 고구려의 왜에 대한 인식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고구려에게 왜는 백제를 통해 고구려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sup>40)</sup>였으며 비문에 보이는 對倭敵對觀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36) 大山誠一, 「五世紀の外交」, 『東アジアの古代文化』37, 1983, 75쪽. 이때 왜의 정체에 대해 박시형은 『三國史記』新羅本紀에 보이는 왜관련 기록과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왜를 동일체로 간주하고 빈번한 왜의 海賊行爲는 정치적으로 강고한 통일을 이루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 朴時亨 著·全浩天 譯, 『廣開土王陵碑』, そしえて, 1985, 99쪽). 王健群은 당시 倭는 통일정권을 형성하지 않았으며, 비문에 보이는 왜도 北九州일대의 해적집단으로 이해하고 있다(『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1984, 150쪽). 한편, 鈴木靖民은 비문에 보이는 왜를 大和·河内の 유력수장층을 대표하는 왜왕이 각지의 수장층을 동원하여 통일적으로 징발·조직한 군대로 이해하였다(『倭國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2002, 22쪽).

37) 백제와 왜는 고구려의 적이었지만 광개토왕의 남방정책은 왜 주도의 남방정세인식을 기초로 倭主敵의 전략을 취하였다고 이해하고 있는 武田幸男의 견해(『廣開土王碑の百濟と倭』, 『백제연구』17, 1987, 182쪽)가 대표적이다.

38) 井上秀雄, 「『日本書紀』の高句麗觀」, 『日本學』8-9, 1989.

39) 『宋書』卷97 倭國傳.

40) 후보돈은 비문에 보이는 倭를 고구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이자, 고구려 천하관 속에서 포함되는 속민과는 다른 2차적인 존재로 파악하였다(「5세기 高句麗·新羅와 倭의 관계」, 『왜 5왕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135~138쪽). 서영수도 왜를 고구려의 남진과정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존재이자,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천하질서에서 벗어난 이방인으로 인식하였다(서영수, 「광개토대왕비문의 高句麗와 倭」, 『동아시아 속에서의 高句麗와 倭』, 경인문화사, 2007, 51~54쪽).

또한, 『日本書紀』에는 고구려에 대한 기록이 상당수 남아있다. 그 가운데 『日本書紀』應神天皇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해온다.

b. 九月 高麗王遣使朝貢 因以上表 其表曰 高麗王教日本國也 時太子菟道稚郎子讀其表怒之 責高麗之使以表狀無禮 則破其表 (『日本書紀』卷10 應神天皇 28年)

이 기사에서 고구려가 조공했다고 표현하거나 일본이라는 국호가 등장하는 점 등은 모두 사료적 운색이다. 417년 당시 고구려가 왜에 사신을 파견하였을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다만 高麗王이 日本國(倭)에 ‘教’라고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고구려가 왜에 대해 자신보다 한 수 낮추어 보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sup>41)</sup> 이밖에 仁德天皇 12年, 왜에 신예무기를 보내어 과시하고 있는 기사 역시 고구려의 왜에 대한 誇示的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기사들은 과거 고구려가 왜에 대해 존대한 태도로 임한 기억이 반영된 일종의 설화로 보기도 한다.<sup>42)</sup>

한편, 『三國史記』高句麗本紀에는 왜와 관련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사료의 누락 가능성도 있지만 고구려의 왜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왜는 적대적인 세력이었지만 主敵으로 고구려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위에서 검토한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고구려의 東晉使 파견 배경을 왜에 대항하기 위한 고구려 對倭政策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413년 동진에 사신을 파견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節을 바꾸어 이 점에 대해 살펴보자.

### 3. 高句麗의 對東晉使 派遣 背景

광개토왕이 22년간의 재위를 마치고 412년 10월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어 元子인 巨連이 즉위하였다. 장수왕이 491년 9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394년 태어났으며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19살의 청년이었다. 장수왕은 이듬해 동진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對外行步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413년 사신 파견과 관련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c. 遣長史高翼入晉奉表 獻赭白馬 安帝封王高句麗王樂浪郡公 (『三國史記』高句麗本紀 第6 長壽王 元年)

d. 是歲 高句麗倭國及西南夷銅頭大師 竝獻方物 (『晉書』10 帝紀 第10 安帝 義熙 9年)

e. 高句驪王高璉 晉安帝義熙九年 遣長史高翼奉表獻赭白馬 以璉爲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驪王樂浪公 (『宋書』卷97 高句驪國傳)

고구려는 長史 高翼을 보내어 赭白馬를 바쳤으며 장수왕은 고구려왕으로 책봉을 받았다. 고구려가 동진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343년 고국원왕대 이후 70년만의 일이다. 그러면 그동안 고구려와 동진은 상호 교류가 전혀 없었던 것일까? 낙랑·대방군일대에서는 紀年이 적힌 벽돌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343년부터 413년 사이 동진과 관련한 紀年銘磚으로

41) 金善民, 「六세기 후반 倭의 高句麗 인식」, 『日本歴史研究』22, 2005, 9쪽. 한편, 李成市는 같은 시대의 사료에서 高句麗의 王命이 ‘教’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실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高句麗と日隋外交」,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1998, 309쪽 각주15번).

42) 李弘植, 「日本書紀所載 高句麗關係記事考」, 『韓國古代史의 研究』, 신구문화사, 1971, 135쪽.

建元3年(345)·永和8年(352)·永和9年(353)·元興3年(404) 4점이 황해도 신천군과 평양시 일대에서 발견되었다.<sup>43)</sup> 이밖에 동진의 승려인 支遁道林(314~366)이 高麗道人에게 보냈다는 편지나<sup>44)</sup> 太元(376~396) 末, 曇始가 요동에 들어와 불법을 전하였다는 기록<sup>45)</sup>, 2003년 국내성 성안에서 출토된 동진시기 靑磁器<sup>46)</sup> 등은 동진과의 교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동진사 파견 배경을 검토하면서 주의되는 사실은 파견 시점이 장수왕의 즉위 이듬해라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파견 시점을 확인할 수 없지만 참고되는 것이 예전 고구려의 사신파견 기록이다. 『晉書』에 따르면, 336년 2월<sup>47)</sup>과 343년 12월 고구려사신이 조공하였다. 412년 10월 광개토왕이 죽자, 곧이어 장수왕이 즉위한 점을 고려해 볼 때, 412년 말이나 413년 초반에 사신을 파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413년 使行의 목적은 광개토왕의 죽음과 장수왕의 즉위를 알리는 告訃使의 측면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사료(c, e)에서 보듯, 이때 高翼이 표문을 올리고 安帝는 책봉 절차를 밟았다. 당시 장수왕은 동진으로부터 使持節 都督營州諸軍事 征東將軍 高句驪王 樂浪公이라는 책봉을 받았다. 이는 前燕이 주었던 營州諸軍事 征東大將軍 營州刺史 樂浪公<sup>48)</sup>과 거의 일치한다. 책봉호를 고구려가 요구했는지 아니면 동진이 그 前例를 따라 제수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다만 책봉호에 포함된 營州는 동진의 세력이 미치는 지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일부 영역을 책봉관계에 있는 국가에 부여하였다는 사실은 자국의 지배영역이 간접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랐기’<sup>49)</sup>때문이라고 본다. 화북의 여러 왕조는 경쟁하듯, 천왕과 황제를 칭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했을 때<sup>50)</sup>, 동진으로서는 전례를 참작하여 책봉호를 제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사절을 告訃使로만 단정하기에는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우선, 고구려가 赭白馬를 바쳤다고 하는 점이 눈에 띈다. 이에 앞서 408년 南燕과의 교류에서도 고구려는 千里馬를 외교물품으로 활용<sup>51)</sup>하는 등 말을 외교수단으로써 중요시하였다. 더구나 赭白馬라는 진귀한 말을 동진에 보냈다는 점, 正使로 왕실쪽 인물로 보이는 高翼이 표문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은 고구려가 동진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告訃使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좀 더 근본적인 배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동안 주로 화북지역의 왕조와 교류하거나 대립해 온 고구려가 동진으로 사신을 파견한

43)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1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44) 『梁高僧傳』卷4 義解1 竺潛法空傳, “支遁…後與高麗道人書云…”; 『出三藏記集』卷12, “與高句驪國道人書 支遁道林”  
 45) 『梁高僧傳』卷10 神異下 釋曇始傳, “關中人…晉孝武大元之末 齋經律數十部往遼東宣化 顯授三乘立以歸戒 蓋高句驪聞道之始也 義熙初復還關中開導三輔”  
 4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國內城-2000~2003年集安國內城與民主遺址試掘報告』, 文物出版社, 2004, 182쪽.  
 47) 『晉書』卷7 帝紀 第7 成帝 咸康 2年, “二月 庚申 高句驪遣使貢方物”  
 48) 전연이 고구려에게 준 樂浪公은 요서지방의 柳城縣 근처에 설치한 樂浪僑郡을 염두에 두었다거나(神崎勝, 「遼東·玄菟·樂浪·帶方諸郡の解體」, 『古代文化』47-3, 1995, 140쪽) 전연이 대동강유역을 장악한 고구려의 현실을 인정하고 양국간 군신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낙랑군을 작호에 이용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기섭,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2000, 207쪽).  
 49) 金種完, 『中國南北朝史研究』, 一潮閣, 1995, 153~154쪽.  
 50) 김택민은 東晉의 실권자인 劉裕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고구려에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았다(「중국 고대 정권찬탈자들의 重譯來庭論」, 『歷史學報』213, 2012, 294쪽). 한편, 江畑武는 백제와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장수왕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남조세력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았다(「四~六世紀の朝鮮三國と日本」, 『朝鮮史研究會論文集』4, 1968; 『고대한일관계사의 이해-倭』, 이론편 실천, 1994, 370쪽).  
 51) 『十六國春秋』卷64 南燕錄2 慕容超傳, “高句驪復遣使至獻千里人十人千里馬一疋”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梁書』에서는 이때 고구려의 사신과견에 대해 비로소(始) 표를 받들어 조공하였다고 기록하였다.<sup>52)</sup> 南朝측에서도 새로운 관계의 수립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안팎을 둘러싼 정세 변화 속에서 그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광개토왕대 고구려와 그 주변국의 관계를 정리해 본 것이다.

廣開土王代 高句麗의 對外關係

王名	年度	東晉	後燕/北燕	南燕	前秦	百濟	新羅	倭
廣開土王	392					▶ ◀	→ ←	
	393					▶		
	394					▶ ◀		
	395				亡	▶ ◀		
	396					◀(碑)		
	397							
	398							
	399		▶ ←-1					
	400							◀
	401			◀				
	402							
	403			◀				
	404		▶					▶ ◀
	405		▶					
	406							
	407			→ ←			◀(碑)	
	408				←			
	409							
410				亡				
411								
412						→		
長壽王	413	←						

\* 출전: 『三國史記』 「廣開土王碑」

→ 상대국의 견사 ← 고구려의 견사 ▶ 상대국의 공격 ◀ 고구려의 공격 碑: 광개토왕비

앞서 고구려의 동진사 파견 배경을 백제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견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위 표에서 보듯, 고구려와 백제는 390년대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비문에는 396년 광개토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백제를 토벌하였으며 백제왕이 무릎을 꿇고 영원히 奴客이 될 것임을 맹세하였다<sup>53)</sup>고 한다. 이후 407년 丁未年 대백제전<sup>54)</sup>을 끝으로 5세기 중반까지 고구려와 백제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등 소강상태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sup>55)</sup> 사실상 407년 정미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확실한 우위를 확보한 고구려가

52) 『梁書』卷54 東夷列傳 高句麗, “至孫高璉 晉安帝 義熙中 始奉表通貢職”

53) 「廣開土王碑」永樂6年條.

54) 정미년 기사에 대해서는 백제공격설이 가장 우세하며, 후연이나 후연·백제 공격설 등 다양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강재광의 글이 참고된다(「高句麗 廣開土王의 遼東確保에 관한 新考察-廣開土王碑 ‘丁未年條’의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2, 2009, 32~43쪽).

55) 노중국은 이러한 양국관계의 배경으로 장수왕대 정복지역을 안정되게 다스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으

백제를 염두에 두면서 동진외교를 펼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구려의 동진사 파견 배경에 대해서는 서북방문제와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4~5세기는 5호16국의 혼란한 시기를 지나 남북조로 전환해가는 과도기로 고구려는 늘 서북방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313년과 314년 한반도 서북부에 자리했던 낙랑군과 대방군을 차지한 고구려는 본격적으로 遼東일대로 진출을 모색하였다. 연나라 또한 중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구려에 대한 제압이 선결과제<sup>56)</sup>였던 만큼 마찰을 피할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는 환도성이 함락되고 前燕에 稱臣하는 등 굴욕을 맛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後燕과 요동을 둘러싸고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인 결과, 광개토왕대 요동을 차지할 수 있었다.<sup>57)</sup>

요동의 확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를 상대로 한 삼국항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요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요서지방이나 산동반도 방면에 유력한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침략군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sup>58)</sup>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한, 광개토왕대 확대된 영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장수왕이 깊어져야 했던 과제<sup>59)</sup>였음을 생각한다면 410년대 요서일대에 자리한 북연과 산동반도를 점령한 동진과의 관계 설정은 고구려에게 매우 중요하였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를 주도했던 것은 北魏와 東晉이었다. 고구려와 대립관계에 있던 후연도 빠르게 세력을 확장해 들어오는 북위를 막을 수가 없었다. ‘후연은 慕容垂가 죽자 종실 사이에 불화가 표면화되었으며 북위는 남진을 개시하여 하북·하남으로 진출하였다. 397년 후연 황제 慕容寶는 수도 中山을 나와 옛 수도였던 용성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업에 주둔해 있던 慕容德은 황하 남쪽 滑臺로 옮겨 398년 南燕을 세웠다.’<sup>60)</sup> 후연은 407년 慕容熙가 高雲과 馮跋에 살해되면서 멸망하게 된다.<sup>61)</sup> 후연을 이어 고구려 출신의 高雲이 407년 새롭게 북연 天王으로 즉위하자, 광개토왕은 종족의 예로 대우하는 등 사신을 교환하며 화평한 관계를 이루었다.<sup>62)</sup>

그런데 409년 고운이 살해되고<sup>63)</sup> 풍발이 북연 천왕으로 집권하게 되었다. 당시 고구려와 북연관계를 알려주는 사료로는 亂을 피해 고구려로 망명했던 馮丕가 형인 馮跋의 부름을 받아 돌아가 左僕射 常山公에 봉해졌다는 『晉書』의 기록<sup>64)</sup>이 있다. 고구려가 북연의 망명자를

며, 백제도 고구려와의 대결에서 패한 이후 새롭게 解氏세력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자신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군사 활동을 자제한 것으로 보았다(『5세기 韓日關係史의 성격 개관』, 『왜 5왕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25~27쪽).

56) 『三國史記』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12年.

57) 공식구는 고구려가 늦어도 402년 무렵에는 요동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았다(『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서경문화사, 1998, 47쪽). 한편, 池内宏은 장수왕 초기에 고구려가 요동을 점유하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晉代の遼東』, 『滿鮮史研究』上世第一冊, 吉川弘文館, 1951, 321쪽).

58) 이기동, 「高句麗의 勢力圈 遼東에 對한 地政學的 考察」, 『高句麗研究』21, 2005.

59) 武田幸男은 모두루묘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왕권의 과제로 官恩을 매개로 한 君臣關係을 강화하고 건국신화의 형성과 이를 활용하여 왕권의 신성성과 초월성을 강조하며 영역확대에 즈음한 지방지배의 진전을 들었으며(「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350~351쪽) 김병남은 영토의 확대와 관료층의 양적 증가에 따른 왕권 유지를 들었다(김병남, 「高句麗 平壤 遷都의 原因에 대하여」, 『全北史學』 19·20, 1997, 71쪽). 濱田耕策은 새로운 국제관계와 확대된 영역의 통치라는 두 가지 과제를 들었다(「高句麗長壽王という時代 -父王広開土王の治績を継いで-」, 『朝鮮學報』199·200, 2005, 232~238쪽).

60) 가와카쓰 요시오 지음, 임대희 옮김, 『중국의 역사-위진남북조』, 혜안, 2004, 340~341쪽.

61) 『晉書』卷10 帝紀 第10 安帝 義熙 3年.

62) 『三國史記』高句麗本紀 第6 廣開土王 17年, “春三月 遣使北燕 且叙宗族 北燕王雲 遣侍御史李拔報之 雲祖父高和 句麗之支庶 自云高陽氏之苗裔 故以高爲氏焉 慕容寶之爲太子 雲以武藝 侍東宮 寶子之 賜姓慕容氏”

63) 『晉書』卷10 帝紀 第10 安帝 義熙 5年.

64) 『晉書』載記 馮跋, “跋弟丕 先是 因亂投於高句麗 跋迎致之 至龍城 以爲左僕射常山公”. 『十六國春秋』卷98 北燕

받아들이고 풍발의 요청에 따라 풍비를 보내주었다는 점은 양국이 화평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up>65)</sup> 또한 풍발이 정변 이후, 임명한 권력의 핵심에 고구려인으로 추정되는 孫護와 馬弗勤<sup>66)</sup>을 각각 侍中 尙書令 陽平公과 吏部尙書 廣宗公으로 앉혔다는 사실도 참고된다. 이렇듯, 고구려와 북연이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화평한 관계를 지속했던 데는 바로 북위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柔然이 북위의 위세에 눌려 남침을 자제하면서<sup>67)</sup> 可汗 斛律이 411년 북연 천왕 풍발의 딸과 혼인한 사실, 풍발이 북위의 사신 耿貳를 억류하거나 동진과 교류를 가지는 등<sup>68)</sup> 북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69)</sup>

고구려는 南燕과도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였다. 408년 남연황제 慕容超에게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모용초도 그에 대한 답례품을 전달하였다.<sup>70)</sup> 하지만 남연도 東晉의 장군 劉裕에 의해 410년 멸망하였다.<sup>71)</sup> 고구려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남연의 멸망소식에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남연이 자리했던 산둥반도는 지리적으로 요동반도 및 한반도로 직항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출항지로서 역사적으로도 많은 원정대가 이곳을 발판으로 삼았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고구려는 새로운 사태의 진전에 따른 국제정세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정책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고구려의 동진사 파견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 4. 맺음말

이상으로 413년 고구려의 對東晉使 파견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구려의 공식적인 대동진사 파견은 70년만의 일이며, 장수왕 즉위 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413년 고구려의 대동진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일본학계를 중심으로 ‘倭 5王’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倭’를 주목하였으며 고구려는 이를 밝히기 위한 일환으로 함께 다루어졌다. 그 결과, 백제와 왜의 대남조교섭에 대항하기 위한 필요에서 고구려가 동진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일본학계는 왜와 관련해 고구려의 대동진사를 검토하였으며 그 속에는 고구려가 왜를 강력한 대항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4~5세기 책봉호 비교에서도 볼 수 있듯, 왜의 국제적 지위는 고구려

錄1 馮跋傳에는 馮가 북연으로 돌아간 시기를 414년 5월조에 실고 있다.

65) 박시형은 풍발의 북연정권에 대해 광개토왕을 이어 장수왕대에도 동일한 화평정책이 이어졌으며 북연의 서방에 있던 북위세력이 점차 연을 압박하기 시작했음을 주목하였다(『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朴時亨 著·全浩天 譯, 『廣開土王陵碑』, そして, 1985, 106~109쪽). 지배선도 양국이 친선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北燕에 대하여(II)』, 『東洋史學研究』29, 1989, 160~161쪽).

66) 張金龍, 『北燕政治史四題』, 『南都學壇』1997-4; 이춘호, 『五胡時期 北燕(407~436)의 建國과 君主權』, 『中國古中世史研究』25, 2011, 243~244쪽 재인용.

67) 『魏書』卷103 蠕蠕傳.

68) 『晉書』卷125 載記25 馮跋.

69) 三崎良章은 이 시기 북연의 대외정책을 親南朝·親柔然·反北魏로 이해하였다(『北魏の對外政策と高句麗』, 『朝鮮學報』102, 1982, 124~125쪽). 지배선은 북연이 유연과는 대체로 친선관계를 유지하였으며 南朝를 宗主國으로 삼고 북위와는 적대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北燕에 대하여(II)』, 『東洋史學研究』29, 1989, 174쪽). 강선은 북중국의 상황이 북위를 둘러싸고 여러 정치세력들이 견제와 연합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高句麗와 五胡十六國의 關係』, 『高句麗研究』14, 2002, 281쪽).

70) 『太平御覽』卷359 兵部90 障泥 “蕭方等三十國春秋曰 高句麗以千里馬生羆皮障泥 獻于南燕 燕王超大悅 答以水牛能言鳥”

71) 『晉書』卷10 帝紀 第10 安帝 義熙 6年.

나 백제에 비해 낮았다. 또한 266년 쥘과의 교류를 끝으로 413년 동진에 입조할 때까지 왜에 대한 기록은 140여년간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왜가 중원왕조의 지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음을 말해준다. 더구나 고구려에게 왜는 적대세력이었지만 主敵은 아니었다. 『三國史記』高句麗本紀에 왜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는 데는 고구려의 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고구려의 대동진사 파견을 백제와 왜라고 하는 남방제국과의 문제로 한정해서 이해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고구려는 늘 서북방정세에 민감하였다. 더욱이 광개토왕대 숙원이던 요동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요서 일대에 자리한 북연과 산동반도를 점령한 동진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였다. 그 결과 북연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동진에는 사신을 파견함으로써 대남조교섭을 재개하게 되었다. 또한 시기적으로 장수왕 즉위 초라는 점에서 광개토왕의 죽음과 신왕의 즉위를 알리는 告訃使의 성격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13年 高句麗의 對東晉使 派遣과 그 背景’에 대한 토론문

강 선(숙명여대)

본 논문은 장수왕 즉위 초인 413년 東晉에 파견한 사신의 성격에 대해 연구한 글이다. 일본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倭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발표자는 이를 부정하고 새 왕(장수왕)의 즉위를 알리는 동시에 동진과의 외교관계 설정을 통한 서북방지역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인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나 본문 내용과 관련해 약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 학계의 견해, 즉 왜를 견제하기 위한 사신 파견이었다는 주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시 한반도에 진출한 왜의 성격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서 활동한 왜가 주도적으로 出兵한 것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 출병한 것인지 이 문제부터 분명히 해야 왜의 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발표자가 본문에서 인용한 ‘광개토왕비문’에 등장하는 왜의 실체에 대해 학계에서는 대체로 백제의 요청에 의해 파병된 군대로 보고 있다. 때문에 이는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에 백제의 연합세력으로 등장한 왜라고 할 수 있다. 백제가 왜의 군사력을 동원한 것은 한반도 내에서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군사력을 조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의 위상은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백제가 고구려에 맞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때는 왜의 군사력이 위협적일 수 있지만 장수왕대처럼 백제가 고구려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때는 전혀 위협적인 세력이 될 수 없다. 때문에 발표자의 견해처럼 413년 고구려의 동진사 파견 목적을 왜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일본학계의 주장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413년 동진사 파견 목적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인데, 발표자는 343년 이후 70년만의 사신 파견이란 점에 주목하여 이를 장수왕 즉위를 알리는 한편 서북방지역 안보에 필수적인 요동지역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5호 16국 시대 중원의 분열은 前秦에 의해 일시적으로 북중국이 통일되어 안정되는 듯 했으나 383년 肥水戰에서 전진이 대패하면서 동진의 세력이 화북까지 확대되자 이후 북중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 와중에 산둥반도 지역에서 전연의 잔여 세력에 의해 남연이 건국되었다. 이처럼 중원의 정세가 급변하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고구려로서는 정세파악이 중요했을 것이다. 413년 동진사 파견도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발표자는 언제나 고구려에 위협을 초래하는 서북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동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동진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신을 파견한 것이라고 하였다. 대체로 고구려의 서북지역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발생한 지역이었다는 것은 동의하나 이것을 사신파견의 목적과 연결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당시 고구려와 국경 맞댄 북연은 고구려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북위와 유연 역시 고구려에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특히 북연은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는 하였지만 이전 시기 전연에 비해 국력이 약했기 고구려가 크게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였다. 그보다는 중원의 정세가 고구려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위와 유

연의 대치는 그 자체로 고구려에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북지역의 안정이 확보된 셈이다. 그렇다면 굳이 고구려가 서북지역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 외교정책을 펼쳤는지 의문이다. 때문에 고구려는 동진사 파견을 통해 중원의 정세를 파악하고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한다. 장수왕대 대외정책의 핵심은 남진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북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동진사 파견도 본격적인 남진정책 추진에 앞서 중원의 정세 파악이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 고구려 중기 對遼東관계와 요동지역 壁畫墳 전통의 단절에 관한 試論

조우연 (인하대학교)

## 목 차

- I. 머리말
- II. 遼東지역사의 전개와 고구려 중기 對 요동 관계
  - 1) 요동사의 전개
  - 2) 고구려의 요동 진출과 경영
- III. 요동의 壁畫墳 축조 전통과 고구려 중기 벽화분 묘제의 형성
  - 1) 요동지역 벽화분
  - 2) 고구려 벽화분 묘제의 형성과 요동 벽화분 전통의 단절
- IV. 맺음말

## I. 머리말

고구려 中期 대의 관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남부의 樂浪·帶方 공략 및 대 백제 공방전과 더불어 서부 遼東 지역으로의 진출을 손꼽을 수 있다. 요동은 서남부의 중국세력과 서북부의 유목세력 및 동부의 고구려 세력 사이의 경계지대에 위치해 있어, 이른 시기부터 중국 동북지역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역할 했다. 따라서 여러 세력들 사이에 문화교류는 물론 세력권 쟁탈 또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고구려와 요동지역의 관계에 대해, 기존 학계에서는 크게 영역확장사와 壁畫墳의 형성 및 山城유적이라는 세 주제에 초점을 맞춰 다뤄왔다. 구체적으로, 고구려 서부 영역확장의 일환으로 요동지역 진출 과정에서 중국 및 慕容鮮卑 세력과의 투쟁 내지는 요동이 고구려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또 고구려 벽화의 형성과정에 대해, 自生說, 낙랑 故地 영향설과 더불어 요동지역 벽화분의 영향일 것이라는 주장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대거 분포되어 있는 고구려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또한 중요한 연구내용이었다.

물론 이상의 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구려의 요동 장악, 문화적 영향 및 군사적 역할에 대한 제반 사항들이 비교적 소상히 조명되었으며, 고구려사 특히나 고구려 중기 역사에 대한 이해가 크게 증진되었다. 다만, 요동이 고구려로 편입된 후의 역할 내지는 의미, 나아가 지배형태 등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해왔던 것 같다. 특히나 요동지역에 고구려 산성유적이라는 군사유적만 확인되고 있을 뿐, 벽화고분을 비롯한 여타 문화유적의 부재에 대해서는

그렇다할만한 해석이 없었던 것 같다.

잘 알려지듯이, 요동은 後漢 이래로 公孫氏, 慕容鮮卑의 前燕 시기에 이르기까지 벽화분 축조 전통이 유지된 지역이다. 또 고구려 벽화분에 대한 요양 벽화분의 영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4~5세기를 기점으로 고구려에서 벽화분 묘제가 형성되어 동아시아지역 벽화분 축조의 중심이 된다. 그에 반해, 요동지역은 고구려가 지배한 260여 년에 걸쳐 벽화분 축조 전통이 단절되어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문화전통의 단절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는 해당지역에 고구려 군사시설인 山城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과 모순되는 고고학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미흡했던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요동지역사의 전개, 벽화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고구려의 요동 진출과정과 고구려 벽화분 묘제 형성에 대한 요동의 영향, 지배 형태, 산성 축조 등 앞선 연구들에서 단독 주제로 다루어져왔던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고구려에 편입된 후 벽화분 전통 단절이라는 현상에 대해 시론 차원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 II. 遼東지역사의 전개와 고구려 중기 對 요동 관계

### 1) 요동사의 전개

‘요동’은 역사적으로 여러 지리적 권역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다양하게 존재해왔고, 그 기원과 의미에 대한 해석 또한 여러 가지가 있다. 대개는 ‘九州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땅’<sup>1)</sup> 내지는 ‘遼(遼)河의 동쪽’<sup>2)</sup>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sup>3)</sup>

현재 한국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요동’을 ‘遼西’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遼水의 동쪽’을 일컫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즉 고구려 중기 ‘요동’의 지리적 범주를 요수의 동쪽, 고구려 서쪽 重鎮인 新城<sup>4)</sup>이 위치해 있는 撫順의 서남부, 요동반도 지역으로 좁혀 이해하고자 한다. 이 지역은 대체적으로 後漢 이후 襄平(지금의 遼陽)을 郡治로 한 遼東郡의 범주와 맞먹기도 한다.<sup>5)</sup>

1) 이는 『管子』 地數篇의 “燕有遼東之煮”를 비롯한 先秦 문헌에 등장하는 초기 ‘요동’의 의미이며 ‘遼’에 무게를 둔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은 明代에 집필된 『遼東志』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2) 이는 전자에 비해 좁은 의미이면서 또 후대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요수의 동쪽’지대를 가리키며, (邱富生, 「遼東考」, 『地名叢刊』 1985年 第1期; 賀政權, 「遼東一詞의 由來及其他」, 『東北地方史研究』 1987年 第2期) 대개 秦·漢 이후 설치된 遼東郡의 관할지역을 지칭 한다. 혹은 넓게 大同江 이북 지역, 즉 고구려가 차지했던 영역 전체를 ‘요동’으로 지칭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김한규,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2004, p.54; 楊軍, 「朝鮮半島與‘遼東’內涵的關係」, 『遼寧師範大學學報』 2004年 第27卷 第2期) 또 선진시기 ‘요동’의 동쪽을 지칭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여, 醫巫閭山의 동쪽으로 보기도 한다. (劉子敏, 「關於‘遼東’의考辨」, 『中國邊疆史地研究』 1996年 第1期)

3) 王禹浪, 蘆珊瑚, 「遼東地名考」, 『黑龍江民族叢刊』, 2011年 第1期, p.65.

4) 新城에 관한 언급은 『三國史記』 西川王7年(276)條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데, 일각에서는 그 축조연대를 太祖王 시기로 보기도 한다(李甸甫, 「高句麗新城의始築年代」, 『遼海文物學刊』 1988年 第2期) 그러므로 신성이 위치한 撫順지역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고구려 영역에 편입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 김한규는 ‘요동’의 개념에 대해, 廣義와 狹義 두 가지로 귀납하고 있는데(『요동사』, 문학과지성사, 2004, pp.59~61), 이 글에서는 ‘요동’을 이른바 협의에 가까운 개념. 즉 중국이 설치한 군현의 범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古朝鮮에서 요동을 어떻게 편제해 지배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燕에서 昭王시기 고조선  
 을 공격하여 요동지역을 차지하고 나서부터 요동군을 설치해 북방 이민족 방어 거점으로 삼  
 았던 것 같다.<sup>6)</sup> 문헌상으로는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으나, 연이 요동을 지배하고 있었  
 음은 설화<sup>7)</sup> 등 구전자료를 통해 짐작가능하다. 요동지역을 정식으로 행정구역으로 편제한  
 것은 秦부터인데,<sup>8)</sup> 관련 내용 역시 단편적이다. 前漢시기에 이르러 秦의 행정 편제를 계승  
 하여 요동군을 설치하고, 치소를 襄平(현재의 遼陽)에 두었는데, 그 관할 현, 인구 및 여러  
 지명에 관한 내용이 『漢書』 地理志에 비교적 소상히 언급되어 있다.<sup>9)</sup>

漢代 이후, 요동지역에 설치한 군현은 오환, 선비, 고구려 등 북방민족과 대치하며 잦은  
 충돌을 감수해야했다. 하지만 후한 말에 이르러, 중원지역의 전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  
 정적인 요동지역으로 대규모 이민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나 山東지역민들이 海로를 통해  
 요동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sup>10)</sup> 이는 아마 공손씨가 발해만을 건너 山東지역으

6) 『史記』 卷110 匈奴列傳 “燕亦筑長城，自造陽至襄平。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7) 요동의 치소인 현재 遼陽지역을 흘러 지나는 ‘太子河’는 원래 ‘衍水’로 불렸는데, 燕의 태자 丹이 秦始皇 암살  
 계획이 실패하자 이곳으로 도피하게 되면서 붙여진 것이라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讀史方輿紀要』 卷37  
 山東8 遼東行都司 “太子河即故衍水，燕太子丹匿於衍水中，後人因名爲太子河”)  
 8) 『史記』 卷6 秦始皇本紀 “分天下以爲三十六郡……并陰山至遼東”  
 9) 『漢書』 卷28下 地理志 “遼東郡，秦置。屬幽州。戶五萬五千九百七十二，口二十七萬二千五百三十九。縣十八：襄  
 平。有牧師官。莽曰昌平。新昌，無慮，西部都尉治。望平，大遼水出塞外，南至安市入海。行千二百五十裏。莽曰長  
 說。房，候城，中部都尉治。遼隊，莽曰順陸。遼陽，大梁水西南至遼陽入遼。莽曰遼陰。險瀆，居就，室偽山，室偽水  
 所出，北至襄平入梁也。高顯，安市，武次，東部都尉治。莽曰桓次。平郭，有鐵官、鹽官。西安平，莽曰北安平。文，  
 莽曰文亭。番汗，沛，水出塞外，西南入海。”  
 10) ‘遼東三杰’로 불린 管寧, 邴原, 王烈 세 儒學者 모두 산둥지역 출신으로, 이들은 모두 후한 말기의 전란을 피  
 해 요동의 공손씨에게 들어갔다. 또 공손씨를 멸하고 그 백성들 중 還鄉을 원하는 자들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처하였는데(『晉書』 卷1 帝紀1 宣帝 “中國人欲還舊鄉，恣聽之”), 그때 많은 이민들이 海로로 산둥지역에 돌

로의 세력권 확장 시도<sup>11)</sup>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하튼 그러한 인구유입은 당시 요동에 할거해 있던 公孫氏에게 큰 힘을 실어주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공손씨는 3대, 50여 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요동을 지배할 수 있었다.<sup>12)</sup> 그 후, 曹魏에서 북방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魏明帝 景初2년(238)에 공손씨를 멸하고 平州를 설치하여 요동지역을 다스렸다.

西晉 말년, 중원의 혼란과 함께 북방민족들이 흥기하여 요동지역을 장악하게 된다. 우선 선비족인 慕容涉歸(?~283)가 요동지역을 거점으로 삼았는데,<sup>13)</sup> 그 아들 慕容廆(269~333)의 前燕시기에 이르러 平州자사 崔攄를 축출하고(319),<sup>14)</sup> 요동지역을 장악하게 된다. 이어서 그 아들 慕容皝(297~348)에 이르러, 靺鞨를 정벌하고 나서 양평을 중심으로 요동에 세력기반을 다진 아우 慕容仁의 반란을 진압하고(336),<sup>15)</sup> 요동을 지속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잘 알려진 안악3호분의 주인공인 修壽가 바로 모용인 휘하에 있다가 고구려로 망명한 인물이다.<sup>16)</sup> 전연은 또 요동 동쪽의 큰 위협 세력이었던 고구려를 제압하고(342)<sup>17)</sup> 요동 지역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다.

A.D.380년에 前秦이 前燕을 멸하고 요동지역을 차지하였으나, 갑작스럽게 몰락하면서, 384년 慕容皝의 아들 慕容垂가 건국한 後燕이 명목상으로나마 요동지역을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그 지배 또한 오래 가지 못하고, 5세기 초 강력해진 고구려와의 충돌에서 패해 결국 404년을 전후한 시점에 그 주도권을 고구려에 넘기게 되고, 고구려는 멸망하기까지 260여 년에 걸쳐 요동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다.

요동은 이른 시기부터 중국 동북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역할 해오다가, 5호 16국시기에 이르러 선비족과 군현세력사이 및 선비족 내부 갈등, 그리고 고구려와의 끊임없는 전란에 휩싸이면서 점차 몰락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러한 전쟁 결과, 많은 원주민들이 여러 세력에 의해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거나, 스스로 도피하였던 것 같다.

## 2) 고구려의 요동 진출과 경영

기존 고구려 대외 확장사 기술에서 중국 郡縣과의 치열한 투쟁 과정이 강조돼 왔는데, 요동지역과의 관계 내지는 진출 과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결국 고구려가 중국 군현과 모용선비세력을 축출하고 요동지역을 확보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물론 요동을 장악해 나간 과정에 대한 조명도 중요하겠지만, 고구려가 어떤 목적에서 요동을 공략했고, 또 고구려 영역에 편입된 요동이 고구려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느냐, 즉 고구려에서 요동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이었느냐는 문제를 밝히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① 요동 진출 과정

가장 이른 시기 대 요동 관계 기사는 『後漢書』에서 확인되는데, A.D.105년(태조왕 53년)에 요동의 여섯 縣을 공격했다가 격퇴되었다는 내용이다. 그 뒤, 4세기 초, 요동을 확고하게 차지하기까지 3백 년에 걸쳐 요동과의 관계 기사가 확인된다. 그 목적이나 결과에 대

아갔다는 내용이 『三國志』 등에서 확인된다(『三國志』 卷4 三少帝紀 “以遼東東遼縣吏民渡海居齊郡界”; “以遼東汶, 北豐縣民流徙渡海, 規齊郡之西安, 臨菑, 昌國縣”).

11) 『三國志』 卷8 魏書 “越海收東萊諸縣, 置營州刺史”

12) 『三國志』 卷8 魏書 “始度以中平六年居遼東, 至淵三世, 凡五十年而滅”

13) 『晉書』 卷108 載記第8 慕容廆 “父涉歸……遷邑於遼東北”

14) 『晉書』 卷108 載記第8 慕容廆 “立遼東郡而歸……(崔)攄與數十騎棄家室奔於高句麗”

15) 『晉書』 卷109 載記第9 慕容皝 “皝自征遼東, 克襄平”

16) 『資治通鑑』 卷95, 晉紀17, 咸康2年 “(修)壽, (郭)充奔高麗”

17) 『三國史記』 卷第18 高句麗本紀第6 故國原王 12年 “虜男女五萬餘口, 燒其宮室, 毀丸都城而還”

한 기록상의 표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 A

- 1) 105년 : ‘寇略’<sup>18)</sup> 혹은 ‘奪掠’<sup>19)</sup>
- 2) 106~125년 : ‘數寇’, ‘殺吏民’, ‘復犯遼東’<sup>20)</sup>
- 3) 121 : ‘焚城郭, 殺傷二千餘人’<sup>21)</sup> 혹은 ‘殺獲二千餘人’<sup>22)</sup>
- 4) 122 : ‘侵遼東’<sup>23)</sup>
- 5) 126~167 : ‘復犯遼東’<sup>24)</sup>
- 6) 168(?) : ‘復犯遼東西安平’<sup>25)</sup> 혹은 ‘襲漢遼東西安平縣’<sup>26)</sup>
- 7) 184 : ‘興師伐我’<sup>27)</sup>

사료 B

- 1) 189~204 : ‘助(公孫)度擊富山賊’<sup>28)</sup>
- 2) 196~219 : ‘破其國’<sup>29)</sup>
- 3) 197 : ‘詣(公孫)康降……遂往遼東’<sup>30)</sup> 혹은 ‘漢兵大敗’<sup>31)</sup>
- 4) 238 : ‘討公孫淵……助軍’<sup>32)</sup>
- 5) 242; 244 : ‘寇西安平’<sup>33)</sup> 혹은 ‘襲破遼東西安平’<sup>34)</sup>
- 6) 311 : ‘襲取遼東西安平’<sup>35)</sup>
- 7) 319 : ‘崔毖……奔高句麗’<sup>36)</sup>

사료 C

- 1) 319 : ‘寇遼東……王求盟’<sup>37)</sup>

- 
- 18) 『後漢書』卷85 東夷列傳第75 “和帝元興元年春, 復入遼東, 寇略六縣, 太守耿夔擊破之, 斬其渠帥”
  - 19) 『三國史記』卷第15 高句麗本紀 第3 太祖大王53年 “王遣將入漢遼東, 奪掠六縣, 太守耿夔出兵拒之, 王軍大敗”
  - 20)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至陽安之間, 句麗王宮數寇遼東……遼東太守蔡風, 玄菟太守姚光以宮爲二郡害, 興師伐之……入遼隧, 殺吏民. 後宮復犯遼東, 蔡風輕將吏士追討之, 軍敗沒”
  - 21) 『後漢書』卷85 東夷列傳第75 “建光元年春, 幽州刺史馮煥, 玄菟太守姚光, 遼東太守蔡諷等, 將兵出塞擊之……而潛遣三千人攻玄菟, 遼東, 焚城郭, 殺傷二千餘人”
  - 22) 『三國史記』卷第15 高句麗本紀 第3 太祖大王69年 “六十九年春, 漢幽州刺史馮煥, 玄菟太守姚光, 遼東太守蔡諷等, 將兵來侵……潛遣三千人 攻玄菟, 遼東二郡, 焚其城郭, 殺獲二千餘人”
  - 23) 『三國史記』卷第15 高句麗本紀第3 太祖大王70年 “王與馬韓, 穢獫狁侵遼東, 扶餘王遣兵救破之”
  - 24)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宮死, 子伯固立, 順桓之間, 復犯遼東……建寧二年, 玄菟太守耿臨討之, 斬首虜數百級, 伯固降, 屬遼東”
  - 25) 『後漢書』卷85 東夷列傳第75 “遂成死, 子伯固立……復犯遼東西安平……建寧二年, 玄菟太守耿臨討之”
  - 26) 『三國史記』卷第15 高句麗本紀第3 太祖大王94年 “王遣將, 襲漢遼東西安平縣, 殺帶方令, 掠得樂浪太守妻子”
  - 27) 『三國史記』卷第16 高句麗本紀第4 故國川王6年 “漢遼東太守興師伐我……與漢軍戰於坐原, 敗之”
  - 28)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公孫康之雄海東也, 伯固……助度擊富山賊, 破之”
  - 29)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建安中, 公孫康出軍擊之, 破其國”
  - 30)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拔奇怨爲兄而不得立…詣康降……遂往遼東”
  - 31) 『三國史記』卷第16 高句麗本紀第4 山上王元年 “發歧……假兵三萬……公孫康從之……漢兵大敗”
  - 32)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景初二年, 太尉司馬宣王率衆討公孫淵, 宮遣主簿大加將數千人助軍”
  - 33)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正始三年, 宮寇西安平, 其五年, 爲幽州刺史毋丘儉所破.”
  - 34) 『三國史記』卷第17 高句麗本紀第5 東川王 16年 “王遣將, 襲破遼東西安平”
  - 35) 『三國史記』卷第17 高句麗本紀第5 美川王 12年 “遣將襲取遼東西安平”
  - 36) 『資治通鑑』卷91, 晉紀13, 太興2年 “平州刺史崔毖……鎮遼東……乃陰說高句麗, 段氏, 宇文氏, 使共攻之(慕容廆)……毖與數十騎棄家奔高句麗”

- 2) 320 : ‘寇遼東……慕容仁拒戰破之’<sup>38)</sup>
- 3) 385 : ‘襲遼東……虜男女一萬口而還’<sup>39)</sup>
- 4) 403 : ‘燕王熙來攻遼東城’<sup>40)</sup>

위의 사료 A-1)~7)은 漢 군현 시기 대 요동관계인데, 대개는 ‘寇’, ‘奪’, ‘犯’, ‘殺獲’, ‘侵’, ‘襲’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이 시기 고구려의 요동을 침공은 영역확장이라기 보다는 경제적인 약탈행위와 인구 노획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 이는 3세기 문헌인 『三國志』에서 고구려가 땅이 척박하여 농경이 한정적이며, 노략질을 좋아한다고 한 기술과도 일치한다.<sup>41)</sup>

다음, 사료 B-1)~4)까지는 공손씨가 요동에 할거할 무렵의 기사인데, 고구려는 50년에 걸쳐 공손씨에 협력 혹은 공격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B-5)~7)은 魏의 지배기간 발생한 사건들인데, 다시 ‘寇’, ‘襲破’, ‘襲取’등 내용이 등장한다. 다만 B-5) 이후, 卞丘儉에 의해 환도성이 함락되어 국난을 겪게 되면서, 50년 동안 요동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B-6)에서 요동의 서안평을 ‘습취’, 즉 습격하여 취했다고 하는 기사가 확인되는데, 단순한 약탈이 아닌 장악으로 이해된다.

이어서 사료 C-1)~4)는 중원왕조를 대신해 요동, 요서 지역을 장악한 모용선비와의 관계 기사이다. 전연의 모용외는 烽上王 시기 두 차례에 걸쳐 고구려에 침공하였으나, 실패했다.<sup>42)</sup> 그리하여 美川王 시기에 이르러서도 고구려는 지속적으로 요동을 약탈했으며, 전연은 그러한 침공을 제어하지 못했던 것 같다.<sup>43)</sup> 하지만 분명한 요동 점령 의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후 모용황 시기에 이르러 중원진출에 앞서, 후방의 우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대적인 고구려 침공을 단행함으로써(342)<sup>44)</sup> 고구려를 제압하기에 이른다. 또 전연에 이어 정치적으로 고구려와 우호관계에 있던 前秦이 요동을 차지하게 되면서, 요동 진출 기사가 다시 사라진다. 50여 년이 경과하고, 고국양왕시기에 이르러서야 다시 요동 침공이 시도된다. C-3)에서 보듯이 이 전쟁을 통해 요동의 인구 1만 명을 고구려로 이주시켰다고 했을 뿐, 요동 장악에 관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C-4) 광개토왕대에 遼東城에서 후연의 침공을 격퇴했다는 기사를 통해 당시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점거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초기 대 요동 전쟁기사를 두고 당시 고구려가 요동지방 진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컸다고 이해하기도 한다.<sup>45)</sup> 하지만 위에서 보듯이, 영역 장악보다는 인구확보와 경제 목적을 위한 ‘약탈’의 성격이 강했던 것 같은데, 직접 수비군을 두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으로도 짐작가능하다. 사료 A-3)에서 현도와 요동 지역 성곽을 함락시켰음에도 단지 포로만 잡아 귀환했고, 또 C-4)에서 보듯이 고국양왕2년 6월에 요동성을 함락시켰으나, 남녀 1만 口를 노획한데 그치고 있다. 같은 해 11월에 慕容農이 곧 바로 요동과 현도를 회복했다는데서 애초부터 戍兵을 두고 확보한 영역을 지키려 의도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37) 『三國史記』卷第17 高句麗本紀第5 美川王 20年 “王數遣兵寇遼東，慕容廆遣慕容翰，慕容仁伐之，王求盟，翰仁乃還”

38) 『三國史記』卷第17 高句麗本紀第5 美川王 21年 “遣兵寇遼東，慕容仁拒戰破之”

39) 『三國史記』卷第18 高句麗本紀第6 故國壤王 2年 “王出兵四萬，襲遼東……虜男女一萬口而還”

40) 『三國史記』卷第18 高句麗本紀第6 廣開土王 14年 “燕王熙來攻遼東城……不克而還”

41)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無良田，雖力佃作，不足以實口腹……其人性凶急，喜寇鈔”

42) 『三國史記』卷第17 高句麗本紀第5 烽上王2年, 5年.

43) 『北史』卷94 列傳82高麗 “位宮玄孫乙弗利頻寇遼東，廆不能制”

44) 『三國史記』卷第18 高句麗本紀第6 故國原王12年.

45) 공석구,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서경문화사, 1998, p.33.

전쟁은 흉노, 오환, 선비를 비롯한 북방민족들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경제활동이었는데, 초기 고구려의 경제구조 또한 다르지 않아, 가까운 현도군은 물론 요동군 침입이 잦았던 것 같다. 그리고 정착생활로 전환된 모용선비의 경우, 유이민 수용은 물론 인구약탈을 통한 노동력 확보에 주력했던 것 같은데, 宇文部 등 다른 선비부족과의 전쟁이나, 부여, 고구려 침공 기사에서 徙民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sup>46)</sup> 초기 고구려 역시 마찬가지로 대외 전쟁의 1차적 목적은 영역확장이라기보다는 물자와 인구 확보였다.

결국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광개토왕 시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요동 지역을 확보해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는 後燕에서 광개토왕에게 내린 ‘遼東, 帶方二國王’이라는 봉호에 처음으로 ‘요동’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고 또 요동을 ‘略有’<sup>47)</sup> 즉 영유하여 다스렸다고 했다는 점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당시 고구려 국력의 신장과 더불어 慕容垂 사후 후연 내부의 불안정으로 인해 요동지역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 후연에 이어 北燕은 건국한 고구려 출신인 高雲의 대 고구려 유화책을 취했으므로, 요동 탈환 시도가 없었다. 결정적으로 馮弘 시기, 즉 A.D.432년, 북연이 北魏의 공격을 받아 石城, 遼東, 營邱, 成周 등 4군을 잃게 되는데, 당시 북위는 요동을 포함한 이들 지역을 차지하지는 않고, 대신 인구 4만여 호를 옮겨갔을 뿐이다.<sup>48)</sup> 이러한 대규모 徙民 조치는 결국 요동 등 지역의 인구 공백상태를 가져왔으며, 고구려는 요동을 확고히 장악할 수 있었다.

## ② 고구려의 요동 경영

요동의 공략에 비해 지배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자세하지 못한데, 관련 문헌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단지 山城이라는 군사시설만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5세기 고구려는 주요 지역에서 ‘郡制’라는 지방지배 방식을 취했는데, 요동지역에 밀집해 분포되어 있는 고구려 특유의 산성들의 존재로 미루어, 큰 산성에 지방관 치소를 두어 지배하였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sup>49)</sup>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4~5세기 고구려의 영역 지배방식 연구에서도 城 중심의 권역 지배 방식이 제기되었으며,<sup>50)</sup> 요동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 방식을 군사방어와 지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산성 중심의 지배로 보고 있다.<sup>51)</sup>

어찌됐든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고 이 지역에 성을 축조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지배했던 것 같다.<sup>52)</sup> 그렇다면 어떤 목적에서 요동지역을 경영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이른 시기 연구에서는 고구려의 요동 확보를 鐵과 연관시켜 보기도 했다. 즉, 요동이 일찍부터 철과 鹽의 중요한 생산지였으므로, 고구려에서는 철 수요를 요동군 지역 공략을 통해서 만족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나 요동성 인근의 철광은 고구려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sup>53)</sup> 그렇다면 경제적인 목적성이 컸다는 것인데, 이는 평원지대에 위치해 있는 요동군이 농경이 발달되었으며, 앞선 시기부터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적 중심지로

46) 『晉書』卷108 載記第8 慕容廆 “率眾東伐扶餘……驅萬餘人而歸”; 『晉書』卷109 載記第9 慕容皝 “乘勝遂入丸都……掠男女五萬餘口”; “親伐宇文歸……徙其部人五萬餘落於昌黎”

47) 『梁書』列傳第48 諸夷 “垂死, 子寶立, 以句驪王安爲平州牧, 封遼東, 帶方二國王……後略有遼東郡”

48) 『十六國春秋輯補』卷100 北燕錄 卷3 馮弘條 “(太興)二年……七月, 魏師來伐神高. 八月, 石城, 遼東, 營邱, 成周四郡並降魏. 九月, 魏師引還, 徙民四萬餘戶而西”

49)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pp.282~284.

50)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2005, pp.269~302.

51) 여호규, 「4세기-5세기 초 고구려와 모용연의 영역확장과지배방식 비교」, 『고구려 광개토왕과 동아시아』, 한국고대사학회, 2012, pp.85~87.

52) 『北史』卷94 高句麗傳 “復有遼東, 玄菟等數十城, 皆置官司以統攝”

53) 이용범, 「高句麗의 成長과 鐵」, 『백산학보』 1, 1966, p.83; 88.

역할 해 왔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 군현, 모용씨와 고구려의 장기간에 걸친 쟁탈전쟁, 徙民 등으로 인해 고구려가 요동을 확고하게 점거했을 무렵 이 지역 인구는 이미 아주 희소해졌다. 그러나 對唐 전쟁 당시 遼東城 인구는 4만 戶, 蓋牟城 인구는 2만 호라고 전하고 있는 만큼,<sup>54)</sup> 적어도 고구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요동지역에 상당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다.

만약 요동을 점거한 시기를 전후하여 고구려인들을 이주시켰다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나서 평양지역 벽화고분에 복식을 비롯한 집안지역 중심의 原 고구려 문화요소들이 확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동지역에서도 그러한 원 고구려 문화요소들이 등장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한 현상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바 없어, 그렇게 해석하기에 주저될 수밖에 없다.

요동 인구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복연 인구의 요동 유입이다.

#### 사료 D

二十四年……王遣將葛盧孟光，將衆數萬，隨陽伊至和龍，迎燕王……燕王率龍城見戶東徙，焚宮殿，火一旬不滅，令婦人被甲居中，陽伊等勒精兵居外 葛盧孟光帥騎殿後，方軌而進，前後八十餘里……二十六年……燕王弘至遼東……王處之平郭 尋徙北豐.<sup>55)</sup>

잘 알려지듯이, A.D 436년 몰락한 복연을 놓고 고구려와 북위 사이의 신경전이 전개되던 가운데, 고구려가 복연의 군주 풍홍을 비롯한 백성을 대거 고구려로 이주시킨다. 위의 사료 D에서 보듯이 고구려에서 군사 수만을 보내 和龍城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80리 方形 대열을 세워 요동으로 이주시켰던 것 같다.

이 무렵, 화룡의 인구가 1만호 즉 5만 명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하거나,<sup>56)</sup> 수만호에 이를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57)</sup> 이들 복연 이주민을 먼저 平郭(지금의 遼寧 蓋州市 서남부)에 두었다가 다시 北豐(지금의 遼寧 瓦房店市)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요동에 소속된 지역들이다. 고구려에서 풍홍을 제거한 후에도 이들 복연 주민은 대개 그대로 요동에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많다.<sup>58)</sup>

그렇다면 이들 이주된 복연인들 중 지배층은 단연 제거되거나 포섭되어 평양지역으로 이주했을 것이고, 나머지 하층민들은 요동지역에 안치되어 경제활동에 종사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그들 중 장인을 비롯한 기술자들은 평양일대로 이주되어, 새로 수용한 문화의 전수자로 역할 했을 것인데, 새로 수용한 벽화분 문화와 관련된 건축기술자와 화공 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에서는 이들 요동지역의 경제종사 인구에 대해 일종의 안정적인 납세자원으로 활용했던 것 같다. 조금은 후대의 기사지만, 외래 유민에 대한 고구려 정책을 짐작케 하는 문헌기록이 있다.

#### 사료 E

家在某郡，隋末從軍，沒於高麗，高麗妻以游女，與高麗錯居，殆將半矣.<sup>59)</sup>

54) 『新唐書』“攻蓋牟城，拔之，得戶二萬，糧十萬石……遂圍遼東城……城遂潰，獲勝兵萬，戶四萬”

55) 『三國史記』卷第18 高句麗本紀第6 長壽王.

56) 지배선, 「北燕에 대하여」(III), 『동양사학연구』 32, 1990, p.38.

57) 薛海波, 「試論北燕與高句麗的政治關係」, 『東北史地』 2010年 6期, p.35.

58) 서병국, 「中國人의 高句麗流亡과 遼東開墾」, 『백산학보』 34, 1987, p.11.

위의 사료에서는 고구려에 포로로 잡은 隋의 군사를 遊女와 혼인 및 정착시켰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들을 곧 ‘遊人’으로 보기도 한다.<sup>60)</sup> 이들 고구려 유인과 관련해서, 문헌에서 단지 3년에 1회 납세하게 한다고 하여 조세의 대상으로서 언급하고 있다. 즉, 이들 중국인 포로들을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녀’와 혼인시켜 납세자 계급(집단)을 확대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요동에 안치된 복연 주민 및 여타 유이민 집단은 고구려의 조세 부담자가 되었으며, 북조시대 수용한 중국 유민이 추가되면서 요동개발이 본격화 된다.<sup>61)</sup> 더불어 요양은 철 생산을 비롯한 물자의 공급지로 역할 하였던 것 같다. 즉, 한족·선비족 유민들을 새로 영유한 요동지역에 안치시키고 조세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인데, 이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고구려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담당했을 것이다. 그들은 임기를 마치고 평양이나 집안 지역으로 돌아갔던 것 같은데, 순천 遼東城塚의 묘주가 바로 그런 성격의 인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요동지역의 일반인은 이주한 하층민이 대부분이었으며 조세납부자로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동지역은 고구려의 중요한 경제 기반이었으며,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일종의 ‘경제 식민지’ 성격의 것으로서, 새로 확보한 요동이라는 영토에 유민들을 안치시켜 경제생활에 종사케 했을 가능성이 많다.

또 일설에 의하면, 요동지역 주민들이 고구려에 융합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다. 그 원인은, 동일 語族이 아닌데다가, 경제·문화상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며, 또 정복기간도 짧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요동지역 한족들이 줄곧 집거해 살았으므로, 고구려인으로 불리지 않았으며, 고구려족에 융합되지도 않았음을 주장한다. 이는 낙랑(평양)지역이 고구려에 복속되고 고구려인들과 뒤섞여 살게 되면서 점차 고구려인으로 융합된 점과는 대조적이라는 것이다.<sup>62)</sup> 이러한 견해에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적어도 평양지역과 달리, 대규모 고구려인 이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원 고구려문화 요소들이 요동지역으로 전파 및 현지 문화와 융합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군사적인 측면에서 요동이 지니는 의미가 강조돼 왔는데, 요동지역에 고구려 산성이 밀집해 분포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요동 지역의 高句麗城 유적들 중·후기로 편년 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요동 남부지역 즉, 渾河, 太子河 중류에서 요동반도 남부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반면에, 초기로 편년되는 城들은 대개 혼하, 태자하 상류 및 渾江, 富爾江 유역, 즉 고구려의 초기 활동 영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sup>63)</sup>

특히나 요동반도 남부에서 시작되는, 金州, 普蘭店, 瓦房店, 蓋州, 營口, 海城, 遼陽, 沈陽, 撫順, 鐵嶺, 開原, 西豐, 遼源 이線上에 분포되어 있는 고구려고성은 서부의 중요한 방어선으로서 후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64)</sup> 이는 고구려 후기 對唐 전쟁용으로 축조한 이른바 ‘천리장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 사료 F

59) 『資治通鑑』 卷196 唐紀12.

60) 김락기, 「高句麗의 遊人에 대하여」, 『백산학보』 56, 2000, p.183.

61) 서병국, 「中國人の 高句麗流亡과 遼東開墾」, 『백산학보』 34, 1987, pp.10~14.

62) 孫進己, 『東北民族源流』,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pp.141~142.

63) 陳大爲, 「遼寧高句麗山城再探」, 『북방문물』 1995年 第3期, p.59.

64) 魏存城, 「中国境内发现的高句丽山城」, 『社會科學戰線』 2011年 第1期, p.123.

(榮留王)14년(631)……王動衆築長城，東北自扶餘城，東南至海，千有餘里，凡一十六年畢功<sup>65)</sup>

위의 사료에서는 영류왕시기에 고구려에서 16년에 걸쳐 ‘천리장성’을 완공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소요된 시간으로 보아, 이는 하나로 연결된 형태의 장성이 아닌, 요동지역의 여러 산성들로 구성된 천 여리에 이르는 긴 방어선을 지칭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천리장성’을 비롯한 요동지역의 고구려 산성이 후기 대 隋·唐 전쟁에 대비해 급박하게 축조된 시설들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그에 앞선 200여 년 동안 요동지역에 대규모 축성이 없었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고구려 후기에 이르러서야 서부 방어 군사시설들을 급급히 축조하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즉 후기에 이르러, 요동지역은 중기 이래로 경제기반지역으로서의 역할에 이어, 후기에는 대 수·당 전쟁의 최전방 방어기지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결국 중국 군현, 모용씨와 고구려 사이의 장기간에 걸친 인구쟁탈로 인해, 5세기 초에 이르러서 요동지역 인구가 급감하였던 것 같다. 5세기 중반, 고구려가 북연주민을 대거 요동 지역에 안치하게 되는데, 조직적인 저항을 차단하기 위해 소수 지배층은 제거하거나 혹은 평양지역으로 이주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대 중국 전쟁포로나 유민을 지속적으로 수용하여 요동지역에 안치시키고, 조세부담자로 이용하였다. 또 고고학적으로 요동지역에서 후기로 편년되는 산성 등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원 고구려지역의 문화요소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원 고구려 지역으로부터 대량의 주민 이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므로 중기 고구려로 편입된 요동지역은 앞선 시기의 정치, 문화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단지 城을 중심으로 경제적 목적에서 유민 집단을 안치시켜 경영한 지역으로 되었다. 또 후기에는 대 중국 전쟁 수행을 위한 최전방 군사기지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앞선 시기 모용선비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요동 점거는 결국 경제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또 후방의 안전은 보장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역할 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sup>66)</sup>

### III. 요동의 壁畫墳 축조 전통과 고구려 중기 벽화분 묘제의 형성

#### 1) 요동지역 벽화분

역대로 요동지역의 중심은 襄平 즉 지금의 遼陽지역인데, 이는 현재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벽화분이 확인된다는 점과도 일치한다. 漢代로 편년되는 벽화분 같은 경우, 중국 6대 벽화분 분포구역 중에서 中原지역 다음으로 밀집되어 나타난다.<sup>67)</sup>

1918년 야기(八木奘三郎) 등이 처음으로 迎水寺壁畫墓<sup>68)</sup>를 발견하여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요양지역에서 벽화분 30여 기가 발견되었으며,<sup>69)</sup> 그에 대한 종합연구가 비교적 자

65) 『三國史記』 卷

66) 李宗勳, 馮立君, 「試論高句麗與慕容鮮卑對遼東地區的爭奪」, 『백산학보』 83, 2009, 134~135쪽.

67) 黃佩賢, 「漢代壁畫墓的分區與分期研究」, 『考古與文物』 2010年 第1期, p.78

68) 八木奘三郎 「遼陽發見的壁畫古墳」, 『東洋學報』 11(1), 1921, pp.119~143.

69) 三崎良章, 「遼東의 漢魏交替 —從遼陽壁畫墓의 角度」, 『魏晉南北朝史研究：回顧與探索—中國魏晉南北朝史學會第九屆年會論文集』, 2007, p.186(三崎良章의 「遼陽壁畫墓의 現狀と研究의 可能性 —2007年8月~2008年8月의 調査から—」(『西北出土文獻研究』 2008年度特刊, 2009)에서는 35기로 통계); 孫力楠, 「東北地區公元2-3世紀 墓葬壁畫研究」 吉林大學 박사학위논문, 2008, p.3; 李林, 「石室丹青 —遼東漢墓壁畫研究」, 中央美術學院 박사학위논문, 2011, p.4.

세히 이루어져왔다.<sup>70)</sup>

중국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벽화분 축조 전통은 前漢 초기에 형성되기 시작하는데,<sup>71)</sup> 대개는 화상석전통과 더불어 서한 초기의 木槨墓의 帛畫와 漆棺畫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된다.<sup>72)</sup> 전한 초기 벽화분은 주로 중부·남부지역에서 발견되고,<sup>73)</sup> 후기부터 河南(洛陽) 중심으로 나타난다. 후한 말에서 魏晉 시기에 이르러, 지방 세력의 형성과 더불어 전란으로 인한 중원지역민들의 대거 이주와 함께, 河北, 遼寧, 山西, 陝西, 山東, 內蒙古, 甘肅 등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것이 중국 학계의 중론이다.

요동지역의 벽화분은 2세기에서 4세기 전기까지,<sup>74)</sup> 약 2백 여 년에 걸쳐 축조되었다. 비교적 이른 시기 것은 후한 중, 후기 것으로 편년되는 玉皇廟3號墓나<sup>75)</sup> 東門里墓<sup>76)</sup> 혹은 南郊街1號, 2號墓이고,<sup>77)</sup> 가장 후대의 것은 晉代의 上王家墓로 추정되고 있다.<sup>78)</sup>

후한 말 사회적 혼란과 함께 요동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이들 이주민들에 의해 중원지역의 벽화분 장의 풍속이 전래되었던 것 같다. 그 뒤, 공손씨가 요동에 할거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란을 피해 대량의 중원지역 유민이 요동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벽화분 묘제가 한층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현재 발견된 30여 기 요동벽화분 중, 공손씨 지배기간동안에 축조된 것이 14기에 이른다고 보기도 한다.<sup>79)</sup> 중국 동북 지역의 벽화분은 대부분 後漢~魏盡 시기에 축조된 것이며, 위진시기에 전성기에 이른다.<sup>80)</sup>

- 
- 70) 張小舟, 「北方地區魏晉十六國墓葬的分區與分期」, 『考古學報』1987年 第1期;  
趙東艷, 「漢末魏晉遼陽地區壁畫墓的分期」, 『遼寧經濟文化研究』, 遼寧大學出版社, 1994;  
鄭君雷, 「中國東北地區漢墓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1997;  
鄭君雷, 「遼陽漢魏晉壁畫墓群」, 『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 1998;  
劉未, 「遼陽漢魏晉壁畫墓研究」, 『邊疆考古研究』2, 科學出版社, 2004;  
孫力楠, 「東北地區公元2-3世紀墓葬壁畫研究」 吉林大學 박사학위논문, 2008;  
李林, 「石室丹青—遼東漢墓壁畫研究」, 中央美術學院 박사학위논문, 2011a;  
李林, 「漢魏遼東壁畫墓分期與分期研究」, 『“特殊與一般—美術史論中的個案與問題”第五屆全國高校美術史學年會會議論文集』, 2011b;  
전호태, 「요양 위진 고분벽화 연구」, 『美術資料』62, 1999;  
전호태, 「遼陽魏晉고분벽화」, 『中國畫像石과 고분벽화』, 술, 2007;  
강현숙, 「中國 東北地方 石室封土壁畫墳의 地域的 特徵에 對하여」, 『韓國考古學報』43, 2000;  
강현숙, 「고구려와 비교해본 중국 한, 위·진의 벽화분」, 지식산업사, 2007;  
東潮, 「遼東と高句麗壁畫」,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1997;  
三崎良章, 「遼東의 漢魏交替—從遼陽壁畫墓的角度」, 『魏晉南北朝史研究：回顧與探索—中國魏晉南北朝史學會第九屆年會論文集』, 2007;  
三崎良章, 「遼陽壁畫墓に見られる遼東社会の一面」, 『早稲田大学本庄高等学院 研究紀要』26, 2008;  
三崎良章, 「遼陽壁畫墓の現状と研究の可能性—2007年8月~2008年8月の調査から—」, 『西北出土文獻研究』2008年度特刊, 2009;  
Wilma Fairbank and Masao Kitano, Han Mural Paintings in the Pei-Yuan Tomb at Liao-yang, South Manchuria, *Artibus Asiae*, Vol.17 No.3/4, 1954.
- 71) 賀西林, 『古墓丹青：漢代墓室壁畫的發現與研究』, 陝西人民美術出版社, 2001, p.14.  
72) 信立祥, 『漢代畫像石綜合研究』, 文物出版社, 2000, p.198.  
73) 대표적인 고분은 廣州 象崗에서 발견된 南越王墓이다(『西漢南越王墓』, 文物出版社, 1991).  
74) 劉未, 앞의 논문, 2004, pp.247~249.  
75) 孫力楠, 앞의 논문, 2008, p.47.  
76) 遼寧省博物館 等, 「遼陽舊城東門里東漢壁畫墓發掘報告」, 『文物』, 1985年 第6期.  
77) 李林, 앞의 논문, 2011b, p.71.  
78) 李慶發, 「遼陽上王家村晉代壁畫墓清理簡報」, 『文物』, 1959年 第7期, p.61.  
79) 三崎良章, 「遼東公孫氏政權と非漢民族」, 『教育と研究』28, 2010, p.78.  
80) 黃佩賢, 『漢代墓室壁畫研究』, 文物出版社, 2008, p.87.

요동지역의 벽화분 묘제는 공손씨의 몰락과 함께 저조기에 접어들어, 수량이나 규모가 축소되며,<sup>81)</sup> 4세기 초에서 4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쇠퇴하게 된다. 그 구체적인 시점은 모용황이 요동 모용인의 반란을 진압하고 요동의 백성들을 棘城으로 옮긴<sup>82)</sup> 시기인데,<sup>83)</sup> 가장 늦은 시기의 것으로 편년되는 上王家墓의 경우, 대개 4세기 전반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며,<sup>84)</sup> 혹은 안악3호분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이를 4세기 후반으로 판단하기도 한다.<sup>85)</sup>

요동지역의 벽화분 전통의 단절 원인에 대한 해석은 그리 많지 않은데, 모용선비와 고구려 등 이민족의 흥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견해가 고작이다. 즉, 이민족의 침공으로 인해 요동지역이 후한 이래로 이어온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고, 한족의 문화가 저조기에 접어들면서, 한족의 문화로서 벽화분 전통도 멸절된다는 것이다.<sup>86)</sup>

하지만 모용선비의 경우, 중원문화에 아주 우호적이어서,<sup>87)</sup> 적극 수용하려 했고, 모용의 시기에는 이미 상당히 漢化되어 있었다. 또 비록 후대이긴 하나, 모용선비의 중심지인 遼西 지역과 고구려의 평양, 집안지역에 벽화분이 등장한다는 점과 연관시켜 봤을 때, 위에서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요동지역의 벽화분 전통 단절을 해석하기는 미흡하다.

일각에서는 위진 시기 요동사회의 불안정으로 인해 升仙을 중심으로 한 중원문화 양식이 단절되고, 대신 현실 지배자로서 군림하는 묘주가 강조되는 등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sup>88)</sup> 하지만 고구려가 요동을 지배한 260여 년에 걸쳐 중심지인 평양 주변뿐만 아니라, 집안 그리고 환인지역에서도 벽화분이 축조되었는데, 그에 비해 요동지역에서는 오랜 벽화분 축조 전통이 있었음에도 단절되어 나타난다는 점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또 상왕가묘를 가장 후대의 것으로 보고 있는데, 墓主像 양식이 안악3호분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sup>89)</sup> 착안하여 요동벽화분이 고구려 벽화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하기도 한다.<sup>90)</sup> 그렇다면 안악3호분의 묘주인 修壽가 요동출신의<sup>91)</sup> 선비화된 한족임을 감안하면, 상왕가묘의 묘주 또한 선비족 혹은 선비화된 한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왕가묘는 모용위가 崔攄를 축출하고 요동을 장악했을 무렵, 혹은 모용인이 요동지역에서 반란 세력을 형성하고 있을 무렵에 축조된 것일 수도 있으며, 피장자 또한 선비족과 연관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즉 한족의 벽화분 묘제를 요동의 선비족 혹은 선비화된 한족이 지속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한족 문화의 저조로 인해 벽화분 전통이 단절되었다는 해석만으로 벽화분의 부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단절 현상은 결국 현지 벽화분 축조집단의 부재를 의미하는데, 지배자인 고구려와 깊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81) 三崎良章, 앞의 논문, 2008, p.64.

82) 『晉書』卷109 載記第9 慕容皝 “克襄平……分徙遼東大姓於棘城”

83) 劉末, 앞의 논문, 2004, p.249;

三崎良章, 앞의 논문, 2008, pp.64~65.

84) 李林, 앞의 논문, 2011b, p.73.

85) 羅宗真, 『魏晉南北朝文化』, 學林出版社, 2000, p.88.

86) 劉末, 앞의 논문, 2004, pp.251~252;

孫力楠, 앞의 논문, 2008, pp.52~53.

87) 김성숙, 「慕容鮮卑와 拓跋鮮卑의 발전과정 비교」, 『백산학보』 66, 2003, pp.15~19.

88) 전호태, 앞의 책, 2007, pp.323~326.

89) 전호태, 앞의 논문, 1999, p.70.

90) 劉末, 앞의 논문, 2004, p.249.

91) 『資治通鑑』卷95 晉紀17 咸和8年 “司馬遼東修壽共討(慕容)仁”

## 2) 고구려 벽화분 묘제의 형성과 요동 벽화분 전통의 단절

고구려 벽화분 묘제의 형성과 관련해서, 적석총 계승설, 집안 형성설, 평양 형성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으며, 또 그 외부적 영향과 관련해서 遼東(혹은 遼西)설이 제기된 바 있다.<sup>92)</sup> 앞에서 언급했듯이, 안악3호분은 요동 상왕가묘 축조기법을 계승 발전시킨 형태로 추정되기도 하는데, 요동지역 벽화분 양식이 안악3호분에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실상 평양지역 석실봉토분 묘제는 집안지역보다 이른 시기에 등장한다. 형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樂浪, 遼南, 山東, 遼東 등 지역의 漢末~魏晉시기 봉토전축분, 석실봉토분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sup>93)</sup> 집안지역의 경우, 석실봉토분이 등장한 후에도 여전히 적석총 묘제가 병행되었다. 고구려의 석실봉토분은 적석총으로부터 발전된 형태의 묘제라기보다는, 외부 문화를 수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많으며,<sup>94)</sup> 또 집안보다는 평양지역에서 우선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비록 집안지역이 요동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었으나, 벽화분의 구조 특성상, 직접 요동 지역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집안지역의 벽화고분은 비교적 완성된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이는 평양지역에서 낙랑 전축분이나 초기벽화고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망명세력의 것으로 추정되는 복잡한 다실분 형태의 벽화고분부터 확인된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그러므로 낙랑 전축분에 요동, 요서 등 북중국일대의 벽화분 문화가 복합적으로 평양지역 초기 고구려 벽화분을 형성하였고, 그것이 다시 집안, 환인 등 서부지역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구려벽화고분의 복합적인 문화 성격으로 인해, 그 속에 요동지역 벽화분의 여러 요소들이 나타난다고는 하나, 묘실구조나 벽화 내용에서 큰 차이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문화의 전파는 일단 인구 유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소수 망명객의 이주뿐만 아니라, 요동 노략 과정에서 포로로 잡은, 혹은 전란을 피해 고구려로 이주한 요동지역 건축 장인 및 畵工들이 고구려 벽화분 축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장인집단이 부재하였다면 지배자로서는 벽화분 묘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대에 벽화분 축조 기술자가 그리 흔치 않았을 것임을 감안하면, 그들의 이주는 특정 지역의 벽화분 전통 단절과, 새로운 지역에서의 벽화분 묘제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평양지역 벽화분 묘제의 형성은 4세기 이후, 朝陽을 중심으로 요서 지역에서 요동의 영향을 받아 벽화분 묘제가 형성된다는<sup>95)</sup> 점과도 유사하다. 수차례 전쟁을 통해 요동 주민들이 모용선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조양지역으로 대거 이주되는데, 특히나 앞서 언급했듯이, 336년 모용황이 요동을 거점으로 한 모용인의 반란을 진압하고 대거 徙民을 단행하게 되면서 벽화분 축조 장인들이 요서지역에 유입되었던 것 같다. 漢문화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모용선비가 벽화분 묘제를 취하게 되면서 이주민 기술자들을 동원해 벽화분을 축조하였던 것 같다. 그에 비해 요서 벽화분의 기원지인 요동에서는 유력 정치집단의 부재와 장인

92) 김용준,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과학사전출판사, 1958(열화당, 2001, 再版);

楊泓, 「高句麗壁畫石墓」, 『文物參考資料』 1958年 第4期;

김원룡, 「高句麗古墳壁畫의 起源에 對한 研究 - 韓國古代美術에 對한 中國의 影響」, 『震檀學報』 21, 1960;

劉萱堂, 「中國 集安 高句麗 壁畫古墳과 遼東, 遼西 漢魏晉 壁畫古墳 比較 연구」, 『高句麗 古墳壁畫(高句麗 研究 4)』, 학연문화사, 1997;

공석구, 「高句麗의 南進과 壁畫古墳」, 『한국고대사연구』 20, 2000.

93) 劉末, 「高句麗石室墓的起源与发展阶段」, 『南方文物』 2008年 第4期, p.80.

94) 王培新, 「高句麗封土石室墓文化淵源之樂浪因素初探」, 『邊疆考古研究』 3, 2004, pp.187~188.

95) 三崎良章, 「遼寧省における魏晉時代の壁畫墓 - 遼陽と朝陽, そして酒泉」, 『西北出土文獻研究』 2007-5, p.125.

층의 단절로 인해 벽화분 전통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고구려 지배층은 수백 년에 걸쳐 사용한 적석총 묘제를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석실봉토(벽화)분이라는 외래 묘제로 대체한다. 이러한 변혁의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대개는 중국문화의 전파로만 설명해왔다. 묘제라는 지극히 보수적인 문화의 변화는 단순히 주변지역과의 문화 왕래를 통해 발생하기는 어렵다. 최고지배층의 장의 문화의 변화는 결국 정치적 의도나 상황과 연관시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벽화분 묘제의 수용을 해당 정권이 정치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취한 漢化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하거나,<sup>96)</sup> 또 낙랑, 대방지역의 漢人집단을 포용하기 위해 그들의 漢문화를 수용하면서 벽화분 묘제가 형성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sup>97)</sup>

필자는 고구려의 벽화분 묘제 수용을 평양천도 이후, 고구려 왕실을 중심으로 단행된 전통문화 단절 및 새로운 문화적 동질성 창조 시도와 연관시켜 이해하고자 한다. 즉 왕권이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해당지역의 구 낙랑세력과 새롭게 이주시킨 요동 등 북중국 망명집단을<sup>98)</sup> 취합하여 親 왕실 세력을 형성해 나갔고, 그 문화적 동질성의 상징으로서 벽화분 묘제를 취했다는 것이다. 새 묘제 수용의 목적은 평양천도 후, 집안지역의 적석총 묘제와의 단절을 통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 정립이었다. 이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서, 왕권은 새로운 문화전통 창조를 통해, 舊 낙랑 및 북중국 지역의 망명세력 등 漢문화권 세력과 문화적 동질성을 구축함으로써, 왕실이 중심이 되어 확고한 친 왕실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새로 수용한 묘제 문화는 점차 집안지역의 고구려 舊 귀족세력의 模倣의 대상이 되는데, 친근하면서도 경쟁 관계에 있는 집단 사이에 종종 상대방에 대한 ‘모방욕구(mimetic desire)’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벽화분은 해당지역 지배층의 묘제로서, 그러한 고분의 분포와 밀집도는 해당지역의 정치적 성쇠를 시사해준다.<sup>99)</sup> 고구려 벽화고분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 평양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중부 지역과 집안지역에 밀집되어 나타나며, 桓仁, 撫順에서도 일부 발견되고 있다.

현재 고구려 벽화고분이 발견된 가장 서부 지역은 요동의 동쪽 즉, 撫順지역이다. 고구려의 新城에 비정되고 있는 高爾山城의 묘역으로 추정되는 施家墓地 발굴 과정에서 벽화고분 1기가 발견된 바 있다. 이 유적에서 開元通寶가 발견되고, 매장시설이 지하에 축조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당 초기, 즉 고구려 후기 것으로 편년하고 있다.<sup>100)</sup> 다만 이 시가묘지 M1 벽화고분의 벽화 주제는 이른바 ‘인물풍속도’로 추정되는데, 통설에서 고구려후기 벽화고분이 四神圖 주제로 변화한다는 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발굴보고서에서 渤海무덤 양식과의 유사성 내지는 문화적 연속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sup>101)</sup> 그렇다면 발해시대 무덤일 가능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여하튼 무순지역의 시가묘지 M1고분은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서쪽지역에 위치해 있는 고구려 벽화고분이다. 이는 고구려 新城 지역으로, 요동과는 달리,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고구려 서부 重鎮 역할 해왔다는 문헌기록과 일치하는 고고학 현상이다. 이는 결국 두 지역이

96) 강현숙, 「高句麗와 中國 遼寧地方·晉代 石室封壁畫墳 比較考察」, 『韓國上古史學報』 36, 2002, p.88.

97) 趙俊杰, 馬健, 「試論集安地區高句麗新舊墓制的過渡時段」, 『東南文化』 2012年 第1期, p.116.

98) 여호규의 연구에 따르면, 修壽나, 修利 등 중국계 망명인을 서북한 지역으로 대거 이주시켰다고 한다(「4세기 高句麗의 樂浪·帶方 경영과 中國系 亡命人の 政체성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53, 2009, p.181)

99) 강현숙, 『고구려와 비교해본 중국 한, 위·진의 벽화분』, 지식산업사, 2005, p.319.

10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撫順市博物館, 「遼寧撫順市施家墓地發掘簡報」, 『考古』 2007年 第10期, pp.39~40.

101) 위의 글, p.40.

고구려 내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음을 시사해주며, 시가묘지가 위치 해 있는 무순지역이 그 경계지대였음을 말해준다.

고구려 지배기간 동안, 무순 서쪽의 요동지역에서 벽화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선 시기 벽화분 전통을 계승할 만한 정치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못했고, 또 관련 장인층의 부재를 시사해준다. 그러한 지역 지배층과 기술자 계층의 단절은 장기간에 걸쳐 전개된 전쟁으로 인한 사망 혹은 주변지역으로의 망명 때문이다. 또 북연 멸망 후, 고구려는 북연주민으로써 요동의 인구 공백을 메꾸었으나, 지방세력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풍흉을 비롯한 지배층을 제거하거나 도읍인 평양 주변으로 이주시켰을 가능성이 많다. 고구려보다 선진적인 무기제조기술을 갖고 있었던<sup>102)</sup> 북연의 기술자나 장인 또한 마찬가지로 평양지역으로 이주되었을 것이다. 또 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벽화분 축조기술과 문화적 요소들이 구 낙랑지역의 것과 결합되면서 고구려 벽화분 전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남겨진 하층민에 대한 지배는 고구려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 같은데, 그들이 벽화분 묘제를 수용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임기를 마치거나, 혹은 사후 歸葬하였으므로 요동지역에 고구려식 벽화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순천지역에 위치한 遼東城塚 묘주가 바로 그러한 성격의 인물이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동성총 벽화에 요동성 성곽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 묘주와 요동의 상관관계를 시사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무덤 구조상 요동 지역의 三道塚1號墳<sup>103)</sup> 등과 유사한 형태의 多室墳으로서, 天王地神塚과 같은 주변의 다른 벽화고분과 확연히 달리 나타난다. 따라서 묘주는 단순히 고구려에서 요동지역으로 파견된 평양 혹은 집안 출신이 아니라, 요동지역 문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漢代이래로 본격 축조되기 시작한 벽화분은 후한말의 전란으로 인해 중원지역에서 쇠퇴하는 대신, 그 유민들에 의해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된다. 요동지역에서 벽화분 묘제의 쇠퇴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즉 4세기 이후, 요동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여러 세력들 사이의 인구와 자원 쟁탈전은 급격한 인구 감소를 가져왔으며, 요동은 점차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상실케 된다. 따라서 벽화분 전통 또한 유민들에 의해 요서와 고구려 두 지역으로 전파되고 정작 요동에서는 멸절되었던 것이다. 벽화분 문화를 형성한 고구려가 5세기 초부터 요동을 지배하게 되면서, 거꾸로 요동지역에 벽화분 문화를 수출하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사실상 고구려 중기 요동지역은 경계기반으로 역할하였을 뿐, 정치세력을 형성하지 못했으므로, 지배집단의 문화로서 벽화분 또한 요동지역에 다시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 IV. 맺음말

중국 군현과 모용선비, 고구려 사이에 장기간 지속된 전쟁으로 4세기에 이르러 요동은 중국 동북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요동의 몰락과 함께 벽화분 축조 집단이 요서나 고구려로 이주하게 된다. 그 중 고구려로 유입된 지배층 출신들이 왕권에 귀부해 親왕권 중앙귀족화 되는데, 그들은 함께 이주한 건축기술자와 화공 등을 이용해 자신들의 벽화분 전통을 이어갔던 것 같다. 마침 평양지역의 토착세력 또한 유사한

102) 『三國史記』 卷第18 高句麗本紀第6 長壽王 “命軍脫弊褐 取燕武庫精仗 以給之”

103) 東北博物館, 「遼陽三道塚兩座壁畫墓的清理工作簡報」, 『文物參考資料』, 1955-12, pp.49~58.

묘제를 가지고 있어, 평양천도 이후, 왕권은 정치적 목적에서 적석총이라는 전통 묘제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친왕권 집단의 문화를 수용 및 고구려 지배층의 문화적 공통분모로 설정하게 되면서 새로운 벽화분 묘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 같다.

요동지역은 이른 시기부터 벽화분 전통이 있었음에도 결국 고구려가 지배한 260여 년에 걸쳐 벽화 축조할 만한 지방세력을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멸절된다. 고구려에서는 요동에 대해 城 중심의 지배방식을 취했는데, 지방관을 파견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들은 사후 다시 집안이나 평양지역으로 귀장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지배체제 하에서 요동지역에는 독자적인 거대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벽화분 전통을 계승하거나 혹은 고구려식 벽화분 묘제를 취할만한 지배자 집단이 형성되지 못했던 것 같다.

또 중기 고구려에서는 새로 확보한 요동을 일종의 경제기반으로서 경영하였고, 후기에는 대 수·당 투쟁의 전초기지로 조성하였다. 결국 요동지역은 2세기에 걸쳐 문화 공백지대가 되었으며, 단지 고구려의 경제, 군사적 요충지로 역할 했던 것 같다. 따라서 요동지역의 벽화분 축조 전통이 완전히 단절되었던 것이다. 비단 벽화분 묘제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을 제외한 여타 고구려 문화유적의 부재 현상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인데, 이는 고구려에서 요동이 지닌 경제, 군사 기반으로서의 역할 때문이라 하겠다.

# 「고구려 중기 對遼東관계와 요동지역 壁畫墳 전통의 단절에 관한 試論」 토론문

전호태(울산대학교)

중요한 논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의미 있는 논문으로 생각됩니다. 몇 가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요동사, 요동지역사'를 의미 있는 개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벽화분 전통과 관련하여 논의하자면 요동이라는 개념이 '요하 동쪽'으로만 설정되는 것은 필자도 밝힌 것처럼 '협의'이기는 하나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동지역 벽화분을 논의하는 가운데 요서의 유적들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2. 고구려가 지속적으로 요동을 약탈하다가 주민이 거의 사라져 황폐한 지경이 된 즈음에 '경제적 식민지'로 개발하기 위해 이 지역을 영역화 하고 한족 유민 집단을 정착시킨다는 설정은 전후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하 일대 영유가 지니는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많은 세력이 요동 진출을 시도했고 고구려도 그 하나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만, 여러 세력이 요동을 넘나들었다고 해서 고구려 영토의 1/3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요동 일대가 황폐해졌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으며(특히 고구려의 요동 영유 이후 이루어진 북위의 북연 주민 4만호 사민이 요동 지역 인구 공백상태를 가져왔다는 식의 판단) 고구려로서는 서부 국경 지대이기도 하고 요하 유역을 노리는 여러 세력과의 주요한 각축장이기도 한 이 지역의 주민을 한족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것도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동이라는 넓은 지역을 5세기 초 이후 260여 년 동안 '군사와 행정은 고구려인이 맡고, 생산은 한족 유민 출신들이 맡는다.'는 식의 설정은 매우 편의적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극히 낮은 이해 방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 요동지역의 성 중심 권역 지배방식에 대한 기존 논의는 고구려의 요동 영유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구체화 되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였거나 이런 이해로 나아가기 위한 수준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고는 요동지역의 주요한 성들, 특히 천리장성 연변의 성들이 고구려가 수와 갈등을 빚고, 당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급히 축조된 급조된 방어시설들이라는 이해를 전제로 '천리장성' 방어선 구축 이전에는 200여 년 동안 고구려가 요동의 방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요동 방어체제를 제대로 구상하지도 않아 대규모 축성을 시도하지도 않았으며 요동을 경제적 식민지로 개발하는 데에만 행정력 등을 쏟은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려 26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국가 영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더욱이 여러 외부 세력이 침략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 곳을 이와 같은 식으로 경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4. 고고학적으로 요동지역에서 후기로 편년되는 산성 등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원 고구려지역

의 문화요소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 고구려 지역으로부터 요동으로 대량의 주민 이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해 역시 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원 고구려 문화요소’란 무엇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지요? 귀족층이 아닌 일반 백성들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논의라면 토기 종류들 정도 외에는 그 흔적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확인되기는 극히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 것 입니다. 귀족층의 생활과 관련된 흔적 역시 ‘장례문화’와 직결된 것 가운데 일부, 예를 들면 ‘고분’ 부장품이나 고분벽화 정도가 아니면 발견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고분벽화는 고구려 전기와 후기의 수도권에서 주로 발견되며 이외의 지역에서 찾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논문에서 언급된 ‘원 고구려 문화요소’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여기에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요동에서 고구려적 요소가 발견되기 어려운 정도는 고구려의 동북지역, 곧 백두산 동쪽 지역에서 일부 군사시설 외에 연구자들의 눈길을 잡을 만한 고구려 문화의 산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5.벽화분 축조집단의 존재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며 논고를 진행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주된 묘제가 적석총에서 봉토석실분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여러 연구자들이 공감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구려에서 봉토석실벽화분의 출현이 ‘왕실’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왕권이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해당지역의 구 낙랑세력과 새롭게 이주시킨 요동 등 북중국 망명집단을 취합하여 親 왕실 세력을 형성해 나갔고, 그 문화적 동질성의 상징으로서 벽화분 묘제를 취했다’는 논제가 성립하는가의 문제를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분벽화는 장의미술의 특별한 장르 가운데 하나이며 보편성이 그리 높은 것이 아닙니다. 고분벽화가 구 낙랑세력이나 북중국 망명집단에게 문화적으로 친숙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먼저 논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낙랑유적에서 고분벽화가 다수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북중국 망명집단의 묘제가 되는 집단(?)이 벽화고분을 다수 축조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 이를 전제로 한 논의가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더욱이 5세기부터 고구려 왕실이 벽화분을 적극 수용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고고학적 증거는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논고는 이 부분에 대해 먼저 학문적으로 논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묘제 수용의 목적은 평양천도 후, 집안지역의 적석총 묘제와의 단절을 통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 정립’, ‘새로 수용한 묘제 문화는 점차 집안지역의 고구려 舊 귀족세력의 模倣의 대상이 되는데, 친근하면서도 경쟁 관계에 있는 집단 사이에 종종 상대방에 대한 모방욕구(mimetic desire)가 발생’ 이었는지 여부는 그 이후에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왕권은 새로운 문화전통 창조를 통해, 舊 낙랑 및 북중국 지역의 망명세력 등 漢문화권 세력과 문화적 동질성을 구축함으로써, 왕실이 중심이 되어 확고한 친 왕실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 이라는 견해 역시 전제가 되는 개념에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견해대로라면 고구려 왕실이 비록 왕권 강화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봉토석실벽화분이라는 ‘한 문화전통의 수용=새로운 문화전통 창조’라는 일견 고구려문화의 일반적 흐름과는 배치되는 선택을 하면서 전통적 지지기반을 버리고 고구려 외부세력들을 친왕실세력의 중추로 삼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왕실의 이런 선택이 고구려 사회 일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와 달의 아들 주몽의 후예라는 점을 내세워 왕권의 신성성을 강조하며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고 강력한 귀족세력들을 견제할 수 있었던 고구려 왕실에서 이런 선택이 가능했을까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복왕조도 아닌 자체적으로 수백 년에 걸쳐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

던 나라의 왕실이 왕권 강화를 위해 기존의 문화적 전통 자체를 버리고,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던 전통 지지기반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을까요?

6. 구 낙랑세력, 북중국망명세력 등은 고구려 내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력들을 친왕실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해 한 문화전통을 수용하고자 한 왕을 누구로 상징하고 있습니까. 5세기는 고구려의 독자적 문화전통이 꽃피면서 보편성도 강화되던 시기입니다. 중기 고구려 고분벽화는 이 시기 고구려 문화의 흐름이 뚜렷한 자기 색깔을 지니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고에서 제시된 구 낙랑세력이나 북중국망명세력이 이런 문화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북연 망명 지배세력의 제거과정에서 잘 드러나듯이 이들은 고구려의 국가적 이익에 배치되는 존재인가 아닌가에 의해 고구려 안에서 존립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들이 고구려의 왕권 강화와 관련한 정치적 흐름에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7. 북연 멸망 후 북연에서 데려온 주민으로 요동의 인구 공백을 메웠으며 고구려의 다른 곳에서 요동으로 사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요동에서의 경제 개발 활동이 고구려에 어느 정도의 실익을 가져다주었을까요.

8. 『三國史記』의 문구로 북연의 기술자나 장인들이 고구려보다 선진적인 무기제조기술을 가졌다는 해석이 가능한지요.

9. 요동성충 벽화만으로 5세기 초부터 고구려 멸망까지 260여 년 동안이나 요동에 파견되었던 관리의 귀장이 이루어졌다는 추정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요동은 고구려 영역이 된 이후에도 무려 3세기 동안이나 고구려의 내부 식민지처럼 경영되었다는 뜻인지요? 정치, 군사,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광대한 땅을 영유한지 수백 년이 경과하도록 유민 출신 주민들이 생산경제 활동에만 전념하게 하고 내부 식민지처럼, 영역 바깥의 별세계처럼 관리하는 사례를 고대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는지요. 요동성충의 경우, 묘주가 요동 지역 문화와 밀접히 연관된 인물이라면 굳이 귀장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5-6세기 고구려와 중국 고분의 건축과 장식의 기능과 관계 연구

朴雅林(숙명여자대학교)

## I. 머리말

고구려 벽화고분의 발달에서 중기(5~6세기)는 순수장식문양도 벽화고분의 출현이 특징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후기에는 인물생활풍속도가 사라지고 사신도가 중심이 되며, 집안 지역에서는 장식문양도가 사신도의 배경으로 존속한다.

필자는 최근 정리한 논문에서 북한 남포시 용강군 옥도리벽화고분에 나타난 ‘王’字 流雲文에 주목하여 고구려 벽화에서 ‘왕’자 유운문 장식의 표현 양상과 ‘왕’자 유운문을 담은 錦帳의 실제 제작과 묘실 내 설치 가능성을 고려해 보았다.<sup>1)</sup>

이번 연구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하여 미처 다루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휘장의 묘실 안의 설치 형태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고구려 벽화고분 중에서 휘장이 묘사된 묘주도가 그려진 벽화고분의 사례와, 휘장걸이, 못자국, 金銅幔架 등이 발견된 고분들의 사례를 정리한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휘장의 회화적 표현 사례는 풍부한 편이나, 휘장이나 유장가의 출토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고구려의 부족한 실물 사례를 보충하기 위해서 중국 한위진남북조 고분의 출토 사례(帷帳架, 병풍, 石榻, 석관, 석곽 등 고분 내 구조물)를 살펴보고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설치 형태를 추정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벽화로 표현되고 실제 유물로 재현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5-6세기 고구려와 중국 고분의 건축과 장식의 기능과 관계를 알아본다.

## II. 고구려 벽화고분에서의 유장의 설치

고구려 벽화고분의 대표적 장식문양인 왕자 유운문 장식의 사례를 살펴보면 왕자 유운문이 묘주도의 병풍과 휘장, 주실 벽과 전실 벽의 장식문양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관 뒤의 벽면과 관대 자체의 장식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묘실 전면을 장식한 왕자 유운문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병풍 또는 휘장의 문양장식이었다가 병풍의 틀을 벗어나면서 묘실 전체 공간으로 확대되었거나, 벽에 거는 무늬가 있는 비단 揮帳(帷帳)이 그림의 형태로 벽면에 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 벽화의 변천과정에서 왕자 유운문의 표현양상은 생활풍속도 제재의 벽화고분에서 묘주도의 병풍이나 휘장의 장식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장식문양도 고분에서 묘주도의 직접적 표현 없이 묘실 공간을 꾸미는 상징적 장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고구려 벽화에서 묘주 또는 묘주가 있는 공간을 상징하는 대표적 장식문양은 왕자 유운문 외에도 연화문이 있다.<sup>2)</sup>

고구려 고분 벽화의 장식문양도를 병풍화가 묘실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본다면 병풍화가 가진 제의적 기능과 상징성이 고분 묘실의 장식에 적용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처

1) 줄고, 「고구려 벽화의 장식 문양과 錦帳의 표현」, 『고구려발해연구』, 43, 2012.

2) 줄고, 「고구려 벽화의 장식 문양과 錦帳의 표현」, 『고구려발해연구』, 43, 2012.

음에는 병풍이나 휘장 표면에 시문되었던 장식문양이 고분 벽화의 발달에 따라 장식공간이 확장되면서 묘실 벽면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sup>3)</sup> 이렇게 장식이란 형태로 정해진 공간을 채우는 것은 표면의 양식이 형태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형태를 다시 규정지을 수 있다.<sup>4)</sup> 공간을 도안으로 ‘채우는’ 것과,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도안으로 덮어 그 물건이나 공간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다른데, 후자의 경우 도안은 그것이 담겨 있는 물건이나 공간의 목적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sup>5)</sup> 고구려벽화에 사용된 왕자문과 연화문은 고구려인들이 공통으로 인식하는 일종의 徽章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때로는 묘실 공간 전체를 덮으면서 인물풍속도를 대체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sup>6)</sup>

여기에서는 벽화로 그려진 휘장의 표현에 주목하여 고구려 벽화고분 안에서의 휘장의 설치 형태나 고분 안의 구조물의 형태를 추정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다음에서 고구려 벽화고분 중에서 묘주도의 휘장(유장)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 못과 못자국이 출현하는 경우, 구조물을 설치한 사례(가형석곽-태왕릉 또는 묘실 자체를 가형으로 꾸민 경우-절천정묘) 등을 정리하였다.

왕자 유운문은 『翰苑』와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미루어 고구려에서 생산된 揮帳(帷帳)의 장식문양, 즉 錦帳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왕자가 織紋된 운문의 錦帳이 장식된 장천 2호분에서 출토된 經錦, 벽 고리와 주실 네 벽 위쪽의 못 구멍들은 이러한 錦이 고구려 벽화고분 안에 실제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게 한다.

揮帳(帷帳, 만장)이 실제로 벽화고분 안에 어떻게 설치되었을까 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로는 추정이 쉽지 않다. 못자국의 흔적이 고분마다 차이가 있고, 고분 안에서 발견되는 직물이 관을 덮는 용도로 쓰였을 수도 있고 또는 묘실 한 벽면(모두루총)이나 사면 벽을 돌아가며 덮었을 가능성 등 다양한 설치 예가 고려되기 때문이다.

못과 못자국이 발견되는 벽화고분들 중 주목되는 예는 집안지역에서 가장 이른 벽화고분의 하나로 여겨지는 만보정 1368호분(남향)이다. 묘실 벽과 천정에 흑선으로 대들보와 기둥을 그렸다. 기둥은 모두 8개이다(각 모서리와 네 벽 중앙) 묘실 네 벽 상부에 일정 간격으로 쇠못을 박았다(북벽-9개, 서벽-6개[간격 32-62cm], 동벽-2개, 남벽-4개[간격 49-69cm]). 쇠못의 머리 부분이 위로 구부러져 휘장 걸이로 추정한다. 남향의 고분으로서 관대가 서벽과 북벽에 붙어 놓인 점, 동벽 모서리에 돌로 쌓은 부엌이 축조된 점을 고려하면 못의 용도가 관대에 놓인 묘주를 보호하는 휘장걸이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기둥과 들보 그림 외에는 인물생활풍속도나 장식문양도가 발견되지 않아, 만약 휘장이 걸렸다면 거기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인물생활풍속도 고분에 못과 못자국이 나타나는 경우 벽면 상단에 횡렬로 배열된 연화문에 출현한다. 방단계제석실벽화묘인 우산하1041호묘(서향)는 동벽(후벽)에 묘주부부도가 있고, 북벽에 수렵도(하단)와 연화도(상단)가 있다. 남벽 벽화는 남아있지 않다. 못자국은 남·북벽 상단에 35cm 간격으로 횡렬로 배열되어있다(각 6개?). 북벽에 남은 벽화

3) 묘실 안에서의 연화문 표현 확대는 평양 계열 고분벽화에서는 연화가 묘실 벽면에 주로 표현되었다가 묘실 천장고임으로 확대된다. 집안 계열에서는 연화가 묘실 천장고임에 주로 표현되었다가 점차 묘실 벽면에도 그려지기 시작하며, 곧이어 연화문 장식 벽화고분으로 변천해 간다.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2000, p.214.

4) 우홍 저, 김병준 역, 『순간과 영원』, 아카넷, p.120.

5) 우홍 저, 김병준 역, 『순간과 영원』, 아카넷, p.75.

6) 줄고, 「고구려 벽화의 장식 문양과 錦帳의 표현」, 『고구려발해연구』, 43, 2012.

를 보면 정면연화문의 중심에 구멍이 나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벽은 북벽과 서로 대칭하는 6개의 작은 구멍이 있다. 麻布잔편과 견직물 잔편, 관곽에 사용되었던 漆皮잔편, 철제 벽걸이 2점이 출토되었다. 통구12호분의 예와 같이 원래 벽면 상단의 연화문의 중심에 벽걸이가 박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작은 구멍에 벽걸이를 삽입한 후, 灰泥를 채워 넣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같은 형태의 작은 구멍이 개정석 아랫면 중앙 좌우에 각각 1개씩 파여 있는데, 못을 박고 갈고리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통구 12호분(서향)의 남실은 동벽(후벽)에 가옥 안에 앉은 묘주부부 대좌도가, 남·북벽에는 禮輦圖가 있다. 묘실 네 벽 상단을 따라서 정면연화문이 일정간격으로 횡렬로 배열되어 있는데 꽃심에 둥근 구멍이 있고 그 안에 쇳녹의 흔적이 있다 유장을 거는 못을 박았던 자리로 추정한다. 남실과 북실 천정은 주로 연화문과 운기문으로 장식되었다.

우산하1041호묘는 구조가 장군총의 배장묘와 유사하고, 벽화는 통구12호묘와 마선구1호묘와 비슷하다. 또한 못자국과 함께 관곽을 싸거나 휘장설치에 사용되었을 직물 잔편, 칠피 잔편, 철제벽걸이가 같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우산하1041호묘는 천정에도 갈고리를 설치한 구멍이 있어 묘실 전체를 덮는 천막(?) 형태의 유장이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두 고분 모두 연화문 중앙에 못을 박고 휘장을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생활풍속도 고분에서 벽면에 휘장을 설치한다면 벽화가 가려진다는 문제점이 있어 벽화와 유장설치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인물생활풍속도 고분의 못자국과 유장 설치가 연화문과 같이 이루어진 점은 다음에 살펴볼 순수장식문양도 고분의 유장 설치와 연결되며, 휘장의 사용과 장식문양의 사용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창구 장군묘(서향) 후실의 네 벽 상단에 일정 간격으로 20군데에 못 구멍(남, 북, 동-각 6개, 서-2개, 문의 좌우-2개)이 있으며 동벽의 2개의 구멍에 銅釘이 남아있다. 막을 걸기 위한 고리로 추정한다. 못 구멍의 위치가 네 벽에 고르게 있는 것은 바닥에 관대가 2기 놓여있어 묘실 전체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후실 전체가 연화문으로 장식되어 여기에서도 못자국과 연화문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장군묘의 전실은 왕자유운문으로만 장식되었는데 발굴보고서에 전실에서 못자국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장군묘와 같이 순수장식문양고분으로 분류되는 산성하332호분(남향), 산성하983호분(서향)은 각각 왕자유운문과 연화문이 주된 장식문양이다. 산성하 332호분은 주실의 북·동·서벽 상단에 40-50cm 간격으로 각 6점씩 쇳 자국(깊이 5cm)이 있다. 철제 벽고리 4점(전체 길이 21cm)이 묘실과 묘도에서 발견되었다. 산성하983호묘에서는 못자국이 나 못이 발견되지 않았다.

모두루총(서향)은 벽면에 무용총, 각저총과 같이 두터운 석회를 발라서 원래 벽화를 그리려다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전실 후벽(동벽) 상단에 목서제기가 있으며 좌벽(남벽) 들보 아래에 길이 약 180cm, 너비 6cm, 깊이 2cm의 긴 槽이 있다. 槽 안에 3개의 못자국이 있고 대들보(梁枋) 위에도 3군데에 못 자국이 있다. 벽의 휘장을 거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sup>7)</sup> 만보정1368호분과 같이 인물생활풍속도나 장식문양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고분에 유장 설치가 이루어진 예이다. 한쪽 벽면에 휘장을 거는 형식이 태왕릉에서 출토된 도금동만가와 같은 것이 걸린 자리가 아닌지 추정하게 한다.

7) 池内宏, 『通溝』 卷下, 日滿文化協會, 1940, p.39.

마선구1호묘(서향)는 묘주부부도(동벽), 무용도(남벽), 개마무사도(북벽)가 있다. 궁륭식 천정의 네면 정중앙의 아래쪽에 치우친 곳에 각각 작고 네모난 구멍 1개가 있는데 구멍 안은 계단모양으로 쌓았다. 목질부속품을 세웠던 것으로 여겨진다. 묘실 중앙에 원형기둥이 세워져 있다. 또한 철제 갈고리 1점이 묘실 북벽 아래에서 출토되었다. 원래는 네 벽 상방 花朵중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직 花心에 녹이 쓴 흔적이 있는 작은 구멍이 남아 있다.

장천1호분은 전실은 인물생활풍속도가, 후실은 연화문(벽)과 日月星宿圖(천정)가 장식되었으며 벽에 거는 휘장용 못 자국이 동벽(후벽) 8개, 남벽과 북벽에 각 7개가 있다. 후실의 남쪽 관대에서 紅松의 관목 잔편이 발견되었는데 삼베로 둘러싸여 黑漆이 된 것이다. 또한 관대에 織錦壁衣와 유사한 編織도안이 있다고 한다.

장천2호분은 남·북 이실에 왕자유운문, 묘실문 앞면은 남성 문지기, 뒷면은 시녀가 그려져 있으며, 주실의 네 벽과 천정은 연화문이 있다. 주실의 네 벽에 모두 못 구멍이 있는데 동벽 8개, 남·북벽 각 5개, 서벽 4개이다. 못 자국의 거리는 동벽은 0.36m, 남·북벽은 0.58m이다. 동벽 남단과 서벽 북단에는 도금된 쇠고리가 남아 있다. 또한 2기의 석제 관대 위에 목관 칠피 잔편, 銅質의 도금된 매화꽃장식이 나왔으며, 도금 벽고리도 2점 출토되었다. 남쪽 관대 서북쪽 모서리에서는 문양을 製織한 경중조직의 經錦(23cm)이 출토되었다. 붉은 황색 형견 바탕에 심홍색과 진한 남색의 도안 꽃무늬를 수놓았다. 관대, 목관, 도금동제 벽걸이, 매화관식잔편과 같은 장구와 장식 재료가 함께 출토되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집안지역 후기벽화고분의 (휘장걸이용) 못 구멍은 중기의 벽화고분과 차이가 난다. 통구 사신총은 네 벽의 중간지점이자 벽과 천정의 경계선을 이루는 곳에 나왔다. 黑漆 목관 잔편이 묘실 동북 모서리에서 4점 출토되었다.

오회분 4호묘도 천정에 네 군데 정도 못 자국(직경 4-6cm, 깊이 12cm)이 있다. 적어도 3개의 못 구멍이 남벽쪽에서 발견되는 듯이 보인다. 이는 묘실 남서쪽 모서리에 놓인 石祭臺(길이 1.78m, 너비 0.87m, 높이 0.2m)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주·홍색 漆片형태의 棺木잔편이 출토되었다.

오회분5호묘도 천정에서 못 구멍이 발견된다. 천정 1단의 중앙에 난 구멍(직경 5cm, 깊이 1.5~2cm)은 벽화의 용의 입부분에 해당되며 보석이 감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남벽에 있는 梁枋아래와 연도의 동서 양벽에도 직경 5cm, 깊이 7cm 정도의 작은 원형 구멍 3개가 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의 사진자료를 보면 관대에 그려진 문양은 (왕자)유운문으로 보인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네 벽 망상문의 상하 모서리에 작은 연꽃의 꽃술 부위에 원형의 흑색 안료가 접착되어있는 흔적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금동의 얇은 편이 붙어있었다고 한다. 비슷한 원형의 접착 안료는 양방과 천정에도 보인다. 불규칙하게 분포되어있는데, 양방의 각 면에는 약 5-6개, 제1피임들의 아래 가장자리에는 각각 2개, 제2피임들의 아래에는 각 면에 3-4개가 있었고, 그밖에 묘실 천정 아랫면과 제2피임들 하부에도 한두 곳 관찰된다고 한다. 벽면에 금동장식이 뿔혀진 흔적 또는 도금의 꽃장식이 붙어있던 흔적으로 본다. 벽면에 금동장식이 뿔혀진 흔적이라면 태왕릉 출토 도금동만가와 같은 것이 부착되었던 흔적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으로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못과 못자국의 출현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실제 벽화고분 안에 이러한 못의 설치를 통하여 어떠한 식으로 휘장이 설치되었는지, 또한 함께

발견되는 직물 잔편과 목관 잔편이 어떻게 묘실 안에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벽화의 묘주도에 그려진 휘장과 휘장이 처진 건물도를 통하여 대략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묘주도에서 주목되는 특징 중 하나는 묘주가 앉은 전각과 같은 공간을 덮고 있는 휘장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집안지역에서 묘주도가 처음 나타나는 각저총, 무용총의 주실 북벽의 묘주도는 여러 겹으로 두껍게 말려 젖혀진 휘장 아래 묘사되어 마치 무대와 같은 공간이 형성된다. 평양·안악지역의 쌍영총, 안악2호분, 매산리수렵총, 약수리벽화분의 묘주도도 둘둘 말려 젖힌 휘장이 강조되었다. 쌍영총의 묘주도는 이중의 구조물 안에 들어있는데 휘장이 집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삼실총 제1실은 네 벽 상단에 홍색과 황색 두 색의 휘장을 그렸으며 남벽 휘장은 바람에 펄럭이는 것 외에 璽珞이 있다. 동벽(후벽)은 4채의 가옥이 그려져 있다. 세 번째 가옥은 처마 아래에 홍·황색 두 가지 색의 휘장이 있는데, 주홍색 기둥에 연결되어 있고, 가옥 내의 후벽 벽화에 황금색 비단 도안의 壁帳이 있다.

'王'자 또는 '士'자 유운문이 묘주도 또는 神像형 인물상의 배경의 휘장 장식으로 사용된 감신총, 옥도리 벽화고분, 쌍영총은 평양·안악지역 벽화고분 가운데 집안지역 벽화고분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고분들이다. 천왕지신총은 후실 네 벽이 모두 연꽃장식귀갑문으로 덮여있고 묘실 북벽 상부에 가옥 안에 앉은 묘주도가 있다.<sup>8)</sup> 묘주장방도가 순수장식 문양도와 결합된 예이다. 천왕지신총의 연화문은 간성리 연화총과 함께 집안 계열로 분류되며 5세기 집안 계열 연꽃 표현의 특징을 보인다.<sup>9)</sup> 천왕지신총은 묘실 내부에 목조 가옥의 부조를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고구려 고분의 장구와 관련된 유물 중에 꺾쇠, 걸고리, 관정, 관고리 등이 있다.<sup>10)</sup> 꺾쇠는 목곽에 사용된 것으로, 걸고리못은 광이나 실의 벽에 휘장을 거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꺾쇠나 걸고리는 실과 광 모두에서 출토된다고 한다. 벽화고분이 아닌 적석총 중에서 장구(목곽, 목관, 꺾쇠, 걸고리, 관정, 관고리)가 출토된 사례는 우산하 2112호묘, 장군총, 천추총, 태왕릉 등이 있다.<sup>11)</sup>

통구 사신총과 오희분, 사회분 등이 주변에 분포한 우산하 211호묘에서는 꺾쇠, 걸고리, 관정, 용석, 기와가 출토되었다. 관못 34건(목관), 철제 꺾쇠 45건(목곽)이 출토되어 관정과 더불어 목곽과 목관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와 등 건축구조물은 대부분 석광 내 서부와 서면 계단 바깥에서 출토되었다. 금·은·금동 장식품(금제 실, 금제 보요장식, 금동 보요, 6판 연화문 장식, 6판 매화문 보요장식, 5판 매화문 단추장식 등)이 대량으로 나왔다.

목곽묘나 목실묘에서 출토되는 걸고리로 볼 때 목재로 이뤄진 광이나 실의 벽에 휘장을 거는 것이라면 그 휘장에는 중국 한 대를 중심으로 한 목곽들의 벽에 거는 帛畫와 같이 그림이 그려졌을 가능성을 깊이 고려해야 하며, 고구려 고분벽화가 이 목곽과 목실묘의 벽화에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주목된다.<sup>12)</sup>

8) 『古蹟調査特別報告 第五冊 - 高句麗時代之遺蹟 下冊』 1930, 도 595, p.170. 국립중앙박물관 편, 『고구려 무덤벽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모사도』, 국립중앙박물관, 2006, p.81.

9)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2000, pp.158-160.

10) 김용성, 「고구려 적석총의 분제와 묘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북방사논총』 3호, pp.115-154. 손인걸·지용, 『집안고구려묘장』, 香港亞洲出版社, 2007.

11) 김용성, 「고구려 적석총의 분제와 묘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북방사논총』 3호, pp.115-154.

12) 김용성, 「고구려 적석총의 분제와 묘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북방사논총』, 3호, p.132.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못 자국의 형태상 묘실 전체를 덮는 천막(?)과 같은 형태로 유장이 설치되었다면 그 형태는 내부의 목관, 목곽을 덮는 구조물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구려 고분 중에서 목관이나 목곽이 원형 그대로 발견된 사례는 없으나 가형 석곽 또는 가형 석실이 태왕릉과 절천정묘에서 나타난다. 태왕릉 석실 내부에 맞배지붕의 家形 석곽(또는 가형 석실)이 안치되어있다.<sup>13)</sup> 산성하 절천정묘는 천장이 집지붕 형태를 띠고 있어 묘실 자체가 태왕릉과 같이 석조 가옥을 재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14)</sup> 또한 태왕릉에서는 청동방울, 청동案足과 함께 금동 幔架(길이 2.68m)가 나와 묘실 안에서 실제 휘장이 어떻게 설치되었을까에 대해 중요한 실물 자료를 제공한다. 왕릉급 고분에서 출토된 것이고 금동으로 제작되어 태왕릉보다 크기가 작은 고분들에 사용된 만가는 재료나 크기가 차이가 날 것이다. 현재 대부분 벽화고분에서 발견되는 못과 못 자국만으로는 묘실 벽면에 휘장을 둘러치기에는 약한 구조이다. 그러나 태왕릉 출토품과 같은 만가를 벽에 거는데 못과 못 구멍이 사용되었다면 묘실 전체 또는 한 벽면에 휘장을 거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회분 5호묘의 벽면 상단에 금동장식이 뿔혀진 흔적 또는 도금의 꽃장식이 붙어있던 흔적은 태왕릉 출토 만가와 같은 것이 걸려있었던 흔적일 수도 있다.

### III. 중국 고분의 유장 설치 사례

다음에서는 고구려의 부족한 실물 사례를 보충하기 위해서 중국 한위진남북조 고분의 출토 사례(帷帳架, 병풍, 石榻, 석관, 석곽 등 고분 내 구조물)를 살펴보고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설치 형태를 추정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1957년 하남 낙양 소둔촌 동북에서 발견된 戰國시대 彩繪 大墓(길이 10m, 너비 9m, 깊이 12m)는 墓壙 네 벽과 묘도에 홍, 황, 흑, 백의 네 가지 색의 도안이 있는데 이러한 彩繪는 帷幕과 畫幔 작용의 壙壁裝飾으로 추정된다.<sup>15)</sup> 호남 장사 마왕퇴 1호묘의 북실에서 발견된 출토된 병풍은 묘주의 영좌를 구성하는 상징적 부장품 중 하나이다.<sup>16)</sup> 마왕퇴 1호묘는 관위에 놓였던 'T'자형 백화, 세 개의 관에 그려진 칠관화, 도용 등 다양한 부장품이 상호작용하며 묘주를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왕퇴 1호묘의 병풍화는 장천 2호분의 '비단 벽걸이 모양'의 그림처럼 운기문 장식의 틀을 사용하고 있다. 붉은 색을 주조로 하여 용과 장식문양을 그린 점은 중국에서 가장 이른 벽화고분으로 여겨지는 하남 영성 시원벽화묘의 천장벽화와 유사하다. 시원한묘 벽화의 연원을 마왕퇴 1호묘의 칠관화와 백화에서 찾는 견해가 주목된다.<sup>17)</sup>

마왕퇴 1호와 3호묘의 병풍화, 칠관화, 백화(관을 덮거나 묘실 벽에 걸린)의 관계는 고구려의 장식문양과 고분 내의 못과 못자국과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마왕퇴 1호묘의 세 번째 칠관의 좌측 관관화도 구도와 색채면에서 시원한묘의 천장벽화와 유사하다. 관은 일종의 "器具"(葬具)로서<sup>18)</sup> 고분 장식의 발달에서 시원묘의 벽화

13) 김용성, 「고구려 적석총의 분제와 묘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북방사논총』 3호, p.130. 권오영, 「고구려 횡혈석실묘의 매장 프로세스」, 『횡혈석실묘의 수용과 고구려 사회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2009, p17.

14) 김용성, 「고구려 적석총의 분제와 묘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북방사논총』 3호, p.128.

15) 考古研究所洛陽發掘隊, 洛陽西郊一號戰國墓發掘記, 考古, 1959년 12기

16) Wu Hung, *Art of the Yellow Spring*, University of Hawaii, 2010, pp.64-68.

17) 鄭岩, 「關於墓葬壁畫起源問題的思考-以河南永城柿園漢墓爲中心」 『古宮博物院』 2005年 3期, pp.56-160.

는 葬具의 장식계통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횡혈식 고분의 정방형 묘실 공간은 칠관의 구조와 유사하다. 공간이 확대되면서 칠관 위의 채색회화가 묘실의 벽면으로 옮겨졌을 수 있다.<sup>19)</sup>

고구려 벽화고분의 못자국과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운 예가 하남 영성 시원묘(기원전 136-118년)이다. 벽화가 그려진 주실의 네 벽면을 따라 방형 구멍이 56개나 뚫려있다. 槽 안에는 회색 재(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썩은 나무)가 남아있다. 주실 네 벽 상단에 있는 구멍과 그 안의 목재 흔적으로 미루어 원래 천막, 간이건물 등을 치는 목조구조의 장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0)</sup> 묘실 천장의 벽화와 대응하는 주실 바닥 부분에 하나의 平臺가 설치되었는데 주실 총면적의 1/3을 차지한다. 보안산 1, 2호묘에도 묘실 벽면에 특이한 형태의 방형 구멍이나 가로 세로의 홈이 많이 발견되어 묘실 내의 구조물 설치에 관하여 앞으로 보다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중국 한위진남북조 고분에서 유장가가 종종 출토된다. 나무나 천은 대부분 삭아 없어졌지만 금속제 유장가가 묘실 안에서 출토되어 묘실 내에서 유장의 설치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한의 하북 만성 유승묘는 中室에서 청동 帷帳架가 두 세트 출토되었는데 유장가를 조립한 결과 길이 2.5m, 너비 1.5m, 높이 2m의 두 채의 목조 구조물이 재구성되었다. 이들 목조 구조물은 錦帳으로 덮여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후한의 하남 밀현 타호정묘와 후사곽묘에도 묘실에 제대가 설치되었으며 제대 주위에 목조 구조물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타호정1호묘의 中室 西段에는 바닥에 제대를 설치하였다. 평대의 위에 작은 祭壇形 건축물을 설치하고 평대 주위 벽과 천장에 원래 帷帳을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sup>21)</sup> 타호정 2호묘의 中室 西段에도 제대가 설치되어있는데 제대의 서, 남, 북 삼면 가장자리에 너비 약 0.06m, 깊이 약 0.05m의 石槽가 있고 석조 안에는 썩은 나무흔적이 발견된다. 중실 서단의 천장과 벽면에 목판을 끼워 넣고 목판 위에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sup>22)</sup> 하남 밀현 後土郭에서 발견된 세 기의 고분에서도 묘실 내의 중실 서부에 각각 평대가 설치되고 평대의 동쪽 가장자리의 초석 위에 石槽가 있고 그 안에 건축 부재가 설치된 흔적이 있다고 한다.<sup>23)</sup>

중국에서 병풍은 先秦에서 漢代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생활가구로 한위진대 고분벽화와 화상석에서는 병풍이 묘주도의 배경으로 종종 그려진다. 하북 안평 녹가장 동한 벽화고분과 요녕 요양지역 한위진 벽화고분에 보이는 묘주 정면초상과 묘주부부 병좌상이 그 예이다. 고구려 안악 3호분과 유사한 묘주도가 있는 요녕 조양 원대자 위진묘는 묘주를 둘러싼 병풍에 고구려의 것과 같은 유운문이 장식되어있다.

벽화고분에 휘장이 그려진 예로는 西安 曲江 翠竹園 西汉壁画墓(서한 후기)가 있다.<sup>24)</sup>

- 
- 18) ‘褚’, ‘帷’과 같은 棺飾에 대해서는 『漢代喪葬禮俗』 pp.83-85. 호북 강릉 봉황산 167호묘에서 보존이 잘된 관식이 출토된 예가 있다. 李如森, 『漢代喪葬禮俗』, 沈陽出版社, 2003, p.85의 도판.
- 19) 마왕퇴 3호묘에서 발견되는 內棺 좌우측판 위에 걸린 백화는 그 성격이 T자형 백화와 다르며 벽화와 보다가깝다. 승선계통의 벽화가 그려진 시원묘의 조영 시기는 궁정에서 많은 방사들이 각종 기이한 法術을 사용하던 시기이다. 시원묘 벽화와 같은 종류의 벽화는 단지 심미적 장식만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 기능의 “道具”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鄭岩, 「關於墓葬壁畫起源問題的思考-以河南永城柿園漢墓爲中心」 『古宮博物院』 2005年 3期.
- 20) 鄭岩, 「關於墓葬壁畫起源問題的思考-以河南永城柿園漢墓爲中心」 『古宮博物院』 2005年 3期, p.63, 도9. 河南省文物研究所, 『密縣打虎亭漢墓』, 文物出版社, 1993, p. 158-162, pp.330-332, pp.411-412, 도22.
- 21) 河南省文物研究所, 『密縣打虎亭漢墓』, 文物出版社, 1993, p.16.
- 22) 河南省文物研究所, 『密縣打虎亭漢墓』, 文物出版社, 1993, p.201.
- 23) 河南省文物研究所, 『密縣打虎亭漢墓』, 文物出版社, 1993, p.338. 黃曉芬 著, 金용성 역, 『한대의 무덤과 그 제사의 기원』, 학연문화사, 2006, p. 329

묘실 네 벽 상단에 운기문이 그려진 帷幔이 생활풍속도와 天象圖 사이에 묘사되었다. 동벽 가운데에는 白紅色 云气纹이 그려진 방형 圍屏(높이 1.2m, 너비 1.1m)이 한 점 묘사되었다. 陝西 旬邑縣 百子村벽화묘(동한 후기)도 묘실 네 벽에 흑색과 적색의 휘장이 둘러쳐져있으며 후실 북벽에 황색으로 '工'자형 天門을 칠하고 그 위에 붉은 선으로 방형 문을 그렸다.

위진남북조 벽화고분에서 나온 유장가로 잘 알려진 예는 하남 낙양의 曹魏 正始八年墓(247년)와 요녕 조양 원대자 위진벽화묘가 있다. 曹魏時期 분묘상부에 祀廟 등의 묘상건 축물의 축조를 금지한 후로 묘실 내부 공간에서의 奠祭가 중시되기 시작한다. 묘실의 전실 혹은 주실의 앞쪽 부분에서 帷帳施設, 漆案, 漆盃, 盤, 牀榻 평상과 걸상, 酒器가 나오는데 이는 모두 전제와 연관성이 있는 기물들로 여겨진다. 서진시기 묘실구조는 다실구조의 前堂이 단실 혹은 쌍실로 감축되며 묘실내부에 牀榻를 설치해 脯酒를 차려놓고 奠祭를 지낸 것으로 확인된다. 남경지역과 동북 요녕지역의 동진시기 묘장에서 전제와 연관이 있는 食器와 帷帳施設 등이 출토된다.<sup>25)</sup>

감숙 돈황 불야묘만 37호묘(위진)는 묘실의 후벽에 供臺가 설치되고 그 앞에 황색으로 帷幔을 그렸다. 供臺 위로, 그리고 남측과 북측 목관 위로 황색 견직 帷幔이 얹혀진 木棍이 걸쳐져있다. 유장이 벽화와 구조물로 동시에 표현된 경우이다. 불야묘만 133호묘는 전실에 달린 벽감 안에 황색 帷帳을 그렸다.

중국 위진남북조~수당 미술에서는 병풍의 화면이 점차 확대되면서 병풍화의 실내장식 기능이 더욱 커지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sup>26)</sup> 이는 고구려의 병풍과 휘장 장식문인 왕자 유운문과 연화문이 확대 적용되면서 묘실 실내 전체를 장식하게 되는 변천 과정과 비교된다.

중국에서 병풍의 장식도안은 실내예술장식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 남북조시대부터 많은 화가들은 일찍이 직접 병풍화 창작에 참여하였다.<sup>27)</sup> 북위 文明皇太后는 平城 교외의 方山에 永固陵을 조영하면서, 분구 앞에 축조되었던 祠堂의 내외에 靑石병풍을 두르고, 충신, 효자, 열녀 등 제재의 설화도를 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sup>28)</sup> 평성의 궁내의 皇信堂의 四周에도 題名이 붙은 성인, 충신, 열사도가 그려져 있었다.<sup>29)</sup>

산서 대동 사령에 위치한 북위 벽화고분은 동벽에 파상선 무늬가 그려진 병풍이 둘러쳐진 묘주부부도가 있다.<sup>30)</sup> 대동 지가보 북위 벽화고분에도 장방 아래 장식문양이 있는 병풍을 뒤로 하고 앉은 묘주부부도가 있다.<sup>31)</sup>

위진남북조 고분에서는 병풍이 묘주도의 배경으로 사용되는 외에 죽림칠현과 여사잠도와 같은 주제의 그림이 장식된 병풍이 실제로 묘실 안에 부장되거나, 벽면의 그림으로 그려졌다. 북위 후기에는 효자도, 귀족 풍속화를 새긴 병풍석을 석제 장식관대와 함께 이용

24) 西安市文物保护考古所, 「西安曲江翠竹园西汉壁画墓发掘简报」, 『文物』, 2010년, 1기

25) 조운재, 296. 조양원대자동진벽화묘, 문물, 6기, 요녕성박물관문물대, 1984

26) 양홍, 「중국 한당시기 도시건축과 생활미술품의 변천」, 『미술사논단』, 28호, 2009, pp.231-232.

27) 양홍, 「중국 한당시기 도시건축과 생활미술품의 변천」, 『미술사논단』, 28호, 2009, pp.231-232.

28) 大同市博物館·山西省文物工作委員會, 「大同方山北魏永固陵」, 『文物』, 1978년, 7기.

29) 南朝의 靑齊 徐州 지역 출신 張僧達, 蔣少遊 등이 그린 것으로 장소유는 평제호 출신으로 평성의 太廟, 太極殿 조영을 지휘하였다. 장승달도 아마 평제호 출신으로 여겨진다. 사마금룡묘의 병풍, 문명태후 영고릉의 효자 충신 제재 석병풍, 효문제의 황신당 벽화 등의 작품 제작에 대해서는 太和 연간 '평제호' 출신 미술가의 활약과 깊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蘇哲, 『魏晉南北朝壁畫墓研究』, 白帝社, 2006, pp.89-92.

30) 大同市考古研究所, 「山西大同沙岭北魏壁畫墓发掘简报」, 『文物』, 2006년 10기.

31) 劉俊喜, 「大同智家堡北魏墓棺板畫」, 『文物』, 2004년 12기.

하는 것이 유행하였고 북조에서는 고급귀족의 묘실 내에 관대를 둘러싼 병풍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32)

철병풍이 발견된 예는 산서 대동 司馬金龍墓(474-484년)가 있다.<sup>33)</sup> 사마금룡묘의 후실에서는 力士, 獸面, 팔메트의 부조장식이 있는 전형적인 북조 장식 석관대가 나왔으나 그것과 조합된 석병풍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후실 남부와 전·후실을 있는 甬道에서 흩어져있는 목제 병풍 판 5매와 약간의 잔편, 병풍 礎石 3점, 관대 초석 1점이 발견되었다. 사마금룡묘 병풍은 관대 병풍, 즉 葬具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sup>34)</sup>

대동지역에서 발견된 북위 고분 중에서 磚築과 石雕의 棺床이 많이 발견된다. 산서 대동 南郊區 田村 北魏墓는 서향의 단실묘로 묘실 북벽에서 鐵環이 달린 石棺床(길이 2.28m, 너비 1.26m, 높이 0.25m)이 있으며 관상 상부에서 인동문이 그려진 木杆(직경 4cm, 남은 길이 22, 25, 64cm)이 발견되었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이 채회 목간은 관상 위에 幔帳을 설치할 때에 관상의 입면의 철환에 끼워 넣어 만장을 받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동지역에서 출토된 북위 고분에서 답상에 帷幔을 설치한 도상이 많이 발견된다. 앞서 언급한 대동 사령 북위벽화묘 묘실 동벽 벽화의 묘주부부도에도 있으며, 대동 지가보 북위 석곽 벽화묘의 석곽 북벽 묘주부부 대좌도에 榻의 양측에 기둥을 받쳐 세운 帳架가 있으며 그 위에 유만을 장식하고 있다. 진촌 북위묘에서 출토된 실물 자료는 이러한 북위시대의 고분 회화에 보이는 帷幔과 帳架의 구조와 축조방법에 대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sup>35)</sup>

산서 대동 송소조묘는 묘실 중앙에 목조가옥을 모방한 前廊이 있는 가형 석곽이 나왔다.<sup>36)</sup> 현재까지 중국 위진남북조수당고분에서 발굴된 석조 가형 장구는 모두 5건으로 북위 태화원년(477년)부터 隋 開皇12年(592)의 115년 사이에 제작된 것이다. 大同雁北師院北魏墓群 중에서 M5의 송소조묘(477), 대동시 智家堡 北魏墓(태화8년~태화13년, 484-489), 하남 낙양의 寧懋墓(북위 孝昌三年, 527), 西安市 井上村 동쪽의 北周 史君墓(북주 大象2年 580), 太原 王郭村 虞弘墓(隋 開皇12年, 592)이다. 가형 목곽 잔편이 출토된 예로는 산서 壽陽의 북제 庫狄廻洛墓가 있다.<sup>37)</sup>

송소조는 사적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墓銘磚에 돈황인으로 적혀 있다.<sup>38)</sup> 북위 태무제가 太延五年(439년) 북량을 평정한 후에 돈황에서 평성으로 온 宋繇 일족과 밀접한 관계로 추정된다. 송소조묘에서 天井과 過洞을 설치한 것은 돈황일대의 고분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돈황에서 발견된 서진 十六國 고분 중에서 천장이 발견된다. 또한 후에 발굴된 대동의 迎賓大道와 七里村 등 북위 고분 중에서 대형전실묘의 묘도에 천정과 과동을 설치한 예가 있다.<sup>39)</sup> 송소조묘는 평성시기 북량의 멸망과 평성으로의 인구 이주로 인한 서북지역과 동북지역의 문화 혼류 현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북위가 398년 평성에 수도를 정한 이후, 전쟁 사민 등으로 각 민족이 평성에 이주하면서 여러 민족의 상장습

32) 蘇哲, 『魏晉南北朝壁畫墓研究』, 白帝社, 2006, pp.89-93.

33) 大同市博物館·山西省文物工作委員會, 「山西大同石家寨北魏司馬金龍墓」, 『文物』, 1972년 3기.

34) 蘇哲, 『魏晉南北朝壁畫墓研究』, 白帝社, 2006, pp.83-89.

35) 大同市考古研究所, 『山西大同南郊區田村北魏墓發掘簡報』, 『文物』, 2010년 5기.

36) 大同市文物研究所, 『大同雁北師院北魏墓群』, 文物出版社, 2008, p.176-182.

37) 王克林, 「北齊庫狄廻洛墓」, 『考古學報』, 1979년, 3기.

38) “大代太和元年歲次丁巳幽州刺史敦煌公敦煌郡宋紹祖之柩”

39) 甘肅省敦煌縣博物館, 「敦煌佛爺廟灣五涼時期墓葬發掘簡報」, 『文物』, 1983년, 10기. 戴春陽, 張龍, 『敦煌祁家灣』, 文物出版社, 1994. 大同市考古研究所, 「山西大同迎賓大道北魏墓群」, 『文物』, 2006년 10기. 大同市考古研究所, 「山西大同七里村北魏墓群發掘簡報」, 『文物』, 2006년, 10기.

속이 단기간 내에 변화하지 않고 고분 구조와 葬具에 표현되었다. 북위 이후 북주와 수당의 대형묘에서 천장과 과동을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건축적 특징이 된다.

묘실 후벽과 좌·우벽에 병풍화를 그리는 관습은 북제시대까지 이어진다. 산서 태원의 서현수묘, 산서 태원 금승촌 북제 벽화묘, 산둥 제남의 마가장 도귀묘에도 병풍을 배경으로 앉은 묘주부부 또는 묘주도가 있다. 산둥 북제 최분묘는 단실묘로 북벽과 서벽 하단에 감이 있으며, 묘실 사면을 병풍화로 둘러싼 독특한 구성을 보인다.<sup>40)</sup>

북조 후기에는 소그드인들이 석제 관대와 병풍을 결합하여 위병석탑의 형식으로 묘실을 꾸민 사례(섬서 서안 출토 북주 安伽墓 圍屏石榻[大象元年 579], 섬서 서안 康業墓 圍屏石榻[北周 天和六年, 571]일본 미호미술관 소장 북제 石屏風,)가 있다.<sup>41)</sup>

중국의 위진 남북조 고분에서는 병풍화가 여러 첩의 형태로 확대되어 묘실 벽면을 넓게 감싸거나, 칠병풍 또는 석병풍의 형태로 묘실 내에 설치되었다. 또한 병풍의 장식 체제가 여전히 인물이 중심이 된다. 고구려 벽화에서는 병풍의 장식문양이 묘실 전체로 확대되지만 인물은 사라지고 장식문양만 남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의 당대와 그 이후에는 병풍화가 산수, 화훼 등 다양한 회화 체제를 망라하게 된다. 중국의 당나라 벽화고분은 북부 지방 고분의 구조를 계승하였지만, 묘주의 인물 표현을 없애고 대신 여러 폭의 병풍 이미지를 사용하여 관대를 둘러싸면서 묘실 벽을 장식하였다.<sup>42)</sup>

40) 臨朐縣博物館, 『北齊崔芬墓壁畫』, 文物出版社, 2002.

41) 山西省考古研究所, 『太原隋代虞弘墓』, 文物出版社, 2005. 陝西省考古研究所, 『西安北周安伽墓』, 文物出版社, 2003.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西安市北周史君墓石槨墓』, 『考古』 2004年 7期.

42) Wu Hung, *Art of the Yellow Spring*, University of Hawaii, 2010, pp.76-84.